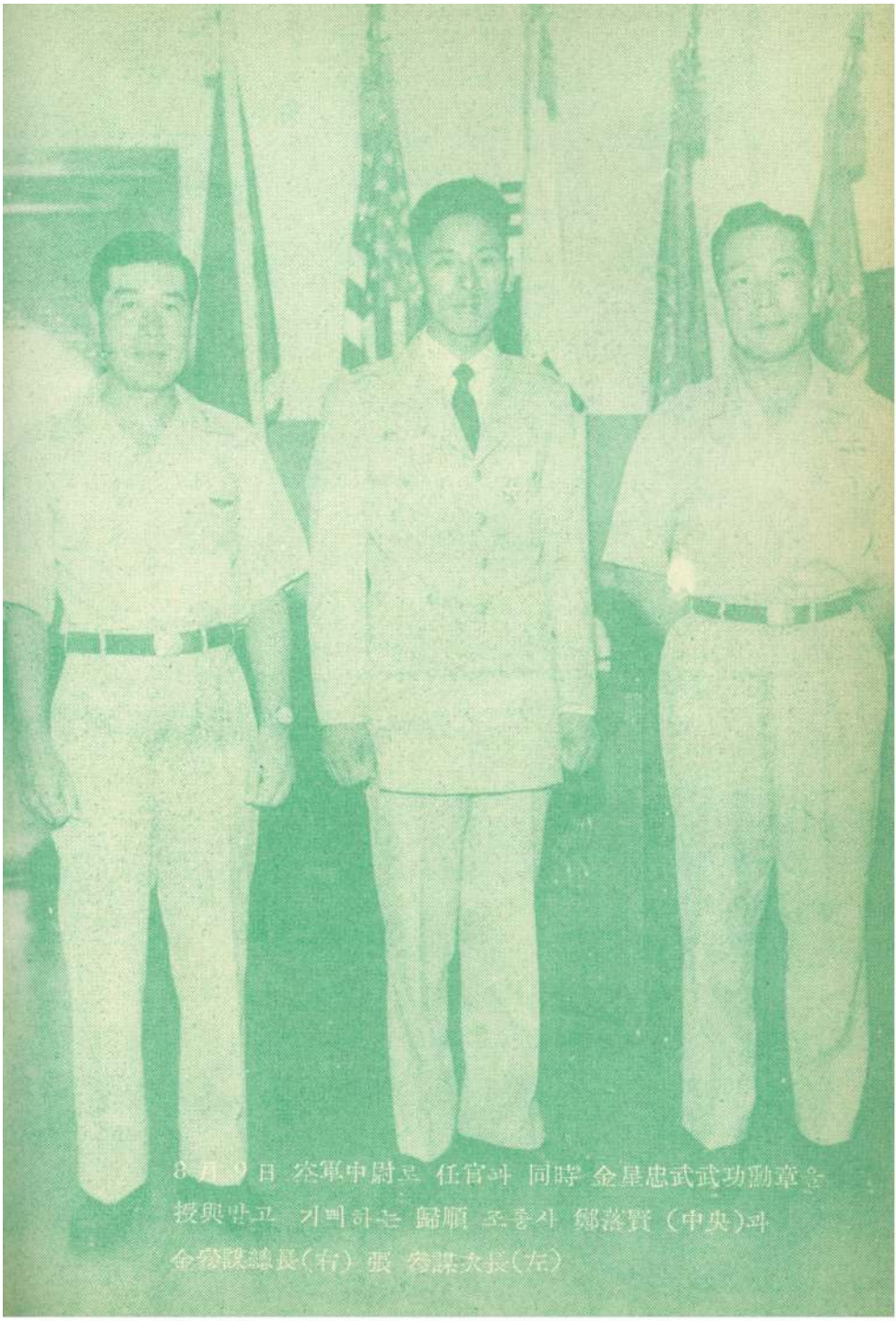
코메트

(檀紀四二八七年四月九日
第三種郵便物取扱認可)

第45號



8月 9日 空軍中尉로 任官과 同時 金星忠武武功勳章을 授與받고 기뻐하는 歸順 조종사 鄭務賢 (中央)과 金參謀總長(右) 張 參謀次長(左)

<趣味의 美術鑑賞>

오페라 觀覽席에서 본 舞踊

에드가·드가作

名作彫刻

十四歲의 舞姬

에드가・드가作
(1834~1917)

발바닥을 들여다 보는 舞姬　에드가・드가作 (1834~1917)

〈趣味의 美術鑑賞〉

오페라 觀覽席에서 본 舞踊

에드가 · 드가作
Edgar Degas

「드가」作品의 特徵은 움직이는 物體를 瞬時的으로 表現한데 있다。「舞踊의 畵家」라고 불릴만큼 그는 舞姬의 춤추는 場面을 모델로 많은 作品을 그렸던 것이다。

「파리」의 裕福한 銀行家의 家庭에서 자라난 「드가」는 오랜 習作期間을 古典硏究에 바쳐 처음에는 古典的인 堅實한 畵風으로 出發 歷史畵를 즐겨 그리다 차차 想像의 世界로 들어가 舞踊、카페、劇場等 近代的 民衆生活을 描寫하기에 이르렀다。

이 作品 역시 「드가」의 後期의 作品으로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바、그의 독특한 瞬時的인 表現法과 構圖、遠近法은 놀랄만한 效果를 나타내고 있다。

視線은 재빨리 앞의 어두운 部分에서 人事하는 舞姬의 밝은 곳으로 옮겨간다。그리고 後面의 돌며 춤추는 舞姬들에서 보는 훌륭한 色彩와 明暗은 「드가」 獨特의 것이라 하겠다。

(1984~1917)

코메트·제45호 목차

〈目次·扉·裏〉……李 喜 世

★ 오페라觀覽席에서 본 舞踊〈趣味의 美術鑑賞〉……에드가·드가

◇ 前國防部長官初度巡視次來訪
◇ 金參謀總長初度巡視
◇ 張盛煥少將 參謀次長에 就任
◇ 自由찾은 MIG機
◇ 空本禮訪 및 表彰

〈書報〉

〈卷頭言〉國軍의 날을 맞으며……蘇尙永 (二)

國軍의 날에 際하여……國防長官 權仲敦 (四)

國軍의 날 記念辭……參謀總長 金 信 (六)

第二共和國 憲法上의 特異點하나……黃山德 (八)

言論의 自由와 責任……李寬求 (十四)

特輯 國軍의 將來를 爲하여

國防機構改編案……李熙鳳 (十三)
—國軍組織法을 中心으로—

美國의 對韓援助展望……朴忠勳 (十九)
—軍事援助를 中心으로—

美國의 對極東戰略……李揆現 (二七)

極東의 集團安全保障……李元雨 (三三)

軍事經濟面에서 본 日本……鄭淳根 (三九)

共産圈에 있어서 中共의 比重……金用賢 (四四)

三三(詩)三

오오 四月에……柳 呈 (六八)

蒼空……黃錦燦 (七〇)

層階……金相華 (七二)

다이어먼드……李興雨 (七四)

南北統一論……金昌順 (七八)
—統一에 앞서 지녀야 할 우리의 態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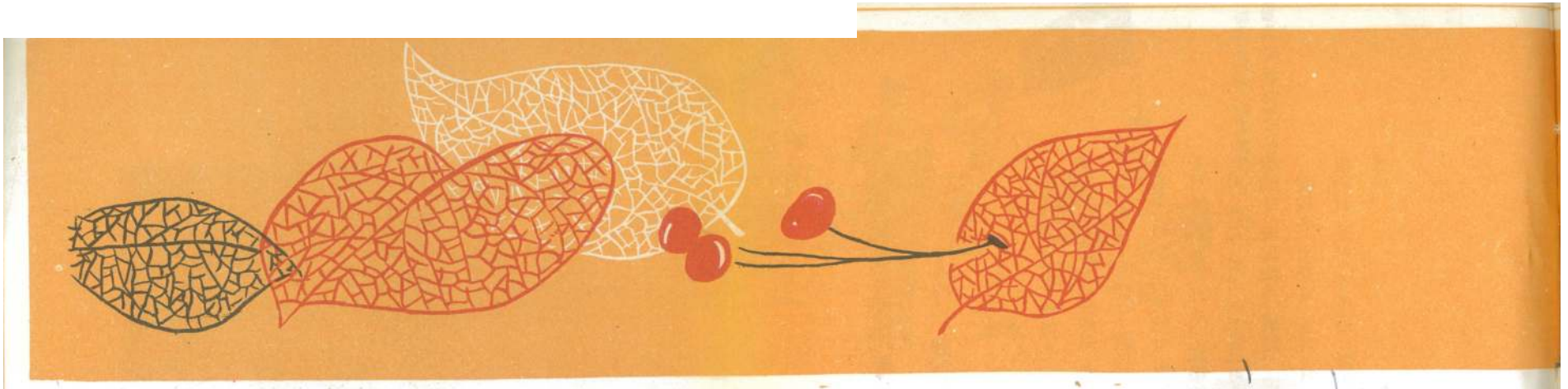
黎明期의 아프리카大陸……洪始煥 (八四)

將兵手記

조종사의 하루……朴容稷 (一二七)

整備士의 生活……金相好 (一三九)

候補生 日記……金烈會 (一四三)



生活과 趣味 — 나의 登山이야기 …… 李崇寧 (一〇四)
狩獵雜感 …… 徐雄成 (一〇七)
씨 없는 수박 栽培 …… 洪基昶 (一一三)

新國會의 議席과 分布 政局의 將來 …… 柳承範 (一二七)
保守兩黨制의 可能性 …… 金淳謙 (一四三)
經濟自立에의 條件 …… 李廷煥 (一四八)
外援의 實績과 受惠國의 할일 …… 夫琓爀 (一五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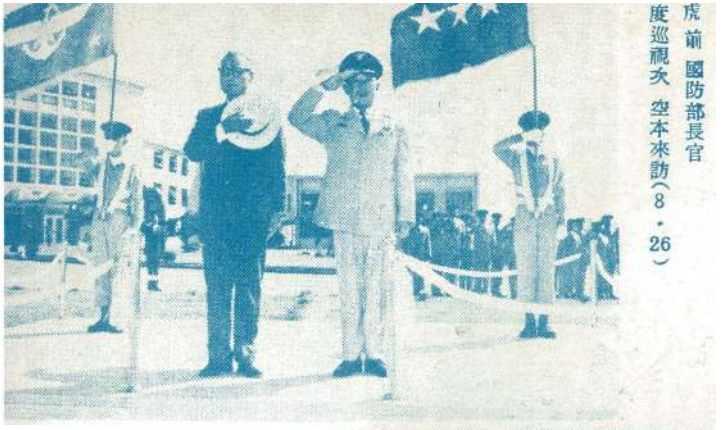
隨想·隨筆
怒여움의 가지가지 …… 金玆林 (一六四)
三角山에서 …… 朴明星 (一六六)
아나운서 生活 …… 文福順 (一六七)
내가 본 空軍 …… 黃貞順 (一六九)
보다 믿음직한 軍人의 印象 …… 全桂賢 (一七一)
달밤의 산책 …… 박제형 (一二五)
萬里浦의 落照 〈時調三首〉 …… 一石 (一二六)

韓國文化에 對한 世界人의 認識 …李惠求 (一三)
—海外紹介를 爲한 움직임—
近代民族主義의 이데오로기 …… 崔文煥 (一三三)
「法」앞에 「平等」의 現實的 意義 …… 李建鎬 (一三八)
韓國의 儒敎主義政治思想 …… 洪以燮 (一四三)

漫畵
漫畵에어쇼 …… 鄭雲耕 (一四九)
하늘의 日記 …… 李相昊 (一五〇)
急行避暑飛行 …… 鄭漢基 (一五三)
反 …… 金庚彦 (一五四)
電波妨害란 어떤것 …… 梁宸錫 (一五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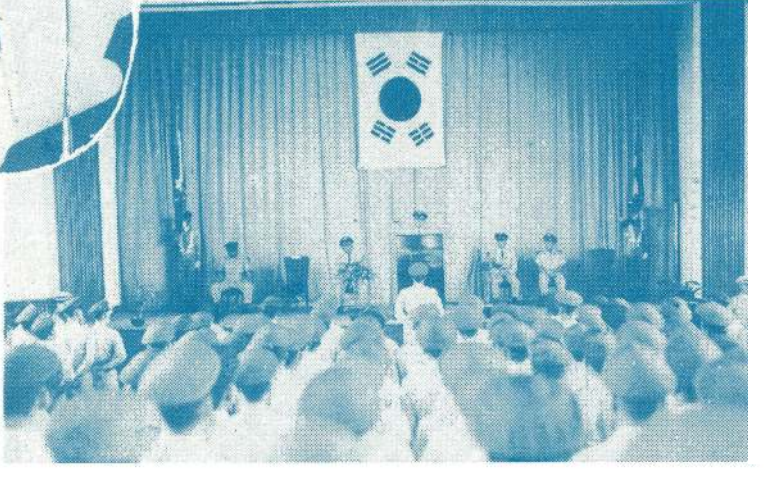
世界의 航空機發達史 …李仁燮 역 (一五六)

小說
土曜日의 挿話 …… 鄭麟永 (一六七)
雉岳山 夜話 …… 洪銀杓 (一八一)
밝혀진 등불 …… 오·헨리 原作 (一九六)



虎前 國防部長官
度巡視次 空本來訪(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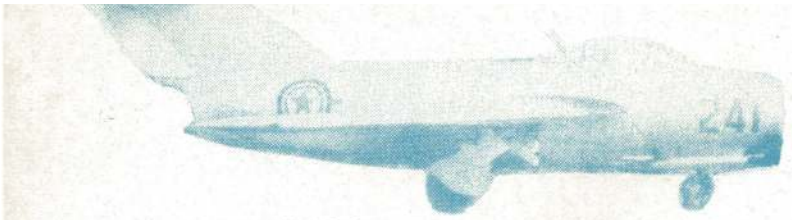
→金參謀總長 隷下部隊를
初度 巡視(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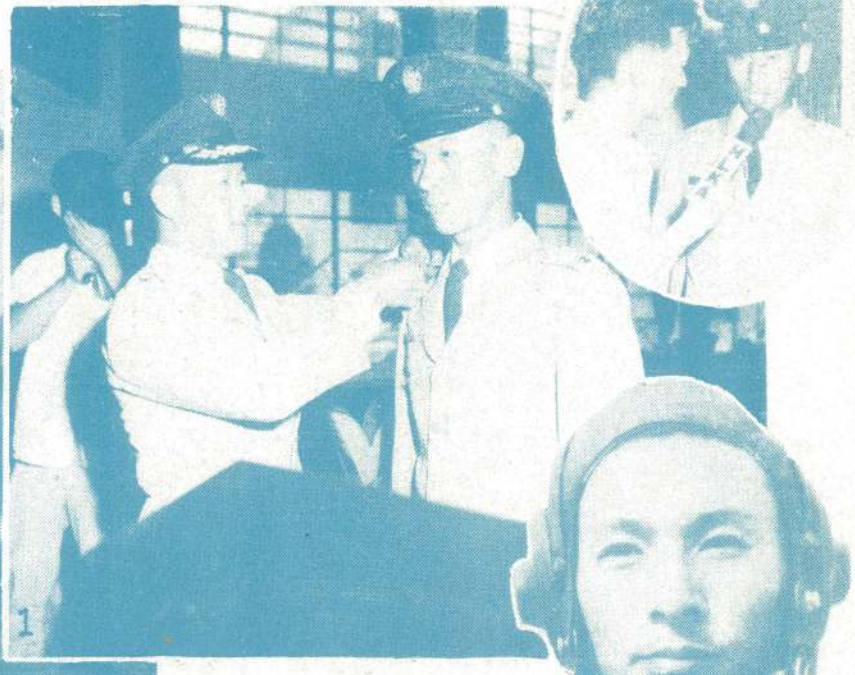
→張盛煥 少將 參謀次長에
就任(8·5)
國內·就任辭를 하는 張少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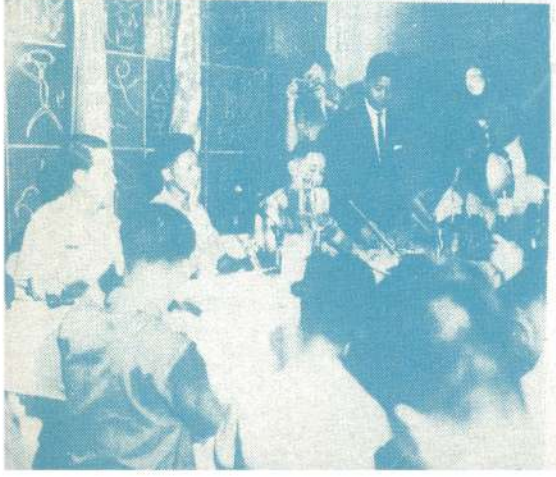
自由찾은 MIG 機

越南歸順 조종사 鄭落賢



↑自由大韓의 품으로 돌아온 MIG—15 機





< 寫 眞 說 明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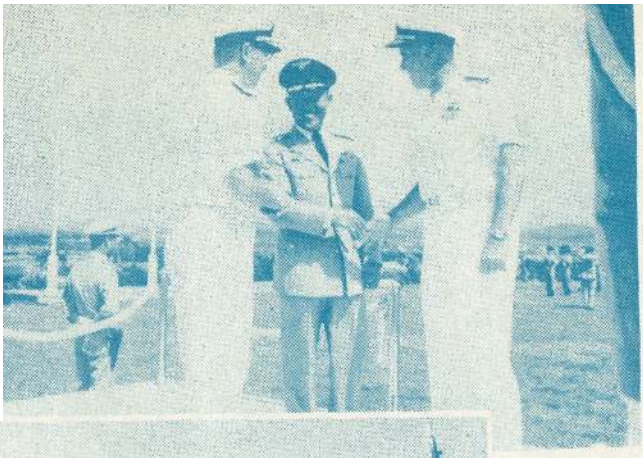
① 越南 조종사 鄭落賢君의 任官式 및 金星忠武武功勳章 授與式 光景(8·9)
金參謀總長이 中尉階級章을 달아주고 있다.
圖內 : 任官 및 受勳所感을 말하는 鄭中尉

② 鄭君의 義擧越南을 찬양, 握手하는 金參謀總長(8·3)

③ 來韓中이던 「랭켄」 美國防次官補도 鄭中尉를 接見,
그의 壯擧를 칭찬(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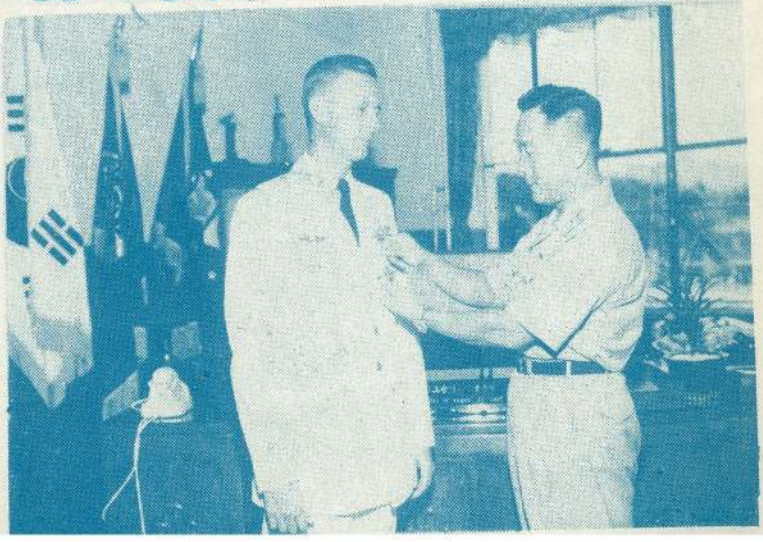
④ 쓰라렸던 共產治下의 北韓實情을 暴露하는 鄭中尉의 內外記者
會見光景(7·8)

⑤ 自由가 그리워····東草 大浦里 飛行場에 安着한 越南當時의
鄭落賢 조종사



駐韓美海軍司令官「A·J·타이러」少將과
W·프레쎄」少將 離就任人事次 空軍本部로
總長을 禮訪(8·12)

太平洋地區 美 空軍兵站司令官
「휴스톤」准將 來韓 人事次
←金參謀總長을 禮訪(8·12)



→前美三一四飛行師團 副師團長「자코비」大領
에게 金參謀總長으로부터 銀星乙支武功
勳章이 授與(8·11)

코 메 트

THE COMET

第 45 號

〈卷頭言〉

國軍의 날을 맞으며

政訓監 蘇尙永

은 겨레가 第二共和國 政府樹立에 感激하고 慶祝하여 마지 않는 民族의 慶宴이 베풀어지는 秀麗紅楓의 仲秋요, 軍服을 입은 우리들이 한결같이 기뻐하는 돌맞이의 十月이다。

眞正 우리의 民主政府樹立이며 成長한 國民의 軍隊의 돌맞이고 보니 어찌 그 벅찬 感激과 기쁨을 숨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歷史的 事實을 이룩하여 놓고 慶祝하면서도 잊을 수 없는 것은 豊年을 謳歌하기에 앞서 灼熱의 暴陽아래 구슬땀을 흘린 農民의 努力이 있었고, 第二共和國의 誕生에 앞서 十餘年間의 즐기찬 民權爭奪의 鬪爭과 겨룩한 生命의 犧牲이 있었음으로써 비로소 오늘의 聖業을 이룩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며, 自由와 正義를 爲한 힘의 象徵으로서 또는 國土防衛의 役軍으로서의 國軍이 오늘날과 같이 發展하기에는 險難의 길을 克服한 歷程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 先驅者들이 文字 그대로 「無」에서 出發하여 日就月將 發展되고 强化된 現實의 國軍을 눈 앞에 보면서 지난 十有餘年의 建軍史를 도리켜 볼 때 感慨 또한 새로운 바가 있다。

우리 空軍의 母體인 「航空基地部隊」가 「國防警備隊」 第一旅團司令部內에 創設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十三年前。爾來 우리 空軍은 그야말로 多事多難한 荊棘의 길을 걸어 왔다。

太極標識을 띤 L－4 十臺를 처음으로 祖國의 하늘에 날리던 劃期的인 感奮이나 온 겨레의 精誠어린 獻金으로 T－6 十臺를 購入하여 앞으로 大空軍이 되기를 期約하던 일들은 先覺者들의 눈물 어린 活動과 鬪志를 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다。

戰鬪機 한臺 없이 六·二五敵侵을 當해 悲憤에 떨던 開戰 初期、戰鬪機의 導入、出擊、또는 戰鬪飛行團의 創設、單獨出擊作戰의 敢行、戰鬪作戰과 併行하여 後方整備技術部門의 擴張等은 戰亂 또는 休戰期를 通하여 우리 空軍이 現代 戰術空軍으로서 發展하려는 눈부신 躍進의 過程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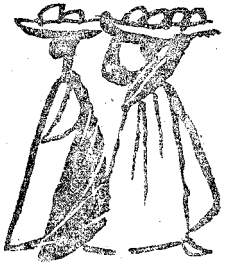
마침내 在來機種에서 젯트로 轉換하고 名實 共히 現代 戰術空軍으로서 舊套를 完全 脫皮했을 뿐만 아니라 管制警報機構를 友邦으로부터 引受받았으며 首都周邊에 또 하나의 젯트飛行團을 갖게 된 것은 實로 우리 空軍의 飛躍的인 發展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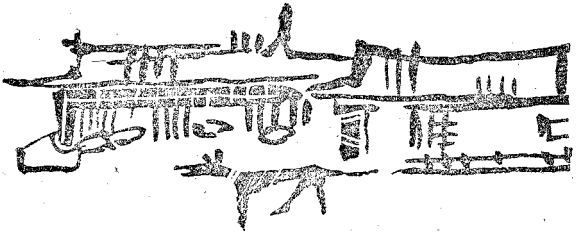
이렇게 空軍의 發展史를 回顧하면서 잊을 수 없는 것은 故李根晳將軍을 비롯하여 數많은 先輩戰友가 祖國守護의 蒼空에서 散華하였고 또는 殉職함으로써 國軍의 礎石이 되고 跳躍臺가 되었다는 거룩한 犧牲들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들의 遺志를 繼承하여 더욱 空軍을 發展시키고 國土防衛의 戰線에서 勝利를 期約함으로써 그들에게 報答해야 할 때가 그 어느때보다도 喫緊한 것이다。

祖國에 참된 民主主義가 澎湃히 胎動하는 벅찬 歡喜속에서도 우리는 保國衛民의 役軍이라는 自負心을 誇示함에 앞서 새로운 決意가 있어야 하며 榮光된 勝利의 最終目的을 達成하는데는 重疊되는 荊棘의 길을 힘차게 克服해 나가야 한다는 點을 銘心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戰技의 鍊磨로 戰力을 强化하고 民主軍隊가 갖추어야 할 모든 素養을 갖추어 名實 相符한 國民이 信賴할 수 있는 國民의 軍隊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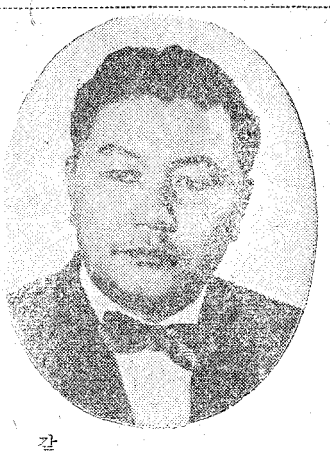




國軍의 날에 際하여

— 空軍將兵에게 부치는 글 —

國防部長官



오늘 十月一日은 建軍 第十二週年을 맞는 國軍의 날입니다。

本人이 國防의 重責을 맡은지 不過 한달도 채 못되는 오늘에 當하여 이와 같은 뜻깊은 慶祝日을 맞게 된 것을 無限한 기쁨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더구나 오늘 十月一日은 第二共和國의 新政府樹立을 祝賀하는 慶祝日임에 또한 그 意義 더욱 큰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볼때 우리 空軍은 將兵 여러분이 잘 周知하는 바와 같이 오늘의 空軍으로 發展되기까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波瀾曲折이 많았던 것입니다。

아직 記憶도 새로운 六·二五 共產侵略戰爭에서 우리 空軍은 練習機 程度의 戰鬪能力으로 共產軍과 對敵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뼈저린 過去가 오늘과 같은 發展된 空軍力을 가지게 된 近因이 되였다고 보는 바입니다。

지난 十餘年前 不過 몇 幹部要員으로 構成된 航空隊로부터 發足을 본 空軍이 오늘날은 新銳「제트」戰鬪機를 保有하였고 새로운 戰術로써 武裝된 强力한 戰術空軍의 位置에 서게 되였음은 本人은 勿論 全國民들도 마음 든든히 믿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只今 世界는 日益月加로 科學文明이 高度로 發展을 거듭함에 따라 自動的으로 戰爭樣式도 變遷되고 있으니만치 더욱 더 奮發해서 科學의 向上과 아울러 新戰術에 能通한 空軍으로써 如何한 戰爭形態에도 對處할 수 있는 戰鬪力을 確保치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오늘도 來日도 共產敵軍은 再侵略準備에 餘念이 없으며 自由의 天地이 平和스러운 우리 南韓땅을 虎視眈眈노리고 있음을 再認識하고 뼈저린 六·二五戰亂의 가진 苦楚속에 자라난 過去를 想起하여 다시는 이와같은 恥辱的인 前轍을 밟지 않도록 覺醒心을 높여야 하겠읍니다。

끝으로 長足의 發展을 爲하여 努力하는 여러 空軍將兵에게 謝意를 表하며 기쁨속에 맞는 이날이 더욱 더 隆盛發展하는 좋은 契機가 될 것을 衷心으로 바라 마지 않는 바입니다。

〈建軍 第十二週年 國軍의 날〉

記念辭

空軍參謀總長
空軍中將 金 信

祖國에는 새로운 歷史가 始作되고、國民은 다 같이 繁榮을 누릴 수 있는 祖國建設에의 希望과 意慾에 가슴부푼 오늘、平和를 爲한 힘의 象徵으로서의 우리들 國軍은 새 理想과 決意로써 이 날을 맞아야 할 것입니다。오직 祖國의 自由와 獨立을 爲한 참된 役軍이 될 것을 期約하면서 建軍의 大業에 着手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十二年前의 일이었읍니다。그 以來 우리 國軍이 걸어온 길은 비록 險難했으되、즐기찬 前進을 거듭해 왔읍니다。

그리하여 오늘、우리는 現代化한 莫强의 六十萬大軍에의 發展을 慶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赤手空拳으로 오직 나라와 겨레를 爲하는 一念에서 出發했던 그 날을 돌이켜 보면 今昔의 感이 있읍니다。

十年前 우리는 凄絶을 極한 民族의 大受難 六·二五를 當하여、敵에 對峙할 戰鬪機 한臺도 없이 切齒扼腕코 奮戰을 거듭하였던 事實에 比하여、오늘날 戰鬪飛行團을 核心으로 한 現代 戰術空軍으로 飛躍的인 發展을 이룩한 點은 오로지 自由友邦의 援助와 國民의 熱誠的인 聲援에 힘입은 將兵들의 피나는 努力의 所産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러나 피나는 努力과 힘에 겨운 犧牲을 치러야만 했던 지난 날의 荊棘들은 오히려 오늘의 榮光을 감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었읍니다。따라서 우리는 燦然한 國軍의 發展史에 그림자처럼 따랐던 苦難의 歷程을 잊을 수 없으며 그 苦難의 代價를 찾아야 하겠읍니다。그러기 爲해서는 앞으로 보다 큰 苦難들을 또 겪어야 할 것입니다。우리 앞에는 自由와 平和를 앗아가려는 人類의 敵들이 있읍니다。우리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最後의 勝利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우리들 國軍의 使命이 여기에 있읍니다。

그것은 힘의 示威로서만은 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우리에게 負荷된 그 歷史的 使命을 完遂하기 爲해서는 信念있는 行動이 앞서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이 時刻 우리의 行動이 가지는 意義와 그것이 나라와 겨레의 將來에 미칠 影響에 對하여 責任을 질 수 있는 行動으로 나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行動은 國威를 宣揚할 수도 있으며 辱되게도 할 수 있읍니다。

國軍의 날을 當하여 주어진 歷史的 使命을 完遂하기 爲한 새로운 決意와 確信으로 最後의 一刻까지 힘차게 前進할 것을 다시 다짐하는 바입니다。 國軍의 歷史는 우리 空軍에 依하여 보다 燦爛한 빛을 發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第二共和國 憲法上의 特異點 하나

黃 山 德

第二共和國의 憲法이 가지고 있는 特異한 點을 들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마 곧 그 內閣責任制를 끕을련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內閣責任制는 우리에게만 特有한 것은 아니고、數百年前부터 그것이 創案되어 現在에는 大部分의 民主國家가 採用하고 있는 制度인 것이므로、새삼스럽게 이것을 우리 憲法의 特異點이라고 내세울만한 것은 못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된다。 그러면 그 밖에 또 무슨 特異한 점이 있는가가 問題가 될 것이지만、이에 관하여 나는 改正憲法 第十三條二項의 規定이 적어도 亞細亞에서는 처음 있는 規定이며、法哲學的으로도 가장 深刻한 問題를 提起하는、우리 憲法上 아주 特異한 規定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이 規定은 直接的으로는 政黨에 관한 것이다。 즉、그것은

「政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但 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憲法의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된 때에는 政府가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訴追하고 憲法裁判所가 判決로써 그 政黨의 解散을 命한다」(傍點筆者)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그러나 여기에 問題는 政黨에 관한 것에만 局限시킬 수 없는 重大한 槪念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그것은 즉「憲法의 民主的 基本秩序」라는 것이다。 처음에 改正憲法을 草案할 당시에는「自由民主的 基本秩序」라고 되어 있었는데、이렇게 되면 社會民主主義를 標榜하는 政黨은 이것을 彈壓하더라는 뜻이 아닌가 라는 反對意見이 革新政黨側으로부터 提起되어 부득이「自由」라는 말은 빼고 그저「民主的 基本秩序」라고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하여튼 여기에 基

本秩序」라는 槪念이 새로이 우리 憲法上 設定되었다는 것만은 特記할만 하며 내가 알기에는 西獨憲法이 처음으로 이 用語를 使用한 以後 우리 改正憲法은 그 둘째번이 되지 않는가 생각된다。

그러면 이 「民主的 基本秩序」라는 槪念이 어째서 그처럼 重大한 意義를 가지는가가 問題가 되며、 그리고 實際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憲法學者들 사이에는——草案起草者인 韓泰淵敎授를 除外하고는——이 用語의 重要性을 그리 深刻하게 意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法哲學的 見地에서 보며는 이 槪念이야말로 獨裁의 出現을 防止하기 위하여 法學者들이 考案해 낼 수 있는 唯一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意味에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法學者들 사이에 좀 더 本格的인 論議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된다。

본래 民主國家의 憲法은——數百年을 내려온 傳統으로서——國民의 基本的인 權利를 保障하는 것을 最高至上의 目標로 삼아 왔었다。 즉、 基本秩序가 아니라 「基本權」이 앞에 나섰으며、 이러한 國民의 基本權을 어떻게 保護할 것인가라는 問題를 中心으로 憲法上의 모든 制度는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러면 近代民主國家의 憲法이 國民의 基本的 權利를 保障함에 있어서 가장 有效하다고 생각된 方法은 무엇이었던가 하면、 그것은 總選擧의 方法에 의하여 選出된 國會議員이 모여서 法律을 制定하고、 그리고는 이러한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國民의 基本的 權利는 絕對로 侵害될 수 없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가령 言論의 自由에 관한 舊憲法 第十三條의 「모든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라는 規定과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다。 모든 國民은 平等하므로 그 平等한 國民들이 投票하여 가장 많은 票를 얻은 사람을 國會議員이 되게 하면、 그는——비록 相對的이기는 하지만——가장 훌륭한 國會議員이 될 것이며、 그리고 이처럼 훌륭한 國會議員들이 모여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贊成을 얻은 法律案을 法律이 되게 한다면 그 法律도 또한——비록 相對的이기는 할망정——가장 妥當한 法律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여 制定된 法律에다가 國民의 全體의 運命을 맡기고 오로지 그 法律이 定하는 바를 따라 國民의 基本的 權利를 享有시키도록 한다면、 이것 以上으로 妥當한 方法은 따로이 없으리라는 것이 그 根本信條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近代民主國家의 이러한 期待는 二十世紀에 들어와 蘇聯의 볼쉐비즘과 獨逸의 나치스가 생겨나 獨裁

政治를 마음대로 하게 되자 完全히 여그러지고 말았다。

國民은 平等하다고 하지만 實際에 있어서의 有權者는 결코 平等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情勢判斷을 그릇칠 수도 있었고 특히 個人的인 情實이라든가 金錢에 이끌리는 경우에는 결코 公正하게만 投票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여 選出되는 國會議員이 반드시 훌륭하다고는 볼 수가 없으며、實際에 있어서는 도리어 反對로 政治的인 흥정을 잘 해내는 奸物 惡黨이 當選되는 일이 더 많았다。

이리하여 選出된 國會議員들이 모인 곳이 바로 國會인 것이므로、따라서 여기에서의 議決이 반드시 公正한데로만 行하여지는 것이 아님도 또한 곧 짐작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 法律案이 國家와 民族의 利益增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서 贊成投票를 하는 것이 아니라、거의 全部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만 그것이 그들의 所屬政黨 乃至 政派의 利益에 合致되기 때문에 可票를 던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리하여 制定되는 法律은 그 內容에 있어서 國家나 民族보다도 어떤 政黨이나 政派의 利益을 더 爲主로 하는 것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된다。

물론 아무리 自己의 政黨이나 政派의 利益만을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實際에 있어서는、外部에 대한 政治家로서의 體面도 있는 것이므로、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그 文面만은 外見上 그럴듯한 文字로 꾸며지는 것이 普通이다。 그러나 法律條文上 아무리 훌륭한 文句가 使用된다고 할지라도、이 法律을 實際에 適用할 때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둘고 나아갈 구멍이 있는 것이다。 본래 言語라는 것은 그 意味가 항상 單一한 것이 아니고、같은 單語이면서도 그것이 甲 乙 두 意味 또는 그 以上의 意味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法律條文에 나타난 文言을 甲의 意味로 解釋 適用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國民의 權利를 잘 保障해 주는 結果를 가져올 것이지만、反對로 그것을 乙의 意味로 解釋 適用하는 경우에는——그 같은 條文이——도리어 國民의 基本的 權利를 不當하게 制限하는 結果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된다。 그리고 그 文言에는 確實히 乙의 意味도 內包되어 있는 것이므로、따라서 이것을 乙의 意味대로 解釋 適用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非合法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된다。 法律條文을 엄격히(?) 따진다면 그렇게도 될 수가 있을 것이지만、그러나 어딘지 좀 異常하다。 이렇게 不平은 할 수가 있지만、法理論을 展開하면서 正正堂堂하게 그 條文은 乙의 意味로서가 아니라 甲의 意味로서만 解釋 適用해야 한다고 主張할 수는 없게 된다。

우리가 法令集에서 볼 수 있는 條文에는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모두 이와 같은 「言語의 多義性」으로 말미암은 多樣解釋可能性이 있는 것인데, 蘇聯이나 나치스의 獨裁者들은 바로 이러한 可能性을 百%로 利用하였던 것이며, 四月革命 以前의 李承晩獨裁도 主로 이러한 方法을 썼던 것이다。「憲法에 하지 말라는 規定이 없으면 그것은 할 수 있다는 뜻이다」라는 억지를 쓰면서 三人組投票 같은 것을 敢行한 것은 바로 이러한 式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소위 엄격히(?) 따진다면 法律條文에는 甲 뿐만이 아니라 乙의 意味도 있는 것이므로, 이때에 있어서 이 條文을 乙의 意味로 解釋適用해서는 아니된다고 制止할만한 客觀的인 規準은 없었던 것이다。

蘇聯이나 나치스나 李承晩政權의 獨裁는 모두 이런 式의 獨裁였으며, 그것이 實質的으로는 國民의 法感情에 비추어 不當하다고 할지라도, 形式的으로는 어디까지나 合法的인 것이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獨裁를 有效하게 막아낼 方法은 過去의 憲法에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또다시 擧頭할런지도 모르는 獨裁를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가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法律條文을 오로지 甲의 意味로만 解釋適用하게 하고 그리고 乙의 意味로는 解釋適用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客觀的인 그 무슨 規準은 없을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하여 第二共和國憲法이 提示한 對答이 바로 「民主的 基本秩序」인 것이다。 즉 法律條文을 甲의 意味로 解釋適用하면 그것은 이 民主的 基本秩序의 方向에 맞기 때문에 妥當하지만, 만일 그것을 乙의 意味로 解釋適用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이 民主的 基本秩序의 理念에 背馳되기 때문에 「不當하다」라는 式으로 處理함으로써 實際問題에 부닥쳐 正·不當을 가려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民主的 基本秩序의 具體的 內容이 어떠한가에 관하여는 아직 學者들 사이에 確定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獨裁의 防止를 위하여 우리 新憲法이 採擇한 特異한 手段인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앞으로 좀 더 徹底한 研究가 있을 것이 要請된다。 그러나 우리 國民大衆은 四月學生革命을 뒤따라 생겨난 이 新憲法 속에 法哲學的으로 가장 深刻한 苦悶에서 생겨난 獨裁防止를 위한 劃期的인 「民主的 基本秩序」라는 槪念이 內包되어 있다는 것만은 알아 두어야 할 것이며, 그것에 관하여 法學者들이 무어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民主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注目하고 있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筆者·法博·서울法大敎授〉

國防機構改編案

—國軍組織法을 中心으로—

李 熙 鳳

〈內 容〉

一、國防機構改編의 意義
二、民主軍制의 原理
三、國防機構改編案의 主要內容

一、國防機構改編의 意義

四月革命의 所産인 改正憲法은 政府形態의 變革을 가져오게 하였고、政府形態의 變革은 行政府의 組織改編을 不可避하게 하였다。

此際에 國防部로서도 國防機構 全般에 걸친 再檢討

를 하여야 할 立場에 서게 되었다。

一例를 들건대、六月十五日의 改憲에 隨伴하여 行政權의 一部인 軍統帥權의 所在가 大統領으로부터 國務院으로 移行한 事實은、國防機構를 規定하고 있는 現行國軍組織法이 改正될 憲法의 生理에 맞을 理 萬無한 것이며 必然的으로 改正되어야 할 問題인 것이다。

그러나 國防機構改編에 對한 努力은 取扱될 範圍의 差異는 있었으나 이미 四月革命前부터 着眼되고 推進해 왔던 것이 事實이다。

四二八一年 十一月 三十日에 制定되어 今日까지 現行法으로서 適用되고 있는 國軍組織法이 制定當時의 實情과 六·二五動亂을 겪은 國軍의 急速한 發展等으로 이미 오래前부터 現實과는 遊離된 法條文으로 化했고、雪上加霜格으로 國軍組織法은 四月革命 改憲以前의 舊憲法精神에도 違背된 要素가 多分히 깃들어 있었다는 事實을 指摘하고、이의 改正을 推進해 왔던 것이며 이에 對하여는 그間 近十次에 걸쳐 一部 改正法律案을 法制室에 提出한바 있었으나、무슨 理由인지 一次도 反映되지 않은 채 返戻되어 왔던 것이다。

此際에 國防部로서는 「軍統帥權을 包含한 全般的 國防機構를 再檢討하여 民主革命精神에 符合되고 軍事組織原理에 歸一시킬 수 있으며、韓國實情에 調和시킬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하고자 國防部에 國防體制改編調整委員會를 五月末에 設置하고 近二個月에 걸쳐 研究審議한바、國防機構改編에 對한 그 成案을 보게 되었다。紙面의 制限關係로 여기에서는 國軍組織法에 關聯된 部分만을 中心으로 이를 紹介하고자 한다。

機構改革 또는 改編에 있어 우리가 하나 確實히 하여둘 必要가 있는 것은 機構改革의 目的論인바、이는 軍事組織에도 그대로 適用되는 하나의 커다란 課題인 것이다。

政治人은 흔히 機構改革의 主目的과 價値를 經濟的 要素에 歸結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國家豫算의 過半 또는 近半額을 消費하는 國防機構에 對하여는 特히 그 改編에 있어 政治的 魅力으로서의 經濟面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充分히 理解가 가는 事實이기는 하지만、機構改編의 眞目的은 어디까지나 그 組織의 効率的인 (efficient) 運用을 第一次 目的으로 하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經濟面은 第二次的인 것으로 考慮하여야 한다는 것을 强調하고 싶다。이는 흔히 우리나라에서 機構改革을 論할 때마다 經濟面에다만 結付시켜 曰可曰否하는 皮相的 機構改革論者가 知識層에 많이 있음을 느낀 所感이기에 附言해 두는 바이다。

二、民主軍制의 原理

本人은 여기서 民主政治가 무엇이며 國防組織 또는 軍制의 原理原則이 무엇인가를 說明하려는 것은 決코 아니다。 여기서는 다만 組織의 原理原則中에서 民主主義 政治體制를 標榜하는 韓國的 諸與件下에서 國軍의 健全한 發展을 期하려며는 如何한 組織原理를 特히 强調하여야 하며 우리 行政組織體에서 보이고 있는 缺陷을 是正하고자 하는 몇가지 點을 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다。

民主主義를 信奉하고 있는 先進諸國家가 共히 발아드리고 있는 軍制의 原理는 于先 政治優先 (Politics Supremacy)의 原則과 文民優位 (Civil Supremacy)의 原則이라 하겠다。

大韓民國의 憲法에 있어서도 舊憲法이나 改正憲法은 共히 이 原理를 발아 들이고 있느니만큼 이 點은 더 强調할 必要는 없다고 본다。 卽 첫째 政治優先의 原則은 憲法 第七十二條에 軍事에 關한 重要事項은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치게 되어 있고 從前부터 國防政策 또는 組織이 國會의 立法事項으로서 强力한 統制를 받아온 點을 살펴볼때 充分히 이 原理가 保障되었다고 보며、 文民優位의 原則에 있어서도 憲法 第六十九條에 서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委員이 될 수 없다는 規定이 이를 保障하고 있는 셈이다。

美國에 있어서는 現役을 免한 後 十年의 經過規定을 두고 있으나 大韓民國은 建國 草創期에 있어서의 諸要素를 考慮하여 年數經過規定없이 現役을 免한 後면 何時든지 國務委員이 될 수 있는 寬大한 規定을 마련했다는 差異는 있을망정 그 根本精神은 文民優位의 原則에 立脚하고 있으며、 軍人의 執權으로서 過去 日本과 같이 軍部橫暴의 禍根을 없애려는데 있는 것은 民主政治下의 諸國과 何等 다름이 없이 이 原理가 保障된 制度를 擇하고 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우리 나라의 憲法에서 발아 드리고 있는 政治優位의 原則 또는 文民優位의 原則은 非單 憲法規定으로서만 그칠 問題가 아니라 이는 國防機構 全般에 걸쳐 이 精神이 反映되도록 組織되어야 할 것이고 法的으로 이 制度가 確立되어야 할 것이로되、 問題는 그 實際運營에 있어서의 이 精神의 示顯方式일 것이며 이의 成敗與否는 이를 運營하는 文武官의 指導的 精神에 뒷받침 받아야만 保障될 수 있는 問題이기에 여기서 强調하는 바이다。

이外에 우리나라의 軍制에 있어 特히 重要視하여 强調할 것은 階層의 原則(Scalar Principle)의 具現

方式일 것이다。 階層의 原則이란 階統制(Hierarchy)와 同一視되는 것으로 이는 우리의 政府組織 또는 軍制에서 形式的으로는 받아 들이고 있다고 하나 그 內容에 있어서의 指揮權 (또는 指導權)(Leadership)과 權限의 委任(Delegation of Authority), 그리고 職能의 槪念規定(Functional Definition)에 있어서는 再考할 餘地가 있다고 본다。 이中에서도 特히 指揮權(Leadership)에 있어서의 上層管理(Top management)의 强化와 現代行政의 複雜化로 因한 高度의 分業은 各專門分野의 標準化 및 專門化를 期하여야 하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職務의 分化가 水平과 垂直으로 發展해 나가고 있는 以上 各職務担當者 또는 集團에게 그들의 責任과 權限이 發見될 수 있는 權限의 委任이 隨伴되어야만 그 組織體가 보다 有機的으로 活動할 수 있고、 今日의 行政目的인 能率 經濟奉仕의 三大目標에 符合될 수 있다고 보는 바다。 따라서 尨大하고 複雜한 機構를 가진 國防機構는 中央集中(Centralization)보다는 分權(Decentralization)이 一層要望되며、 權限의 下部로의 大幅的 委任으로써 보다 效率的으로 目的達成에 歸一化시킬 수 있는 組織制度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特히 힘을 背景으로 하는 軍制는 分權化를 通하여 民主政治體制 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것이고、 强力한 指揮의 統一 (Unity of Command)은 軍事的 效率面에서는 首肯이 갈 수 있으나 자칫하면 憲法精神인 文民優位 政治優先의 原理를 侵害할 憂慮가 있는 點은 默過할 수 없는 것이며 特히 後進國의 與件은 이를 막아 내도록 保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다。 이밖에도 組織上에 考慮할 諸問題는 많이 있으나 紙面關係로 이만큼 줄이고 다음은 國防機構改編案의 主要骨子에 對하여 說明하였다。

三、國防機構 改編案의 主要內容

今般 國防部가 成案한 國軍組織法案 內容을 現行 國軍組織法과 比較하여 그 內容에 있어 顯著한 差異를 보이고 있는 主要骨子에 對해서만 남은 紙面을 利用하여 이를 簡單히 說明할가 한다。

1 軍政 軍令의 一元化와 軍事權限에 對하여

過去 封建國家의 領主나 軍國主義行政首班은 軍이라는 强力한 힘이 自己들의 權力支配에 不可缺의 要素였으므로 軍政과 軍令을 分離시켜 軍統帥의 實權인 軍令만은 內閣이나 國會의 關與없이 이를 直接 掌握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制度는 現代 民主主義理念과도 相反되는 軍統

帥制度임은 贅言을 要치 않는 바이다。

이러한 點에서 大韓民國憲法制定 當時에 있어서도 軍政과 軍令을 分離치 않고 一元化한 制度를 그 憲法精神으로 하고 舊憲法 第六十一條、第六十六條、第七十二條에 뚜렷이 規定하였던 것인데、어찌된 일인지 國軍組織法은 이 精神을 違背한 內容으로 制定되었던 것이다。軍政과 軍令의 一致性은 政府組織法 第十八條에서 다시 「軍事에 關한」이란 綜合的 用語로써 이를 敷衍規定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統帥權(卽 軍事權限)은 舊憲法下에서는 大統領에 있었지만、改正憲法에 있어서는 大統領은 다만 國家를 代表하고 國軍의 象徵的이며 形式的인 最高司令官이 되는 地位를 갖게 되었을 뿐 行政權의 一部인 統帥의 實權은 國務院에 歸屬된다고 規定됨에 따라 모든 軍事事項은 軍政軍令 할것 없이 國務院에 歸屬되는 것이며、이 權限은 國務院을 代表하는 國務總理가 國防部長官을 거쳐 三軍을 指揮監督하도록 改正憲法이 밝히고 있느니 만큼 宜當 國軍組織法上에 軍事權限에 對한 明確한 憲法精神의 解釋을 規定하여야 한다는 것이 첫째의 改編要綱인 것이다。

따라서 憲法精神에 依據하여 大統領의 儀禮的인 國軍總司令官의 地位를 明確히 法에 밝히는 同時 國務總理에서 緣由하여 國防部長官을 거쳐 三軍參謀總長으로 내려 나오는 統帥體系에 있어 軍政 軍令을 分離치 않고 모든 軍事事項을 指揮監督하는 體制로 改編하는 同時에 이를 國軍組織法에 밝히자는 것이 今般의 改編案에 있어서의 가장 基本이 되는 改編要綱인 것이며 이 精神에 違背된 現行 國軍組織法上의 參謀總長은 없애고 基他 軍令機關도 이를 整備하려는 것이다。

2 聯合參謀本部의 改編

現行 聯合參謀本部設置法에 根據를 두고、軍令에 關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는 聯合參謀會議와 本部는 憲法精神에 違背되는 故로 이를 改編하여 國防部長官에 對하여 軍事的 專門分野에 있어 補佐하는 參謀機構로서 政府組織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各局과 同等한 位置에 두려고 하는 것이 聯合參謀本部에 對한 改編의 骨子이다。

이와같이 改編될 部署는 軍事參謀部로 改稱하고 그 業務內容은 現 聯參과 大同小異한 것이나 業務의 內容과 性質에 따라서는 現在 國防部內 局에서 갖고 있는 機能의 一部를 軍事參謀部에서 担當케 하자는 것이며、軍事參謀部의 構成은 主로 軍人으로 하되 그 要員은 三軍에서 均等하게 差出된 人員으로 構成한다는 것이

主要 差異點이라 하겠다。

國防部長官이 國防委員의 한사람으로서 軍事에 關한 事務를 分掌하여 三軍을 效果的으로 指揮監督케 하려면 政府組織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內局의 編成만으로는 不足하다는 것이며、軍事事項이 軍令과 軍政을 다 包含한 槪念이니만큼 國防部長官의 軍令行使面에 있어서의 補佐參謀部署가 꼭 必要하게 됨은 明若觀火한 일이다。

卽 聯參을 從前과 같은 曖昧한 位置에서 脫皮시켜 指揮體制를 確立시켜 보자는 것이 今般 改編案의 根本意圖이고、民主主義國家에서 두려워하는 푸러샤式 一般參謀部의 再生을 企圖한 것이 아니고 大體的으로 美國의 聯參(Joint staff) 槪念을 받아 들이자는 것이 軍事參謀部의 性格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國防部內의 一部를 차지하여 長官을 補佐하는 參謀機關으로서 構想한 것이다。 이 軍事參謀部를 統轄하여 國防部長官을 軍事面에서 補佐시키는 者로서 聯合參謀總長과 次長을 두자는 것이다。 이 聯合參謀總長은 個人으로서 國防部長官에 對하여 軍事面에서 專門的 助言을 하는 同時、諮問機關이 되는 聯合參謀總長會議의 議長職을 兼任함으로써 三軍의 用兵作戰面에서의 보다 統一되고 效率的인 諮問에 應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現代의 戰略槪念과 集團安全保障體制下에 있어서의 軍制를 考慮하여 必要할 時 設置되는 聯合部隊만은 三軍參謀總長을 經由치 않고 聯合參謀總長會議의 議長의 資格으로서 作戰指揮케 하자는 것이 聯合參謀總長에 對한 이번 改編의 內容이라 하겠다。

3 三軍制維持와 聯合參謀總長會議 및 軍事政策會議

今般改編에 있어 深刻히 討議된 內容의 하나는 三軍制의 存續이냐、單一軍制의 採擇이냐 하는 問題였다。

今日의 複雜化한 行政效率의 向上方案은 機能別의 標準化와 專門化를 通한 大幅的 權限의 委任에 있다고 指摘한바 있다。 또한 反面 軍事의 效率的面에서 볼때는 中央集權化를 通한 强力한 統一된 指揮가 要望된다고 是認도 했다。

우리는 이 相反되는 組織의 原理를 如何히 國防機構에 調和시킬 것인가에 對하여 熟考한 바 있었다。 軍隊의 存在價値는 平時 戰時의 兩面에서 操心스럽게 다루어야 할 問題이다。

이點에 있어서는 長時日의 硏究와 討議끝에 民主主義 政治體制 發展에 보다 큰 무게를 두고 三軍制存續의 結論을 보게 되었으나 三軍制가 가질 수 있는 三軍間의 反目과 重複을 避하는 方案으로서의 聯合參謀總長

會議制度와 軍事 政策會議制度를 採擇케 하자는 結論에 이르렀다。

우리는 三軍制를 存續시킴으로써 보다 善意의 競爭과 牽制를 通하여 民主主義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組織體制를 期待하고 있는 것이며、다만 三軍間에 紛爭이 일어 날 수 있는 機能만은 이를 詳細하게 規定함으로써 그 磨擦을 避해 보려는 것이 今般改編과 아울러 意圖한 法的 措置의 基準態度였다。따라서 三軍參謀總長은 國防部長官에 直結되며 그 於間에는 會議體 以外의 어떠한 存在도 是認하지 않는다는 것이 改編의 骨子이다。

이 以外에도 現行 國軍組織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最高國防委會員와 그 所屬 中央情報局과 國防資源管理委員會 그리고 軍事參議院과 國防部附屬機關에 對한 改編도 檢討한바 있고、이에 對한 國防部로서의 建議案과 政府組織法에 規定하고 있는 國防部組織에 對한 改編案도 成案한바 있으나 紙面制限關係로 다음機會에 밀기로 하고 以上과 같이 國防部에서 成案을 보게 된 國軍組織法案에 立脚한 國防機構改編大綱을 간추려 說明함에 그치겠다。

〈筆者・前 國防部次官〉

「데이크」航空社「아・유」孃

「수카르노」大統領과 艶聞?

「그레이트・레이크」航空社의 女乘務員인 「캐롤・아・유」양은 그녀가 「수카르노」「인도네시아」大統領의 네번째 夫人이 되리라는 「인도네시아」의 風聞이 아무런 根據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當年二十二歲의 「아・유」양과 「수카르노」大統領이 서로 알게된 것은 三年前의 일이다。當時 「하와이」大學의 美人이였던 「캐롤」양은 「하와이」의 傳統的인 「알로하・키스」를 「스카르노」大統領에게 함으로써 「인도네시아」에서 批判의 對象이 되었던 것이다。그 後로 「수카르노」大統領은 두차례에 걸쳐 「캐롤」양을 自宅으로 訪問하였다。「인도네시아」로부터 이곳으로 오는 사람들의 말에 依하면 「캐롤」양이 「수카르노」大統領의 네번째 夫人이 되리라는 風聞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자하다고 한다。

「수카르노」大統領은 「캐롤」양을 「인도네시아」로 招請하였다。

美國의 對韓援助 展望

——軍事援助를 中心으로——

朴 忠 勳

平素에 美國의 對韓援助에 對해 느끼고 생각하던 點을 今年 四月 一日字로 國防本部에서 既히 發行된 『美國의 對外援助 展望』이라는 小冊子에서 論述한 바 있는데 今般 編輯者의 要求에 依해서 이를 簡單히 要約하여 보았읍니다。

그리고 한편 未安하게 생각되는 것은 一九六一 美會計年度의 美國防費 및 對外援助에 對한 美國會에서의 討議에 關한 새로운 資料의 不備로 本稿를 補强치 못하는 點을 널리 諒解하여 주시기를。

一

印度를 訪問한 후르시쵸프 蘇聯 首相은 印度議會에서의 演說에서 世界 各國의 國防費는 千億弗에 達하는데 軍縮을 斷行하여 그中의 百五十 내지 二百億弗을 轉換해서 數億人民을 飢餓와 貧困에서 救濟하는 歷史的 課業을 遂行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는데 이는 蘇聯의 後進國 援助競爭에 있어서 宣傳的 發言에 不過한 것이라 하겠으나 宇宙時代에 있어서의 美蘇競爭은 ICBM 및 水爆의 威力과 그 Balance를 相互 維持하면서 軍事面보다는 經濟競爭의 性格을 더 하게 되며 이 經濟競爭은 後進國에 對한 援助競爭을 一層 熾烈하게 만들게 되어가고 있다。이제 美國의 對外援助에 影響을 미치는 몇가지 問題에 對해서 이를 檢討해 보기로 한다。

二

첫째 軍事援助에 直接的 影響을 미치는 美國 防衛政策의 方向을 살펴 보기로 한다。

美國은 現在 蘇聯에 比해서 missile面에 있어서 劣位에 놓여 있다고 하며 一九六三年에 가서 missile gap이 第一 많아지고 그 後부터는 그 gap이 漸漸 減少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missile gap에 對比해서 美國 行政府는 SAC의 B-52 水爆機, 蘇聯을 包圍한 基地網, IRBM의 展開, Polaris 潛水艦의 就役等을 綜合한 戰力으로서 對抗하되 그 沮止力에 있어서는 美國이 도리혀 優位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그러나 民主黨 議員들은 아이젠하워大統領이 均衡豫算을 爲해서 國防力을 弱化하고 있으며 FY 61에 要請하고 있는 四百十億은 不足한 것이며 Atlas 計劃擴張, B-52의 二五% 常時 空中待機, B-70 爆擊機等을 爲해서 二十五億弗을 더 增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ICBM에 있어 Balance를 維持하기에 이르는 때까지는 美國의 SAC 海外基地와 IRBM은 美國防衛의 重要한 部分을 이루고 있는 것은 贅言을 要치 않으며 FY 61에 NATO 諸國에 四億弗을 軍援으로 增額要請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理由에서 取해진 措置라 할 것이다。

ICBM의 Balance를 이루기 前에 있어서의 同盟國家의 集團防衛力이 重視됨과 同時에 그 後段階에 있어서 卽 Nuclear Stalemate 또는 ICBM Stalemate 下에서도 制限戰爭의 可能性에 對備해서 繼續 自由陣營 諸國의 在來式 軍事力을 維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蘇聯首相이 今年初 쏘비에트議會에서 百二十萬名을 減軍하고 Manned bomber는 博物館에 裝飾하게 되었다는 것은 國防力을 Rocket 依存一邊倒로 하는 印象을 주고 있으나 百二十萬을 減軍한 後에도 그 兵力은 二百四十二萬名으로서 美國의 現兵力 二百四十八萬名과 비슷한 것이며 蘇聯의 傳統的인 軍事政策은 全面 制限의 兩形態의 戰爭에 對備하는 것이였던 만큼 制限戰爭에 對備하는 在來式 軍隊를 弱化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特히 中共의 軍事力은 허터國務長官이 指摘하는 것과 같이 自由陣營에 對해서 커다란 威脅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므로 ICBM Balance 與否에 不拘하고 同盟諸國의 在來式 軍事力은 強力히 維持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美國의 軍事援助도 長期間 繼續될 것이 豫測된다。

그러나 美國의 軍事援助는 武器援助와 一般消耗性 物資로 되어 있는데 武器援助는 大體로 美國이 新武器로 轉換한 後 舊武器를 提供하는 것이 많은 만큼 長期間 繼續될 것이나 經濟援助 重點主義로의 轉換에 따라 韓國과 極히 少數의 國家에 提

供되고 있는 消耗性 援助의 物資는 이를 急激히 減少시키게 될 것이다。

三

다음에 美國의 對外援助에 影響을 주는 것은 美蘇의 經濟競爭이라 하겠는데 아이젠하워大統領은 一九六一年은 GNP가 五千億弗을 超過해서 美國史上 最高繁榮의 해가 될 것이라고 美國經濟의 健全性을 誇示한 바 있으나 후르시쵸프의 一九五九年부터 시작된 新七個年計劃은 美國에 對한 經濟正面挑戰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후르시쵸프는 今年初 Soviet 會議에서 Stalin 死後 六年間에 工業生産이 九〇%增加되었고 消費物資는 前年에 比해 一〇·三%의 增加를 보였으며 「바타」는 一人當 消費量이 美國의 七、八割度에 對해서 蘇聯은 八、三割度로서 美國을 凌駕하였다고 豪言을 하고 있는 것이다。

CIA 長官 Allen Dulles 氏는 一九五九年 十一月 美 兩院合同經濟委員會 經濟統計小委員會에서의 證言을 通해서 蘇聯의 七個年計劃은 愼重히 立案된 것이고 眞摯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이 計劃은 七個年의 工業生産高를 八〇% 增大하는 課題를 設定하고 있는데 그 目標는 達成될 것이라고 指摘되고 있다。그러나 후르시쵸프가 豪言하다시피 十年後인 一九七〇年까지 또는 그보다 더 빠르게 工業生産高에 있어서 美國을 凌駕할 수는 到底히 없다고 하였고 더구나 一九七〇年까지 蘇聯國民이 世界最高의 生活水準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주 誇張된 表現이라고 하였다。그는 또한 蘇聯은 將來 經濟向上에 依해서 中立的인 低開發諸國에 浸透를 推進하는데 必要한 物資와 役務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Dulles 長官은 國力比較의 眞實한 尺度는 國民總生産이나 工業生産高에 있는 것이 아니고 經濟資源의 使用方法이 國力의 程度를 主로 決定한다는 見地에서 美國이 國力增强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消費物資나 레저스의 生産에 많은 經濟資源을 使用하는 것을 再考해야 할 것이라고 指摘하고 있다。

非共産黨宣言이라고 불리우는 經濟成長의 段階論을 發表해서 많은 關心을 모으고 있는 MIT의 로스토우(Rostow)敎授도 昨年 十一月 CIA 長官이 證言한 바 있는 合同經濟委員會에 對한 報告書에서 美蘇對立의 本質을 分析함과 同時 六〇年代의 十年間에 美國이 取할 政策方向을 示唆하였는데 로스토우 敎授는 말하기를 오늘부터 一九七〇年까지의 사이에 決定的 試鍊이 行하여질 것이며 美國의 政治指導

者들이 그 試鍊에 對應하기 爲해서 손밑에 있고 明白히 豊富한 資源(商品과 役務는 勿論 意志, 熟練, 才能, 美國的 傳統에의 忠實等의 諸資源)을 動員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그리고 效果的인 美國의 軍事 및 外交政策으로서는 全面戰爭과 制限戰爭의 어떤 形態의 戰爭에 있어서도 共産主義者들이 戰爭을 일으키는 것이 不利하다고 생각하도록 美國의 政策을 세워야 하고 이 期間동안 다음의 三分野에서 公共支出을 增額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1) 蘇聯의 missile 優位中 美國의 基地를 鞏固히 할 것。

(2) 制限戰爭沮止를 爲한 充分한 空輸能力을 가질 것。

(3) 低開發地域에 對한 國際的 援助計劃에 美國이 充分히 寄與하여야 할 것 等이다。

美 對韓援助實績 年度別 財源別

單位: 100萬弗

援助別 / 區分 / 年度別	軍事援助			經濟援助								軍援	經援總計
				防衛支援				技術援助	DLF	P.L. 四八〇	經援計		
	主要物資	其他物資	軍援計	施設財	消費財 全額	消費財 全額402中除	計						
1954	—	—	—	95	105		200	—	—	—	200		200
1955	—	—	420	135	126	(28)	261	—	—	15	276		696
1956	—	—	379	101	223	(53)	324	5	—	48	377		756
1957	120	150	270	98	199	(45)	297	5.5	—	19	321		591
1958	117	69	(1)213	35	180	(40)	215	6.8	7.1	50	278		491
1959	—	—	(2)206	35	175	(35)	210	6.1	10.1	33	260		466
1960	?	86	(2)209	10	170	(—)	180	(6.5)	—	(4)35	221		430
計			(3) 1,697	509	1,178	(201)	1,687	22	18.	200	1,933		3,630

(1) world-wide spare parts pool에 依한 附屬品을 包含치 않은 額數임

(2) 美國防省公表 數字임

(3) 1960年 2月 25日 美國防總省의 公表에 依하면 1950~1959年間의 對韓 美軍援의 總額은 1,291,947 千弗 이라고 되어 있다。

(4) PL 480의 1960年分은 協定豫定額임

〈特輯·國軍의 將來를 爲하여〉

덜레스長官이나 로스토우敎授는 다 같이 美國의 經濟資源에 있어 蘇聯보다 優越함을 指摘함과 同時에 蘇聯의 挑戰에 對應하기 爲해서는 豊富한 經濟資源이 國力增强에 도움이 되도록 利用되어야 한다는 것과 國民的인 氣風에 있어서 先驅者로서의 地位를 維持하기 爲하여 美國은 恒常 開拓者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後進國 經濟開發援助는 美蘇經濟競爭의 一部分으로서 强調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四

美國의 對韓援助가 本格化되기 시작한 것은 休戰協定이 締結된 後 當時의 李大統領이 渡美하여 韓美議定書를 協議한 後인 一九五五年以後부터이다。美國의 對韓援助는 別表(前面의)와 같으며 FY58부터는 DS에서 DLF가 分離함으로서 DS가 大幅 減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軍事援助도 FY58부터 減少의 傾向이 甚해졌으고 內容에 있어 消費物資인 其他 他物資의 漸次的인 減少傾向을 알 가 있다。

韓國經濟의 援助依存度는 國際收支에 있어서 美國援助比率은 八〇%이며 援助의 對GNP比率은 一〇%程度를 차지하고 있다。이와 같이 韓國의 經濟、國防은 美國援助에 極度로 依存하고 있으며 또한 韓國은 美國의 援助受惠國中 가장 많은 援助를 받고 있는 것이다。

콘론 報告에서는 韓國의 位置를 單純한 被援助國家보다는 달리 美國青年의 피의 代價를 有効하게 하기爲해서 韓國의 政治、經濟面의 健全한 發展에 特別한 考慮를 해야 할 것을 指摘하고 있으며 드레이퍼(Draper)報告에서도 韓國、越南 中國等 對共 最前線 國家에 對하여 經濟發展의 前提條件으로서 軍援의 必要性을 强調하고 있다。

이와 같이 韓國은 지금까지 美國 對外援助國中 가장 높은 優先順位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나 今後 얼마나 이러한 特權的 待遇가 繼續될 것이며 그 展望은 어떠할 것인가? 對韓援助의 浪費性을 指摘하는 美國 國會議員도 많으나 韓國이 每年 兵士一人當 三百弗 程度의 美國의 軍事援助를 얻어 反共國家中 美國에 다음가는 國防軍을 維持하게 되었으며 또 休戰後 年平均 二億 五千萬弗의 經濟援助로서 六·二五의 荒廢에서 오늘의 經濟安定과 産業復興을 보게 된 것은 우리 國民의 努力과 美國 對外援助의 커다란 成果의 하나라고 아니 할 수 없다。이와같이 우리는 援助를 効果的으로 使用해서 좋은 成果를 거두고 있다 하더라도 美國의 對外援助政策의 變更에 따라 언제까지 最優先待遇를 받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이다。

美國의 援助가 軍事優先援助에서 後進國 經濟開發로 그리고 贈與形式에서 借款形式으로 그리고 美國 單獨援助에서 多數 工業國의 合同援助로 移行됨에 따라 韓國의 位置는 正比例해서 그 特權的 位置에서 序列이 하나씩 떨어져 갈 것을 避하기는 困難할 것이다。多幸히 美國의 政策이 급작스러운 變化를 短期間에 取하지 않는 나라인 만큼 그러한 變化가 急速히 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援助가 減少되어가는 것은 이미 事實이 證明하고 있는 것이다。

五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援助別로 이를 檢討하기로 하면 첫째、軍事援助面에 있어서 韓國은 西獨과 아울러 美國이 陸軍師團을 配置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가장 重要視되는 地域이라 할 것이다。韓國防衛는 韓國軍이 大部分의 防衛責任을 지고 있는 만큼 韓國軍에 對한 急速한 弱化는 있을 수 없을 것이며 도리혀 美國은 敵의 武器現代化에 對備해서 韓國軍의 裝備現代化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게 될 것이다。이 現代化는 비록 一部 美國 在庫裝備를 移讓해서 한다 하더라도 莫大한 費用이 必要하게 되는데 援助總額에 增額이 어려운 만큼 兵力維持費 援助額에 壓力을 주게 될 것이며 維持費를 줄이기 爲해서 兵力削減問題가 擡頭될 것이 豫見되는 것이다。그리고 우리가 받는 軍援中에는 他國에는 주고 있지 않는 副食、被服等 消耗性 物資가 包含되어 있는데 兵力維持援助를 壓縮하기 爲해서 이러한 物資에 對해서는 國內生產이 可能한 것은 最大限으로 削減을 免치 못할 것이고 그런 境遇에 새로이 所要되는 莫大한 圓貨를 如何히 支辨하느냐에 關해서 우리는 經濟成長이냐 現兵力維持냐 하는 어려운 問題에 逢着하게 된다。FY61에 있어서는 FY[illegible]보다 多少 軍援이 增額될 것이라 하는데 이는 主로 武器供與에 充當되고 消耗性 物資는 大幅 削減될 것이라 한다。FY62에 있어서도 이러한 傾向이 繼續 强化되어 갈것이며 앞으로 몇年後가 될는지 잘 모르나 멀지 않은 將來에 軍事援助는 武器援助에 限하며 消耗性 物資는 一切 軍援에서 除外되어 國內에서 生產되지 않는 것에 限해서 防衛援助로 轉換될 것이 豫見되는 것이다。武器援助는 原子武器를 同盟國에 供與하는데 對한 美 國會의 制限이 緩和됨에 따라 韓國軍의 武器現代化도 促進될 것이며 그 反面에 Smaller Force 主張이 强力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六

防衛援助(DS)는 一九五八年에

〈特輯·韓國軍의 將來를 爲하여〉

資本財 援助를 大部分 DLF쪽으로 돌리게 될으로 三億弗 援助規模가 八千萬弗 削減된 二億二千萬弗로 되었고 FY60에는 三千萬弗이 또 削減되어 一億八千萬弗 水準을 維持하고 있는데 DS를 받는 十二個國中 韓、中、越 三個國이 過去에는 三分之二를 받던 것이 FY61에는 五六%로 減少되었으며 自由中國에 對해서는 DLF를 늘이고 DS를 大幅 削減하는 措置를 이미 取하고 있다。民主黨 上院 副總務 맨스필드議員이 FY63 以後는 一切 贈與形式을 中斷할 것을 强調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美國의 DS計劃은 援助項目中에서 가장 弱한 部分이라 하겠으며 FY61의 對國會要請額은 FY60의 要請보다 一億千百萬弗이 減少된 七億二千四百萬弗로 되어 있다。

FY61의 對韓援助는 大體로 前年度 規模를 維持할 것으로 보이며 그後에 있어서도 그 減少의 程度는 他國보다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推測되는 바 그는 對韓軍援中 消耗性 物資의 部分을 이 部門에서 받아 들이게 될 것이 豫測되기 때문이다。그러나 DS援助가 漸次的으로 削減되는 것을 免하기 어려울 것이며 DS의 漸次的 削減에 對備해서 韓國의 外貨獲得事業이 積極的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은 贅言을 不要할 것이다。

DLF借款은 아직까지 千九百萬弗의 承認을 받고 있을 따름인데 美國이 가장 重點을 두고 있는 것인만큼 政府에서 推進하는 經濟開發 三個年計劃 또는 五個年計劃等을 樹立해서 强力히 推進하면 事業이 經濟的으로 健全하다 하면 다른 나라보다 優待를 받을 것으로 믿는 바 DLF外에 世界銀行 또는 앞으로 設立되는 IDA UN 特別基金等을 通해서 施設材導入도 推進할 수 있을 것이다。公法 四百八十號에 依한 剩餘農産物 導入은 韓國軍을 維持하기 爲한 國貨調達이 그 重要한 目的인 만큼 軍事費와 關聯해서 考慮되어야 하고 軍事消耗性物資의 供給中斷에 따라 이 部分이 增加될 可能性이 있으나 이는 韓國農業經濟의 脆弱性을 더욱 惡化하는 面이 있는다름 無制限 增加시킬 수도 없는 難點가 있는 것이다。

七

다음에 美國援助에 依해서 造成되는 對充資金은 一九五四年以後 一九五九年까지 六千二百九十三億圜이 出되었는데 經濟復興事業에 六三·二%인 三千九百七十六億圜、國防費支援에 三三·九%인 二千百三十五億圜 그리고 其他에 二九%인 百八十一億圜으로 되어있다。對充資金歲入은 一九五八年에 最高에 到達하였고 一九五九年은 經濟援助의 削減으로

因해서 四百五十億圓이나 減少되었고 今會計年度는 七十一億이 더 減少되어 一千三百三十五億으로 되어 있다。 九三年度의 對充資金 現金豫算은 物資代 一百九十五億圓을 除外한 一千百四十億圓으로 되어 있는데 國防費 支援 五百三十億圓은 總額의 四六·二%로써 上述한 平均支援率 三三·九%를 훨씬 넘고 있는데 이는 國防費 支援을 爲해서 經濟復興面의 犧牲을 意味하고 있는 것이다。

對充資金 支援의 國防費 總額에 對한 比重은 一九五六年의 四八%를 最高로 其後 年年이 減少되어 今會計年度에는 三六%로 低下되어 漸次 國內資源에 對한 依存度가 높은 감을 주고 있다。 軍事援助政策의 變更에 따라 消耗性 物資를 圓貨豫算으로 調達하게 된다면 國防費의 大幅的 增加는 不可避하게 될 것인바 對充資金收入은 減少一路에 있으므로 그 增加需要를 對充資金에 依存하기는 困難할 것이며 따라서 租稅收入을 비롯한 國內財源에 더 一層 依存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健全한 國民經濟發展을 阻害치 않고 國內財源을 얼마나 增加할 수 있는가를 考慮할 때 大幅的인 增加는 不可能한 것이며 따라서 軍援物品의 國庫豫算으로의 轉換은 漸次的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八

앞으로의 十年間은 美蘇 兩國의 對決의 期間이며 그 對決은 軍事와 經濟의 競爭에서 熾烈해지고 또 對外援助競爭에 있어서 더욱 甚해질 것이 豫見되는 것이다。 美國은 强力한 軍事阻止力을 保有하면서 自由世界 工業國家들과 合同해서 後進國 援助를 積極 推進할 것이며 그 援助의 性格은 軍事優先에서 經濟開發援助로 轉換하여 蘇聯의 挑戰에 對抗하게 될 것이다。

韓國은 美國의 特惠的 位置를 繼續 保有하게 되기는 할 것이나 軍援은 武器供與에 限하고 經濟援助는 贈與에서 借款으로 轉換하는 美國의 一般政策의 例外的인 存在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韓國은 이제 最大限 自力으로 軍事力을 維持하고 經濟를 發展시켜야 하는 偉大하고 困難한 問題와 正面으로 對決하게 되는 것이다。 로스토우敎授의 「過渡的 社會」에 놓여 있는 韓國은 이 段階에서 「跳躍」 段階로 넘어가기 爲해서 政府와 全國民의 非常한 努力을 要請하고 있다。

富强한 美國도 國際舞臺에서 先走者로서의 地位를 維持하기 爲해 開拓者의 精神을 强調하고 있다。 貧困하고 後進的인 韓國은 그 經濟開發과 國力의 伸張을 爲해서 國民各自가 開拓者로서 이 試鍊을 克服해야 할 段階에 놓여 있음을 指摘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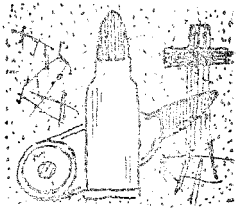
〈筆者·空軍准將·國防部 管理局長〉

〈特輯·國軍의 將來를 爲하여〉

美國의 對極東戰略

不安한 海外基地와 「폴라리스」誘導彈의 出現

李 揆 現



지난 六月에 美國과 日本 사이의 새 安全保障 條約을 反對하는 日本의 示威가 暴力으로 化하여 「아이젠하워」大統領의 訪日 招請이 取消될에 이르렀을 때 美國自身은 勿論이고 그 盟邦들에 對한 衝擊은 深刻한 것이었으며, 日本의 政治的인 不安定과 暴力的인 反政府 및 反美 示威에 對處하여 日本에 있는 美國의 軍事基地가 一旦 有事時에 果然 얼마만한 價値가 있을런지 疑問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美軍基地의 徹收를 要求하는 示威는 그前에도 없었던 바가 아니며, 白里館公報秘書 「해거티」氏를 釜港에서 監禁하다시피 하고 國會 議事堂에서 晝夜兼行으로 殺人沙汰까지 내고 있던 騷擾가 단지 安保條約이 挫折되고 「기시」首相이 辭退하므로써 終熄할 것인지 或은 그 以上의 嚴重한 事態로 發展할 것인지 容易하게 推測할 수 없었다。

特히 地理的으로 自由世界의 前哨基地를 이루고 있으며 그 李海 支援을 日本에 있는 美軍基地에 依支하고 있는 韓國에 對하여 日本의 그와 같은 事態는 重大한 關心事가 아닐 수 없었다。 數十萬名이 反美 示威를 展開할 可能性이 있고 또 그것에 政府가 効果的으로 對處하지 못할 地境이라면 日本에 있는 美軍基地란 마치 火藥庫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나 다를 것이 무엇인가? 萬若에 美國이 日本에 있는 基地를 고루 抛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따위의 疑問이 우리의 腦裡를 스쳤다。 그 當時에 「버지니아」에서 열린 美

國의 最高 軍事 專門家들의 會議에서 이 問題가 討議되었다고 하는 報道도 全혀 根據없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現在 美國은 橫須賀、佐世保、厚木、岩國、橫田、立川、「아시야」、「이따즈께」等 日本 各地에 八個의 空軍基地와 二個의 海軍基地를 所有하고 있는데、이 基地들을 萬若에 喪失한다면 큰 災難이 될 것이라고 美軍當局者들은 말한다。美海軍에서 最大의 規模인 第七艦隊는 眞珠灣 以西의 唯一한 큰 修理施設을 잃어버리게 되고、큰 整備를 하기 爲하여 艦艇을 交替하려면 同艦隊는 二倍의 勢力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한다。美空軍이 日本에 가지고 있는 邀擊機와 「젯트」輕爆擊機는 比較的 적은 數字인데 萬一 그것이 다른 곳으로 移動된다면 戰爭이 勃發하는 境遇에 戰術空軍力을 美國서 가져오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 한다。또한 日本의 船渠와 貯藏施設과 修理施設과 製造施設이 없어지면 韓國에 再開될지도 모르는 地上戰을 支援하는 것은 至極히 困難하게 될 것이다。日本 以外의 基地는 돕시 脆弱하다。休戰線을 넘어오는데 「젯트」戰鬪機로 三分도 안걸리므로 世界에서서 敵地에 가장 接近하여 있는 金浦基地를 包含하여 韓國에 있는 空軍基地는 共產軍의 奇襲을 받을 危險性이 있으며、「오끼나와」는 이미 美軍의 軍事施設이 너무 密集하여 있으며 比律賓의 施設은 充分한 것이 못되어 日本에 있는 修理施設에 代置할만한 것은 아무데도 없다。이와 같이 重要性이 높고 代置가 容易하지 않을수록 그에 對한 信賴性이 疑問視된다고 하는 것은 美軍當局者들로서 더욱 苦悶이 클 것이다。

日本의 基地에 關한 問題는 우리가 볼 때에 以上에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生存에 좀더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設使 前記한 六月의 騷擾가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 立場에서는 注目하지 않을 수 없었다。六月 二十二日에 美國上院은 적어도 앞으로 十年동안 效果를 가질 美國日安保條約을 九〇對 一一로 認准하였는데 그 前날 이 問題를 討議하는 上院會議에서 「日本땅에 駐屯하고 있는 美軍人들은 日本政府의 同意없이는 日本 外의 場所에서 使用할 수 없는 것이냐?」라는 質問에 對하여 外交分科委員長 「윌리암·풀브라이트」議員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萬一 우리가 取하고저 하는 行動에 對하여 日本이 深刻하게 反對하고 同意하려 하지 않는다면 이 條約의 精神은 우리가 그 行動을 取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對答하였다。또한 「우리가 日本의 同意없이 우리 軍隊를 戰場에 投入하는 待機基地로 日本에 있

는 基地를 使用한 韓國 戰爭 當時와 같이 이제는 日本에 있는 우리 基地를 使用하지 못한다는 말인가?」라는 質問에 「풀브라이트」議員은 「그렇다。單獨的인 兵站支援은 있을 수 있으나 單獨的인 移動은 있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答辯하였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萬若에 蘇聯이나 中共이 核 飛彈을 發射하여 그것이 와싱톤이나 뉴욕에 落下한다 치면 그래도 우리는 그에 報復하기 爲하여 日本에 駐屯하고 있는 우리 軍隊를 使用하기 前에 日本 政府와 協議해야 되는가?」라는 質問에 「條約에 依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勿論 이와 같은 條約의 規定이 實地로 어떻게 運用될 것이나 하는 것은 當해 보아야 알겠지만 「호루시죠프」가 美軍 基地를 許容하고 있는 나라들에 對하여 온갖 脅迫的인 言辭를 던지고 六月에 日本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一部 國民들의 暴力的인 壓力으로 政府에 相當히 重大한 決定을 强要할 수 있는 環境에서 우리의 關心을 끌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美國이 海外 基地로 말미암아 갖는 頭痛이란 日本에만 局限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北은 「아이스랜드」에서 부터 地中海 印度洋을 거쳐 日本에 이르기 가지 美國은 空海軍의 基地群으로써 「유라시아」大陸上의 共產國家들을 完全히 包圍하고 있으며 그것이 蘇聯이나 中共에 對한 戰爭 沮止力을 形成하고 大量 報復의 힘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그 基地群의 거의 모두가 大小의 問題 거리가 없는 것이 없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며 美國이 든든히 믿고 앞으로 多年間 그에 依支하여 戰略을 樹立하고 維持할 수는 없는 形便이다。 그 實例를 몇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日本은 이미 上述한 바와 같거니와 「오끼나와」에는 美 海兵 第三師團의 三分의 二 兵力에 該當하는 約 一萬二千名과 一個 陸軍 落下傘 戰鬪 約 二千名과 그 支援用 野砲隊 二個、「나이키•허큘리스」對空 「미사일」大隊 및 「호크」對空 「미사일」大隊 等과 超音速 戰鬪機로 裝備된 空軍이 配置되어 있으며 「메이스」誘導彈이 不遠 配置될 豫定인데、이곳 住民들 間에는 日本統治로 復歸하려는 運動이 있으며 六月에 「아이젠하워」大統領이 訪問하였을 때 反美 示威 群衆으로 말미암아 宿所의 裏門으로 빠져나와 飛行場으로 向하였다。

韓國에는 第一機甲師團 및 第七步兵師團 等 二個 陸軍 師團이 「오네스트•죤」「로켓트」砲 및 空軍의 「매터도어」「미사일」로 裝備되어 約 五萬名의 美軍人이 駐屯하고 있는데 美軍 指揮者들은 四月 革命 以後 이곳의 將來의 防衛 政策에 關하여 憂慮를 품고 있다고

한다。

比律賓에는 美海軍이 「생그리포인트」와 「수비크바즈」航空基地 等에 施設을 가지고 있는데 比律賓政府는 援助를 더 많이 要求하고 있으며 美軍에 對한 權限을 擴大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파키스탄」에 對하여는 「흐루시쵸프」가 萬一 東西「파키스탄」의 美軍 基地에서 美軍의 偵察機가 뜨면 「미사일」로 攻擊할 것이라고 脅迫한바 있었다。

中東에 있어서는 土耳其의 革命으로 어느 程度 不安定한 狀態에 있으며 「아다나」에 있는 重要한 空軍 基地의 將來는 新政府가 든든히 確立되기 前에는 解決되지 않은 狀態로 있을 것이라 한다。英國이 「수에즈」에서 손에 넣 以後로는 中東에 무슨 事變이 생기면 「아다나」가 西方側이 손쉽게 使用할 수 있는 唯一한 主要基地로 된다。

「모로코」에서는 長期間의 報復用으로 建設된 大規模의 空軍基地에서 現地 住民들의 民族主義의 壓力에 못이겨서 美軍 爆擊機들이 撤收를 開始하였으며 一九六三年까지에는 이곳에 있는 五個의 基地가 다 閉鎖될 것이다。

「리비아」에서는 美 第十七空軍 司令部가 「트리폴리」에서 西獨으로 撤收한 飛行機들은 大部分이 西獨으로 移動하였는데 共產軍 「미사일」의 容易한 射程距離內에 들어간 셈이다。

佛蘭西內의 核 爆擊機들은 核武器를 許容하지 않겠다는 佛 政府의 固執에 부딪쳐서 全部 撤收 完了하였고 基地는 閉鎖되었다。

英國에 있는 基地는 아직까지는 安全하나 一部 勞動黨員이 核爆彈 禁止 運動을 支持하여 政治 問題化하여 가고 있다。

「노르웨이」에는 美軍 基地는 없으나 萬一 美國의 諜報 飛行機가 「노르웨이」의 飛行場을 使用하던 攻擊하겠다는 蘇聯의 脅迫을 받은 바 있다。

「아이스랜드」에서는 그 나라 政府의 壓力을 받고 美陸軍의 大隊 戰鬪團이 撤收를 完了하였다。第二次 大戰 初期부터 駐屯하고 있던 美 地上軍이 다 撤收된 것이며 空軍基地의 將來도 不安定하다。

以上과 같은 海外 基地에 關한 여러 問題는 그것이 存在하는 主人 나라의 政治 情勢와 對外 政治 路線의 變化 및 그 나라들과 美國과의 微妙한 關係 等에 起因한 것인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正確한 位置가 敵에게 알려져 있는 固定 基地가 美蘇 兩國이 核彈頭 「미사일」을 始初부터 使用하는 所謂 全面戰爭의 想定下에서 果然 어느 程度 敵의 攻擊을 견디어 낼 수

있을런지는 相當한 疑問이 아닐 수 없다。美 大陸防衛와 對蘇報復을 目的으로 하는 美國內의 大陸間 彈道彈陣地가 堅固하게 地下로 構築되고 또한 列車에 積載되어 發射되게 되는 것도 그것이 敵의 固定 目標化하는 것을 避하려는 企圖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情勢下에서 지난 七月 二十日 「케이프·카나베랄」沿海에서 水中에 潛航하면서 原子力 潛水艦이 發射한 「폴라리스」 誘導彈의 成功은 美國의 戰略專門家들을 기쁘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아이젠하워」大統領은 八月 八日 議會에 보낸 特別敎書에서 特히 이 「폴라리스」 誘導彈에 言及하여 그 「첫 試驗 發射가 長距離의 射程에 있어 小銃을 射擊할 때와 같은 的確度를 보여 주었다」는 事實에 至極히 滿足한 뜻을 表明하였다。 數個月을 潛水한채로 北極의 氷島 밑을 包含하여 七大洋의 구석구석을 快速度로 달릴 수 있는 原子力 潛水艦에 射程 距離 千 二百「마일」의 誘導彈 十六個를 裝備한 것은 地球上 願하는 곳에 移動하는 秘密基地를 數十個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美國의 손에 새로운 安全과 戰爭 沮止力을 주었으며 實로 戰略上의 新紀元을 劃하였다고 할 것이다。 計劃보다 五年 일찌기 成功한 이번의 「조지。와싱톤」號의 「폴라리스」發射 實驗은 水中 四十「휘트」에서 進行된 것이며 이 原子力潛水艦에 十六個 積載할 수 있는 「폴라리스」 誘導彈은 每個가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投下된 原子彈들을 包含하여 第二次 大戰에 兩쪽에서 使用된 全體 爆彈을 合친 것과 같은 威力을 가지고 있다。 潛水한채로 六千「마일」 距離까지도 無電 連絡을 받을 수 있는 이 潛水艦 群이 「유라시아」 大陸을 둘러싸면 蘇聯과 中共을 비롯하여 東歐羅巴의 모든 衛星 國家의 領土中 射程距離 안에 들지 않는 地點이 없어진다。 지금 「폴라리스」의 射程 距離는 一九六五年 以前으로 二千 五百「마일」로 延長되게 計劃되어 있다。 그와 같은 改良型이 發展되면 그것은 「아이젠하워」大統領이 말하듯이 더욱 變用性과 威力과 不可損의 性格을 지닌 武器를 美國에 提供하게 될 것이다。 美國은 今會計年度에 本來 原子潛水艦을 三隻 더 建造에 着手할 豫定이던 것을 五隻으로 增加하였으며 一九六五年까지에는 四十五隻의 誘導彈 發射 原子力 潛水艦을 所有하게 될 것이며 그中 三十隻은 恒常 「유라시아」 大陸 周圍를 巡航하게 計劃되어 있다。

그와 같은 計劃이 實現됨에 따라서 美國이 頭痛거리의 海外 基地를 서슴치 않고 閉鎖하고 全혀 海外 基地에 依支하지 않아도 좋을 날이 올런지 두고 볼만한 일이다。

〈筆者。韓國日報論說委員〉

極東의 集團安全保障

李 元 雨

一、

「딘」(J. Deane)이 그의 著書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奇妙한 同盟」이었던 西歐諸國과 쏘聯의 共同戰線은 戰爭遂行이라는 共同의 目標가 達成되자 새로운 緊張에 直面하게 되었고 第二次 世界大戰後의 國際政治는 美·쏘兩大圈으로 分極化하였다。

美·쏘兩國의 世界史的인 立場도 이를 契機로 하여 劃期的인 變化를 다 하였고 冷戰의 激化와 더불어 亞細亞에서도 分極現象이 促進되었다。 오늘날 亞細亞는 世界의 分極現象이라는 立場에서 보면 一方의 極에 美國의 支援을 받고 있는 反共民主勢力이 壓倒的으로 强한 北方亞細亞의 各島嶼를 두고 있으며 다른 極에 中國大陸을 두어 그 中間에 東南亞細亞가 動搖하면서 새로운 陣營을 形成하려 하고 있다。

北方아시아에 位置하고 있는 韓國·日本·比律賓·國府中國等 四個國은 오늘날 다른 아시아諸國과는 달리 서로 結合하여 하나의 國家群을 形成하고 있다。 이 國家群은 모두 大陸部의 中共의 周邊에 散在하는 島嶼나 半島이며 中共과 그의 同調國家群과 對立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中共으로부터의 侵略의 威脅을 받고 있으며 中共은 이들 諸國을 支配하고 共產化하려 하고 있다。

이와같은 上記 四個國의 宿命的인 地理的 位置를 美國務次官補 「J·그레암·파슨즈」氏는 다음과 같이 評하고 있다。

『이들 新興國家의 大部分은 極히 危險한 狀態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 地域에 對한 美國의 第一의 任務는

이와같은 國家의 存續을 確保하는 일이다。 이 地域에 對한 美國의 援助計劃과 態勢가 軍事面에 重點을 두고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理由에 起因한다。 最大의 必要事는 安全保障이다。

첫째로 우리들은 共産側의 攻勢를 沮止시키기 爲하여 同地域內에 基地와 海軍力을 保有하여 모든 事態에 應하여 直時 出動할 수 있도록 準備하고 있다。

둘째로 安全을 强化하기 爲하여 美國 軍事援助計劃아래 地域諸國의 兵力에 對하여 援助를 提供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國家가 國內의 破壞活動과 國外로 부터의 干涉에 저항 할 수 있도록 支援하고 있다。』

美國은 이들 四個國과 雙務的 相互防衛條約을 締結하고 있으며 中共이 韓國侵略을 시작하자 集團防衛體制를 진지하게 遂行하게 되었고「디・엔・비엔프」가 陷落되어 共産軍이 全東南아시아를 席捲할 危險이 發生하게 되자 SEATO를 形成하게 되었다。

二、

「한便 第一次 世界大戰後 世界는 集團安全保障體制에 依하여 平和를 維持하려고 하였다。

「월슨」이 말한 바「하나의 새로운 體制」로서의 集團安全保障의 理念은 一六四八年의「웨스트페리아」會議以後 數世紀에 亘하여 歐羅巴 國家體制의 指導方式이 되고 있었던 勢力均衡의 缺陷을 카바하는 平和維持를 爲한 安全保障方式으로서 合理的인 一面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否認할수 없을 것이다。

勢力均衡은 國家間의 對立을 前提로 하여 對立하는 國家 또는 國家群의 힘의 均衡을 保持함으로써 平和를 維持하고 安全을 保障하려는 方式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힘의 均衡은 그것을 언제나 國際的인 規模로서 調整하는 機構가 存在하지 않는 限 恒常 自己崩壞의 危險性을 內包하고 있으며 不安全한 狀態에 놓여 있다。 더구나 國力을 構成하는 要素는 多元的인 것이며、이를 正確하게 把握하는 것은 極히 困難한 일이다。「H・J・모오겐소오」는 國力을 構成하는 諸要素로서 地理、天然資源、人口、産業能力、軍備、國民的 氣質、國民的 士氣、外交的 資質等을 列擧하고 있으나 國力은 이와 같은 物的 乃至 實體的 要素外에 人的 乃至 非實體的 要素를 加味하여 考慮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總合的 全體로서의 國力을 測定할 客觀的 尺度는 存在하지 않으며 그의 判斷은 主觀에 委任할 道理밖에 없다。 따라서 國家間의 힘의 均衡을 取한다고 할지라도 相對方의 힘을 正確하게 判定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힘의 增加에 全力을 기울이게 된다。 여기에

힘의 均衡을 保持함으로써 平和를 維持하려는 勢力均衡政策 그 自體가 오히려 均衡을 破壞하고 對立을 激化시키는 危險性을 內包하고 있다는 것을 否認할 수 없다。

集團安全保障體制는 바로 이와 같은 勢力均衡에 代身하는 平和維持를 爲한 方式이며 勢力均衡과 같이 國家間의 對立을 前提로 하면서 單只 힘의 均衡만으로서 安全을 維持하려는 것이 아니라 對立關係에 있는 國家까지도 包含한 모든 關係國이 相互間에 不可侵을 約束하는 同時에 이에 違反하여 平和를 破壞하는 國家가 發生하는 경우에는 다른 諸國家의 힘을 集結하여 集團으로서의 强制措置를 發動함으로써 平和를 維持하고 回復하려는 方式이다。

이와 같은 集團安全保障體制는 從來의 國際法秩序에는 存在하지 않았다。國家가 最惡의 境遇에 實力에 呼訴하여 事態를 解決한다는 것은 國家에 認定된 가장 强力한 根本的인 權力이었고 他國으로부터 侵害를 받았을 때 그의 政策的 判斷에 따라서 戰爭에 呼訴하는 것이 國家의 重要한 主權作用이라고 생각되고 있었다。集團安全保障體制는 바로 이와 같은 思考方式에 對한 正反對의 原理에 立脚하고 있으며 이것은 從來의 國際法秩序의 根本的인 變革 및 發展을 意味한다。

그러나 集團安全保障體制도 平和維持를 爲한 唯一의 手段은 아니며 그 機能에는 重大한 限界가 있다는 事實을 看過하여서는 안된다。이 體制는 國家內의 對立을 카바하기는 하나 實際的으로 그것이 發動되는 경우에는 國際政治에 있어서의 權力政治的 現實로부터의 制約을 當然히 豫想하지 않으면 안된다。實際問題로서 各國家가 自國의 利害關係를 完全히 떠나서 全體를 爲하여 行動하는 것을 期待한다는 것은 極히 困難한 일이며 指導的인 立場에 있는 强大國의 利害關係에 依하여 左右되는 것이 普通이다。

集團安全保障體制의 確立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 國際聯合의 本來의 理想은 權力政治에 終止符를 찍고 權力政治에 代身하는 國際協力의 새로운 方式을 確立하는 것이었으나 現實의 國際聯合은 오히려 새로운 形態의 權力政治가 行해지는 場所가 되었고 各國의 外交戰略이 交錯하는 舞臺가 되었다。

國際聯合의 安全保障體制는 安全保障理事會의 決議를 前提로 하는 安全保障理事會 中心의 體制였으나 第二次 世界大戰後 露骨的으로 表面化된 兩大陣營의 對立과 抗爭의 擴大深刻은 戰爭前의 期待를 全的으로 破壞하였고 쏘聯의 一方的인 拒否權行使가 濫用되자 國際聯合의 中樞機關인 安全保障理事會는 一片의 騷亂한

國際宣傳戰의 舞臺로 化하고 말았다。 따라서 國際聯合 十五年間의 軌跡은 權力政治의 强弱의 程度를 表示하는 것이라고 말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三、

以上과 같이 集團安全保障體制라 할지라도 現實의 權力政治의 影響을 全혀 無視할 수 없고 宿命的인 自己矛盾을 內包하고 있으며 政命的인 限界가 있다。 이와 같은 國際聯合의 集團的 安全保障의 不備를 補充하기 위하여 登場한 것이 地域的인 安全保障機構라 하겠다。 國際聯合憲章이 成立된 以來 第五十一條에 規定된 集團的 自衛權을 中核으로 하는 地域的 協定이 續續 成立하였다。 集團的 自衛權은 二國以上의 國家로 構成된 國家群이 共同으로 侵略을 防衛하는 權利를 말한다。

亞細亞에서도 第二次 世界大戰後 數多한 地域的 安全保障方式이 主唱되었다。

첫째로는 一九五四年 六月二三日 印度支那의 休戰에 關한 「제네바」會議가 開催되고 있을 때 「이—든」英國 外相이 下院에서 發言한 것으로서 「로카르노」 方式에 依한 地域的 安全保障이 있다。 東南亞細亞諸國이 서로 他國의 領土的 保全과 政治的 獨立을 尊重하고 이를 侵害할 武力의 行使나 威脅을 삼가할 것을 約束하고 그 中 어떤 國家가 이를 違反하면 다른 諸國이 協力하여 違反을 防止할 것을 約束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地域的 協定이면 第三國을 目標로 하고 이에 對抗한다는 意味가 없을 뿐만 아니라 地域外의 第三國을 目標로 하여 이에 對하여 地域內의 諸國이 同盟的으로 結合한다는 意味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이 亞細亞에 있어서의 「로카르노」方式의 地域的 安全保障協定은 現想으로서는 正當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나 現實的인 實現이란 거의 不可能하다고 보는 것이 現下의 國際政治下에서는 가장 妥當한 結論이라 하겠다。

둘째로 印度와 西藏間의 通商과 交通에 關하여 印度 및 中共間에 一九五四年 四月二十九日에 締結된 協定에 依하여 明示된 平和五個原則에 依한 「平和地域」의 方式이 있다。 平和五原則이란 相互間의 領土保全과 主權에 對한 尊重、相互不可侵、相互間의 國內問題에 對한 不干涉、互惠平等、平和的 共存의 原則을 말한다。 이와 같은 五原則에 依하여 서로 他方의 領土保全과 獨立을 尊重하고 侵略을 하지 않을 것을 約束하며 이를 兩國關係의 根本原則으로 하여 平和的인 關係와 交通을 樹立하려고 한다。

이 方式은 對抗的인 同盟으로서의 意味가 없으나 眞正한 安全保障의 方式이라고 할 수 없다。 安全保障의

方式은 侵略이나 攻擊이 있을 때 이를 防止하기 위하여 諸國이 協力한다는 要素가 있어야 한다。單純히 侵略을 行하지 않는다는 約束만으로서는 眞正한 安全保障이 되지 않는다。重要한 것은 單純한 紙上의 約束이 아니라 그 約束을 確保하는 手段을 具備하지 않으면 안된다。이와 같은 點에서 所謂 平和五原則의 方式은 効果的인 安全保障의 方式이라고 할 수 없다。

上記한 바와 같이 「로카르노」方式이 實現不可能이고 第二의 方式인 平和五原則이 眞正한 安全保障方式이 아니라고 하면 結局 亞細亞에 있어서의 自由國家間에 共同的인 安全保障協定을 締結할 道理밖에 없다。亞細亞에서도 共產諸國間에는 그들의 中心인 中共과 쏘聯間에 一九五〇年 二月에 締結된 中·쏘友好同盟條約이 있어 共產陣營의 地域的 安全保障機構가 成立되고 있다。이에 反하여 亞細亞自由諸國內에는 SEATO를 除外하고는 이와 같은 機構가 存在하지 않았다。東南亞細亞는 世界에 있어서의 가장 不安定한 地域이며 世界의 平和와 安全의 弱點을 露出하고 있는 地域이다。이와 같은 地域에서 地域的인 安全保障을 設定할 必要가 切實하다는 것은 再言을 要치 않는 일이라 하겠다。

《筆者·慶熙大 敎授》

韓美相互 防衛條約 — 一九五三年 十月 一日 「워싱톤」에서 調印

美日安保條約 — 一九五一年 九月 八日 「샌프란시스코」에서 調印

美中相互防衛條約 — 一九五四年 十二月 二日 「워싱톤」에서 調印

美比相互防衛條約 — 一九五一年 八月 三十日 「워싱톤」에서 調印

東南亞條約 — 一九五四年 九月 六日 「마닐라」에서 調印。(加盟國)—美·英·佛·「오스트랄리아」·「뉴질랜드」·「타이」·「필립핀」·「파키스탄」等 八個國임。

앤저스條約 — 一九五一年 九月 一日 「샌프란시스코」에서 調印 (加盟國)—美國·「오스트랄리아」·「뉴질랜드」

北大西洋條約 — 一九四八年 三月 「브랏셀」에서 調印 (加盟國)—美國·英國·佛蘭西·「카나다」·「이탤리」·「네델랜드」·「벨기」·「룩셈부르그」·「노르웨이」·「덴막」·「아이슬랜드」·「포르투갈」(以上原調印國)「그리스」·「터키」(五二年 二月 加盟)、西獨 (五五年 五月 加盟)以上 十五個國

中部條約 — 一九五五年 二月 二四日 「바그다드」에서 調印。(加盟國)—「터키」·「이란」·英國·「파키스탄」以上 四個國 (美國은準加盟國、原加盟國인 「이락」은 一九五九年 三月 二四日 脫退)

美洲相互防衛條約 — 一九四八年 四月 三十日 「콜롬비아」의 首都 「보고타」에서 調印。(加盟國)—「카나다」를 除外한 南北美洲 二一個國。

自由世界의 軍事同盟

新國會의 議席分布와 政局의 將來

柳 承 範

一

四月革命으로 李承晩 自由黨政權이 崩壞되고 自由黨의 擧手機的 存在였던 第四代國會가 解散되자 改正憲法의 規定에 依하여 七·二九總選擧가 實施되였다。七·二九總選擧의 意義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四月革命의 結實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意義에 자못 至大한 바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그러나 七·二九總選擧는 이와 같은 意義에 비추어 名實相符한 公明選擧가 되였어야 했을 것임에도 不拘하고 비록 官權의 干涉은 없었을망정 公明性을 害치는 不詳事는 到處에서 發生한 바 있었다。卽 金品에 依한 買收는 거의 全國的으로 共通的인 現象이였으며 十餘投票區에서는 所謂 反革命勢力을 糾彈한다는 美名下에 投票所를 襲擊해서 投票函을 破壞、燒却하는等의 不詳事가 發生하였던 것이다。多幸히 政府當局이 收拾에 萬全을 期한 結果로 그後 再選擧가 實施되였고 이로써 七·二九總選擧는 그 幕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絶對로 如斯한 不詳事가 發生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十二年間에 걸쳤던 李承晩 自由黨政權의 獨裁와 腐敗가 純全히 選擧의 不公正性에 基因한다 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萬一 選擧가 있을 때마다 自由雰圍氣를 破壞하고 選擧의 公明性과 公正性을 害치는 不詳事가 發生하게 된다면 民主主義는 空念佛이 되고 말 것이고 다시 四月革命과 같은 「피」의 悲劇을 되푸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그런데 七·二九總選擧의 結果를 볼 것 같으면 民·參議院을 包含해서 民主黨의 壓倒的인 勝利로 끝을 맺었으며 野黨勢力으로 登場할 것으로 豫想되였던 革新系는 餘地없이 慘敗의 苦杯를 마시게 되였다。卽 民主黨은 民議院에서는 三分之二 以上이라는 壓倒的인 多數의 議席을 차지했으며 參議院에서도 過半數의 議席을 占有하

게 된 것이다。 選擧의 結果가 이렇게 民主黨의 壓倒的인 勝利로 나타난 理由를 들자면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卽 첫째로 民主黨은 十二年에 걸쳤던 李承晩 自由黨政權下에서 꾸준히 政黨으로서의 命脈을 이어오면서 鬪爭해온 野黨이었다는 點、둘째로 過去 與黨이었던 自由黨은 野黨으로서는 存在할 수 없을만큼 徹底하게 糾彈을 받았다는 點、셋째로 아직 革新政黨에 對한 國民의 認識이 薄弱한데다가 革新政黨은 그 組織과 宣傳에 있어서 保守黨에 比해 劣勢하였다는 點、넷째로 國民의 多大數가 民主黨의 執權으로서 政局의 安定을 期待했다는 點等이 그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 中에서 가장 큰 理由는 넷째번의 國民의 多大數가 民主黨으로 하여금 自由黨의 政權을 繼承하게 할 것을 願했고 또 民主黨이 多數의 議席을 占有하여 政局安定에 寄與하여야 하겠다고 믿었던 것이 가장 큰 理由일 것이다。 勿論 民主黨의 壓倒的인 勝利에 比해 革新系가 慘敗하였다는 것은 決코 좋은 現象이라 할 수 없다。 議會政治 乃至 政黨政治의 本質이 保守對 革新의 兩黨이 併立하여 相互牽制의 妙를 다함으로써만이 비로소 確立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革新野黨 없는 保守政黨만의 存在는 保守勢力에 依한 政治의 獨占을 結果하게 될 것이다。 李承晩 自由黨政權이 革新政黨 彈壓을 爲한 口實로 利用하였던 『革新政黨은 左翼、換言하여 共産黨과 恰似하며 大韓民國의 國是에 違背되는 存在이다』하는 그릇된 宣傳이 아직 國民들의 腦裡가운데 잠자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全然 그릇된 생각인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韓國의 議會政治 乃至 政黨政治를 本軌道위에 올려 놓으려면 國民이 革新政黨에 對한 그릇된 認識을 是正해서 保守對 革新의 兩黨政治를 制度化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二

七·二九總選擧가 民主黨의 壓倒的인 勝利로 끝을 맺자 政界의 一部에서는 政局의 安定을 爲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政治的으로 볼 때에는 바가운 現象이 아니라고 하는 뜻의 見解를 披瀝한 바 있었다。 事實 民主黨이 民議院에서 三分之二 以上이라는 壓倒的인 多數의 議席을 占有하게 되었다는 事實은 國民으로서는 크게 關心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內閣責任制下에 있어서는 흔히 群小政黨의 亂立으로 政局의 不安定을 示顯하는 例가 많다。 第四 共和國時代의 佛蘭西가 거기에 該當하는 좋은 例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民主黨이 많은 議席을 차지한 것은 그러한 政局의 不安定을 牽制하는데 寄與하는 바가 클 것이다。

그러나 어느 特定한 政黨이 議會內에서 三分之二 以上이라는 絶對多數의 議席을 차지했다는 것은 一黨의 獨裁 乃至 一黨의 牽制를 結果할 可能性을 豫想케 하는 것이다。 卽 三分之二 以上의 議席이라는 것은 民主黨이 願하기만 한다면 憲法의 改正은 勿論이고 其他 諸法律의 改廢도 任意로 할 수 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國會議院에 對한 除名이나 議會의 召集 또는 閉、休會等까지도 他派의 協力을 얻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大統領中心制에 依한 政體를 가졌던데다가 內閣責任制에 對한 認識이 薄弱한 一般國民은 獨裁는 一人의 獨裁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것은 全然 그릇된 생각인 것으로서 一人의 獨裁가 있는 反面에 一黨의 獨裁가 있으며 一黨의 獨裁는 一人의 獨裁보다도 더욱 惡質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歷史가 證明하는 것이다。

따라서 萬一 民主黨에서 現在 論議되고 있는 新·舊派 分黨論이 實現안되어 民主黨의 新·舊派가 分黨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民主黨에 依한 一黨獨裁 乃至 一黨牽制가 示顯될것을 豫想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民主黨의 代表最高委員인 張勉氏는 『民主黨이 비록 三分之二以上이라는 壓倒的인 多數의 議席을 占有했지만 民主黨의 生理로 보아 一黨의 獨裁는 있을 수 없다』고 言明한 바 있다。

말할 것도 없이 張勉氏의 이와같은 言明은 民主黨이 新·舊派로 分黨하지 않을때 一黨의 獨裁 乃至 牽制가 招來할 憂慮가 있다는 論評에 對한 解明임에 틀림 없는 것이다。 그러나 張勉氏의 그와 같은 言明이 民主黨이 三分之二以上이라는 壓倒的인 多數의 議席을 占有함으로써 示顯된 一黨獨裁 乃至 一黨牽制의 可能性을 拂拭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또 民主黨의 生理로 본다면 더욱 一黨獨裁 乃至 一黨牽制의 可能性을 豫想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로 一黨의 獨裁 或은 牽制를 防止하자면 그것을 牽制할만한 强力한 野黨이 비록 小數라고 하더라도 國會內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國會의 議席分布를 볼 것 같으면 三分之二 以上의 議席을 占有한 民主黨을 除外하고는 極小數의 革新系와 舊自由黨系 그리고 一人一黨格인 無所屬으로 되어 있으며 그들의 政治的 生理로 말할 것 같으면 언제라도 民主黨의 新·舊派에 同調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現在 無所屬의 院內交涉體인 民政俱樂部가 民主黨의 獨裁를 牽制할만한 强力한 野黨이 되리라고는 現段階에서 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民主黨의 獨裁와 牽制할 수 있는 또 하나의 方法은 新·舊派가 分黨함으로써 與·野로 서로 갈라지는 것

이다。 그러나 民主黨의 新·舊派는 서로 分黨의 必要性은 認定하면서도 實際로 分黨을 하게 되는 것은 現段階에서 期待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民主黨의 新·舊派 分黨에 依한 民主黨의 一黨獨裁 乃至 一黨牽制의 防止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七·二九總選擧에서 國民이 無分別하게 民主黨候補에다 票를 集中시켰던 까닭으로 앞으로 當分間 韓國의 政治는 保守黨인 民主黨의 獨舞臺가 될 것이며 또한거름 더 나아가서는 民主黨이 過去 自由黨이 三分之 二라는 壓倒的인 多數의 議席을 가지고 李承晩 一人獨裁를 뒷받침했던 것처럼 一黨의 獨裁와 牽制를 일삼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막는 方法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豫想되는 韓國政界의 將來는 民主黨의 新·舊派가 分黨하느냐 分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雌雄이 決定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民主黨이 分黨하지 않고 政權을 擔當한다면 比較的 安定된 政局을 長期間 끌고 갈 수는 있겠으나 多數對 少數가 서로 牽制의 妙를 다할 수 있는 議會政治는 바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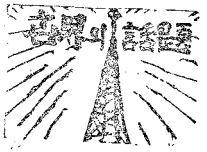
三

參議院의 議席分布를 볼 것 같으면 民議院과는 달라서 民主黨이 優勢하지만 民議院에서처럼 絶對多數는 되지 못한다。 그리고 反民主黨路線으로 團結할 수 있는 革新系 無所屬 舊自由黨系의 議席을 合치면 過半數程度가 될 수 있다。 따라서 民議院에서의 民主黨의 一黨獨裁 乃至 一黨牽制의 企圖를 參議院에서 牽制할 수 있지 않은가 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參議院內의 非民主黨 議員들이 反民主黨路線으로 合치느냐도 期待할 수 없는 일이며 또 民主黨은 民議院에서 參議院의 存廢에 關한 法律까지 制定할 수 있음으로 參議院에 依한 民議院의 牽制란 크게 期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民主黨의 分黨을 反對하고 있는 一部政治人들의 主張에는 一理가 없는 바 아니지만 國民으로서는 다음의 事實을 重要視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確實히 民主黨이 四月革命後 執權하게 되는 것을 契機로 해서 新·舊兩派로 分黨하게 된다는 것은 不幸한 일일는지 모른다。 民主黨의 新·舊兩派는 政治的 生理에 있어서 異質的이지만 自由黨政權을 相對로 해서 唯一한 野黨으로서 鬪爭해 온 政治的 同志이며 또 政綱이나 政策에 있어서는 同一한 理念을 받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民主黨이 이번 七·二九總選擧에서 三分之 二 以上이라는 絶對多數의 議席을 占有하였다는 事實은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一黨의 獨裁 乃至 牽制의 可能性을 豫見

케 할 뿐만 아니라 政黨政治의 本質에 비추어 보더라도 合當한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政黨政治란 執權을 牽制할 수 있는 强力한 野黨이 있음으로서만이 비로서 本軌道위에 오를 수 있는 것이며 그들은『動』이 있으면『反動』이 있다는 物理法則이 自然界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政治의 力學에도 適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勿論 民主黨의 幹部들은 極力 獨裁와 牽制가 없을 것이라고 主張하면서 三分之二以上이란 絕對多數의 議席은 政局의 安定을 爲해서 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言說로서 獨裁와 專橫이 없을 것이라고 期待할 수 없다는 것은 三尺童子라도 알 수 있는 것이며 한편 野黨으로 登場할 것이 豫想되던 革新系가 慘敗한 現段階에 있어서 革新系를 包含한 無所屬과 自由黨系가 民主黨의 執權을 牽制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民主黨이 이번 選擧에서 차지하게 된 三分之二以上의 議席을 占有하게 된 것을 契機로 分黨하지 않는다면 獨裁와 牽制에 對한 可能性은 누구라도 豫想할 수 있는 것이다。 民主黨의 新·舊兩派 分黨을 反對하는 派의 主張에 依한다면 첫째로 分黨은 國民의 信望을 背信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保守政黨에 依한 政策의 獨占 乃至 買占을 結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事實 民主黨이 三分之二以上이라는 壓倒的인 絕對多數의 議席을 차지하게 된 것은 위에서도 論及한 바와 같이 國民이 新政權의 擔當者로 民主黨을 選擇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民主黨의 分黨은 保守兩黨政治를 再演케 할 것임에 틀림 없는 事實이다。 그러나 國民은 民主黨을 新政權의 擔當者로 選擇은 했을망정 그들에 依한 獨裁와 專橫까지도 甘受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며 오히려 民主黨의 新·舊派가 그 政綱과 政策에 있어서 大差가 없다면 分黨함으로써 獨裁와 牽制에 對한 可能性을 排除하는 것이 國民의 信望에 報答하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또 保守兩黨政治가 議會政治 乃至 政黨政治의 本質에 合當하지 않지만 保守勢力을 相對할만한 革新政黨이 없고 보면 그것은 不得已한 것일뿐만 아니라 革新野黨이 없다는 것이 一黨의 獨裁나 牽制를 許容해도 좋다는 口實이 될 수 없다고 하면 當分間 保守兩黨政治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八月 十九日에 있었던 第二次 國務總理指名에서는 新派의 張勉氏가 百十七票로서 認准을 獲得한 바 있었다。 이것은 舊派側의 領袖 金度演氏에 對한 第一次指名이 否決되었기 때문에 當然한 結論이라고 보겠지만 事實은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張勉氏가 認准을 獲得하게 된 것은 그만큼 議會內에서

支持를 받았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舊派內의 二·三人의 背信이 結果한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執權의 機會를 놓친 舊派가 與黨內의 非主流派로 남아 있게 될 것인지 或은 分黨으로서 野黨의 位置에 서게 될 것인지가 注目되는 事實이 아닐수 없을 것이다。 民主黨의 新·舊派 分黨은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必然的인 것이지만 張勉氏의 國務總理認准獲得은 新·舊派分黨의 좋은 機會가 될 수 있을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新派의 首領인 張勉氏는 設或 國務總理認准을 舊派에 뺏기더라도 野黨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與黨인 民主黨 非主流派로 남아 있겠다고 言明한 바 있지만 이것은 分黨을 反對하는 立場에 서서 말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意味가 없는 것이다。 또 執權鬪爭을 하다가 敗北한 以上에는 野黨의 位置로 물러나는 것이 當然하며 또 그래야만 民主黨의 三分之二以上이라는 壓倒的인 多數의 議席이 意味하는 一黨獨裁乃至 一黨專制의 可能性도 拂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民主黨의 舊派指導者들도 이러한 見地에 立脚해서인지 그들의 政治的 歸趨를 愼重히 檢討하고 있는듯 하거니와 民主黨을 爲해서나 韓國의 政治的 將來를 爲해서는 民主黨의 舊派는 民主黨이라는 看板을 버리고 새살림을 꾸미는 方法으로 行路를 決定하는 것이 賢明하고도 좋은 일일 것이다。

(筆者·韓國日報 論說委員)



女子들이 따르자면

表情이 豊富해야

『오늘날엔 젊은 남자들이 처녀들의 가슴을 뒤설레게 하려면 얼굴을 피로에 지친듯이 꾸미는 반면 몸둥이에는 표정이 풍부해야 한다』고 映畵「재(灰)와 금강석」에 출연하여 歐羅巴의 「제임스·딘」으로 저명된 악관의 파란 영화배우 「즈비그뉴·지불스키」는 말하였다。

그는 자기의 눈이 생기가 없고 얼굴도 여러가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함을 시인하면서 『나는 「딘」처럼 내 몸둥이를 가지고 연기를 할수 밖에 없다 수백년동안 여자들은 이러꿈틀 저러비틀 몸을 비비꼬아 남자를 유혹하곤 하여왔다이제와선 몸둥이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들 남자의 차례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파란의 남배우들은 「딘」이나 「부란도」식 연기에 대한 숭배열을 팔짤려 놓았다고 「지불스키」는 혹로하였다。

保守兩黨制의 可能性

——保守主義와 進步主義를 韓國的 風土에 비추어서——

金 淳 謙

一、

四·一九學生革命의 意義는 여러가지 觀點에서 論者에 따라 각각 다른 見解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獨善的 權威主義에 立脚한 獨裁政權을 打倒하고 協議的인 相互的 人格尊重을 基底로 하는 民主政治의 建設을 爲한 터전을 마련하게 되였고 政治制度上으로 볼 적에 大統領中心制에서 內閣責任制에로의 變化를 招來케 하였다는 것은 旣知의 事實이다。앞으로 內閣責任制가 果然 올바른 그 機能을 發揮하고 所期의 目的을 達하여 이 나라의 검은 구름을 개게하고 새로운 보람과 즐거운 希望을 가져올 것인지 國民 누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問題이다。

여기에서 이 나라 政局의 앞날을 豫見한다기보다 內閣責任制를 成功的으로 運用함에 있어서 根本이 되는 政黨制度를 考察하려고 한다。政黨制度라고 하면 群小政黨制와 兩大政黨制를 들 수 있는데 우리 나라의 現實에 비추어 볼 적에 어떠한 政黨制度를 擇하는게 좋을 것인가? 생각컨대 政局의 混亂과 不安을 造成하는 群小政黨制보다는 執權黨은 强力한 推進力을 가지고 어려운 여러가지 國事를 解決함에 도움이 되고 在野黨은 健全한 立場에서 施政을 批判하고 다음의 政權担當의 準備를 가추는 政黨制度인 兩大政黨制가 우리 現實에 더 좋을 것 같다。그러면 兩大政黨制를 取하게 되면 理念政黨의 對立이라고 할 수 있는 保守對 改革의 政黨制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렇치 않고 同質政黨의 對立인 保守對 保守의 兩黨制로 나가는 것이 좋

겠는가 하는 것을 問題의 焦點으로 하고 이를 進步主義와 保守主義의 本質과 그 要件, 그리고 우리나라의 現實과 風土에 비추어 考察하려고 한다。

二、保守主義와 進步主義의 意義

「保守」政黨 또는 「革新」政黨 이라는 말을 많이 使用한다。 무엇을 保守라고 하며 무엇을 革新이라고 하는지 그 槪念을 먼저 뚜렷하게 定義할 必要가 있다。 保守主義라고 하면 現狀에 滿足하고 變化를 싫어하는 反面에 「革新」이라고 하면 現狀에 不滿을 품고 새로운 變化를 摸索하려고 하는 進步主義라고 할 수 있다。

廣義로 解釋하여 進步主義는 人間의 精神的 自由를 그 基本原則으로 하면서 自己發展과 自我表現을 할 수 있도록 個人의 自由를 理想으로 하는 基本的인 精神的 態度이다。 發展을 爲한 自身의 能力을 自覺한 進步主義者는 自己의 現處地에 自足하지 않고 社會的、經濟的、그리고 政治的 變化를 이르키려고 努力한다。 이러한 進步主義者의 理論은 十九世紀 中産階級에 屬한 西歐의 많은 사람들이 받아 들였던 敎義이었고 이것은 各方面에 있어서 合理的인 社會理論으로 發展하였던 것이다。

近代的 意味의 保守主義觀 亦是 進步主義觀과 한가지로 中産階級의 出現期에 그 起源을 찾아 볼 수 있다。 歐洲에 있어서 初期 保守主義者들은 大部分 支配階級에 屬하는 貴族、高僧、富豪 및 官僚이었다。 이들은 合理的 社會觀으로서의 進步主義를 排斥하고 自身의 見解에 對한 理論的 正當性을 摸索하였다。 그리고 十九世紀 中葉에 와서 비로소 保守主義라고 하는 社會的 및 政治的 理論을 發展시켰다。 廣義로 보아 保守主義는 現狀維持의 傾向을 그 特色으로 하는 社會觀이다。 保守主義者는 進步主義者에 比하여 理性에 依하여 社會秩序를 改善하려고 하는 人間의 努力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또 自我發展과 自我改善을 爲한 凡人의 能力을 別로 믿지 않는다。 保守主義者는 進步主義者의 國家觀 卽、人間이 그들의 安寧과 便宜를 爲하여 樹立된 機構가 國家이며 따라서 人間은 任意로 이를 再組織할 수 있다고 하는 國家觀을 反對한다。 保守主義者는 國家란 神意에 依하여 이룩된 것이며 徐徐히 有機的 成長을 하는 것이라고 看做하고 法律이나 財産權도 오랜 世代를 두고 徐徐히 發展한 所産이라고 본다。 따라서 保守主義者는 極端的으로 보아 合理的 提議에 依하여 旣存하는 社會秩序를 改善하려는 企圖나 急進的 方法에 依하여 社會機構를 改革하려는 意圖를 反對한다。 그러므로 保守主義는 새로운 法的 및 政治的 機構를 試驗하기보다는 過去의 機構에 滿足한다。 有機的

인 徐徐한 發展을 招來하지 않는 變化는 어느 것이나 危險하다고 본다。이 有機的 發展槪念에는 機構上의 單純한 變化를 가지고는 社會惡을 除去하지 못한다는 理念이 內包되어 있다。

變化와 安定에 關한 두 말은 進步主義와 保守主義의 意味를 理解함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지만 이것 以外에 다른 槪念도 考察하여야 한다。保守主義者는 어떤 絕對的 法則에 依하여 社會가 움지겨져야 한다고 믿는 傾向이 있다。한번 어떤 法則을 樹立하면 이에 對한 如何한 例外도 認定하지 않으려고 한다。이에 反하여 進步主義者는 더욱 變化를 試驗的으로 받아들이려는 傾向이 많고 不變의 法則이 社會의 運營을 左右한다는 것을 別로 믿지 않으려 한다。여기에서 進步主義와 保守主義의 意義를 簡單히 說明하였거니와 그것은 두렷하고 固定的인 實踐計劃도 아니고 그것은 어떤 形態의 態度를 意味하는 人生觀이며 生活、制度 및 人生을 左右하는 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社會集團과 어느 集團속의 個人이 進步的이냐 或은 保守的이냐를 區別하는 條件이 몇개 있다。다음에 列擧하는 그 條件들이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一律的으로 適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大體로 큰 役割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年令이 많으냐 또는 적으냐에 따라 社會的 變化에 對한 그의 態度에 影響을 주는 것 같다。不安、不滿、그리고 變化는 젊은이의 特徵이고 沈着、自足 그리고 安定은 老年層의 特性이라고 할 수 있다。늙을수록 改新性과 進取性은 減少되는 것이 事實이다。傳統的인 方法을 固守하게 되고 變化보다는 安定을 높이 評價하게 된다。따라서 創造力과 計劃性을 爲한 精力은 衰弱하여진다。그러므로 普通으로 進步主義者는 靑年層에서、保守主義者는 老年層에서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둘째로 文化發展에 따른 여러가지 變化가 모든 國民에게 均等히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卽、어느 社會에서나 富力、權力、또는 身分에 있어서 平等性을 찾아 볼 수 없다。或者는 滿足스러운 地位를 占有하고 있는 反面에 或者는 이 地位를 얻으려고 피눈물나는 努力을 한다。後者는 旣存하는 社會秩序와 制度에 不滿을 느끼고 自己 自身도 惠澤을 입어 보고 싶기 때문에 秩序와 制度의 變化運動에 參與한다。이러한 進步主義者는 敎育、牧人 그리고 地位와 같은 文化의 所産을 再分配하려고 努力한다。이에 反하여 惠澤을 받는 位置에 있는 者들은 社會秩序에 變化를 가져 오는 그러한 勢力에 反抗한다。이러한 現象은 經濟問題에서 흔히 볼 수 있다。그러므로 社會의 自然的

調整은 特權層의 保守主義를 發展케 하며 現狀維持에서 利得을 보는 社會의 構成員은 變化나 改革을 願하는 庶民層의 進步主義에 反旗를 든다。

셋째로 保守主義的인 것과 進步主義的인 것에 크게 影響을 주는 것은 敎育이다。어떠한 社會問題이든지 注意性 있게 硏究한 者는 어떤 解決策을 講求하게 된다。卽、그는 硏究를 通하여 洞察力을 가지게 되고 이로 因하여 變化를 支持하는 進步主義者가 되는 수가 있다。그러므로 進步主義는 社會的 改革이나 政治的인 革新의 可能性을 探究하기 爲하여 줄기차게 努力한 理論家가 세운 理念과 計劃에 依하여 發展하게 된다。그러나 社會의 한 制度的 機關으로서의 學校는 保守主義的 要素를 造成케 한다。學校라는 機關은 그 社會의 傳統과 그 社會集團의 技術에 依하여 이루어진 資料에서 選擇하여 敎育을 시켜야 하고 또한 旣存秩序를 支持하도록 壓力을 받게 된다。過去와 現在의 文化는 學校라는 媒介를 通하여 連結되고 또한 未來를 計劃하게 된다。이러한 過程에는 政治的 秩序뿐만 아니라 社會秩序 全般을 保存하려는 傾向이 濃厚하다。

三、韓國의 風土

지금까지 「保守」와 「進步」의 槪念을 規定하고 그 一般的인 意義와 要件을 略記하였거니와 果然 우리 韓國의 現實은 어떠한가、먼저 保守對 革新政黨의 對立을 假想하고 그 可能性을 살펴 보기로 한다。첫째로 旣成世代의 無能과 不信에 對한 反抗은 四·一九革命으로 나타났지만 여기에 旣成指導者의 몰락은 進步勢力의 發芽를 도울는 氣候를 造成케 하였다。그 눈속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던 非特權階級이 햇빛 속에서 服從을 强要하던 特權階級의 權威를 打倒하였다는 事實은 革新勢力의 溫床을 爲하여 도움이 되는 둘째의 理由가 된다。셋째로 現狀에 不滿이 많고 새로운 바람이 불어 오기를 고대하는 民主社會主義的인 사람은 勿論 社會民主主義的인 勢力이 앞으로 基盤을 닦아 보려고 하는 努力이 엿보이는 것도 事實이다。넷째로 우리 國民 大多數가 貧困에 허덕인다는 事實은 革新的인 政黨들이 그 基盤을 공고히 할 수 있는 素地가 된다고 볼 수 있다。社會主義的 色彩를 띠고 이러한 貧民層에 經濟的 平等을 내걸고 그들을 포섭하려는 努力을 하기가 무엇보다도 좋다고 보겠다。다섯째로 西歐民主主義의 短點을 指摘하고 經濟的 自由主義의 長短을 主張하고 한거름 더 나아가서 社會的 立法은 勿論 모든 面에 平等을 基幹으로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福利國家의 建設方案을 合理的으로 내세우는 理論家들이 있다는 事實은 進步主義를 行動綱領으로 하는 革新系가 크게 發

展할 수 있는 動因이 될 수 있다。以外에는 革新系의 進步主義者들이 자라날 수 있는 動因은 直接 間接으로 많이 있을 것이다。

以上에 列擧한 것과 같이 革新系의 勢力이 發展할 수 있는 素地와 動因을 우리 韓國社會에서 찾아볼 수 있다。考察의 角度를 달리하여 불적에 이 革新政黨의 育成을 妨害하는 要素가 있으니 그것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첫째로 우리 社會가 工業化된 社會가 아니고 組織化되지 못한 農村社會이라는 點이다。機能的으로 分業化되고 組織化된 工業社會에서는 富益富、貧益貧하는 社會的인 惡現象이 나타나고 數的으로 優勢한 團結된 職能的 勢力을 即、多數의 工場勞動者들은 少數 有産層의 피해를 切實히 實感하고 革新勢力의 前衛가 되지마는 農業社會의 農夫들은 地域的으로 서로 떨어져 산다는 理由도 있지만 現在의 窮境을 몸소 겪으면서도 結團된 힘으로서 뭉칠 수가 없는 實情에 놓여 있다。農夫들의 非組織的인 活動을 招來한 理由를 살펴보면 農夫들의 個性이 지나치게 傳統에 執着하는 同時에 冒險과 投機를 싫어하는 點에도 있는 것이다。每事에 체념을 잘하고 運命的인 것으로 모든 것을 解釋하려는 傾向은 여러모로 惠擇을 받지 못하는 農村 사람들이 理論上으로 보면 當然히 革新의 깃발을 먼저 들어야 함에도 그렇게 못하는 큰 理由가 되는 것이다。

둘째로 革新勢力의 理論이 共産主義의 理論을 脚色하여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하고 國民 一般들이 疑訝스럽게 생각한다는 點에 革新勢力의 育成에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있다。六·二五事變의 쓰라린 民族的 體驗은 共産主義의 排擊에 對한 精神的 武裝을 무엇보다도 잘 시켰다。共産主義의 달콤한 理論이나 매력있는 虛僞宣傳에는 손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國民 各自는 一種의 共産이란 傳染毒素에 對한 면역성이 생겼다。그런데 進步勢力의 政黨은 그 性格을 이 國民에게 共産主義와는 뚜렷이 區別되는 點을 提示한다고 해도 國民 大多數는 이를 額面그대로 받아 들이지 않는다。따라서 革新系의 政黨이 四·一九 革命以後 雨後竹筍格으로 많이 나왔지만 七·二九總選擧라는 國民의 審判에서 不過 三席밖에 얻지 못했다는 事實이 이를 더욱 確證하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美國의 政黨制度가 保守兩黨制이라는 事實이 우리 나라의 革新政黨이 育成되어 保守對 改革의 對立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얼핏 생각하면 美國의 政黨制度와 何等의 關係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우리 民族에게 모두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現實을 冷情히 分析할적에 事大依存性을 뿌리뽑지 못

〈五三面에계속〉

經濟自立에의 條件

李 廷 煥

一貫된 目標와 努力을 가지자

우리가 自立經濟를 指向함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險路가 가로놓여 있다。 國土의 兩斷、人口의 過剩、技術、資源의 不足등을 考慮하여 볼 때에 普通程度의 努力으로 自立經濟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에 있어서는 自立經濟는 達成할 수 없는 禁斷의 열매일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問題는 自立經濟의 水準과 目標를 어떠한 線에 두는가에 달려 있지 않을가。 지나치게 높은 生活水準、生活水準 및 雇用水準을 目標로 한다며는 自立經濟에의 길은 遙遠할 것이며、그렇지 않고 우리들에게 알맞은 目標를 設定할 때에는 自立經濟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自立經濟를 指向하는 첫째의 길은 達成 可能한 目標를 明確히 規定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具體的인 目標가 設定되면 이 設定된 目標의 達成을 위한 繼續的인 努力이 必要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過去의 經濟政策을 되돌아 볼 때에 첫째로 自立經濟를 위한 目標의 設定이 너무나 漠然하였으며、둘째로는 自立經濟를 指向하는 經濟政策에 一貫性이 보이지 않았다。

옛 희랍 神話에 「빼네로-페의 織物」이란 이야기가 있다。 그 神話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옛날 「빼네로-페」라는 美女가 있어 뭇 男子들의 憧憬의 相對가 되어 있었으나、그녀는 드디어 여러 男子들의 競爭을 멸시하고 「유리시-즈」와 結婚하게 된다。 그런데 好事多魔라 할가 「유리시-즈」가 戰爭에 나가게 되고 「빼네로-페」는 獨守空房을 하게 된다。 그렇더니 戰爭의 期間이 길어지고 男

便「유리시ㅣ즈」의 歸還이 期待하기 어렵게 되자 四方에서 再婚의 請이 들어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굳이 請婚을 拒絶해 왔으나 나중에는 도저히 여러 男子들의 請婚을 拒絶할 수 없는 處地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페네로ㅣ페」는 籠絡之策으로 自己의 시아버지를 위한 옷을 한벌 짜고난 後에 누구에게 政嫁할 것인가를 決定하겠다고 發表하였다。 모든 男子들은 一箇月·二箇月을 기다리고 一年、二年을 기다렸다。 이리하여 날은 가고 해는 갔으나 「페네로ㅣ페」의 옷은 永遠히 짜지지 않았다。 왜 그랬는가 하면 낮에는 베를 짜다가 밤이 되어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실을 다 풀어 버리고、그 다음 날은 다시 짜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니 언제까지 가더라도 시아버님의 옷감이 完成될 理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自立經濟를 指向하는 政府의 經濟政策이 「페네로페ㅣ의 織物」이 되어 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一定한 目標와 方向이 設定되면 그것의 實踐을 위한 努力이 中斷됨이 없이 繼續되어야 하는 것이다。 特히 새롭게 內閣責任制를 確立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內閣의 更迭이 政策의 中斷과 變更을 가져올 可能性이 大端히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筆者는 「經濟는 飛躍하지 않는다」는 「마ㅣ샬」의 말을 引用함으로써 自立經濟를 위한 經濟施策에 있어서는 內閣의 變更과 更迭을 超越하여 一貫性이 있기를 希求하여 마지 않는다。

經濟自立을 위한 主體的條件

「슘페ㅣ터」라는 有名한 經濟學者는 經濟가 發展하는 契機를 企業家的 精神에 두었다。 企業家的 精神이라 함은 自由競爭에 이기기 위하여 새로운 技術、商品 등등의 新生產方法을 積極的으로 導入하려는 態度를 말하는 것이다。 이 「슘페ㅣ터」의 理論은 經濟의 發展이 技術이라든가 資源이라든가 또는 社會制度라는가 하는 自然的이고 社會的인 要因에 依存하는 것보다는 經濟生活을 擔當하여 나가는 主體的 面에 더 많이 支配를 받게 된다는 것을 主張하는 것이다。

이러한 「슘페ㅣ터」의 理論은 二次戰以後의 後進國開發論에 있어서 그 正當함이 論證되어 왔으며 最近의 後進國開發論에 있어서는 「슘페ㅣ터」로 돌아가라는 말이 流行되고 있다。 初期의 後進國開發論者는 後進國을 開發시키는데에 가장 緊要한 두가지 問題가 있다고 보았다。 그 하나는 社會制度의 問題 즉、社會主義的 社會體制를 가지는가、資本主義的 體制를 가지는가 하는 問題였고 다른 하나는 後進國에 不足한 資本과 技術을 提供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두가지 問題만 가지고서는 後進國開發

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十有餘年의 經驗을 通하여 알게 된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不足하였겠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실제로 經濟生活을 擔當하여 나갈 사람들이 應當히 갖추어야 할 資格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後進國에 있어서는 國家의 産業政策을 擔當하여 나갈 指導者가 그 理念과 技術 및 生活態度에 있어서 不足하며、 一般大衆은 無氣力하여 積極的으로 自己의 運命을 開拓할려는 企業家的 精神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主體的 條件의 缺乏이 後進國開發의 基本的 癌이 되어있는 것이다。 經濟自立의 問題를 論함에 있어서도 問題는 同一한 것이라고 筆者는 생각한다。 經濟自立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努力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主體的 條件의 確立이다。

오늘날 우리가 自立經濟를 指向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沮止하는 여러가지 動向을 만들어 내는 基本的 原因은 高度히 依存的이고、 勤勉하지 못하며、 儉素하지 못한 우리 百姓들의 生活態度라고 筆者는 보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 百姓들의 이러한 生活態度를 是正하여 나가는 것이 첫째로 重要한 問題가 아닐가 생각한다。

自立經濟는 他國의 援助를 받지 않고 自力으로 自國의 經濟生活을 하여 나가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國民들은 于先 個個人의 經濟生活에 있어서 依存性을 버리고 獨立的인 經濟生活을 建設하도록 努力하여야 될 것이다。 우리들은 歷史的으로 물려받은 家族制度의 結果로 至極히 他力依存的인 思考方式과 生活態度를 가지고 있다。 어떤 外國人은 나에게 이러한 忠告를 하였다。 自己가 생각키로는 元來의 東洋的인 家族制度의 基本精神은 協同에 있었다고 보나 今日에 있어서는 이 制度의 나쁜 面인 依存性이 너무나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個人이 各自의 生活을 他人에 依存시키려고 한다면、 이러한 個人生活의 集合體인 國民經濟도 依存的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生活에 있어서 依存性을 없앤다는 것이 自立經濟를 確立하는데 出發點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現實에서 볼 때에 輸入할 物資는 많으나 輸出할 物資는 적다。 그렇기 때문에 國際收支는 漸漸 不利하게 되는 것이다。 이 不利한 國際收支를 克服하자며는 우리는 他國民보다 더 많이 일을 하여 조금이라도 더 많은 物資를 産出하여 輸入을 抑制하고 輸出을 增大시켜야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한가지 障碍가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百姓이 매우 게으르다고 하는 것이다。 옛날에 어떤 外人은 韓國人을 세가지 S를 좋아하는 百姓

이라 하였다。 담배 잘 피우고(Smoking), 정자 나무밑에 모여서 雜談 잘 하고(Shading), 낮잠 잘 자는(Sleeping) 사람이 韓國사람이라 한다。 우리 百姓이 이렇게 게으른 性質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先天的 性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社會制度의 缺陷에서 나온 後天的인 性格이라고 본다。 옛날의 封建制度下에서 아무리 勤勉하려라도 모든 農作物을 兩班들에게 收奪當한다고 한다면 百姓은 自然히 게을러 지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百姓의 게으른 性質은 가혹한 收奪制度에서 싹텄었으나, 날이 가고 달이 가는 동안에 이제는 게으른 것이 第二의 天性과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自立經濟를 指向하는 이마당에 있어서 政府는 百姓들에게 熱心히 일할 수 있는 刺戟을 주도록 努力하여야 되겠으며, 百姓은 各者가 自己의 生活條件을 改善하기 爲하여 從來보다 좀 더 努力하여야 될 것이다。

우리는 너나 할것 없이 모두가 自立經濟의 必要性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消費生活의 實態를 보살펴 볼 때 우리가 모두다 自立經濟를 不可能하게 하는 生活을 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國民의 生活이 지나치게 奢侈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奢侈한 것이 왜 自立經濟에 背反되는 것일까。 첫째로 國民들이 奢侈하면 奢侈할수록 奢侈物資의 導入을 위하여 그렇지 않아도 不足한 外換이 浪費될 것이며, 둘째로 國民들이 奢侈하면 奢侈할수록 資本蓄積을 위한 貯蓄水準을 減退시키고 資本源을 消費物財用으로 轉用시킴으로서 工業化의 速度를 느리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國民生活에 本格的인 奢侈風潮가 생기게 된 것은 六·二五事變 以後인 것 같고, 이러한 風潮가 생기게 된 것에는 두가지 基本原因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그 하나는 政治事態의 不安으로 因하여 百姓들 間에 短期間의 享樂 乃至 安逸을 즐거워하는 動向이 생긴 것이고, 또 하나는 先進國 特히 美國과의 經濟交流를 通하여 일어난 示威效果(Demonstration effect)의 結果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經濟的 實情에 맞지 않는 지나친 奢侈風潮를 是正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政治的 不安을 解消하도록 努力하여야 되겠고, 둘째로 民族的 自覺에 의한 國民의 自肅이 必要할 것 같다。

消費構造를 變更하고 技術을 向上시키라

自立經濟를 確立하는데 必要한 客觀的인 制度的인 面에 있어서는 論할 여러가지 問題가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우선 消費構造의 問題와 技

術의 問題에 對하여 論하여 보기로 하겠다。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筆者가 客觀的인 諸要因中에서 가장 重點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解放以後에 우리나라의 消費構造는 美國의 影響을 받아서 새로운 方向으로 變更되어가고 있으나、그 構造가 自立經濟에는 甚히 不利하게 形成되어가고 있다。

消費構造가 自立經濟에 有利 하자면는 우리들은 消費生活에 있어서 可及的으로 輸入物資를 적게 써야 하는 것이고、또한 輸出物資를 增大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첫째로 解放後의 消費構造의 變更이 輸出物資의 供給에 對하여 어떠한 影響을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자。解放前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重要輸出物資의 하나는 쌀이었다。우리는 廉價한 雜穀、또는 外來米를 導入함으로써 年間 五、六百萬石의 쌀을 對外輸出을 하고 온 것이다。그러나 解放以後에 있어서는 쌀은 그다지 輸出되지 못하고 大部分이 國內消費로 充當되고 말았던 것이다。우리나라와 같이 輸出資源의 不足으로 因하여 國內收支에 赤字가 激甚하여지는 나라에 있어서는 이것은 적지 않은 큰 問題인 것이다。쌀이 消費用으로 充當되어 버리고 輸出이 되지 못한 것에는 國家의 貿易政策 및 穀價政策에도 그 責任이 있겠으나、우리 國民의 食生活構造에도 一部의 責任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우리나라의 食生活은 米食主義를 取하고 있으나、이 主義가 粉食併用主義로 變更됨으로써 쌀의 輸出이 좀더 容易하게 되지 않을 것인가。또한 쌀의 輸出問題를 度外視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食生活은 近代的인 合理的 生活을 이룩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不順한 點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로 解放後의 消費生活의 方向이 外財消費를 促進시키고 있다는 것은 自立經濟를 위하여 至極히 不利한 條件이다。近代는 自動車와 「커-피」의 時代이다。우리나라에서 年間 이러한 物資를 위하여 消耗되는 外貨는 적지 않을 것이다。特히 年內 茶房에서 消費되는 「커-피」代金이 年間 約 十億圓、千對一로 換算하여 約 百萬弗 內外의 外換이 消費되고 있다니 놀라운 事實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交通運輸問題의 解決에도 「가소링」一邊倒의 方向이 是正되어야 할 것이고、또한 茶房에서 使用되는 飮料水問題에 있어서도 國內產의 資源으로 代用하는 硏究가 必要치 않을가。要컨데 一言而蔽之하면 自立經濟를 指向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政府의 適切한 指導와 民間의 自發的인 自覺에 의하여 우리들의 消費生活構造에 變更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自立經濟의 樹立을 위하여 가장 重要하게 생각되는 技術의 向

上問題에 對하여 言及함으로써 이 原稿를 終結지우고자 한다。우리가 積極的인 意味에 있어서의 自立經濟 즉、國內均衡과 國際均衡의 規模를 크게 하여 나가자며는 그 基盤을 技術의 發展에 두어야 되는 것이다。

二次大戰 以後에 있어서 西獨과 日本의 急速한 經濟發展을 이룩하게 된 것도 밑바탕에 優秀한 技術體系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더욱이나 二次戰以後의 時期를 가리켜 技術의 時期라고 한다。그 뜻은 戰後의 美國經濟가 急速한 技術의 發展을 通하여 繼續的인 繁榮을 이룩하고 있으며、先進諸國間에 激甚한 技術競爭이 일어나고 있다는 意味에서이다。이러한 時代에 있어서 우리가 自立經濟를 指向하자며는 우리도 急速히 우리나라에 固有한 技術體系를 確立하여 優秀하고 廉價한 製品을 世界市場에 보낼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우리나라에 固有한 技術體系의 確立은 一朝一夕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우리는 한面에 있어서 先進國家의 最新技術體系의 導入에 힘쓰과 同時에 또한 다른面에 있어서는 基礎科學의 確立에 最大限의 努力을 다 하여야 될 것이다。그리고 筆者가 結論으로서 말하고자 하는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人口는 많고 國土와 資源이 不足한 나라에 있어서 先進國家와 같은 高度한 經濟發展을 이룩하자며는 技術의 革新에 의한 加工貿易만이 問題를 解決하여 줄 것이라는 點이다。

〈筆者・延世大 敎授〉

〈四五面에서 계속〉

하고 思考와 行動面에 「아메리카 나이즈」되는 傾向이 있음을 直觀할적에 美國의 政黨制度를 우리 나라에 再版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萬一 우리가 美國보다도 英國과 더욱 가까운 紐帶를 맺게 된다면 틀림없는 保守對 革新의 政黨對立을 가지오게 될 것이라고 본다。

넷째로 革新政黨을 運用하기 爲한 資金의 困難도 革新系의 育成을 시들게 하는 한 要因이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지금은 沒落했지만 保守的인 自由黨의 뒤에 執權하게 된 民主黨이 保守的 野黨으로 돌기차게 執權黨을 批判、攻擊、鬪爭하였다는 事實이 또한 앞으로 保守兩大政黨의 對立 可能性을 깊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民主黨의 內紛으로 반드시 保守野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며 앞으로 南北統一이 되기까지에는 革新系의 政黨이 育成될 수 없을 것이다。育成될 契機가 統一 前에 온다고 하면 保守政黨이 여러가지 民生問題를 解決하지 못하는 無能한 政黨、不信任된 政黨으로 타락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다。

〈筆者・延世大 講師〉

外援의 實績과 受惠國의 할일

——韓國外援導入의 展望과 그에 따른 對備策——

夫 琓 琳

一、外援의 實績

外援에 對한 우리 國民의 關心은 外援額數가 적어질수록 커지는 것 같다。한때 一年間 三億 八千萬弗의 線까지 올라갔을 때는 그다지 큰 關心을 안갖었으나 今年度에 二億弗의 線을 깨트리고 一億八千萬弗의 線까지 低下되니 全國民이 이래가지고 살 수 있을가。그 削減이 避치 못할 現實이면 우리는 무슨 對策을 講究하지 않을수 없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는데는 過去의 우리는 果然 얼마만한 額數의 援助를 받아드려서 어떠한 用途에 이를 活用하였는가라는 것을 回顧하여야 할 것이다。이러한 過去實情에 對한 反省이 없이는 將來의 對策이 세워지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過去의 實情을 가장 簡潔하게 說明한 것으로는 現在 우리나라에 와 있는 ICA援助運用에 對한 美側 責任者인「모이어」博士가 今年初에 國防研究院에서 行한 講演內容을 들 수 있다。유솜(USOM 美國國際協助處駐韓使節團)國長인 모이어博士는 昨年 六月末까지의 統計에 依하여 說明하고 있는 것이다。즉「모이어」博士는 一九五三年 休戰以來 우리는 總額 十五億弗의 援助를 받아왔다는 事實을 밝히고 있다。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大體로 첫째는 鐵道、發電、中小企業、電話、水道、公道、漁船等 所謂 施設事業計劃에 五億弗을 充當하였고 다음에 나머지 十億弗은 原棉、石油、肥料、產業機械等 所謂 原資材輸入에 充當하였다는 것이다。이와 같이 援助資金을 가지고 外國으로부터 우리가 必要로 하

는 物資를 導入하여 온 比重은 우리 全體輸入量의 八十三%에 該當할만큼 莫重한 것이지만 그러한 物資輸入財源을 提供하였다는 것 以上으로 큰 貢獻을 援助로 行하여 왔다는 事實을 「모이어」博士는 또 指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 物資를 導入해 다가 우리 國內에서 販賣함으로서 생기는 對充資金을 가지고 許多한 事業의 事業費에 充當하였다는 것이다。 그 比重은 우리 政府豫算의 四十八%를 이 對充資金으로 充當하였다는 한가지 事實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좀 더 詳細히 對充資金의 우리 財政에 對한 貢獻의 內容을 살펴 본다면 軍事費 豫算에 그 對充資金의 四割 乃至 五割을 提供하였고 其外에는 尿素肥料工場、漢江補修工事、造林工事、四百 九十八個所의 水利工事(蒙利面積 五十萬「에이커」——一町步는 二·五「에이커」에 該當하니 約二十萬町步)、二千 四百個의 敎室 및 鐵道敷設、港灣構築、發電施設 및 公路建設等을 爲한 固貨經費로 使用되었는 것이라 하였다。 셋째로 그는 援助가 이와 같이 物資導入、財源 및 對充資金의 두가지 形態로 提供한 貢獻 以外에 第三의 形式으로 적지 않은 도움을 우리 經濟에게 주었다는 事實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技術援助를 말하는 것인데 그 實績은 다음과 같다。 즉 一九五五年부터 一九五九年에 이르는 四個年間에 一千 四百名이 外國에 갔으며 國內 各大學에 行政大學院、經營經濟學科等 各種 學科를 設置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農事改良院을 各道에 設立하였고 二十萬名의 會員을 가진 四H 클럽을 全國에 結成하였을 뿐만 아니라 復興部에는 우리나라의 長期 經濟開發 計劃을 樹立하는 機關으로 産業開發 委員會를 技術援助의 一環으로 附置하였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 이제 앞서 言及한 物資導入、財源으로 輸入한 援助物資를 原資材導入 十億弗의 內容을 좀 더 詳細히 紹介하여 보면 所謂 施設事業計劃 五億弗과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한다。 즉 施設事業計劃에 關하여는 첫째 鐵道施設改善을 爲하여 九十五臺의 디젤機關車 三百個의 橋梁 및 百七十哩의 鐵路를 敷設하였고 둘째 十二萬 七千「키로·왓트」의 新規 發電施設과 數萬「키로·왓트」에 該當하는 施設을 修理하였다는 것이다。 셋째로 約四千 萬弗에 達하는 金額을 二百 四十個 工場 建設資金으로 配定하였는데 그 中에는 「씨멘트」、織物、硝子、化學、製藥、「타이어」、鐵鋼製品、食料品加工 및 窯業工場等이 包含되며 今年 一月現在로 百一個의 工場이 竣工되었으며 今年末까지는 百九個의 工場이 더 完成되리라 한다。 넷째로 其外 施設로는 電話、上水道、公路 및 漁業施設이 있다。 電話는 一九五三

年 八千臺의 加入者가 있었는데 一九五九年末에는 六萬 七千 百臺로 增加되었으며 上水道는 五十四個 都市에 設置되었고 公路에 關하여는 三百 七十八個의 橋梁과 二百 八十哩의 道路가 開設되었으며 漁業에 關하여는 五百 三十隻의 漁船이 增加된 結果 一九五七年의 水産漁獲高가 二萬 七千噸이었든 것이 六萬噸으로 增加된 것만 보아도 얼마나 漁業에 援助가 寄與하였는지 그 程度를 推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十億弗의 原資材 導入에 關하여는 原棉이 十四%、石油類가 十三%、肥料가 二十七%、(年間 五千萬弗) 그리고 産業機械가 十三% (總額一億二千四百萬弗)에 達한 것을 注目해야 할 것이다。

二、外援實績의 評價

그러나 이와 같이 廣汎하고도 多岐한 面幅을 가진 貢獻을 한 外援을 經濟的으로 評價해 볼 때 우리는 明暗兩樣의 效果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十五億弗에 達하는 外援을 받아드려서 活用한 結果、첫째 戰災가 復舊되고 둘째 經濟的 및 財政的 安定을 促進하였으며 셋째 自立을 爲한 보다 長期的 發展을 期約할 수 있게 되었고 넷째 이러한 經濟的 發展으로 말미암아서 直接 또는 間接으로 政治的 社會的으로 좋은 影響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은 確實히 否認할 수 없는 外援의 效果의 明朗한 一面인 것이다。 이것은 外援을 提供하는 政策의 目的이다。

外援을 받아드리는 政策의 目的이 첫째 軍事的 安全을 保障하며 둘째 國民의 經濟的 福利를 圖謀하며 셋째는 將次 自立自成할 수 있는 地境에까지 이끌어 나가자는데 있었으나 마치 至極히 當然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人間社會의 일이 그러하듯이 外援效果의 어두운 面을 우리는 이를 看過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經濟援助는 이것이 美國民의 韓國民 全體에 對한 援助이지 決코 우리 政府의 財政赤字를 補塡하기 爲하여서나 또는 國民 一部層의 少數人士를 爲하여 提供되는 것이 아님에도 不拘하고 休戰以後의 實績을 도리켜 볼 때 幾個人의 政商輩에게 偏重된 利得을 주었으며 나아가서는 經濟的 目的을 爲하여서라기보다는 與黨의 政治的 利得을 爲하여 濫用된 點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즉 國民全體의 福利를 爲하여 活用되지 못하고 李政權의 獨裁와 腐敗化를 爲하여 援助의 적지 않은 部分이 外援本來의 精神을 忘却하고 惡用되었다고 非難을 國內外로부터 받아왔든 것이다。 外援資金을 配定하는데 있어 實需者에 對한 配定에 치우치고 換率은 非現實的인 公定換率을 適用함으로서 所謂 陰蔽補助를 提供하였고 그 配定對象이 不要不急의 事業이나

過剩施設이나 不健全한 企業體로 選定되는 境遇가 없지 않았든 것이다。多幸히 四月 民主革命은 이러한 過去의 不美스런 事態를 是正하는데 絶好의 機會를 提供하였든 것이다。

여기서 앞으로 이러한 過去의 暗黑의 面을 是正하고 明朗한 面을 增大시키려 하면은 따라서 우리는 먼저 一般公賣制와 實需者制의 利害得失、現實換率通用과 非現實的인 公正換率通用의 長短 그리고 陰微補助의 陽性化의 問題를 再檢討하는 同時에 投資事業과 原資材導入과의 配定比率을 適切히 策定하는 同時에 그 事業種目이나 物資品目을 選定하는데도 嚴格하고도 科學的인 標準을 세워서 行하여야 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對充資金運用을 보다 效果的으로 하기 爲하여 財政、金融政策의 盲點을 是正하는 同時에 技術援助의 보다 效果的인 方案을 講究하여야 할 것은 勿論이다。

이런 政策의 方向轉換을 말로 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具體的으로 그 反映이 波及하는 面이 하도 넓기 때문에 그 政策을 實踐한다는 것은 그리 容易하지는 않은 것이다。過去의 政策上의 失手로 因하여 보다 많은 不當利得을 보아 온 階層은 政策轉換으로 因해서 그 利得을 喪失할까봐서 必死的으로 그 轉換을 反對할 것이 豫見될 뿐만 아니라 實際에 있어서도 그들은 오늘날 不正蓄財者들이라고 國民의 指彈을 받을만큼 巨大한 實力과 旣得權을 이나라 財政、經濟面에 確立하고 있기 때문에 問題의 解決은 더욱 困難한 것이다。즉 外援運用上의 過誤는 그만큼 獨裁와 腐敗의 勢力과 緊密히 連結되어 있기 때문에 그 過誤의 是正은 그만큼 그런 勢力의 强大한 抵抗을 豫期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結局 썩은 政治의 所産은 맑은 政治로만 淸掃될 수 있는 것인데 이 淸新한 政治란 그리 손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三、外援遞減과 우리의 對備策

그러나 그러한 맑은 政治를 實行함으로서 外援의 效果를 最大限으로 낼 수 있도록 活用할 必然性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外援의 額數가 削減됨에 따라서 더욱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이點에 關하여 우리 政府는 四月民主革命直後에 美國側으로부터 從來의 失策을 是正하는데 必要한 여러가지 提議를 받어 왔든 것이다。前述한바와 같은 自明한 是正策과 아울러 이 提議를 받아드려 現在 外援運用要綱을 作成하는等 政府가 相當한 努力을 오늘날까지 하여 온 것을 否定하지 못하겠지만 그 中에 몇가지 點을 추려서 적어보기로 한다면 다음과 같은 事項을 들수 있다。

첫째는 換率의 現實化인 것이다。 換率을 고쳐야 할 必要는 輸出의 振興이나 健全한 企業運營의 勸奬에도 있다 하겠지만 于先은 財政收入의 增加와 陰蔽補助의 一掃에도 큰 目的이 있는 것이다。 外援으로 들여오는 物資를 얻어 쓴다는 그 自體가 벌써 外援財源이 不足한 우리 나라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그 物資의 價格을 제값을 다 내지 않고 適正한 代價以下로 쓰겠다는 것은 그만큼 政府財政의 缺陷을 默認하고 그 需要者가 二重으로 德을 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 受惠者에게 補助를 할 必要가 있다면 그 理由를 널리 國民앞에 公開함으로써 堂堂하게 補助할 것이지 決코 暗暗裡에 그와 같은 方法으로 提供하여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 需要者가 弱한 多數者가 아니라 强한 少數者이기 때문에 그것을 陽性化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더욱 陽性化시킬 必要가 있는 것이다。 이 陽性化의 捷徑은 單一的인 現實換率을 採擇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副産物로 적지 않은 利點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즉 非現實的인 公定換率을 固執함으로서 생기는 外換에 對한 假需要와 財政上의 缺陷等을 防止하기 爲하여 不得已 採擇하고 있는 外換公債 또는 外換統制度와 같은 迂廻的인 施策이 不必要하게 되며 따라서 複雜한 換率을 둘러싸고 생기는 投機나 濫用도 아울러 除去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또 우리 豫算에 對한 韓美共同審議가 우리 主權을 侵害하게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論議도 大幅的으로 그 必要가 減殺될 것이다。

둘째 施設計劃事業에 置重하여 援助資金을 配定하는 方針을 세워야 하며 그 中에서도 電力開發에 重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 國民經濟의 將來를 생각하여 볼 때 工業化의 길을 밟는 것이 不可避할 것인데 工業化의 길은 各 企業體가 다 같이 依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電力、道路、港灣、水道、倉庫等의 施設인 것이다。 이것을 經濟學上으로 産業構造間 投資 또는 外部經濟(節約)施設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은 巨大한 資金을 要하는 同時에 이것은 非營利的인 것이거나 또는 資本의 回收가 長期에 걸치는 投資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後進國의 民間資本이나 財政資金에 期待하기 어려울 뿐더러 先進國의 民間資本 導入으로도 充分히 實現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過去에도 이러한 施設投資가 적지 않았든 것은 앞에 적은 바에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日常生活을 通하여서도 아직도 不足한 것을 充分히 알 수 있는 것이다。 日常生活面에서 不足을 느낄 바 하다면 그런 施設이 遠大한 工業化計劃을 爲하여 未洽한 것은 너무나 當然하다 하겠다。

勿論 政府當局에서도 留意하는 바가 아주 없지 않겠지만 問題는 一般工業發展計劃에 앞서야 할 이런 基本的인 施設投資가 恒常 뒤떨어졌다는 點에 있는 것이다。 이 先後 關係를 바꾸어서 電力等 施設이 다른 部門의 工業化過程을 促進하고 誘導하여 나갈수록 積極性을 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原資材導入의 標準을 是正하여야 할 것이다。 原資材가 援助物資로 導入하는 結果는 極端한 表現을 빌린다면 世界第一의 廉價의 原料를 導入하여 加工한 製品의 價格은 世界第一의 高價가 되는 形便에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나 이와 같은 不健全한 企業運營이 容納될 수 없다는 것은 길게 說明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種類의 產業의 製品이 國產品이라는 美名아래 類似品目의 輸入禁止措置로까지 保護받게 된다면 그것은 結局 國民의 消費大衆의 犧牲을 무릅쓰고 獨占企業體를 키워주는 結果가 되고마는 것이다。 우리는 企業의 將來를 爲하여서도 劣等企業體는 初期에 淘汰되는 것이 좋겠고 國民大衆의 利益을 爲하여 不健全 獨占企業體를 排除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넷째는 剩餘農產物의 導入이 우리나라의 農業經營에 큰 被害를 입혀서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農業이 戰亂으로 因하여 政策上 比較的 푸대접을 받아 온 것은 어느 時期와 어느 程度까지는 不可避한 面도 없지 않았으나 美國의 剩餘農產物導入의 被害를 입는다는 것은 美國의 立場에서 보나 우리나라 農民의 立場에서 보나 이 以上容許될 수 없는 일이다。 或者는 國防費調達을 爲하여는 不可避한 것이라고 說明도 하지만 富裕한 美國의 農民을 도웁고 農產物 價格을 維持하기 爲하여 마련된 剩餘農產物資가 貧困한 韓國에 導入되어 우리 農民과 農業을 沮害한다는 것은 政治的으로 援助의 精神을 抹殺하는 것이다。 國防上의 見地로 보드라도 農家出身의 子弟가 主가 되어 있는 國軍에 必要한 經費가 農民에게 苦痛과 損失을 주는 財源에서 마련된다는 것은 士氣에도 적지 않은 惡影響을 주는 것이다。

國軍은 國稅로 維持되고 剩餘農產物의 導入으로 마련되는 財源은 農業 其他 產業開發을 爲한 資金으로 使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援助가 減少되고 無償援助가 有償援助로 轉換되는 것이 展望된다면 우리는 以上의 諸般措置를 뒷받침하기 爲하여서도 國民全體 特히 富裕層의 耐乏生活이 切實히 要求된다는 것은 더 말할 必要도 없는 것이다。

〈筆者·朝鮮日報 論說委員〉

言論의 自由와 責任

李 寬 求

「매스·콤슈니케이숀」 그 中에도 言論의 重要性은 여기서 새삼스럽게 말할 必要가 없다。 近代 「매스·콤」의 淵源은 言論의 自由가 그 核心을 이루고 있는 民主政治의 社會가 나타나기 以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西歐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約五百餘年前인 一四五〇年代의 官權主義社會에서 매스콤이 官權主義理論을 뒷바침으로 생겨났음을 찾아볼수있다。 官權主義라 함은 社會的價値에 있어서 國家가 個人보다 優先한다는 것이며 사람의 能力은 個人으로서는 微弱하지만 組織된 社會의 構成員으로서는 强大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官權主義社會의 機能은 그들 構成員의 思考 및 行動의 統一을 維持하며 또 指導勢力의 恒久的인 支配를 要求한다。 그리고 이러한 目的을 造成하기 위하여 言論機關을 說服과 强壓의 手段으로 삼았던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國家의 安全은 모든 것에 優先하며 統治者의 不德한 行爲도 言論의 强壓도 이를 正當化할 수 있다고 主唱하였지만 當時의 이러한 政治哲學은 印刷術이 發達한 以後에도 꾸준히 繼承되어 온 것이었다。 따라서 官權主義社會는 먼저 言論機關의 取材活動을 制限하고 新聞發行을 許可制로 하여 그 發行人을 任意로 決定하는 同時에 事前檢閱制度를 實施한 것이었다。

그러나 言論에 對한 官權主義的 認識은 十八世紀後半 自由主義的 思想의 普及과 自由主義的 政治의 革命으로 말미암아 變化를 이르키고야 말

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專制主義思想은 오늘에 있어서도 一部國家에 뿌리를 박고 있으니 이는 쏘聯 및 그 衛星國家에서 行하고 있는 言論의 統制에서 볼 수 있고 또 그밖의 後進國家中에서도 檢閱制를 實施하거나 新聞紙法으로 言論을 制限하고 있는 나라가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專制主義에 對한 自由主義의 基本的 理念은 個人의 能力을 높이 評價하여 人間은 그 自身의 力量을 理解할 能力이 있으며、따라서 宗教·政治 및 社會問題를 解決함에 있어서 그 自身의 理解力을 行使할 自由가 있으므로 이에 對한 外部의 制限으로부터 獨立해야 된다고 宣言하였던 것이다。 이 自由主義的 理論은 十七世紀에 發芽하여 十八世紀에 結實하고 十九世紀에 普及되었는데 人間이 天賦의 選擇權과 知性의 힘을 完全히 發揮하기 위해서는 自由로운 意思表示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自由主義社會의 任務인 것이다。

이리하여 이 時代의 「애스·롬」은 公開市場에서 競爭할 수 있는 個人의 企業體로 變해졌다。 即、個人은 아무라도 言論機關을 經營할 수 있고 또 누구던지 그의 周圍에서나 政府機構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아내 가지고 自身의 幸福을 위하여 自由로운 判斷과 選擇權을 行使할 수 있다는 것이였다。

그러나 二十世紀에 들어와서도 一部後進國家에서는 아직도 官權主義가 政治制度에 뿌리를 박고있어 言論自由가 實現되지 못하고 있는 同時에 自由主義的 理論이 民主言論의 窮極的인 理論으로 定着될 수 있을 것인가에 對하여 漸次 懷疑的 傾向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自由主義와 더부러 言論은 個人의 知性과 選擇의 權利를 追究하고 個人의 福祉를 위하여 爲政者들에 關한 眞實을 밝히고 政治的 討論을 刺戰하며 政府에 對한 攻擊과 批判을 活潑하게 하는 것을 그 使命으로 삼았다。 政府는 個人을 위해서 있는 것이며 個人이 나라의 主人이므로、個人은 政府의 하는 일을 알고 또 그의 잘못을 가려 政府를 交替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言論은 重大한 社會的、道義的 責任을 맡게 되었고 그 責任이야말로 公益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重要視되어야 한다는 理論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이 곧 社會的 責任의 理論인데、이는 오늘날 先進民主主義國家들이 採擇하고 있는 新聞倫理綱領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一九五七年 四月 韓國新聞編輯人協會가 採擇한 新聞倫理綱領도 亦是 社會的 責任理論이 뒷바침하고 있는바、그 一節을 紹介하면 이러하다。

먼저 新聞의 自由를 論함에 있어서 新聞의 自由는 人權의 가장 基本的인 權利의 하나로서 끝까지 이를 擁護하여야 한다……다만 公共의 利

益을 侵害할 경우에는 一般法의 制約을 받게되는 것이지만, 新聞의 自由를 制限 또는 干涉하는 法律은 있을 수 없다。이러한 法律을 抑制하고 反對하는 自由도 勿論이에 包含한다고 한 다음, 新聞의 責任을 規定하고 있다。

「新聞은 社會의 公器로서 그 公共性이 容認되고 新聞人은 獨特한 社會的 位置를 지닌다。그러나 이는 오로지 公衆이 新聞에 依하여 事件과 問題의 眞狀을 把握하고 이를 判斷의 基礎로 삼는다는 信賴로부터 온다。그러므로 新聞의 最大의 責任은 公衆의 이러한 信賴를 基礎로 하여 公共의 利益에 忠實하게 服務함에 있다。이 責任은 또한 新聞의 公共性을 保全하는 最大의 要素이다。新聞은 항상 正義에 立脚하여 不正과 對決함에 勇敢하고 弱者의 편을 들어 그 呼訴를 대신함으로써 그 公共性을 具體的으로 나타낸다」고 하였다。

美國의 大法官 「올리버·홈스」의 말을 빌리면 言論의 自由란 것은 滿員을 이룬 劇場에서 「불이야」하고 외치는 無節制한 放從과는 區別되어야 한다」。그 불이야 하는 외마디소리가 劇場속을 極度의 混亂에 빠트려 경우에 따라서는 크다 큰 不祥事까지 이르킬 수도 있는 것임에, 이는 文字그대로 「無節制한 放從」이 아니면 犯罪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그러므로 言論自由가 아무리 貴重한 것이라 할지라도 저러한 경우에 適用되지 않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여기서 社會的 責任으로 뒷바침하는 新聞의 倫理가 確立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自律的이어야 하는 것이다。이런 種類의 自律的 倫理綱領은 新聞以外의 映畵其他의 各種 「매스·콤」에서도 만들어 지고 있지만, 數百年동안 피의 犧牲이 따르고 民主鬪爭을 通하여 자라난 新聞의 倫理綱領과 今世紀에 들어와 비로소 생겼거나 發達하게 된다른 「매스·콤」의 倫理綱領과는 그 歷史的 背景이 서로 다른만치 若干 그 性格을 달리한다。前者는 政府等 權力機關에 對한 批判을 尊重하고 있지만, 後者는 政府等 權力機關에 多少 追從하는 傾向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今世紀로 들어와 自由主義理論은 社會的 責任理論으로 變貌되었거니와 한편으로는 前近代的인 官權主義가 後進國에서 그 殘骸를 찾아 볼 수도 있고 한걸음 나아가서는 共產主義理論으로 積極化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共產主義의 理論的 根據가 되는 「맑스」의 理論은 「統一」에 神秘的 價値를 두고 있다。

階級의 統一、黨의 統一、選擇의 統一等이 그러하다。蘇聯의 理論家들은 사람은 서로 意見을 달리해서는 안되며 妥協은 弱하다는 證據로 밖에 아니 본다。그러므로 言論도 國

家의 意見과 달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蘇聯制度下에서는 「매스·콤」이 國家機構의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은 人民에게 決定된 事實을 알리고 그들에게 받드시 行할 바를 指示하는데 使用되고 있다。卽 言論機關은 大企業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個人所有를 許하지 않을뿐 아니라、이를 國家課業遂行의 重要한 道具로 使用하고 있다。

要컨대 今世紀로 들어와서 「매스·콤」은 民主主義社會와 共産主義社會에서 飛躍的으로 發展해 왔고、어떤 意味에서는 後者가 그의 國家機關으로서 굉장하게 利用하고 있기 때문에 그 量的 規模는 더욱 發展했다고도 볼 수 있다。그런데 그 理論面에 있어서 兩者가 모다 相當한 變化를 이르키고 있음에 더욱 注目된다。民主主義社會에 있어서는 十七、八世紀 啓蒙運動時代에 擡頭한 自由主義理論으로부터 社會的 責任理論으로 變貌되었다。卽 言論을 國家로부터 分離시켜 自由와 獨立을 누리게 하였다。新聞없는 政府와 政府없는 新聞과의 兩者中하나를 擇하라면 차라리 後者를 擇해야 한다는 程度였다。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이미 그 段階를 벗어나 言論活動自體를 社會的 責任과 道義的 標準에 비추어 檢討해 보자는 傾向으로 흐르게 되었다。이는 「매스·콤」이 오랫동안 지내는 동안에 社會의 批判을 받게 되고 言論機關이 그 莫大한 權限을 言論本來의 使命을 위하여 行使하지 않고 言論人의 自己意見을 主張하는데 誤用했다든가、「쎈세이숀날」한 娛樂面과 個人의 人權侵害에 惡用했다든가、또 特殊한 「實業階層」에 操縱되었다든가、이런 等等의 批判이 있으므로 해서 先進國家의 言論人들은 自發的으로 倫理綱領을 採擇하기에 이른 것이다。言論의 自由는 基本人權으로서 尊重하는 바이로되 여기서는 公衆性을 土臺로하여 社會的 責任이 따르지 않는 自由를 容認하지 않게 된 것이다。

(筆者。日日新聞社長)

(金) (言)

◇기적은 신앙이 키운 최고의 총아이다

◇사랑은 행복이며 행복은 사랑이다

◇결서가 천국의 첫째 법률이다

◇모든 지식은 의혹에서 시작되며 신앙에서 끝난다

◇기적을 바라는 자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한다

◇은혜를 갚는데도 너무 서두르면 도리어 일종의 망은이 된다

◇군자는 말을 느리게 해도 행동은 기민해야 한다

韓國文化에 對한 世界人의 認識

—海外紹介를 爲한 움직임—

李 惠 求

國內에서 韓國文化의 海外紹介를 부르짖는 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傾向이 보인다。最近의 例만 들어보아도 六月일지 七月에 朝鮮日報 社說이 그 海外紹介의 必要性과 그에 對한 몇가지 「플랜」을 提唱하였고 KBS에서도 그에 對한 鼎談을 放送하였고 또 지금 코메트誌도 이런 題目을 내 걸것 等이다。

한편 韓國이 海外에 잘 알려져 있지 않어서 섭섭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멀리 떠러진데서 韓國에 對한 知識을 얻으려고 要望하는 사람도 있어서 韓國文化紹介에 힘을 얻게 된다。이 點이 重要하다고 생각한다。卽 이쪽에서 아무리 自己存在를 알리고 싶어도 저쪽에서 알어보려는 마음이 없으면 虛事이기 때문이다。

런던大學·소르본大學·라이덴大學·콜럼비아大學·하벋大學等에 韓國科가 있고 그 圖書館에는 韓國書籍 新聞等이 備置되어 있다。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二十三年前 소르본大學에서 韓國語와 歷史를 가르치고 있는 李玉氏와 함께 그 大學의 韓國科 主任敎授 「아게노에」敎授 집에 찾아갔었을 때 그 老敎授의 述懷談이 다。「自己는 民主主義나 共産主義의 宣傳에는 아무 興味가 없고 文化에 關한것 만이 所用된다。政治의 宣傳冊보다 文化에 關한 冊을 韓國에서 많이 보내주기를 바란다。소르본大學에 韓國語科가 있고 앞으로 韓國歷史의 講座를 增設하고 싶은데 그에 對하여 韓國政府에서도 힘을 써 주기 바란다。앞으로 韓國科가 잘 되어가려면 그 科를 志望하는 學生이 나와야 하고 그러려면 그 科 卒業生을 韓國政府에서 알선해서 韓國으로

데려다가 一、二年間 佛語講師로 採用하고、그 젊은 學者는 韓國滯在中 韓國工夫를 하고、다시 母校로 돌아와 助敎授職에 앉을 그런 希望을 갖도록 힘써 주었으면 좋겠다—大槪 이런 뜻이었다。이 얘기는 우리가 우리 文化의 海外紹介를 할 때 어떻게 하면 有効適切히 하느냐 그러려면 저쪽에서 무엇을 要하느냐 卽 對象과 方法을 硏究하는데 한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外國에서 韓國文化에 對한 知識을 願하는 것은 外國의 大學에 있던 韓國科에 局限된 것은 아니다。中國과 日本을 더 깊이 硏究하려면 韓國을 全然 빼놓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나는 日本 雅樂을 硏究하는 一美國人 學者에게、韓國雅樂도 參考로 硏究하여 보라고 勸한 적이 있었다。그 勸誘의 理由는 그가 規定한 日本雅樂의 特色이 韓國雅樂에도 나오면 그 規定은 다시 修正되어야 할 터이니 그런 過誤를 막기 위하여서라도 一次 韓國雅樂을 硏究하는 것이 必要하기 때문이다。多幸이 그 篤實한 學者는 韓國에와서 韓國雅樂을 工夫하고 그 收獲을 기뻐하였고 그 말을 들은 나도 기뻤었다。

韓國文化에 對한 知識을 기뻐할 사람은 東洋學을 硏究하는 사람 以外에 世界의 比較文化를 硏究하는 學者일 것이다。東西의 距離가 短縮된 今日 西洋 뿐만 아니라 東洋을 包含한 全世界에 普遍妥當性을 가질 學說을 세우려는 西洋學者에게는 韓國文化도 硏究材料가 될 것이다。

要컨대 우리가 韓國文化를 海外에 紹介할 때 우리를 받아드리라는 外國大學의 韓國科에 優先的으로 모든 資料를 주는 것이 効果的이라고 생각한다。가난한 우리나라에 무슨 外國大學에 줄 것이 있느냐고 絕望的으로 斷念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가난하여도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音樂方面으로 말하자면 文敎部에서 민속악보 二輯을 계속 냈고 放送局에서 「테이프」를 使用한 國樂 「라이브라리」를 만들었고 其他 KBC에서는 UP의 「레코드」를 製作하기 시작하고 公報室에서는 「팸플렐」「슬라이드」를 만들었고、또 지금 韓國音樂을 紹介하는 映畫를 製作中이다。이런 貴重한 文化財를 만들고도 간혹 소중히 보관을 못하거나 또는 適切하게 配布하지 못하는 느낌이 있는 것이 遺憾이다。外國學者가 事務室로 찾어가서 이러 이러한 것이 거기서 만든 것이 있는데 줄 수 없느냐고 청하면 分明히 있을 터인데 없다고 거절당하여 失望한 빛을 더러 보았다。또 在外公館에 古蹟圖譜니 한글사전이니 그런 冊이 혹시 짐쉐 짝속에서 잠자고 있지나 않은지? 앞으로는 韓國文化의 海外紹介를 위하여 國內에서 製作發刊되는 文化財를

한곳에서 調査蒐集하여 目錄을 만드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한다。高麗大學校에서 國內出版物을 紹介하는 刊行物을 發行하는 것을 擴大하면 足할 것이다。그런 定期刊行物에 冊뿐만 아니라 레코드、슬라이드、映畵其他 使用할 수 있는 것을 실었으면 그것을 利用할 사람에게 便利할 것이다。

海外公館에서는 國內人士보다 더 切實히 韓國文化紹介의 必要性을 痛感하고 있다。駐外大使는 文政官을 願할지 모른다。그러나 實現不能인 現在로는 留學生 또는 交換敎授를 囑託으로 써서 學場의 急한 것을 免할 수 없을가? 어느 點에서는 留學生이 자기가 工夫하는 大學의 知識人을 더 많이 알고 韓國文化의 紹介에는 適任者일 것 같기도 하다。

留學生의 말이 나와서 생각나는데 美國에서 優秀한 成績을 올린 留學生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일 같이 기뻤다。그런 優秀한 學生은 韓國紹介로 간 것이 아니지만 훌륭히 자기가 韓國人의 優秀한 것을 例示하였기 때문에 政府에서는 그런 優秀한 學生에게 感謝와 勸奬의 意味에서 賞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前言한 바와 같이 外國大學의 韓國科에 韓國硏究資料를 優先的으로 供給하는 것이 韓國文化紹介에 가장 効果的이라고 생각한다。韓國科志望의 學生이 계속나와 自國語로 韓國文化에 對한 論文을 쓰고 圖書館에서 그것을 一般讀者에게 읽게 할 수 있다면 韓國文化紹介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冊처럼 文化를 表示하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中國大學에서 蒙古人學生과 같이 工夫한 某敎授의 懷古談이 생각난다。그 蒙古學生은 우리나라에 文獻이 比較的 많다는 말을 듣고 부러워 하면서 그 말을 한 韓人學生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英雄 成吉思汗이 아세아와 歐羅巴를 席捲하였건만 그에 關한 文獻이 없는 것을 痛嘆하였다는 揷話다。外國圖書館에 가서 헥스피어에 關한 冊數가 어마어마한데 比하여 우리文化에 關한 冊이 손가락으로 세일 수 있을만치 零星한 것을 생각하면 蒙古學生의 心情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音樂方面에서도 歐美 各大學의 아프리카音樂에 關한 文獻은 많고 그 硏究가 盛하다。그에 比하여 韓國音樂에 關한 文獻은 桂貞植氏의 學位論文外 二、三篇에 지나지 않았다。文獻이 적어서 韓國音樂을 硏究하려도 硏究하지 못하는 形便이다。

앞으로 國內에서는 國外學術雜誌에 韓國文化에 對한 硏究를 發表하고 또 各國 百科辭典에도 韓國文化에 關한 條項을 挿入토록 努力하여 一般讀者層의 눈에도 韓國이 들어가도록 하여야겠다。우리가 外國語

로 韓國文化에 關한 發表를 하는 것도 必要하지만 그보다 못지 않게 重要한 것은 外國人의 손으로 韓國文化에 對한 發表를 하게 援助하는 것이다。 Ezra Pound나 Waley의 번역으로 中國이나 日本의 詩가 널리 알려진 것을 생각하여 보면 알 수 있다。 앞으로는 우리 學生을 外國으로 파견할 뿐만 아니라、外國人을 特히 外國의 韓國科 卒業生을 國內로 招請하여 그로하여금 韓國文化에 關한 著述을 하도록 便宜를 도모하여 주고 國內에서 出版토록 알선도 하여 줄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外國大學의 韓國科에 너무 置重한 感이 있으나 그 理由는 韓國科야말로 眞正으로 韓國文化를 研究하려고 積極的으로 努力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기야 우리가 十五分 짜리의 發聲映畫로 韓國文化를、收錄하여 外國의 TV에 提供하면 一時에 數百萬의 外國人에게 紹介할 수 있겠지만 TV 프로그람에 參與하는 것이 極難하다고 한다。將次는 이런 方面도 開拓하여야겠지만 當場 注力하여야 할곳은 外國大學의 韓國科라고 생각한다。

韓國文化의 紹介에는 藝術使節團의 海外派遣 國際學會에서의 參席等도 重要한 役割을 하지만 그 費用의 莫大한 것은 그 實現을 容易케 하지 않는다。 다만 그런 費用을 自辦할 수 있다면 政府는 그것을 막지 말고 오히려 便宜를 도모하여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될 수 있으면 그 經費의 一部를 負擔까지 하여도 좋다。 在外會館에서는 實際藝術使節團을 要望하고 있다。

그러나 海外藝術使節團이 海外로 갈 수 있을 경우에도 在外公館과 外國大學의 韓國科가 提携하여 事前에 宣傳을 잘 하면 더욱 效果가 있을 것이다。 在外公館에서 宣傳을 하고 韓國科에서 親切한 批判을 하면 그 보다 힘 되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現在 戰爭狀態에 이고 軍事費에 莫大한 費用을 쓰고 있어 마음대로 韓國文化 海外紹介에 必要한 經費를 捻出할 수 없는 形便이지만 外國大學에 韓國科가 늘어가는 便이어서 힘을 얻고 또 國內에서도 海外紹介의 必要를 提唱하고 있어 앞으로는 그 動作이 活潑하여지리라고 믿지만 當場 우리가 할 것은 지금까지의 紹介資料라도 整備 保管을 잘하고 그 利用에 對하여 各機關이 緊密한 連絡을 取하여 有效適切히 하도록 講究하는 것이 時急하다고 생각한다。

〈筆者。서울大 音大敎授〉

(詩)

오오 四月에

歌曲을 위한 試作

柳 星

오오 四月에
불이 붙은 진달래
怒한 불길은
山과 들을 덮었다
슬기로워라 이땅의 아들딸들
꽃봉오리의 그 묵숨 방패 삼아
獨裁의 무리 끝내 물리쳤으니

울어라

또 웃어라
第二共和國은
蒼空에 눈도 부신 民權의 太陽

오오 四月에
진달레는 졌으나
꽃다운 넋은
붉게 살아 빛난다
꿀꿀하여라 이땅의 아들딸들
메아리하는 그 외침 외어받아
正義民族의 힘찬 노래 울려라

싸우자
또 지키자
第二共和國은
온 世界 우러르는 自由의 國土

(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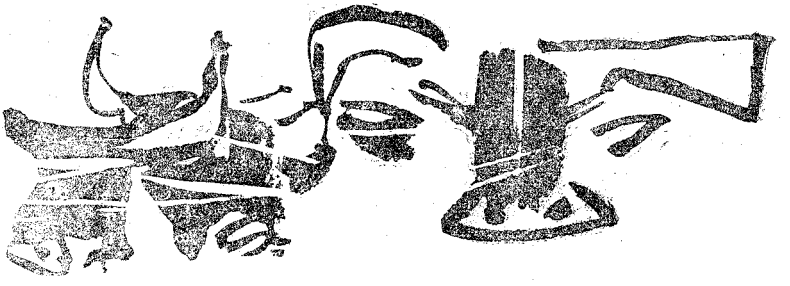
蒼空

黃錦燦

그대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언제부터 그렇게들 蒼空을
헤엄치는 재주를 배웠는가、
독수리나、보랏매가 아니면 못 오르던
하늘에、언제부터 그대들은 流星이 있는가。

수미산(須彌山) 上峰엔
三十三天이 있어 그중의 一天이 忉利天인데
그 하늘을 일러 永却이라 했고、
蒼空은 흔히들 九萬里 長天이라 했다。

옛날엔 三千九萬里가 이제는 제법
地上에서 손 끝도 닿고 어쩌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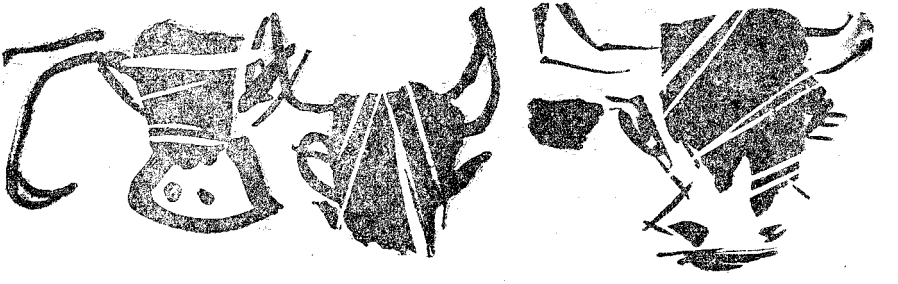
하루의 散步路가 될 수도 있고
땅이 싫으면 이사도 갈 수 있는 蒼空、
거기에 있는 땅들은 그대들의 것、
그대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蒼空의 主人이여、
하늘의 수호자여、
大韓民國의 勇士여、
다시 우리들의 핏줄이여、

그대들이 蒼空을 갈고 가는 것을 보면
나는 꽃을 뿌려 그대들의 슬기를 노래하고 싶다。
그리고 蒼空의 主人이라고 부르고 싶다。

開拓者

그대들은 蒼空의 開拓者라
智慧의 날개를 펴서 좁아지는 하늘에
그대들도 호흡을 같이 하라



(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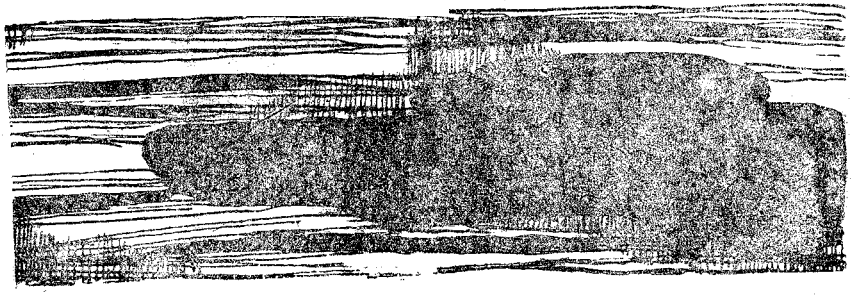
層階

——R「파이롯트」를 追慕한다——

金 相 華

먹구름이 덮힌다。
중심을 잃은 바람은 서고
태양은 무거웠다。
……그의 심장이 멎은 것이다。
……生命의 層階가 무너진 것이다。

무너진 層階에
銀河의 이슬이 맺혀지고
水晶같은 그의 눈동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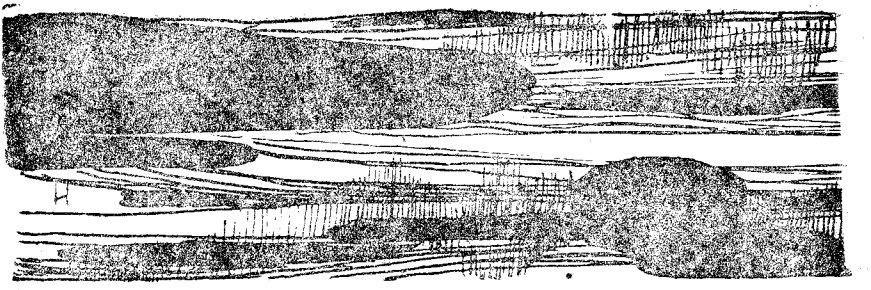


별속에서 잠들면

幕을 닫은 靑春祭壇앞에
세월이 운다。

그러나 죽지않은 그의 生命
무너진 生命의 層階는
또하나의 生命을 피게 한다。
幕이 내려지고
그는 갔지만
이 땅속에서 피어나는
眞珠빛 꽃이 있다。

……먹구름이 씻기워지고。
……가을하늘에 또다시。
……生命의 層階가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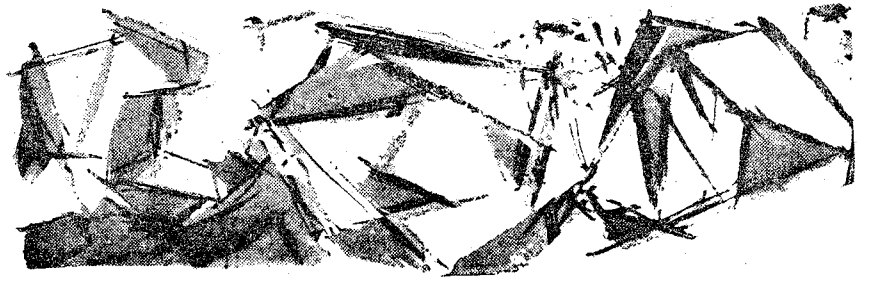


(詩)

다이어먼드

李興雨

懊惱의 축적이 悠遠한 時空을 지질듯이 內面으로 옥죄여 죄여 들며
도달한 銳角의 頂點에서 이내처럼 구름처럼 혼돈된다。
역력히 맺힌 절망의 침묵이 찬연히 善意의 匕首를 품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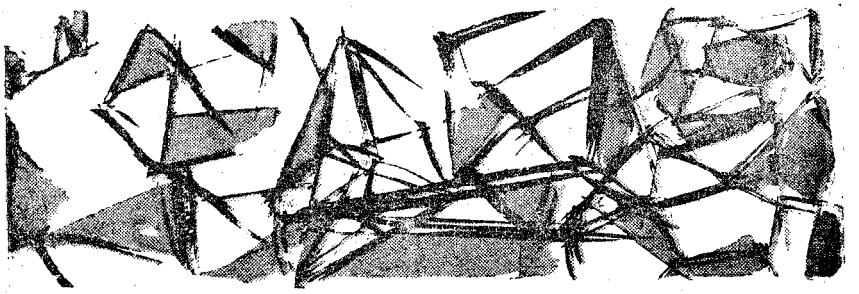


灰化한 온갖 善惡의 思念들이 멸망하며 稀少한 純然의 結晶을 맺는다。

白熱의 熱度를 거치며 에이도록 갈갈이 응고하는 超然의 硬度。

明明히 밝은 諦念의 냉엄한 광망을 無邊光의 법열처럼 瑞氣처럼 發射한다。

다시 悠遠의 時空을 향하여 한 개의 存在가 固定不度의 밝은 빛을 證明한다。



軍事·經濟面에서 본 日本

—亞細亞에 있어서 日本의 位置—

鄭 淳 根

敗戰直後의 日本과 約 十五年이 經過된 今日의 日本을 比較하여 볼 때 荒廢地가 金城王國으로 變한 感이 든다。

亞細亞의 다른 國家들이 아직 經濟的 自立과 完全開發狀態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只今 唯獨 日本만이 獨步的 發展을 가졌음은、 日本이 約 一世紀를 通하여 形成시킨 産業의 現代化 및 工業技術에 基因하기도 하나、 그 보다는 戰後 只今까지 繼續되어오는 冷戰의 所産이라고 봄이 妥當할 것이다。

즉、 美國은 日本이 經濟的으로 安定되고 國力이 富强하여짐은 곧 大陸에서 일어난 中共等 共産勢力과 對抗되는 힘이라고 믿고 이러한 信念아래 日本의 再建을 促進시킨 것이다。

이와 같이 亞細亞에 있어 勢力均衡(Balance of Power)을 爲하여 育成된 日本의 軍事的 經濟的 位置를 다음으로 簡略히 살펴 보기로 한다。

日本의 軍事的 位置

亞細亞에 있어 日本의 軍事的인 무게는 日本 自身이 갖는 防衛力에 있다기보다는 日本의 地理的 條件에 依한 戰略的 價値와、 日本이 自由陣營의 防衛의 一翼을 擔當하고 있으므로 維持되는 勢力均衡에 있다고 할 것이다。

第二次 世界 大戰後 大陸을 席捲한 共産勢力을 阻止하기 爲한 「트루만」 前美國大統領의 Containment Policy에 依하여 亞細亞에 있어서의 對共産勢力 防衛線은 明白히 그어진 바 있다。 즉、 「아라스카」、 「아류-샨」列島、 日本、 韓國、 沖繩、 台灣、 比律賓을 連結하는 線을 第一線으로 하고、 太平洋 西方部 諸島를 第二線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애치슨」、 「덜레스」 國務長官時代를 거쳐 現在까지 美國이 堅持하여 온 防衛線으로서、 同線의 어느 一隅의 讓步도 自由陣營 全體의 安全을 威脅하는 것으로 看做되어 왔다。

日本의 軍事的 價値는 그가 이 線의 重要한 部分을 占하고 있다는 事實일 것이다。

或者는 現代의 高度의 正確性을 가진 大陸橫斷 誘導彈(ICBM)의 實現으로 因하여 앞으로의 戰爭에서는 距離感이 稀薄하여졌으며、따라서 前記한 防衛線의 存在價値는 減少되었다고 한다。그러나 現下의 國際事情을 볼 때 全面戰爭보다는 制限된 地域戰爭의 可能性이 오히려 많으므로 戰略에 있어서는 아직도 從來의 槪念에서 벗어 날 수 없고、따라서 同 防衛線의 價値는 不變한 것으로 보여진다。

日本은 前述한 第一線을 擔當하고 있는 外에 戰略面에서 第二線의 役割을 同時에 擔當하고 있다。

즉、美國의 極東防衛는 空軍과 海軍을 中心으로 展開되어 있는데、韓國 台灣 等地에서 地域戰鬪가 일어날 경우、日本은 重要한 補給地가 되는 것이며、大陸과 近距離에 있으므로 反擊의 危險이 있다 하더라도 亦是 日本은 太平洋 西部諸島보다는 훨씬 價値있는 第二線이 되는 것이며、이것은 韓國動亂時 立證된 바다。

이러한 地理的 條件으로 因한 日本의 軍事的 位置를 떠나 能動的인 面으로 볼 때에도 日本은 極東防衛에 重大한 位置를 占하는 것이다。

日本의 防衛體制는 主로 美日安全保障條約을 基礎로 하여 編成되는 것인데、지난 六月에 改正된 同 條約이 規定하는 바를 보면

(1) 美國은 日本이 外部로부터 侵略받을 時 이를 防衛한다。

(2) 極東地域에서의 國際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기 爲하여 美國은 日本內에 基地 및 施設의 特權을 갖는다

를 骨子로 하고 其外 美國은 日本이 從來 一部 支拂하여 오던 駐屯美軍의 經費를 免除하여 주는 同時 極東地域防衛를 爲하여 在日美軍이 出兵함에 있어서는 「日本과의 事前協議」가 있어야 함을 規定하였다。

同條約에 依據하여 日本이 自由陣營의 防衛를 爲하여 能動的 役割을 擔當할 것이 期待되나、여기에는 한가지 考慮할 問題가 있다。

그것은 在日美駐屯軍이 有事時에 自動的으로 在日基地를 使用出兵할 수 있느냐의 問題이다。

同條約이 規定한 「事前協議」가 日本側의 拒否權을 意味한다면 美兵의 出兵이 自動的으로 可能하지 못할 것인데 實地로 安保條約을 反對하여온 日本國民은 그렇게 解釋하고 있는 듯하다。反面에 美國 上院「홈부라이얼」外交分科委員長等 美國側은 「事前協議」를 同條約에 挿入한 것은 日本 國民을 刺戟하지 않기 爲한 것이며、따라서 어디까지나 協議에 그치고 拒否權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 解釋이 如何튼 間에 美兵出動에 있어서는 日本側의 同意乃至 協議가 必要한 것인데、이렇게 되면 日本內의 政治的인 樣相이 極東의 安全保障에 莫大한 影響을 미치게 할 것으로 豫測된다。

그 가차운 例로 극성스러운 日本國民의 安保條約反對와 在日U-2機 撤收의 輿論으로、아이젠하워 美國大統領의 訪日은 取

消되고 岸首相은 辭任을 强要 當하였고 U-2偵察機는 日本基地에서 撤收되고 말았다。

日本國民의 이러한 一聯의 沒知覺이 極東의 自由陣營의 防衛를 弱化시킴은 勿論이다。

最惡의 境遇를 假想하여 美國이 在日本基地를 喪失하는 境遇 美國이 입는 災難은 莫甚한 바 있다고 한다。

즉、美第七艦隊로서는 眞珠灣西方의 單하나의 大修理施設을 喪失하게 될 것이며、現狀態의 艦隊를 維持하기 爲하여는 艦船交替가 不可避하게 될 것이며、그러기 爲하여는 第七艦隊를 二倍로 增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美空軍에 있어서도 現在 日本에는 比較的 少數의 戰鬪機와 輕爆擊機가 있는 것이나 一但 同空軍이 他地域으로 移動하여야 한다면 美國은 有事時에는 美本土로부터의 戰略空軍(Strategic Air Command)에 大幅 依支하여야 할 것이라 한다。

이에 加하여 日本內의 「독구」(Dock)、倉庫 및 工場施設이 없으면 韓國動亂의 再發時等에는 以前과 같은 有效한 作戰을 展開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現在 韓國駐屯 二個師團도 支援하기 困難하다는 것이다。

勿論 極東에 他基地가 없는 것은 아니나 韓國內 基地로부터 不過 二三分內의 飛行距離에 있으며、沖繩의 基地는 이미 狹少하여졌고、比律賓의 基地도 施設 不充分과 地理的 距離로 그 効用이 疑心스러운 것이라 한다。

以上 略述한 美日安保條約과 關聯한 日本의 軍事的 位置를 떠나 日本 스스로가 갖는 防衛力을 보면、今年末까지 陸軍十七萬千五百名、海軍 三萬六十八名、空軍 三萬六千七十名으로 總 二十三萬八千二百七十八名이 된다고 한다。

裝備面을 보면、陸軍은 거의 現代式 武裝을 하여 舊帝國陸軍의 機動力과 火力의 約 四·五倍의 裝備를 갖추고 있으며 海軍은 舊帝國海軍力보다는 極히 微弱한 것이나、今年末까지는 警備艇 四十五隻、潛水艦 六隻、警備艇 一隻、掃海艇 五十隻、其他艦艇 百十六隻、總 二百十隻、十一萬五千八百四十八噸이 된다고 한다。

空軍力을 보면 主力은 F-86으로서 今年末까지 四百七十二台를 保有할 것이며、그外 偵察機、練習機、輸送機等을 合하면 一千百十五台가 될 것이라고 한다。그러나 來年부터는 F104 戰鬪機를 日本서 生産하게 되어 있다。그外 百發의 「싸이드·와인다」空對空 「미싸일」이 今年末까지 美國으로부터 導入될 것이라 한다。

日本의 앞으로의 五年計劃을 보면、F104 戰鬪機生産、「미싸일」製造等 主로 質的 向上을 目標로 하고 있으며、東南亞 諸國에의 武器輸出國이 될 徵候조차 엿보인다。

以上과 같이 日本의 國防力이 强化되는데 對하여는 日本 國民自身의 戰爭挑發嫌惡感이 없지 않으나、亞細亞民衆이 日本軍國主義勢力 再擡頭를 憂慮함도 적지 않다。

經濟面에 있어서의 日本의 位置

日本이 亞細亞에서 갖는 무게는 軍事的인 面보다는 經濟的인 面이 더 重하다 할 것이다。

戰後 十五年間 日本의 經濟는 世界史上 例를 찾을 수 없는 急

速한 發展을 하였다。

그 實績을 보면 全國土의 十七。四「퍼센트」밖에 안되는 農土를 가졌으나 全國民의 食糧의 八十五「퍼센트」를 生産하고 있으며, 지난 十年間만 보더라도 鐵의 生産量은 四百八十萬噸에서 一千八百萬噸으로, 製油는 一百七十萬噸에서 二千二百萬噸으로, 造船은 三十四萬八千噸에서 百七十萬噸으로, 그리고 貿易高는 八億二千萬弗에서 三十五億弗로 急昇하였다。

以上의 實績이 證明하다시피 日本은 亞細亞의 最先進工業國으로 獨步하고 있음은 事實이다。

日本經濟의 이러한 越等한 位置는 決코 그들 自身의 功過에 依하여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勿論 戰後 軍國主義의 惡夢에서 깨어나 그들이 一世紀동안에 이루어 놓은 現代化된 産業을 土台로 卽刻的인 努力을 經濟再建에 傾注한 功勞에 基因하나, 그것을 뒷받침한 것은 亦是 美國의 援助라고 할 것이다。 一九四五年以來 一九五一年間만 보더라도 美國은 約 二十億弗을 直接援助하였으며 그外 軍事物資購買等의 形式으로(韓國動亂時等) 日本에 供與된 間接的 援助額은 天文學的 數에 達한 것이다。

日本 經濟再建에 이바지한 다른 하나의 要因은 美國과 亞細亞等 自由陣營 諸國이 日本商品의 販路를 提供하였다는 事實이다。 日本의 輸入品目은 二割이 食料品이고 남어지 八割은 生産原料인데, 同原料를 加工한 日本商品의 販路는 主로 二大市場에 依支되어 왔다。 즉 그 하나는 美國이요, 다른 하나는 亞細亞, 아프리카 諸國이 였다。 同 二大市場中 日本商品輸出의 약 四分之一을 차지하고 있는 美國市場에 있어서는 몇가지 어려운 問題가 있다。

첫째, 日本은 對美貿易에 있어서는 四對三의 比率로 輸入超過의 現象을 보여주고 있고

둘째, 美國自身의 發達된 商品으로 强한 競爭에 逢着하게 되었으며

셋째, 國際事情 乃至 美國內 輿論으로 日本商品에 對한 制限이 加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例를 보면, 「아이젠하워」대통령의 訪日이 取消된 後 美國商社는 自轉車, 라디오, 錄音機, 玩具等 大量의 注文을 取消하였으며 약 四拾萬弗의 洋靴의 注文도 取消되었다고 傳하여지며, 이러한 現象은 繼續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日本은 東南亞를 爲始한 亞·阿地域에 長期的인 經濟勢力을 維持하기 爲하여 여러 手段을 企圖한 바 있다。 즉 戰後 日本이 이 地域各國에 賠償하는데 있어 技術援助, 投資等을 可能케 함이 그것이며, 또한 國際機構를 通한 低開發國 援助計劃에 加擔함으로써 이 地域에의 開發의 機會를 노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더욱이 日本은 美國의 資本을 빌려 이 地域의 開發을 企圖하였는데 그것은 日本이 美國에 支拂하여야 할 GARIOA, ERROA, 援助賠償金을 美國에 支拂하지 않고 東南亞地域의 開發에 利用하려고 交涉한 적이 있고, 이것이 失敗로 돌아가자 美日安保條約에 規定된 美日經濟協力에 依據하여 兩國間에 官民을 一體로 한 經濟協力機構를 設立할 것을 企圖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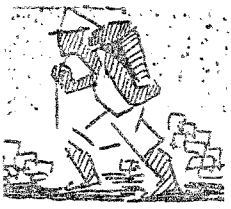
이러한 日本의 不屈의 努力은 「美國의 資本과 日本의 技術」이라는 美名아래 亞細亞의 開發을 日本을 中心으로 이루어보자는 心算에서임은 勿論이다。

八八十九에 계속 V

共産圈에 있어서 中共의 比重

—最近의 動靜에서—

金 用 賢



一、그들은 韓國戰에서 自信을 얻었다。

中國大陸이 어떠한 形態로든지 統一만 되면 큰 힘을 발휘하고 四圍의 諸民族國家에게 큰 威脅이 되어 왔던 것은、歷史가 證明하고 있다。秦漢이 大陸을 統一했을 때는 北方의 强國인 高句麗 蒙古가 숨을 크게 못 쉬었고、南方은 安南「버마」까지 威壓당했으며 唐、元、明、淸이 大陸을 制壓했을 때도 四圍國家들은 반드시 侵略을 당했었다。中共이 韓國戰에 參加한 때는 大陸을 制壓한지 不過 一年만인 一九五〇年 十月이었다。勿論 그들은 처음에 美國의 힘을 무서워 한 나머지、그렇게도 성화같이 參戰을 종용하는「스타린」의 권고를 듣지 않다가 유엔軍이 결대로 鴨綠江을 넘지 않기로 되었다는 約束을 美英間에 密約하고 있다는 秘密情報를 英國外務省官吏가 쏘련에 팔아 먹은 結果이 소식을 알게 된 中共은 비로소 安心하고 參戰한 것이거는 하나 當時의 中共形便으로 보아서는 상당한 모험이요 無謀한 짓이라 아니할 수 없다。만약 美國이 英國의 見解를 따르지 않고、「맥아더」元帥의 作戰대로 敢行할 決心만 보였더라도 中共은 參戰하지 않았거나、不然이면 벌써 궤멸했을런지 모른다。하여간 이 전쟁에 中共은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는 하지만、結果的으로는 國內통일을 强固히 했고、對外的으로는 벌써 國際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中共을 無視할 수 없다는 사실을 現實化해 놓았다。中共은 이때부터 교만해지고 大膽해져서 기회있는 때마다 臺灣을 占領하겠다고 危脅했고、또 事實上 侵攻을 敢行하려고 數十萬軍隊와 數百臺의 戰爆機를 臺灣 건너편 廈門부근에 集結시키기도 했다。여기서 美國의 힘、卽 故「덜레스」國務長官의 所謂 戰爭一步前의 外交政策에 依한 美國의 臺灣防衛에 대한 굳

은 決心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아마 中共은 그때 벌서 臺灣을 侵攻했을 것이다。

二、그들은 너무 커졌다。

中共의 過去 十年間의 눈부신 業績을 過少評價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그들은 重工業面에서 第二次 五個年 計劃에 成功한듯 해서 鞍山 製鐵所가 擴張되었고 一九五八年에는 中共最大의 鞍山 第十號 용광爐에 点火하고 所謂 世界最大라고 하는 鞍山平爐(日生産一三〇〇—一五〇〇噸가 操業을 시작했고、滿洲工業地區、武漢、包頭等 工業地區가 完成되었다 하고、不遠間 西南과 西北地區에도 鐵鋼과 火力發電工業地帶가 完成된다고 했다。鐵鋼生産目標는 年間 四千萬噸으로 不遠間 英國을 앞지른다는 것이다。機械도 一九五八年에는「트럭」을 每日 生産百二十臺라 하고、젯트機·大型船舶·機關車·工作기계 發電시설을 製作한다 하고、電力은 現在 百萬키로를 發電한다 했다。鐵鑛은 鞍山이 最大産地이지만 包頭·四川·甘肅에는 數億噸埋藏量이 있고、最近 河南에서 三千億噸埋藏量의 鐵鑛을 발견했다 한다。그外 石油도 甘肅·青海·新疆에서 大油田을 發見해서 一九五八年 生産量은 二百 二十五萬톤이라 했다。鐵道는 一九五八年까지에는 三萬餘킬로인데 西北변경의 青海「티베트」線과 重慶에서 貴陽까지 內江에서 混明까지 蘭州에서「아코도가이」甘肅과 新疆을 橫斷하여 소련鐵道와도 連結했다고 하니 東西南北을 通해 거미줄 걸어 놓듯한 셈이다。

軍事方面은 極秘에 부쳐있는 도양이나 알려진 바로는 韓國戰爭때는 五百萬이었으나 지금은 많이 줄었다 하며 公安部隊가 五十萬、空軍은 四、五千機 정도요、海軍도 十二萬 六千톤이 된다하고 民兵은 十六세부터 五十세까지는 다 參加하는 모양이어서 일즉 中共政治局員 彭眞은 豪言장담하기를 만약 第三次大戰이 일어나는 경우 中共은 一億을 動員할 수 있다고 하였다。그러나 以上 數字는 어느 정도 眞實인지는 알 길이 없으며、다만 오늘날 中共의 榜若無人한 태도와 배짱을 알아보는데 參考는 될 수 있을 것이다。

三、「티베트」와「맥마흔」線에 대한 侵攻

일즉 元·明·淸이 다「티베트」를 占領한 일이 있으나、도저히 그것을 지니지 못하고 形式上 宗主權만 가졌을 뿐이지 實質的으로는 放任해 두었다。그런데 中共은 昨年봄에 이「티베트」를 송두리채 併合하려 들었다。中共은 一九五二年「티베트」에 進駐한 후「라싸」政府와의 사이에『「티베트」解放辦法協定』이란 것을 체결하고 이 協定에 依해서「티베트」의 宗教、言語、文字、敎育의 改善과 內政、文化、經濟生活에 까지 干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中共軍의「티베트」各地에 駐屯한 總兵力은 約 二十萬이었는데 이들 軍隊와 中共工作隊들은 各 方面에서「티베트」人民과「마라」僧의 反感을 샀다。一九五二年에서 一九五九年의 八年間「티베트」各地에서는 叛亂이 일어났고、그中「캄바」族의 大叛亂은 中共軍을 相當히 困境에 빠뜨렸다。그 기간에「티베트」軍 死傷者는 五萬에 達하고、中共軍의 死傷者는 一萬 二千名이라는 中共當局의 發表였으나 臺北의 發表는 倍나 더 넘는 숫자

였다。中共은 차차 노골적이었다。「라싸」의 活佛「다라이·라마」를 奸計로 꼬여서 監禁하려 하자 「라다」는 창졸지간에 深夜를 타서 「라싸」를 탈출 印度國境으로 避難했으며 거기서 世界各國에 救援을 호소했다。그러나 印度와 英國은 냉담하다기 보다 그들 자신이 오히려 겁을 집어 먹고 떨고 있는 形便이요、其他는 너무 손이 멀고 利害關係가 없었다。이러해서 「다라이·라마」는 永遠히 「티베트」를 버리고 印度로 亡命함으로써 「티베트」는 完全히 中共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다。勿論 이때부터 「캄바」族을 爲始한 「티베트」의 全民族은 一齊히 들고 일어서서 各處의 道路와 橋樑을 破壞하고 中共部隊를 襲擊하는 等 大規模의 叛亂은 계속되었다。그러나 中共軍을 大量으로 投入하여 철저한 소탕전을 展開하고 있기 때문에 原始的 武器와 戰法으로서는 「蟷螂拒轍」格이 아닐 수 없었다。最近 消息에 依하면 지금 全「티베트」民族은 世界의 지붕이라고 하는 「히마라야」山脈의 高原地帶(不毛地)를 向하여 大移住를 開始했다고 한다。弱小民族의 悲劇이 아닐 수 없다。

四、極東問題에 關한 中共의 位置

世界의 注視下에 中共은 착착 勢力을 擴大해 가는 중이다。우리는 지난날의 安南문제를 想起해 본다。第二次大戰이 끝나고 佛軍이 다시 安南에 進駐했을 때는 胡志明은 절망에 빠지고 암담한 가운데서 겨우 雲南에 接境해 있는 山岳地帶에서 小規模의 유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이와 같은 절망적인 胡志明의 생활은 一九四九年末까지 계속되었다。그러나 中國大陸이 中共의 손으로 넘어가고 中共軍이 安南地境에 이르자 胡志明은 다시 일어나 中共의 절대적인 援助下에 南下를 開始했고 마침내는 全安南에서 十五萬 佛軍의 悲劇的인 撤收를 不可避하게 만들었다。萬若 美國이 戰爭을 覺悟하고 나서지 않았던들 安南은 이미 中共勢力圈內에 들어갔을 것이다。「디엔 디엔푸」가 함락되자 河內는 그대로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고 胡志明 共産軍이 怒濤 같이 「사이공」을 向하여 나려올 때에 胡志明軍 가운데는 많은 中共軍이 變裝을 하고 參加해 있었다는 것이다。美國의 第七艦隊가 安南海域을 둘러싸고 地中海의 第六艦隊 一部와 「하와이」에 있던 第一艦隊 一部가 달려오지 않았더라면、그리고 美國이 最後 통첩을 發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슬아슬한 일이다。

昨年봄 「후루시쵸프」가 美國을 訪問하기로 결정하자 中共은 노골적으로 이것을 싫어했다。아마 美國에 가지 말라고 적극 反對했을 것이다。왜냐 하면 中共의 생각에는 世界문제를 美·蘇 두 나라만이 담대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더구나 極東문제에 關한 限 中共의 參加없는 會談은 참을 수 없는 멸시요。모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이러해서 「후루시쵸프」가 美國을 向하여 出發하기 前에 中共軍은 突然 印度國境을 侵犯했다。그들은 지금까지 英國이 印度를 통치하던 때에 그어져 있는 「맥마흔」國境線을 否認하고、印度쪽 깊숙히 侵犯해 들어가서 그것을 옛날부터 내려오는 中共領土라고 主張했다。이때문에 世界는 또 한번 놀랐다。英國과 印度政府는 中共에 抗議하고、한편 印度軍은 「맥마흔」線으로 集結시켜 一戰을 覺悟한다고 분개했

으나 中共은 까딱도 않고 軍隊를 增援했다。「후루시쵸프」도 당황해서 中共의 自重을 호소했다。 더구나 방금 美國을 訪問하여 東西冷戰을 해소해 보려는 歷史的인 순간에 中共의 그러한 行動은 共産陣營의 利益에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비난도 해 보았다。 그러나 中共은 제 고집대로 行動했다。「후루시쵸프」는 이와같은 中共의 당돌한 행동때문에 美國에게 좋은 口實과 言質을 주게된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美國을 訪問했다。 아니나 다를까 美國은 「후」에게 中共의 侵略的인 行動에 對해서 責任을지고、牽制해 달라고 要求했다。 中共의 행동을 믿을 수 없으니 「쏘련」이 責任을 지라는 말이었다。「후」가 「아」大統領에게 그러마 하고、承諾한 후 美國에서 돌아오는 길에 北京에 들렸을 때는 기가막혔다。 中共要人은 거의 비행장에 나오지 않았다。 「후」가 毛、周를 만나 이야기했을 때도 冷情하기 짝이 없었다。 「후」의 訪美를 노골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후」는 도저히 中共을 납득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총총히 北京을 떠나 滿洲를 거쳐 「모스코바」로 돌아갔다。 여기서 벌써 一年後로 約束된 「파리」頂上會談의 成敗를 占칠수가 있었던 것이다。 中共은 벌써 「쏘련」의 「피뢰」는 아니었다。 모든 문제는 中共의 參加없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지난 五月十六日 「파리」에서 頂上會談이 열리자 마자 「아」大統領과 「후루시쵸프」는 서로 인사도 나누기 前에 「후」의 폭탄적 宣言에 依해서 決裂이 되고 만것도 결국 直接口實로 삼은 「U－2」機 사건만은 아닐 것이다。 아마 中共의 강경한 反對에 봉착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내릴만한 理由가 많다。 왜냐하면 설혹 頂上會談에서 무슨 타협이 생긴다 하더라도 中共이 決死的으로 反對하는 以上 그 타협이란 것이 하루 아침에 中共에 依해서 깨어질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과연 中共은 頂上會談이 失敗로 돌아가자 全放送과 言論을 通하여 西方帝國主義者들과의 妥協이나 共存은 어리석은 잠꼬대에 不過하며 결국 西方帝國主義者들과의 戰爭은 不可避한 運命이라고 宣傳하기 시작했다。

이 戰爭不可避論과 共存妥協이 不可能하다는 中共의 主張과 쏘련의 東西共存可能論 사이에 論爭이 벌어져서 共産圈의 分裂이 생기는가 했더니 最近 中共의 양보로 조용해 지기는 했다。

中共은 확실히 어느 누구도 다루기 힘든 存在가 되었다。 쏘련도 함부로 다루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上述한 바와 같다。 그러해서 지난 六月二十八日 「아」大統領이 極東을 訪問하고、臺灣에 들렸을 때도 中共은 틀림없이 행패를 부렸다。 金門、馬祖島에 對해서 史上 類例가 없는 大砲擊을 加했기 때문이다。

벌써 지나간 일이지만 일즉 「애급」과 英·佛·「이스라엘」 사이에 「스에즈」 運河문제로 戰爭이 벌어 졌을 때에도 쏘련과 같이 中共도 義勇軍을 파견하여 「애급」을 도울것이라고 협박、공갈한 일이 있었다。 이제 아마 모르긴 하지만 極東과 東南亞 문제는 물론이지마는 世界문제가 일어나는 때마다 中共의 比重은 차차 增大해 갈 것이다。 中共의 國境은 너무나 넓어졌다。 鴨綠江 豆滿江에서 「하바로스크」를 거쳐 黑龍江、「아모우루」江、興安嶺과 「고비」砂漠을 거쳐서 新疆 靑海 그리고 「티베트」를 둘러싼 昆崙山脈」과 「히마라야」山脈까지 印度 버마와 接境하고 南으로 安南泰國에 이르는 四、五萬里의 國境線은 너무나 길고 방대하다。 이와같이 廣大한 地域과 七億에 가까운 人民을 擁하고 있는 中共의 比重은 共産圈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世界의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筆者 延世大敎授〉

黎明期의 아프리카大陸

—아프리카大陸의 地政學的 考察—

洪 始 煥

一、序論

아프리카! 黑人 Negro의 根據地인 아프리카 大陸은 實로 오랜동안 人類 發展의 舞臺에서 度外視되어 온 大陸이다。 그는 또한 神秘하고도 悽慘한 大自然環境속에서 原始的인 生活風習을 그대로 지니고 나려온 未開한 暗黑大陸으로 自處해 온 大陸이기도 하다。

한편 이 大陸은 이때까지 유럽 先進國家의 政治 經濟的 勢力下에 있는 植民地 大陸으로도 알려져 왔었다。

그러나 이 大陸이 第二次 大戰의 커다란 試鍊의 一分野를 擔當하고 나선 後부터는 漸次로 民族 自主 獨立的 氣運이 活潑하여 새로운 여러 新生國家들이 登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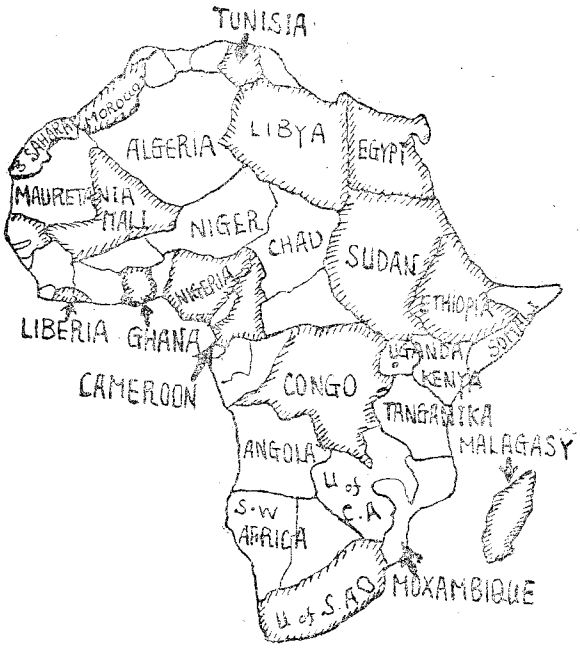
卽 最近의 新聞報道는 이 大陸에 있는 英國、프랑스、벨기이등의 많은 海外領土들이 續續 뒤이어 獨立하거나 또는 獨立이 約束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와같이 먼동이 트고 있는 이 아프리카 大陸의 片貌를 더듬어 보는 것도 意義깊은 일이라 하겠다。

二、酷毒한 熱帶大陸의 自然環境

全 大陸 面積의 四分之三을 極端的인 熱帶性 氣候 環境속에 몰아 넣은 그 地理的 位置는 勿論 이 大陸의 地

形構造까지도 그 海岸線의 單調、高原의 海岸偏在等等 이 大陸의 自然을 苛酷한 熱帶環境으로 만들고 있다。그 中에서도 赤道 多雨型 氣候地帶로 되고 있는 Guinea灣沿岸一帶와 Congo 盆地地域은 年中 高溫 多雨의 氣候環境으로 白人들의 植民 開拓에 많은 障碍를 주었으므로 이곳 Congo 江 流域의 盆地地帶를 俗稱「白人의 墳墓地」라고도 하였다。다만 地中海性 氣候를 이루고 있는 北아프리카의 좁은 地域과 南아프리카의 一部 地域에서는 그 氣候 環境이 溫暖하므로 古代부터 많은 住民들이 定着하여 開發에 努力하여 왔었으며 오늘날 이 地域을 根據地로 보다 內陸에의 開發 開拓에 努力하고 있을 뿐이다。한편 赤道以北 넓리 展開되고 있는 Sahara 地方에서는 熱帶的이면서도 乾燥한 氣候로 말미암아 廣濶한 大砂漠인 大障壁이 東西로 뻗쳐 있으므로 이곳 住民은 Oasis 부근에서만이 겨우 泉地 灌漑 農業으로 生計를 維持하고 있으며 日常用品이나 衣料 裝飾品等은 이 Oasis에서 저 Oasis로 떼를 지어 往來하는 Caravan(隊商)에 依하여 取得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政治地圖〉

그리고 이 大陸의 地形은 單調한 卓狀 高原을 이루고 있으나 山脈의 位置가 海岸에 뻗치는가 또는 內陸에 있는가에 따라 그 內陸地域에 미쳐주는 氣候 環境도 역시 달리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特히 熱帶 多雨林 地域에서는 高溫 多濕의 氣候環境과 密林의 大繁茂때문에 定住住民들은 서로 相關關係的 往來가 드물어 마침내 많은 群小部族土民들이 散在 割據하는 生活 環境을 만들어 言語는 勿論 生活習性에까지도 固有한 獨自的 形式을 갖게 하였다。

이와 같이 障壁的 大自然環境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이 때까지 이 아프리카 大陸은 未開發의 暗黑大陸으로서 存續되어 왔던 것이나 時代文明의 巨足的 發展과 人智科學의 劃期的 進步는 드디어 大 自然을 克服 開發하여 오늘날 이 暗黑의 黑人、未開大陸을 「世界 資源의 寶庫」로 登場시키고 있으며 人類 活動의 大舞臺로 그 赤裸裸한 姿態를 보여주게 하였다。

三、植民地 大陸의 經濟的 開發

그렇다면 오늘날 이 大陸은 어떠한 經濟的 發展 經路를 가져 왔으며 또한 그 世界 經濟面에서 차지하는 經濟的 地位는 어떠한가?

이와 같은 見地에서 이 大陸의 開發을 經濟的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겠다。

1 奴隷貿易 時代

Herodotos의 記錄을 보면 아프리카의 沿海 週航은 西紀前 六〇〇年頃이었다고 하나 正確하게 알려지게 된 것은 一四八七年 Bartholomeu Diaz가 아프리카 南端인 希望峰에 到達한 以後부터이다。

그後 포르투갈의 아프리카 領有時代로부터 시작하여 十九世紀 中葉에까지 이르는 三百餘年間은 主로 白人들의 奴隷貿易이 繁盛한 時代이다。

굳건한 體力과 强忍한 忍耐力을 가지고 있는 이곳 Negro는 白人들이 植民하기보다 일찍 옛날부터 Egypt, Arabia 半島地域에 奴隷로써 끌려 갔었으나 그 數는 헤아릴 수 있을 程度로 적은 것이었고 大量的인 集團移動이 實施된 것은 銃砲가 發明된 以後부터이다。따라서 이때까지의 아랍人에 依한 奴隷捕虜는 主로 東아프리카 高原기슭에서 動員되었었고 白人들의 大量的 黑人搬出은 熱帶 아프리카 西岸인 오늘의 奴隷海岸 卽 Slave Coast를 據點으로 삼았었다。그 當時 黑人 奴隷는 Senegal의 Cape-Verde에서 赤道南쪽의 포르투갈領인 Angola의 Benguela까지에 걸쳐 設置되어 있던 約 七十個所의 白人商館에서 實施되었다。一五四〇~一八四〇年까지의 三百年間、每年 平均 五萬名(最高는 一八三〇年의 二〇萬)이 每人當 八十마르크(馬克)로 投賣되었으니 이동안 약 一、五〇〇萬의 黑人奴隷가 新大陸 各地에 搬出된 것으로 推算된다。이와 같은 奴隷가 搬出된 아프리카는 輸入貨物로 銃砲도 있었으나 主로 담배、라므酒、유리製品、거울、金屬製品들을 搬入하였는데 特히 嗜好品이 환영을 받은 것은 熱帶的인 氣候環境에서 온 要求였을 것이다。

그러나 英、佛、和 그 밖의 美國의 南北戰爭등으로 十九世紀 中葉에는 公開的인 人身賣買는 衰退하였다。

2 採集 貿易 時代

그後 아프리카 西岸에서의 奴隸貿易 景氣는 없어졌으나 그래도 土人들의 採集 또는 蒐集되어 오는 土産物品과 日常用品과의 去來交換은 계속되었다。

卽、貿易品이 黑人奴隸에서 土産物品으로 옮겨지게 된 十九世紀 中葉부터는 이곳 大陸의 象牙、黃金、香料인 胡椒、駝鳥의 털、獸皮、椰子實등이 많이 採集되어 搬出되었다。只今의 上Guinea灣 沿岸에 여기 저기 불리우는 Gold Coast, Slave Coast, Ivory Coast, Grain Coast 等은 모두 이때에 命名된 地名들이다。特히 Ghana 共和國인 黃金海岸땅에서는 金이 많이 産出된 것은 보다 以前의 十七世紀때 일이나 그後 계속 産出되어 本國인 英國에 搬出되었으므로 이 이름이 남게 되었다。

3 Plantation 時代

이와 같이 採集、蒐集物品의 交換去來가 行해지자 이때까지와 같은 白人 商館의 繁榮은 完全히 衰退해버리고 廢鎖하기에 이르렀고 그後 一八五〇年~一八八〇年頃까지의 當分間은 그대로 暗黑 大陸으로 放置해 두는 時代가 계속되었다。그러나 十九世紀 末葉에 英人들은 白人들의 嗜好品인 카카오、코오피、落花生、棉花들을 大規模的으로 栽培하기 시작하였다。

白人들의 多大한 投資와 科學的인 運營 그리고 이곳 原住民들의 값싸게 雇傭된 勞動力은 드디어 이 地域의 自然的 立地條件과 더불어 世界的 産物品을 보게 된 大規模的인 Plantation을 發達시켰다。오늘날 世界의 九十%를 産出하고 있는 카카오는 포르투갈人에 依하여 一八八五年 南美에서 移植되었는데 元來의 椰子油 採集보다도 經濟的으로 有利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곳 黑人들은 黃金海岸의 內陸地方에까지도 栽培하였다。그리고 最近에 獨立한 프랑스 共同體의 Mali 共和國의 Senegal 地方에서는 美國에서 移植한 落花生의 移動 栽植 農耕에 크게 成功하여 오늘날 프랑스 本土의 製油工業을 뒷받침하게 되었다。東아프리카의 우간다地方에서는 英人의 資本과 技術로 大規模的인 棉花栽培가 經營되고 있다。

4 採鑛 經濟 時代

그러나 오늘날 世界的 地位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오랜 傳統의 栽植農耕도 아닌 鑛山業 等이라 하겠다。勿論 到處에서 近代的인 栽植 農耕이 實施되고 있기는 하나 最近에 開發된 各種 鑛山業은 가장 緊要한 것이다。卽、오랜 傳統과 歷史를 가지는 南阿聯邦의 金、金剛石을 비롯하여 헬기이領이었던 新生 콩고共和國의 Katanga 銅山

과 Kiromoto 金鑛山, 北 Rhodesia 의 여러 銅山들이 알려져 있다。 特히 最近에는 아프리카의 우라늄鑛의 埋藏量이 世界의 九十%까지 차지하고 있으며 그中 Congo 의 Katanga 鑛山과 Sinkorovwe 鑛山은 世界 第一가는 富鑛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도 이 大陸에는 젯트 엔진에 利用되는 稀金屬인 코론뮴이 Nigeria 에서 世界의 九十二%까지 獨占하고 있으며 코발트도 八十%를 콩고 地域에서, 또한 工業用 다이아몬드도 九十八%를 産出하고 있어 實로 아프리카는 原子力 時代의 資源的 中心地가 되고 있다。

四、胎動하는 民族自決의 氣運

以上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는 名實 共히 유럽 先進國家들의 植民地로써 그들의 資本과 技術에 依하여 開發되어 온 大陸이나 漸次 植民地主義 反對와 民族自決의 思潮는 아시아, 아라비아를 거쳐 이 大陸에까지도 波及되었으며 드디어 植民地 大陸의 面目을 一新케 하였다。 卽, 第二次 大戰前에는 統一 아랍共和國의 母體가 되고 있는 「에집트」(Egypt)(一九二二年 獨立)와 一九三六年에 伊에 侵略을 받았다가 다시 復舊된 「이치오피아」(Ethiopia) 그리고 一八四七年 美大陸에서 들아온 黑人 奴隸가 세운 黑人共和國 「리베리아」(Liberia) 그리고 一九一〇年 英聯邦內의 自治領으로 된 南阿聯邦等의 네나라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다 二次大戰이 끝난 後 이 大陸에도 민동이 트기 시작하였으며 드디어 그들의 擧族的 民族鬪爭과 微妙한 國際情勢는 그들의 뒤이은 民族 自主獨立을 認定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

卽, 廣大한 사하라砂漠의 北쪽에서는 一九五一年 十二月에 Libya 가 이탈리아의 勢力을 驅逐하고 獨立의 先鋒이 되였고 그 이웃인 佛保護領인 Tunisa 와 Morocco 는 一九五六年 四月에, 한편 나일江上流地方에서는 一九五六年 一月에 Sudan 이, 一九五七年 三月에는 黃金海岸과 英信託地였던 Togoland 가 合쳐서 Ghana 로 第二의 黑人共和國으로 誕生하였다。

그리고 一九五九年에는 佛領기네아 Guinea 가 共和國으로, 또한 佛領 Sudan 과 Senegal 이 合치어 Mali 共和國으로, 東南海上에 있는 佛領 Madagascar 島는 Malagasy 共和國으로 佛共同體內에 머물게 되었다。그리고 今年 一九六〇年 正月에는 Cameroon 이, 지난 六月末에는 Congo 共和國이 獨立하였으며 이 밖에도 近間 獨立이 約束되어 있는 地域으로는 Samali land 가 Samalia 로, 佛領 Togoland 가 Togo 共和國으로, Moretania 가 Moretania 共和國으로 될 豫定이다。

五、結　論　(아프리카의 地政學的 諸問題)

要컨대 植民地 大陸이었던 아프리카는 이제 第二次 大戰後의 國際的 情勢下에서 그 從來의 隸屬的 地位를 벗어나려고 胎動하고 있다。

이제 植民地로서의 舊態依然한 당은 얼마 남지 않았다。그러나 이 地域들에서도 民族自決의 烽火는 오르고 있다。

이와 같이 胎動하는 이 大陸의 當面的인 地政學的 問題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佛領 알제리아의 自主獨立 鬪爭……이는 統一 아랍共和國의 뒷받침과 佛本國의 差別處遇、國內民族主義의 擡頭에서 온 것이다。

둘째、콩고共和國의 政治的 不安定과 經濟的 有望性에 對한 共産主義의 侵略策動……이는 國內 多數民族의 分裂的 環境 및 原子力 其他의 各種戰略 資源이 豊富한 條件과 이때까지의 隸屬的 地位에 同情을 假裝한 共産側의 計略에 基因한 것이다。

셋째、南阿聯邦의 人種 差別 問題……이는 土着 白人의 原住民 虐待 및 差別待遇에서 온 것으로 앞으로 複雜해 질 憂慮가 많다。

그러나 以上의 諸問題는 宗主國家側에서의 寬大한 處遇와 現實을 理解한 弱少民族의 自覺的이고 秩序있는 行動에 依存 期待할 수 밖에 없다。

(筆者・서울師大講師)

〈七十九面에서 계속〉

前述한 日本의 經濟的인 膨脹은 적지 않은 不安을 內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즉 日本의 經濟는 無制限으로 膨脹될 수는 없고、어느 段階에 이르러서는 亞細亞의 他民族으로부터의 反撥을 받을 것이다。

亞細亞 他國의 對日警戒心과 民族主義는 日本의 이러한 浸透를 無制限으로 容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이러한 境遇 日本은 對共産圈과의 交易을 積極化시킬 것이며、이렇게 되면 亞細亞에서 自由陣營은 對共産陣營 勢力均衡을 喪失할 憂慮도 없지 않은 것이다。日本의 自由陣營에 對한 信義는 「아이젠하워」大統領의 訪日取消等으로 極度로 疑心스러운 只今、日本의 東南亞에의 經濟的 發展이 阻止될 境遇 그들의 取할 態度를 疑心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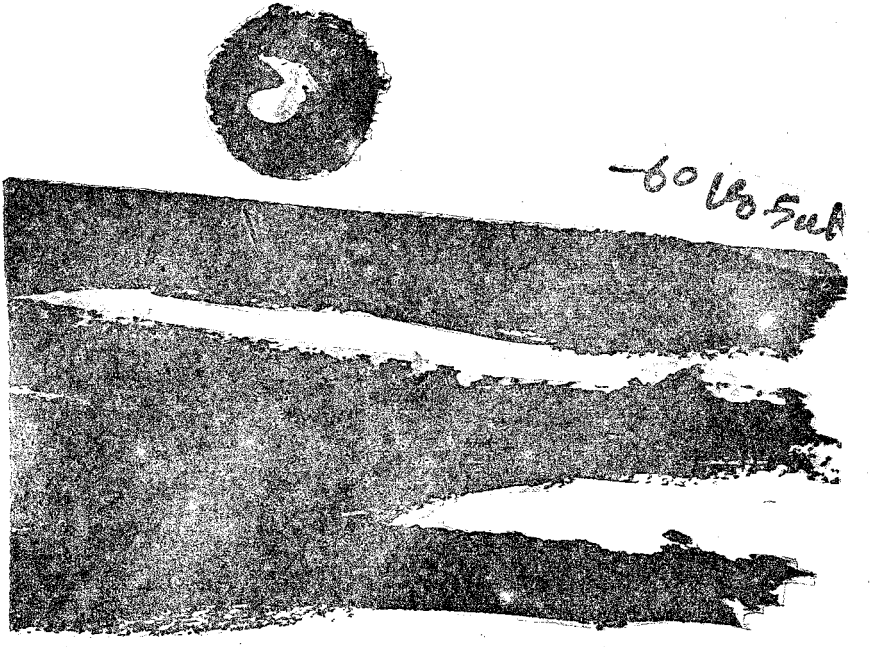
結　論

幸이건 不幸이건 日本은 現 亞細亞의 安全을 左右할 役割을 擔當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亞細亞의 平和의 安全裕이 될 수도 있고 反面에 破壞의 導火線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日本은 「후루시쵸프」가 巴里 頂上會談을 破壞한 以來 安保條約反對 「아이젠하워」大統領 訪日取消、岸首相辭任等 共産主義 宣傳앞에 無力하였다。共産主義와 對抗하기 爲하여 自由陣營이 育成시킨 日本은 도리혀 自由陣營의 앞날에 暗影을 던지고 있다。우리는 우리의 올타리안에 범을 기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筆者・外務部 亞洲課勤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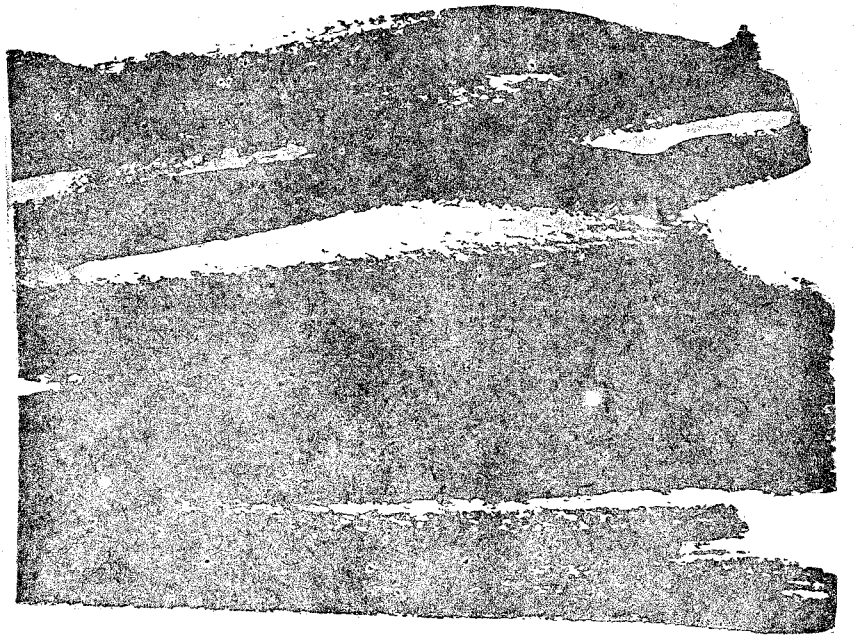


바다가 그리워

글·그림 朴 古 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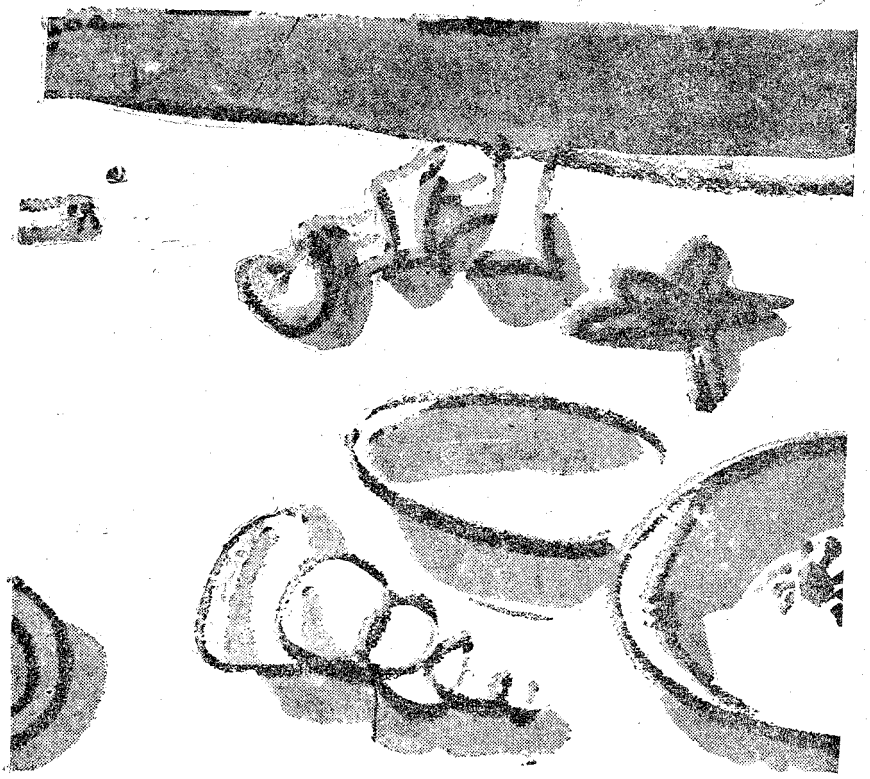
나는 원래 여름철이 오면 대개 산이나 바다로 훅 떠나는 습성이 있다。

찌는듯 대터쪼이는 더위에 두둥실 몸을 던질 수 있는 바다가 더욱 좋고。 폐쇄한 도심지에 도사리고 앉어 걷는 것도 요지음의 습관이기는 하지만 찌는듯한 더위와



의 대결은 오로지 완전한 벌거숭이의 자세만이 무장인 것이다。자연속으로의 완전한 해방감이 마음과 육체를 가볍게 하여주고。무한한 수평선과 깊고 짙은 바닷물은 단순한 가운데 무한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어서 좋고 완전히 해방된 나의 육체와 마음은 재법 원시와 잇닿는듯 시흥을 할 수 있어 좋다。

이러한 강력한 자극과 단순한 환경과 나의 용출함을 망각케하여 주고、무한히 대일을 바라볼 수 있는 듯 여유에 젖을 수 있게 하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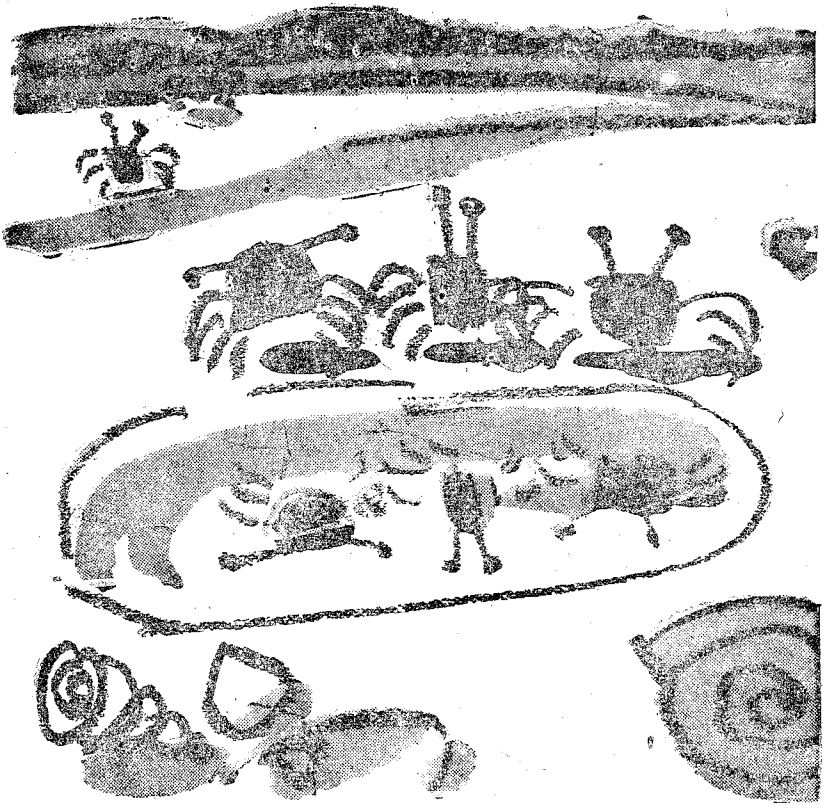
바닷가 素描

글·그림 白 榮 洙

은싸래기 금싸래기 위로 깜안 궤가 마치 산책이라도 하는 것처럼 제각기 멋을 부리고 있다。

고급동물처럼 경치를 찾아서 무언가 속삭이는、가슴엔 情熱같은 거룰을 품는다。 아마도 열열한 사랑을 고백할이 틀림 없다。

이런 風景은 여기 저기 놓여 있는 조개、소라、고동껍질들의 歷史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랜 傳說을 말하고있다。 바다의 歷史는 白砂場인 바닷가에서 볼 수 있다。

조개다 소라、고동들이 바닷가 파도에 씻기어 모래알이 되기까지엔 수백년을 걸릴 것이고、眞珠처럼 윤이 나기까지엔 헤아릴 수 없는 파도에 씻기어、바다의 歷史가 되고 있다。

바닷속 깊이 잠겨 있던 傳說도 파도에 밀려 모래사장에 닿는다。 女人이 人魚가 된 이야기도 바닷가에 밀리어 마침내 白砂場에 나타나고 있다。 거기엔 그녀의 머리 빛이나 가락지 같은 것도 있고、해결되지 않은 열쇠도、파도에 밀려 금싸래기 은싸래기 위에 놓여 있다。

怒여움의 가지가지

金 玆 林
〈女流作家〉

數週日前 圓覺寺에서 「성낸 얼굴로 돌아다 보라는 演劇이 上演된 일이 있다。

英國의 新進作家「존·오스본」의 出世作이다。젊은 世代들의 旣成社會에 對한 어떤 反撥과 몸부림 即,이것을 합쳐서 怒여움이라고 表現했는데 世界各國에서 크게 物議를 이르킨 作品이라고 소개되었다。特히 이 作品속에서 생각나는 재미있는 대목은 오늘의 旣成世代들은 저마다 「에드워어드」王朝의 찬란한 옛꿈을 더듬으며 너무나도 뒤바뀌고 變한 現實에 對해서 고민과 안타까움이 있는데 反하여、젊은 世代들은 너무도 變하지 않는 現實에 對하여 울분이 있는 點이다。젊은 가슴속에 그 울분이 엉키고 성킨 끝에 드디어 一種의 怒여움으로 爆發해 버렸던 것이다。한쪽은 變한 現實을 슬퍼하고 또 한쪽은 變하지 않는 現實에 對해서 화를 품고 있는 것이다。참으로 웃어 넘길 수 없는 對照이다。

그러면 그러한 怒여움속에서 눈을부릅뜨고 現實을 直觀하는 英國의 젊은 世代들은 과연 무엇을 받들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 作品속에서 그것이 뚜렷한 해답을 얻지는 못하였다。

그저 핫덩어리가 어느 한 目標를 향해 터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덩어리는 어떤 精神世界에서 맴돌다 제김에 사그러졌다가는 또 다시 하나의 덩어리로 부풀어 간다는 式의 코오스를 더듬고 있는 것이다。여기에서 主人公「지미」의 말을 빌린다면 「우리들은 모든 意慾이 喪失돼 가고 있다。왜냐하면 旣成世代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해치웠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世上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만한 일이란 하나도 없다。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말이다。」

그와 같이 젊은 層들의 無氣力의 原因을 旣成社會에 돌리고 그들을 미워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演劇을 보고나서 「앵그리·영맨」들의 怒여움의 性格을 찬찬히 分析해 보았다。흔히 怒여움이라고 하면 原始感情에서 터지는 화,다시 말하면 憤怒를 보고 말하기가 쉽다。

그러나 여기 「앵그리·영맨」들의 怒의

意味는 그런 原始的인 感情의 爆發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怒의 뜻은 어떤 形而上學的인 精神世界에서 爆發된 感情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그 怒에 對한 意味의 輪廓을 把握하고 나서 새삼 怒에 對한 가지가지를 생각해 볼 機會를 얻게 되었다。

「영그리·영맨」들의 그와 같은 憤怒는 지금 世界到處에서 注視되고 있다。文藝批評家들은 그 憤怒에 對한 해석과 意見을 發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憤怒、저런 憤怒를 생각하면서 나는 우리의 憤怒、다시 말하면 우리 韓國的인 憤怒를 따져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우리 民族性은 本來 外柔內剛하기 때문에 좀체 自己本性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것이 美德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오늘의 現代意識과는 매우 距離가 먼 느낌이 든다。

美國의 「비트」나 아까 말한 英國의 「앵그리·영맨」이나 또는 佛蘭西의 「앙피·로망」들이 그 뭐가에 對해서 思考하며 노여움을 품고 있듯이 모두 積極的인 姿勢로 思考하고 또 行動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와 「노여움」이란 現代의 流行語가 되어 知識層들의 오늘의 話題를 獨占하고 있다。

이와 같이 世界各國의 젊은이들이 노여움속에다 젊음을 태우고 있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또는 것을 傍觀視하거나 卑屈했었는가?

또는 無意慾의 나날속에 젊음을 埋藏하고 있었는가?

결코 그렇지는 않았다。現代意識과는 距離가 먼 것 같은 外柔內剛한 氣質속에 부풀어 오르는 노여움을 품고 있었다가 이번에 탁 터져고 말았던 것이다。

그 노여움이란 꼬치 꼬치 따지거나 計算된 끝에 成長된 憤怒는 아니었던 것이다。獨裁者에 對한 쌓이고 쌓인 불풀이였다。人間의 感情에는 限界가 있게 마련이다。

나는 四·一九를 憤怒의 勝利라고 말하고 싶다。

「앵그리·영맨」의 노여움이 英國的이고 젠틀한 노여움이라고 한다면 우리 노여움은 역시 어디까지나 韓國的인 노여움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그런데 「앵그리·영맨」의 노여움은 그 노여움 自體가 노여움으로 끝날 수 밖에 없는데 比해 우리 노여움은 노여움을 行動으로 옮길 수 있었던 點을 더욱 높이 살 수 있다。

진정한 노여움이란 올바르게 터지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 보다도 무섭게 作用되는 것이다。

이렇게 올바른 노여움의 시작이 곧 正義의 發露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不義를 미워하는 마음이 곧 노여움으로 變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렇게 노여움을 分析하고 나니까 어쩐 일인지 노여움 自體가 엄숙해져 온다。우리가 日常生活에서 일어나는 그런 따위의 노여움으로 해석해서는 큰 差異가 있게 마련이다。그러나 그것 역시 노여움에는 틀림없다。흔히 日常生活에서 일어나는 노여움이란 짜증이 바탕이 되어 생기는 感情이다。그러니까 憎惡를 바탕으로 하는 노여움에 比하면 노여움의 質이 전연 다르다。

오늘의 젊은이들은 노여워할 줄 알아야

한다。

노여워할줄 아는 젊은이의 눈에서는 불꽃이 튄다。

노여워할줄 아는 젊은이의 가슴속에는 끓는 피가 이글거린다。

노여워 할줄 아는 젊은이들은 妥協을 용서 안한다。

진정 노여워할줄 아는 젊은이가 많을수록 그나라의 知的인 水準은 높아 갈것이다。

여기서 더욱 가혹한 表現을 해 보면 노여워할 줄 모르는 젊은이는 現代人의 資格이 없다。

왜냐하면 노여움속에서 現代人의 眞價와 魅力을 發見할 수 있기 때문이다。

〈六〇·盛夏〉

三角山에서

朴 明 星

〈詩 人〉

지금 내가 선 바위 위에는 健康한 불개미들의 行列이 한 참 歸路를 서둘르며 밀려가고 하늘에 떨인 노을은 차츰 茶褐色으로 번져 가더니 어둠이 서서히 날개를 펴고 숲을 덮고 바위를 달래고 마지막엔 바람마저 재우려 든다。 멀리 바라보이는 長安은 南山을 옆에 끼고 漢江을 벼개로 베고 華麗한 꽃불들을 켜기 始作한다。 빨간 불、노란 불、파란 불 色色이 明滅하는 모양이 꼭 喘息결린 사람의 가쁜 숨처럼 할딱거리고 껌벅댄다。 마침내 바위 아래 숲 쪽으로 새끼 손까락만한 샛 길이 호미하게 누어서 어두움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웬 일인지 모기와 파리는 없고 하루살이만이 귀 곁에서 앵앵 거린다。 禮佛時間을 알리는 木鐸소리 종소리……。 文明을 발아래 깔고、太古然한 바람의 遁甲術을 배워 山神靈들은 제멋대로 노니며 어둠을 찢기 始作한다。 罪惡을 손짓하며 沈默을 비웃는다。 이 瞬間 내 손바닥 위에 꽂송이 처럼 따 올린 서울은 품 속에서나 그리던 異國의 花草、눈물 겨웁고 낯설기만 하다。 멀리서 보면 더욱 가까운 것들이여。 괴로움 키는 사랑의 고향이여。 어두움속에서 빛은 하늘、빛나지 않는 것들을 위한 빛처럼 우리에겐 웃음도 한숨도 외로움까지도 몸에 必要한 滋養分처럼 부어지긴 하지만 머무는 것은 하나도 없다。 너의 그림자 내 목청을 울려나온 목소리까지도 잡을 길 없는 誘惑일 뿐。 또 다시 일렁이는 빨간 불、노란 불、이들은 우리의 煩惱 우리의 欲望 몸속에 棲息하는 不幸한 結核菌、그러나 않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사랑에 앓고、離別에 앓고、同情에 앓고、迫害에 앓고……假面에 지

아나운서生活

文 福 順
〈아나운서〉

꿈 많은 女學校時節로부터 동경해 오던 그 꿈이 實現되어 아나운서가 된지 꼭 三年이란 時間이 흘렀다。그동안「스튜디오」生活에서 얻은 쓰고 단 추억들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은 내 生에 있어서 決코 잊을 수 없는 貴하고 아름다운 날들이 되어 훗날 아쉽게 느껴질 것이다。

아나운서 동료들이 異口同聲으로 말하고 있듯이 처음 放送할 때에는 어쩌면 그렇게나 마이크앞이 무섭고 두려운지 모르겠다。마이크를 愛人과 같이 각하고 속삭이듯이 放送을 하라는 선배들의 말을 명심하면서 보다 친절하고 친근한 눈은 햇빛을 더듬어 찾고 冷淡의 對象에게 熱愛를 渴望한다。이런 부질없는 생각마저 비워버리라는 듯이 藥水터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꿈을 깨운다。아、흐르지 않는 것이 어디 있으랴。長安의 불빛어린 눈물과 하늘에 박힌 純情、비어 있는 가슴 속을 물소리가 지나고 大地의 疲困함이 솟구치다가 敬虔한 祭司처럼 꿇어 앉기 始作한다。歡呼와 絕叫、諦念과 飛翔의 莊重한 合奏曲에 내가 同化되어 가듯이 山中의 모든 마음 들은 끝없는 바닷물로 合流해 간다。

僧伽寺에서

부드러운 放送을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마치 심판을 받는 범법자 모양 마이크 앞에 앉으면 감정은 굳어지고 입은 自由로이 움직이지 않고 떨리기만 한다。이제 三年이란 세월이 흘러가니 마이크와도 많이 親해졌다。그러나 아직도 마음놓고 親할 수 없는 愛人이다。바꿔말해서 決코 겸양에서가 아니라 아직도 만족할만한 放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告白이다。

放送이 社會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아나운서란 직업은 배우까다롭고 갖추어야 될 많은 조건이 있다。

고운 목소리나 훌륭한 묘사력같은 것은 先天的인 것이지만 健康한 身體와 원만한 人格！그리고 Something Everything에 통해야 된다는 것等은 基本的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그러므로 우리 아나운서들은 항상 사전을 들쳐 봐야 되고 신문 잡지를 비롯해서 多方面으로 상식을 넓히고 있다。아나운서 室에는 유난히 많은 電話가 온다。「지금 정확한 時間이 몇時냐?」「來日 비가 오겠는가 안오겠는가?」「지금 서로 意見이 달라서 내기를 하고 있는데 室內溫度는 몇度가 적당한 溫度입니까?」等

가지 각색의 재미 있는 電話가 온다。 아마 아나운서는 무엇이든지 다 잘 알고 있는 줄 아는가 보다。

또한 아나운서의 生活은 時間을 쫓고 時間에 쫓기는 소리의 홍수속에서 不安과 안도감의 交叉路에서 每日 每日을 보내고 있다。 어떤 사람은 아나운서는 비행기의 조종사 같이 엄숙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나 조종사도 기계가 아닌以上 미스가 있을 것이다。 아나운서 들은 大部分이 不注意에서 오는 이 미스때문에 항상 초조와 긴장속에서 마이크앞에 나간다。 그러나 눈깜짝할 사이에 저지른 오독(誤讀)과 착각등의 미스는 이미 저울 수 없는 미스이기에 때때로 청취자로부터의 꾸중을 받게 된다。 아나운서를 말하는 기계처럼 정확하기를 바라는 청취자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은 完全할 수 없는 人間의 弱點이라고 할지? 더욱이 最近에는 放送에 對한 關心이 갑작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對한 反應으로 放送에 對한 評도 자못 활발해졌다。 여기서 나의 放送失手를 한가지 公開한다。 現業者만이 남고 모두 退勤해 버린 조용한 土曜日 午後 「어린이 時間」이었는데 고만 日曜日로 착각해 버리고 「全國에 계신 어린이 여러분! 日曜日 하루 얼마나 즐겁게 지내셨읍니까?」하는 「멘트」를 放送했다。 「어린이 신문」이 끝나 스튜디오에서 나오자 마자 요란스러운 전화 벨이 울렸다。 아주 귀여운 꼬마의 목소리로 「오늘은 土曜日이지 日曜日이 아니에요」 하는 것이다。 나는 그 순간 얼마나 당황해서 사과를 했는지 모른다。

잔칫날 부엌대기 모양 남이 즐길 수 있는 公休日에는 더욱 바쁜 것이 또한 아나운서 들이다。 무슨 특집 라담회니 특집 음악회 특집 放送드라마等—。 눈코 뜰 새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게 된다。 女子 아나운서 들에게는 숙직근무가 허용되지 않지만 나흘만에 혹은 닷새만에 숙직을 해야 되는 男子 아나운서들은 決코 수월한 직업이 아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공복과 피곤으로 가득한 그들과의 교대 근무로 들어 가는데 女子들은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다。 돈과는 인연이 먼 아나운서들이지만 決코 꿈만을 먹고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좀 더 훌륭한 放送을 하겠다는 생각만으로 온갖 젊음의 情熱을 마이크를 向해 송두리채 바치고 있는 아나운서에 對한 대우 문제는 時急히 要求되는 問題라고 생각 한다。

아나운서 室에는 항상 유—모아와 많은 話題로써 명랑하고 따스한 家庭的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엄격한 社會生活 이지만 학창생활의 연장인 듯한 氣分이며 三年이 지난 오늘까지도 別로 권태로움을 모르고 自身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事實에 對해 나는 퍽 만족하고 多幸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화로 또는 書信으로 아껴주고 격려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보다 좋은 放送을 해 보겠다는 의욕과 努力으로서 나는 오늘도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마이크 앞에 나아간다。

八月 十八日

——Studio 에서——

내가 본 공군

黃貞順

〈女優〉

나는 공군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웃집에 가끔 오는 늠늠한 공군장교의 모습을 보고 언젠가 믿음직하게 생각한 일이 있다。

늦은 가을이었다。 새파란 하늘을 향하여 마음껏 자라나며 靑綠의 젊음을 자랑하던 나무들도 어쩔 수 없는 季節의 輪廻속에서 찬서리를 맞고 落葉으로 몸부림치며 떨어졌다。 낙엽이 흐느껴 울며 땅위로 덩굴고 있었다。 빠만 앙상히 남은 山 저쪽 창공이 더욱 높아갈 무렵 나는 우연히 이웃집에 가끔 오는 공군장교를 푸라타나스 낙엽저는 소공동거리에서 만났다。

「아주머니 어디 가십니까?」

「아이구 난 누구시라구 혜숙이네 공군 아저씨군요」

「영화에서 많이 뵈었읍니다。 무대에서도 가끔 뵙구요……。」

「영화 연극을 좋아하시나 보군요」

「좋아한다기 보단 재미있게 보지요。 결국 재미있는 영화、연극이 성공한 작품이 아닐까요? 하품만 나는 따분한 스크린과 무대는 제작가、감독、연출인 혼자만 좋아 하는게 되고마니까요」

영화얘기가 나오고 말았다。 내가 영화인이니까 자연히 거리에서 만난 이 공군장교도 영화얘기를 하게 된 것이다。 나로서는 영화 평론가의 비평이나 듣는듯 그대로 지나쳐 듣지 않았다。

우리는 명동 다방에서 따끈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계속 하였다。

「비행기를 타시나요?」

「네 젯트機를 탑니다。」

「그럼 十飛團 所屬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공군에 對해서 잘 아시는군요?」

「언젠가 잡지에서 읽은 일이 있어요」

「영화촬영이 있을땐 퍽 고단하시죠?」

「그러나 조종사에 비하면 저희들 일은 아주 수월한 편이죠。」

「몇회나 출격 하셨어요?」

「여든번만에 휴전이 되고 말았읍니다。 꼭 백회를 채우려 했는데 휴전이 되어 분하게 되었어요。」

「기상에서의 늠늠하신 모습을 한번 보고 싶군요」

「틈 있으시는대로 한번 오세요」

「부인께서는 퍽 幸福하시겠읍니다」

「행복이 무엇니까 조종사의 아내란 항상 가슴을 조이고 산답니다。종일 불안과 초조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아침에 집을 나오실 때의 기분이 근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군요」

「그렇저요。아내는 항상 명랑하게 해주려고 애쓰지만 몸이 피로울 때라든지 할 때는 우울한 기분으로 배웅해 주면 저 역시 우울하게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조종사의 아내란 퍽 어렵겠는데요…」

「행복한 편이 못되지요」

이렇게 한번 꿈결과 같이 만나 여러가지 얘기를 주고 받은 뒤 우리는 두번다시 만나지 못하였다。그 후 얼마 안되어 혜숙이네가 부산으로 移舍를 갔기 때문이었다。

어떤 때 나는 로케를 나갔다 창공에 원을 그리는 젯트기의 모양을 보고 퍼져 흘러가는 飛行雲속에서 혜숙이네 공군 아저씨의 씩씩한 모습을 그려 보며 어디선가 가슴 조이며 같은 하늘을 바라 보고 있을 그의 부인을 생각해 본 일이 있다。

밀어운 하늘의 용사! 한번 만난 혜숙이네 공군 아저씨의 모습이 창공에 「크로즈·업」될 때면 그이가 이끄는 젯트機編隊가 銀翼을 반짝이며 날으는 밀음직한 모양이 눈앞에 보이는 양 싶다。

이처럼 하늘을 지키는 조종사의 勞苦는 말할 수 없이 크다 하겠지만 地上에서 근무하는 整備士들의 勞苦와 힘도 적지 않을 것이다。한 整備士의 不注意는 우리가 만들지도 못하는 젯트機와 나라의 生命인 조종사 까지 잃게 되는 結果가 되니까 늘 면밀해야할 整備士 역시 조종사의 아내마냥 離陸한 비행기가 無事히 내려 올 때까지 마음 놓이지 않고 不安해 할 것으로 생각된다。

二十一世紀는 바야흐로 宇宙時代라고들 한다。상상치도 못한 날들을이 저 많은 별과 별사이를 날라다닐 때를 상상하면 공군에 기대되는 바 더욱 커진다。發展되어가는 가지 가지의 原子兵器、비행기보다 훨씬 빠르다는 各種의 誘導彈 이는 오로지 공군의 사명이 중대해짐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무튼 앞으로의 戰爭은 공군이 도맡아야 할 것 같기에 공군에 더욱 관심이 가곤 한다。

오늘도 나는 푹 푹 찌는 촬영소안에서 몇「컷」을 찍고 밖으로 나왔다。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어린애 처럼 즐기고 있을 때 삼 사명의 공군 장교가 언덕 길을 내려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왠지 친밀해진 듯한 감정으로 나는 일어나 언덕을 올라왔다。젊은 소위 한 사람이 나와 눈이 마주치자 빙긋 웃더니 앞으로 닥아 오며 아는체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황정순 여사시죠? 영화에서 여러번 뵈워 낯이 익습니다。저희들 카메라에도 한「컷」얼굴을 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동생처럼 친근하고 부쳠성 있는 말이었다。사진을 찍은후 나는 그들을 통해 혜숙이네 공군아저씨의 그후 소식을 들었다。후진들을 훈련시키다 不意의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었다。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코속이 화끈하였다。

나라의 보배、아니 生命인 조종사! 수많은 후진들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귀

중한 위치에 있던 그이가 뜻밖의 상을 당했다니 참으로 뼈저린 슬픔을 느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잠간 만났다 헤어진 혜숙이네 공군 아저씨 안다고 하기엔 만난 시간이 너무나 짧았던 그이었지만 나라의 보배를 잃은듯 서운한 감정이었다。 오늘도 우리의 하늘을 지키는 공군 장병들의 믿음직한 모습을 그리며……。

그러나 나는 공군을 잘 알지 못한다。

보다 믿음직한 軍人의 印象

全 桂 賢

〈女 優〉

저에게도 六·二五事變때 歷戰의 經歷을 가진 오빠가 있읍니다。 그가 軍에 入隊하기 前에는 原來 모습이 少女的인 겻처럼 마음씨가 누구에게도 거역할 줄 모르고 늘 눈 언저리에 微笑를 띤 少女的인 性格의 所有者였읍니다。

그러한 오빠가 約 四年間의 軍人生活을 마치고 집에 돌아 왔을 때에는 性格과 行動이 一八〇度 變해 있었읍니다。

보다 씩씩하게 自己 主見을 發表할 수 있고 個性的인 男性이 되었다기보다는 어딘가 反抗心이 스며 있는 듯이 보였읍니다。

오빠는 一年余의 悽絕한 激戰地生活에서 行方不明이 되었었고 그後 三年이지나 捕虜交換때 홀연히 돌아 왔던 것입니다。 하대와 가혹의 極인 共產傀儡의 捕虜가 되어 평양에서 三年을 지냈다는 것이었읍니다。

처음에 오빠가 軍服을 입고 있을 때에는 「톨스토이」의 「戰爭과 平和」中에 나오는 꼭두각씨 軍隊를 連想했었는데 一八〇度 「펀트」가 어긋나 버렸읍니다。

오빠는 그後의 日常生活에 거의 말이 없어 그 明快하던 性格은 간데가 없어졌읍니다。 그리고는 每事를 悽絕한 體驗에 比較하였으며 戰爭터에서 싸운 軍人들을 理解못한다고 社會를 痛駁하는 것이었읍니다。

말투도 「머리」가 「대가리」가 되는등 極端的인 말을 例事로 하는 것이었읍니다。

事實 처음에는 오빠의 그 性格變化를 理解할 수가 없었고 한낮 感受性이 빠른 오빠이기에 一部 막난이 軍人들에게 感染된 것으로만 알았었읍니다。

그래서 不知中 軍人에 對한 印象이 別로 좋지 못했었고 때때로 보도된 一部 軍人들의 民弊는 一種의 恐怖心 까지도 자아내게 했던 것입니다。

× × ×

그런데 언제인가 K라는 除隊軍人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六·二五事變때 많은 軍

人들이 겪은 일과 또한 그들의 社會的인 位置 不可避하게 이루어진 後天的인 第二性格等을 條理있게 들었읍니다。많은 그러한 類의 軍生活을 한 분들이 不遇한 社會的인 位置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軍人들에 對한 그릇된 印象은 漸次 고쳐졌읍니다。

그는 平素에 凝結된 것처럼 無表情한 얼굴에 겨의 말이 없었고 눈만이 무서울 정도로 찬 바람이 돌고 銳利하게 빛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先天的으로 內省的인 性格의 所有者인 줄만 알았었읍니다。그런데 우연히 저는 K氏가 本然의 自己性格을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K씨의 말을 빌리면 「自己는 原來 아주 明朗한 性格이었었다」고 하면서 「엣날에 나의 모이 웃음이 많은 自己에게 女子가 되라고 했었고 장난이 심했던 탓으로 학교 時節에는 修身은 늘 丙을 했었다」고 하면서 서글픈 웃음을 짓는 것이었읍니다。

또한 엣날에 實地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文學人들은 最高의 美文으로 죽음을 讚揚했지만 「그레암·그린」의 말처럼 事變때 砲彈에 맞아 下體만 남은 激戰高地의 屍體, 털을 칼로 밀어 튀어놓은 양돼지처럼 온몸이 부풀어 떠 다니는 洛東江이나 大同江上의 屍體에 自己를 結付해 보면 결코 그러한 美文이나 올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自己가 언제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生命에 對한 愛着心과 本能的인 恐怖心을 가진 채 수 없는 죽음과의 對決로 해서 그 神經이 마비되고 굳어져 버렸다면 그 存在는 平凡한 人間의 社會에서 想像키 어려운 새 人間型이 만들어졌을 것이 아니겠는가고 解明 反問하는 것이었읍니다。

想像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나라 수백만 군인들에게 경의를 表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더우기 國民의 義務인 軍服務를 기피한 남어지 一身의 安逸을 爲한 窮餘之策으로 逃避하는 知識人의 避身處가 「空軍」이라는 一部의 풍문도 一掃되었읍니다。

K씨는 空軍出身으로 六·二五때 陸軍으로 特攻을 갔었다고 했고, 또한 「캄빌·파이롯트」들 其他 空軍人들의 敢鬪狀을 들려 주어서 그릇된 생각을 가졌던 自身이 부끄럽기도 했읍니다。

× × ×

四·一九以後 혁명의 선봉에 선 學生들은 온 社會의 話題의 초점이 되고 또한 英雄視되어 至上의 讚辭를 받는 바 있읍니다。그리고 거족적으로 그들의 공에 物心兩面으로 慰安을 베풀었읍니다。

學生革命으로 이루어진 第二 共和國은 國軍將兵들의 숨은 힘이 얼마나 크게 미치었는가를 알 수 있읍니다。만약에 계엄당국이 경찰과 동조하여 學生들에게 무차별 총질을 했었더라면 이 나라의 運命은 아직도 光明을 보지 못한채 暗흑의 世界로 화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四·一九—四·二六의 참상은 언제까지 잊혀지지 못할 것이며 계엄당국의 빛나는 勞苦는 길이 빛날 줄 압니다。

× × ×

얼마전 六月六日의 顯忠日에 六·二五 때 殉國한 十七萬 英靈들의 遺族들이 「反共의 象徵은 國軍墓地이라 했고 「遺家族들의 待遇도 改善하라」고 부르짖었읍니다。

事實 四·一九學生革命은 國民의 권리를 찾아 주었고 六·二五의 國事은 共産侵略의 손에서 國土와 民族의 生命을 守護해 주었읍니다。

그러니 우리들 전 國民은 그 두 境遇의 勇士들의 精神을 높이 받들고 다 같이 報答해야 할 것입니다。

休戰後 오랜 冷戰은 後方民의 「에고이즘」을 極度로 助長하여 一線將兵의 勞苦에 對한 情은 날로 冷却해 가고 있는상 싶습니다。

때때로 後方으로 休暇를 나오는 士兵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純朴 그것인데 國民들은 多分히 그들을 輕視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뻐스값 때문에 뻐스차장과의 가혹한 냉대를 받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퍽이나 마음 아픈 것을 느낍니다。 진정 歷戰의 勇士는 「二等兵」이라는 말이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四·二六 때로 때 光化門에 나선 먼 저는 獅子憤하는 學生들의 怒濤를 묵묵히 化石처럼 지키고 있는 將兵들의 모습은 崇高한 기세 그대로 였었으며 그 映像은 오래도록 저의 記憶에서 사라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四·一九때 將兵들의 態度는 國民들의 많은 稱頌을 들었고 信賴를 두텁게 하였던 것입니다。

× × ×

아두튼 現在 저의 눈에 비치는 軍人의 映像에서 오는 느낌 또 軍人에 對한 感情은 옛날에 비해 완연히 달라진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보다 많은 것을 理解하게 되었고 보다 믿음직하게 숭고한 使命을 다 하느라고 애쓰는 그대들의 精神에 경의를 表하는 바입니다。

青年들이오!

青年들이오、青年들이오、항상 正義와 함께 있으라。만일 正義의 觀念이 너희속에서 희미해지는 일이 있으면 너는 모든 危險에 빠지리라。

……만일 어디엔가 憎惡앞에 屈服되어가는 殉教者가 있으면 그의 立場을 辯護하고 그를 救出한다는 이 義俠心이 豊富한 꿈을 왜 너는 품지 않는가?……

……오늘 不正에 對하여 분개하고 불타는 熱을 가지고 너희들아 해야할 일을 代行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年長者 老人들이라는 이 事實이 너희들에게는 부끄럽지 않은가?

∧조라 一八四〇—一九〇二。自然主義의 代表的 作家。社會主義로 기우러져 **또레휴**—**조르**事件에서 裁判의 不正을 告發하였다。∨

(生)(活)(과)(趣)(味)

나의 登山이야기

李 崇 寧

一

내가 이제 무슨 運動이니 하고 내세울 것이 있으랴만은 내 生活은 참으로 눈코 뜰사이 없는 벅찬 生活이지만 이러한 生活속에서 切實히 느끼는 것은 最高級의 健康維持와 나이를 먹을수록 運動을 가져야 한다는 信念이다。 나는 눈을 뜨면 外國論著, 論文作成, 資料整理, 새 構想 거기에다가 講義準備에 原稿쓰기가 겹이어 日曜日이나 放學이 있을리 없이 잠은 午前 二時에서 매로 五時까지 자칫하면 밤을 새울 때도 있다。 하찮은 收入과 生活은 全部 아내에게 맡기어 내 自身 學校月給額을 외우면 잊고 하여 正確한 것을 모르는 터이다。 그것은 아내가 타오기로 그리 됨이지만 내가 탄다고 장담하고 나서 午後면 잊고서 빈 손으로 돌아오기가 例이므로 信用이 떨어져 이제는 生活面의 모든 것은 完全讓渡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나는 全的으로 『工夫하는 機械』가 되고 온 精力을 한곳에 쏠고 있는 셈이다。 내가 내 健康을 보살펴 보아도 신기할만치 버티고 나갈 實力을 가지고 있어 現在 내 年齡級으론 第一級의 健康을 지니고 있다고 남도 그리 말하고 나도 그리 믿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工夫하라』고 주신 다시 없는 恩寵일지도 모른다。

나는 二十 때에 體重 十二貫의 病體였다。 그래도 「스케이팅」, 「뽀오트·레에스」(練習때 五番, 試合엔 指揮)、劍道、乘馬、水泳等 하느라고 했다。 四十이 넘어서니 몸이 불기 시작하고 體重이 急激히 늘어갔다。 나는 생각했다。 工夫는 健康度의 試合인데 이래가지고는 健康이 維持될 수 없으니 運動을 가져야 한다고 結論을 내린 것이다。 學者란 最高의 健康을 가지고 오래 工夫해야 하는 것인데 이래서는 心臟에 탈이 올 것이라 믿고 方言採集으로 바다나 山에서 어울린 山岳會에 이끌리어 드

디어 山岳會로 발을 넣은 것이 오늘의 山岳會 幹部가 된 터이다。 이제 自信도 생기고 筋肉도 단단해지고 體重도 내렸다。 血壓 八〇~一三〇이란 正常狀態를 보게 되었다。 나로선 무서운 (?) 工夫를 하지만 또 鋼鐵과 같은 健康을 所有하고 있어 「萬年靑年」의 意氣로 工夫를 繼續할 것이다。 지금 내 머리에 흰 털이 서리기 시작하고 있지만 登山服에 「류크」를 지고 무거운 登山靴로 雷雨와 싸우며 물웅덩이에서 자면서 山行한다는 것은 나로서 榮光으로 알며 硏究室과 書齋의 나를 본 者가 누가 變貌된 이 나를 敢히 想像할 수 있으랴…。 여재는 書齋에서 冊과 싸우며 資料 속에서 어느 原則을 찾으려고 無我之境에 잠기던 내가 오늘은 어느 戰鬪의 指揮官과도 같이 젊은 山岳隊員과 溪谷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다。 퍽 찬 이 修練이 끝나면 나는 다시 書齋에서 冊과 싸우는 本來의 生活로 되돌아서는 것이다。

登山에서 나는 하나의 精神力을 얻는다。 곤기와 忍耐 그리고 團結과 服從에다가 自身의 健康을 滿喫함은 勿論이지만 不屈의 鬪志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工夫란 最高의 健康과 不屈의 鬪志에서 成功하는 것이며 이것 없이 萬事는 成功할 수 없다고 自信하는 터이다。 내 登山은 側面에서 이 精神的인 糧食을 끊임없이 補給해 주며 내 工夫에 恒常 淸新劑를 부어주는 것이 된다。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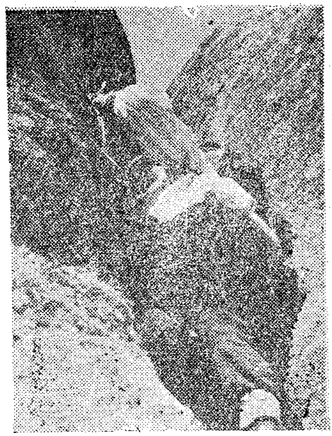
내 書齋의 머달이 속에는 山岳裝備가 어느새 거의 갖추어진 셈이다。 「류크·싸크」도 四, 五種, 「텐트」가 두 벌, 코켈, 버너, 우드·알콜, 各種 食器, 各種 服裝, 겨울裝備에서 小道具에 이르기 까지, 望遠鏡, 「트란지스터」, 「카메라」까지 제법 갖추어 놓았다。 五萬分之一 地圖에다가 「콤파스」, 各種携帶用 「케에스」等 남이 보면 近似할지도 모른다。 이 房 저 房에 걸린 寫眞도 登山寫眞이다。

日曜日도 틈이 날라 없지만 그래도 가끔 「하루치기」 登山도 한다。 「배비·류크」를 메고 나서면 五分이면 準備가 다 된다。 내 登山은 實力이 있어가 아니며 「록·크라이밍」을 爲한 것도 아니다。 金融計院長(前大法官)과 山에서 가끔 만난다。 그 분은 七十客이시면서 登山은 日課로 하시는데 날 보시더니

『山이란 참 좋아요, 「파트너」가 必要없으니 오르고 싶을 때 오를 수 있고 또 團體行動이 아니니 제 實力에 맞추어 쉬고 싶으면 어디서든지 남을 꺼릴 것 없이 쉬고 또 남시질은 돈이 든다는데 이 山은 돈도 들지 않고서 最高의 德을 볼 수 있는 運動이지요』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의 것이다。

나는 近郊를 目標로 잡을 때에는



〈寫眞・道峯山登攀光景〉

家族과 같이 오른다。아내도 登山服에 登山靴、아들에도 「엑스파아트」다。道峰、北漢山이 하루치기론 꼭 알맞는 곳이다。우리는 올라가서 물 있는 곳을 찾아 짐을 풀고 「버너」「코펠」로 맛있는 炊事를 한다。溪谷에서 이렇게 지은 점심 맛이란 참으로 一味다。그리하여 夕陽에 우리 登山家族은 下山하는 것이다。때로 光陵에 「캠핑」도 간다。두개의 「캠프」면 全家族을 收用하게 된다。이러한 재미란 그리 흔한 것도 아닐 것이며 이제 아내도 實力이 相當하고 아들은 그 學校의 山岳部員이니 實力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지난 七月 十六日 우리 內外는 몇몇의 그룹에 끼어 雪岳山 五臺山을 갔다 온 것인데 五臺山의 上院庵 위의 「寂滅寶宮」까지 朝飯前에 根據地인 月精寺에서 단숨에 갔다가 내려 온 것이다。이제 다시 智異山 縱走計劃이 있다는 山岳會 傳言에 隊長으로 가라는 要請이 있어 당서리고 있기는 하다。

나는 學生들에게 가끔 다음과 같은 趣旨로 戒言을 줄 때가 있다。

韓國 사람은 精神面에서 早熟早老의 傾向이 있다。學者들을 보아도 四十 고개에서 이미 그 學問이 늙고 더 研究할 氣力을 喪失하는 者를 본다。工夫한다고 해도 매마른 理念에서 精力的이 못되어 뜨뜨미지근한 生活로 나가는 것을 보는데 그 原因은 있을 것이다。그것은 社會의 後進性에서 조금 努力하면 出世할 수 있어 「싸구료」로 생각하는 것、修練期가 짜르기로 바닥이 곧 들어나는 것에 原因도 있겠지만 그보다 生活態度와 健康에 無關心 하다는 것을 나는 指摘한다。젊어 한창이라고 過飮하고 無節制한 生活을 한다면 四十넘어서 그 표가 들어난다。그래서 五十이 넘으면 精力이 없어지고 끈氣를 잃게 되어 精神面에서 老衰하는 것이므로 나는 이것을 가장 操心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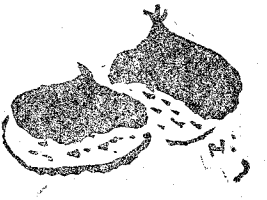
나는 지금 술도 먹지 않고 雜技도 모른다。그리고 週期的인 登山에서 얻은 精神的 肉體的 힘을 가지고 工夫에 精進한다。이것은 一生 繼續할 내 生活態度라고 하겠다。健康에서 體力 거기서 精神力이 나오고 그 精神力에서 좋은 着想이 나오고 硏究가 生光할 것이라고 믿는다。

〈筆者・文博・서울大敎授〉

(生)(活)(과)(趣)(味)

狩獵雜感

徐 雄 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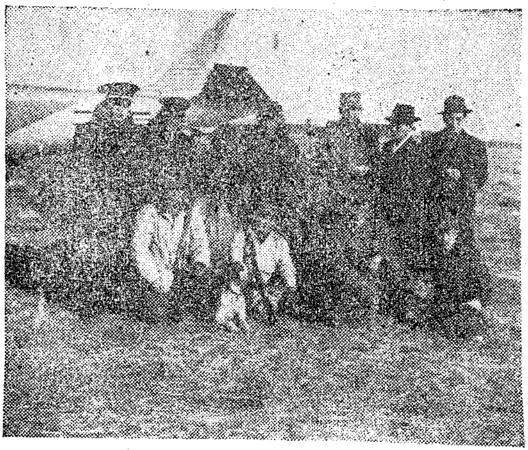
至今 筆者가 펜을 들어 頭序없이 몇字 쓰려는 動機는 우리 空軍中의 狩獵初步者 同志를 爲해서 獵道 四十年間의 平素 所感을 述懷하여 여러 同志에게 參考가 된다면 多幸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狩獵은 筆者의 約四十年間 體驗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들의 趣味中에서나 스포ㅣ쓰中에서 他趣味나 스포ㅣ쓰에 比較하여 볼 때 最高峰의 王座格이라 아니 할 수 없으나 또한 그 反面에 最高危險한 趣味의 스포ㅣ쓰라고 아니 할 수 없다。 然故로 初步者들께서는 더욱 이 高尙한 趣味의 스포ㅣ쓰에만 惑하지 마시고 先輩되는 獵師들의 指導를 받고 經驗談等을 잘 參考하여 出獵時 或은 銃器取扱時에 極히 操心하여야만 된다。 萬若 事故가 난다고 보면 他種趣味나 他 스포ㅣ쓰에 比하여 이보다 더 큰 事故는 없을 것이다。 그 事故의 簡單한 例를 들면 ① 銃器의 誤發事故 ② 火藥取扱不注意事故 ③ 裝彈時 爆發事故 ④ 動物로 誤認 殺人事故 ⑤ 猛獸捕獲時 被害事故 ⑥ 登山不注意事故 ⑦ 渡江不注意事故等 無數하다。 約 四十年間에 걸쳐 事故의 直接 間接으로 본 數는 不知其數다。 참으로 莫大한 數字의 人命殺害 致傷의 悲劇이 至今까지 繼續되는 現狀을 우리 狩獵人은 가슴속 깊이 銘心하여야 되는 同時에 筆者 自身이 여러 狩獵同志들에게 格別한 注意를 喚起시키고자 再三 再四 警告하여 둔다。 그런 操心스러운 스포ㅣ쓰인데도 不拘하고 近者에 와서 筆者가 直接 間接的으로 본 結果에 비추어 批判을 한다면 解放前까지만 하더라도 初步者가 狩獵을 始作할 時에는 꼭 先輩나 斯界의 權威者를 獵師로 모시고 그 先生의 指導를 받어 왔었는데 至今 狩獵家들 中에는 指導받기를 싫어하고 모르면서도 묻기를 躊躇할 뿐더러 올바르게 가르쳐 줘도 배우지 않고 自己가 더 잘 안다고 主張하는 분이 많다。

所謂 先輩格의 獵師를 無視하는 분들을 내가 많이 目見했고 또한 내 自身이 많이 當해 봤다。 一、二年間만 銃을 가져 본 者면 벌써 獵道에 道通하고 大先生 노릇을 하려 덤비는 狩獵家들로 因하여 或時 先生으로 모실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獵師를 만났다가는 不幸하게 되며 차라리 先輩로 모시지 않느니만 못하다。 더욱이 軍人出身이나 軍人層에 그런 분들이 많다。 卽、簡單한 一例를 든다면 獵銃을 軍用銃

과同一視하고 獵銃을 掃除할 時 M・I 이나、칼빈銃 처럼 完全分解를 한 것까지는 좋으나 注油掃除後 바로 組立을 못하고 故障을 내서 修理하러 오는 例가 많다。

獵銃을 掃除하는 法은 개머리 便에 있는 機關部分은 絕對로 分解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나 可及的 使用後 外部에서 注油程度로 掃除하여 두어야 한다。또 그런 例는 그만 두고라도 火藥의 性能이나 分量도 모르고 他先輩의 指導도 받지 않고 製彈을 하다 事故가 나고 또한 그 製彈을 使用하다 高級銃을 破裂케 하고 自己의 生命까지 잃어버리며 或不具者가 되는 慘酷한 例를 許多히 봤다。然이나 生命만 維持되면 손가락이나 손이나 팔이 半만 남아도 十中 八、九는 또 다시 始作하는 사람을 多數히 볼때마다 筆者 自身이 느낀 點은 銃 스포ー쓰 精神과 狩獵의 趣味가 얼마나 强하다는 것을 새삼스러히 느껴질 때가 많았다。如斯한 事故는 解放後로부터까지 至今 가장 많이 봤다。

結局 未鍊한 技術과 愚昧한 自尊心과 英雄心이 많은 青壯年層에서 많이 보는 事故다。軍人들이 軍用銃을 잘 쏜다고 해서 散彈銃을 잘 쏜다고 自信해서는 決코 誤算이다。人間의 얼굴이 사람마다 差異가 있는 것과 같이 銃器의 模様과 性質도 差異가 有하다는 點을 알아야 한다。現下國內에서 每年 獵銃事故發生數가 數十件에 達한다。그런 故로 日本에서는 狩獵免許證 受得即時로 初步者들에게 老鍊한 獵師를 招聘하여 講習會를 開催하고, 狩獵法規、狩獵方法、銃器取扱、獵場案內等의 必要한 課目을 受講케 하여 事故未然防止에 積極 努力함은 關係當局者들의 名案으로 생각하는 同時에 獵道啓蒙指導上 最適合한 方法이라고 贊成한다。如斯한 方法論은 우리나라의 狩獵初心者들에게도 急速實施되어야 誤發事故防止 및 狩獵技術向上 普及에 重大要素가 될 것이다。例를 들면 他 스포ー쓰에서 코취를 두고 選手養成을 해서 最高의 能率을 올리는 것과 꼭 같은 理論이다。普通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百發百中이라! 한방도 失手가 없데! 그런 말로 稱讚을 해주면 그 말을 듣고 좋아하는 自身이나 狩獵을 해본 일이 없는 第三者들도 그렇듯이 듣고 있다。그러나 經驗이 많은 老鍊한 獵師가 그런 말을 들은 때는 잘 속지 않을 것이다。왜 그러냐 하면 一年統計 發射數의 二分之一의 狩獵動物을



<1958年 12月 濟州道 出獵時의 筆者(前列左)와 金空軍參謀總長(前列右에서 두번째)>

잡은 獵師라면 世界的 名射手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即、百發을 쏴서 其中 五十마리만 잡은 獵師라면 武道의 段數에다 比한다면 五段格의 有段者로 認定할 수 있다。

또한 獵師로서 제법 他人 앞에서 서투르지 않게 보이는 程度로 쏠려면 每年 繼續해서 一千發式 쏴서 約十年間의 有經驗者라야 하고 또 自信있게 쏠려면 적어도 約二萬發을 消費한 者라야 自信있다고 볼 수 있고 自己 自身도 어느 程度 自信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然이면서을 近處의 住所나 職場을 가진 사람들이 所謂 日曜砲手가 一日 出獵하야 幾發을 쏘고 돌아올 수 있으며 또 一個月 四回 或은 有故時에는 二、三回式 推算하여 一獵期間 約六個月을 總算해 보더라도 一獵期間 二五〇發 乃至 三〇〇發을 잘 消費못할 獵友가 많을 줄 안다。그런 즉 一、二萬發을 消費할려면 얼마나 많은 時日이 所要되는 가를 推測할 수 있으니 四、五年쯤 쏘고 自身 滿滿하게 他人앞에서 큰 소리 치다가는 亡身當하기 꼭 알맞다。或時 場所、獵物、時期、時間、無風、또 自身의 「컨디숀」 等이 좋아 十發十中의 特別한 날이 間或 있으나 그것을 標準해서는 안되며 平均 實力을 發揮할려면 自尊心이나 英雄心을 버리고 自重하여 技術硏磨에 置重하여야 한다。假令 飛行機를 操縱할 때 있어서도 練習 時間 및 回數를 無視할 수 없음은 事實이며 不然이면 有能한 파일롯트라고는 할 수 없는 것과 同一하다。또한 獵師들 中에는 針小棒大之格으로 虛風을 떨고 거짓말 半으로 남이 잡은 것도 自己가 잡은 樣으로 하며 못잡은 體驗談보다도 잡은 자랑만으로 밤을 새다싶이 떠들어대는 人士도 있다。前記와 같이 名砲가 될려면 第一條件이 名射手의 指導를 받는 一方 出獵의 機會를 자주 만들어 無數히 쏘는 數밖에 他方法이 없으니만치 所謂 네굽다리 獸類 사냥은 後期로 생각하고 鳥類等屬 꾀추리、뙤새、鳩、大小鴨 雁等을 數많이 쏘는 것이 上策이며 最進步的이다。왜 그러냐 하면 獸類狩獵은 獐山猪 熊 虎 等인데 初步者로서는 危險千萬일뿐더러 射擊術을 硏磨할 機會가 極히 적은 便이라 一獵期間 쏜다 할지라도 鳥類狩獵한 사람의 一個月分도 잘 안될 때가 많으니 技術向上的 見地에서 뒤떠러질 것은 事實이다。

故로 옛날부터 彈丸이 節約되는 點과 比較的 補獲物의 價格이 高價임으로 職業的 砲手가 大部分 많이 하고 있는 形便이

며 스포—쓰的 獵友들은 평사냥이나 其他 鳥類狩獵을 많이 하게 되는 主原因이 된다。 우리 空軍에서는 金信參謀總長께서 數年前부터 狩獵에 對해서 많은 關心을 가지시고 率先試範하시고 계시느니만치 將來에 있어서 여러 將兵들께서 狩獵을 즐기실 同志가 日益增加되어 갈 것을 疑心치 않으며 將來 空海陸 三軍競獵大會等을 開催하는 것도 생각할 必要가 있고 滋味있는 일이다。 더욱 우리 空軍과 같이 恒常 緻密한 頭腦를 쓰는 파일롯트, 機關士, 通信士, 整備士等 여러분들에게는 唯一無二한 最適合한 스포—쓰로 아는 故로 筆者는 所謂 先輩의 立場에서나 同好者의 立場에서 一日이라도 速히 斯道에 入門하시기를 勸告하는 바이며 狩獵 및 獵銃에 對한 問議는 何時라도 應하여드릴 用意가 있아오니 서슴치 마시고 相議하여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 初步者 同志를 爲하여 몇가지 例를 들어 보련다。

一、우리나라 狩獵期間

自九月十五日부터 翌年 四月末日까지인데 但 평안은 十一月一日서부터 翌年 二月末日까지다。 우리 獵友들은 此法規를 잘 지킴으로써 狩獵道德을 잘 遵守하는 獵師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二、銃을 選擇할 境遇

筆者의 經驗으로 봐서 價格은 高下間에 双連發銃을 可及的 勸奬한다。 其外餘分으로는 五連發이나 라이플 銃을 가질 必要가 있다。

三、彈丸을 選擇할 境遇

自己가 自作製作한 彈丸도 老鍊한 솜씨면 可하나 初心者는 可及的 完全製品을 사서 쓰는 便이 安全하다。 또한 捕獲코자 하는 狩獵鳥獸의 形體가 體質에 適合한 裝彈을 選擇하지 않으면 큰 損失이다。

四、獵犬을 選擇할 境遇

A、英國포인터—(English Pointer)

B、英國셋터—(English Setter)

C、獨逸포인터—(Germany Pointer)

以上 三種類中에서 一種을 選擇하되 牡牝中 어느 것이나 優良純種이면 좋다。

獵友中에는 獵犬은 牝犬(암컷)이 優秀하다고 생각하는 人士가 많으나 筆者는 오히려 牡犬(수컷)을 讚揚한다。 그 理由는 男女 스포—쓰맨에 比해 볼 때 그 씩씩하고 快活한 活動力이 强한 點을 봐서 牡犬이 더 優秀하다고 認定한다。 同一한 技術犬이면 牡犬을 擇하는 便이 좋다。 우리 狩獵人들 中에는 大部分이 獵犬을 理解치 못하고 그 價値를 모르는 분도 많다。 그러나 獵犬을 모르는 狩獵家들은 아직 獵道에 道通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며, 더욱 鳥類사냥에 있어서는 不可缺의 要素라고 할만치 絕大的 必要한 것이 獵犬이며 獵師의 技術이나 銃이 좋아서 잘 잡는 것이 아니라 獵犬이 잡아 주는 것이다。 各獵犬의 그 優雅한 技術은 神秘스럽고 그 무어라 形言할 수 없을만치 歲月가는 줄을 모른다。 또한 恒常 獵犬을 同伴하면 獵師는 獵犬없이는 出獵생각조차 나지를 않는다。 어느 程度 狩獵大家가 된다면 銃쏘는 滋味보담 獵犬의 活躍하는 點에 倒醉가 되면 그 滋味가 더 큰 것이다。

五、獵帽 獵服을 選擇할 境遇

狩獵에 關한 服裝은 專門家製品은 勿論 좋으나 私製品을 或은 旣成服을 利用할 境遇는 特히 輕快한 綿類製品이 良好하며 皮革製品은 重量이 많고 降雪雨時에 重量이 再加되며 凍結하면 機動作戰上 困

難하다。大槪 初心者들이 皮革製品을 많이 利用하다가 山中에 가서 苦生을 많이 한다。皮革製品은 往來時 着用하는데는 無妨하다。또한 內服에 關하여서는 可及的 純毛製品을 使用함이 可하다。毛織物은 汗氣를 잘 吸收도 하고 잘 放出함에 있고 또한 重量이 輕한 點과 活動上 柔하고도 따뜻한 點이다。양말은 더욱 純毛를 擇할 必要가 있다。

六、狩獵服裝의 色調 選擇

獵服의 色은 獵友數人同伴時에는 黃赤色等 表示가 確然한 色을 擇함이 獵友相互間의 誤發防止策의 하나가 된다。其他 所謂 네굽다리 목사냥 即, 猛獸사냥 時는 晩秋에는 黃褐色 嚴冬雪寒에는 白色, 初春에는 草綠色等의 保護色을 擇하는 便이 좋다。

七、出獵時 適合한 人員數

獵友同伴은 二人 乃至 三人이 最適하다고 생각한다。獵友없이 單獨가면 孤寂感을 느끼며 萬一 不幸한 일을 當하더라도 救助者가 必要함으로 마치 戰友와 少毫도 다름이 없는 生死를 같이 할 수 있는 獵友다。

또 三人以上이 되면 獵場, 宿食 關係等으로 苦生이 되는 境遇가 많다。

八、睡眠과 命中率

出獵前夜에는 充分한 睡眠을 取하지 않으면 命中率에 重大한 影響이 미친다。睡眠不足時에 他事故도 더 나기 쉽고 自己自身의 컨디숀이 不良할 境遇에는 狩獵을 中止하여야 한다。

九、出獵前 飮酒는 絕對禁物

飮酒家諸氏께서는 꾸지람 하실지 모르나 飮酒는 絕對 삼가하여야 한다。모든 誤發事故가 많고 自己自身에 疲勞가 增加되며 山中에서 失足等 危險千萬之事다。餘談은 以後로 退하고 이것으로 그친다。

(筆者… 狩獵家・東洋銃砲社長)

海外結婚短信

☆ **빨때린 것이 因緣**

파라마운트社 전속 애기배우인 ∧죠안 브랙크먼∨孃은 一연구학교에서 제작한 연극에 ∧죠비・데이커∨君과 공연하게 되어 서로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연극에는 그녀가 ∧죠비∨君의 빰을 치는 장면이 하나 있었다。그녀가 빰치기를 어찌나 멋지게 해치웠던지 ∧죠비∨君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주어 그후 그들은 꾸준히 ∧데이트∨를 한 결과 마침내 결혼에 ∧골인∨하였다고……

☆ **개싸움이 六分因緣**

∧잔・엔더슨∨孃과 ∧헬몰드∨君은 다같이 개 한마리씩을 데리고 산보를 하러 거리로 나왔었는데 그들이 데리고 있는 개들 사이에 그만 싸움이 붙었다。겨우 개들을 뜯어 말리고서 서로 통사정을 해보는 그들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음을 발견 그후 마음이 맞아 그들은 결혼을 하였다나……

☆ **소매치기가 因緣**

강도 전과범인「세론도・가니」君이 그의 현재의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은 그녀가 그의 돈지갑을 슬쩍 하려다가 그에게 잡힌 후였다。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손가락이 민활이 움직이는 여인에게 반해 버려서 그 길로 그녀를 집으로 데려온 것이다나……

(生)(活)(과)(趣)(味)

씨 없는 수박 栽培
(無種子西瓜)

洪 基 昶

수박은 여름철의 果實中 女王이라고 일컬을만큼 우리들에게는 貴重한 存在로 되어있다。그것은 그 外貌부터가 豊滿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다가 붉은 果肉은(어떤 種類는 노란 果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그 質이 그야말로 柔軟多汁하고 甘味로운 맛과 高尙한 感觸은 果然 우리들로 하여금 炎暑中 忘暑之境으로 이끌어 주는 存在이기 때문이기도 하다。수박의 甘汁으로 더위에 시달린 우리들의 咽喉를 축일 때 흔히 우리들의 神經을 귀찮게 하는 것은 果肉속 틈틈이 박여 있는 수박씨일 것이다。性急한 親舊에 對해서는 수박씨를 골라내기에 수박의 고마움이 매우 減殺되는 느낌을 준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여기서 우리는 씨 없는 수박에 對한 慾求를 더듬게 된다。

過夏耐暑의 괴로움을 慰撫시키기 爲해서 수박의 存在는 造物主가 人間에게 내려준 偉大한 膳物이지만 이제 씨 없는 수박은 廿世紀 科學文明이 人間에게 提供해 준 亦是 膳物의 하나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면 科學은 어떠한 手法을 써서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을가、우리는 이 문제를 밝히기 前에 于先 基礎的인 生殖問題를 理解해야 하겠다。

비단 수박뿐 아니라 모든 生物들은 各各 其種類에 따라서 一定數의 染色體를 細胞속에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染色體라고 하는 것은 其生物이 先天的으로 물려받은 遺傳物質을 携帶하고 있는 것으로써 같은 種類의 生物들 끼리는 그들 染色體間에 親和性이 있으므로 튀기(F_1)가 생길 수 있고 이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染色體들은 各己 生殖細胞를 通해서 規則的인 行動을 取해 가면서 生殖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에 遺傳的인 行動도 一定한 規則밑에서 遂

行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른바 有性生殖을 하는 生物들은 그 個體가 태어날 때、 어머니한테서 半數의 染色體(共生物이 가지고 있는 染色體數에 對한 半數)를 받고 남어지 折半은 아버지한테서 받게 되어 結局 그 生物이 지니고 있는 固有의 染色體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다。 가령 보통 수박은 二十二개의 染色體를 가지고 있는데 이 中에서 折半인 十一개는 母親에서 卵細胞를 通해서 받은 것이고 남어지 十一個는 父親으로부터 精子細胞를 通해서 받은 것으로서 이 수박이 자라서 成熟한 무렵에는 各各 半數인 十一個의 染色體를 가지고 있는 卵細胞가 암꽃에 形成되고 또한 十一個의 染色體를 携帶하는 精子細胞가 숫꽃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境遇에 生殖細胞속에 들어 있어야할 染色體數가 이와 같은 數즉 아닐 때에는 그 수박은 生殖作用에 異常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본 이야기로 되돌아 가기로 하자。

이제 보통 수박을 播種한지 얼마 안되어서 싹이 트고 生長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젊은 芽生때 수박의 生長點을 콜히친이라는 藥品을 몰타서 〇·二~〇·四% 程度로 稀釋한 약물로써 하루에 한번씩 四日間쯤에 걸쳐서 處理를 해주면 이 處理한 수박에는 染色體가 二倍로 倍加해서 卽 四十四個의 染色體를 가진 個體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四倍體 수박이라고 한다。 다음해에 이 四倍體 수박과 普通 수박(二倍體 수박이라고 한다) 과를 栽培하고 開花期에 가서 四倍體를 어머니로 삼고、 二倍體를 아버지로 삼아서 卽 四倍體의 암꽃에다 二倍體 숫꽃에 있는 꽃가루를 人工的으로 授粉을 해 주면 四倍體에서 생긴 卵細胞속에는 二倍體와 같은 數즉의 染色體가 들어 있고 二倍體 수박꽃가루속에는 半數의 染色體가 들어 있을 터이므로 이들 卵細胞와 꽃가루가 受精을 해서 서로 合쳐지면 二倍體 卽 三十三個의 染色體를 가진 수박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四倍體 수박과 普通 수박과의 튀기인 三倍體가 생기게 되는데 이 수박을 栽培하여 成熟期에 이르면 生殖細胞를 만들 때 三十三個 染色體가 各各 折半式 갈라져서 別個의 生殖細胞속으로 들어가야만 健全한 生殖細胞가 생길터이지만 實際로는 三十三個가 完全히 折半式 갈라져서 分配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三倍體 수박에서 생기는 生殖細胞는 一種의 不具的인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맺어지는 수박 속에는 씨가 제대로 結實하지 못하고 씨껍질 程度의 痕跡만을 볼 수 있을 程度의 이른바 죽정이가 들어 있게 되었고 수박 果實은 훌륭의 作用으로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三倍體 수박은 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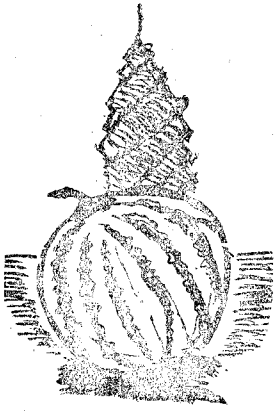
맺어지지 않은 果實로써 登場하게 되는 셈인데 이와 같은 境遇는 우리들이 貴重히 여기는 바나나에서도 그와 같은 類例를 發見할 수 있는 것이다。

씨없는 수박 卽 三倍體 수박은 수박에서는 매우 무섭다고 하는 蔓割病에 對해서 耐病性이 强하며 甘味도 많아서 品質이 높을 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씨가 없고 軟한 죽정이 程度가 있을 뿐이므로 우리가 하나 하나 씨를 골라낼 번거러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씨없는 수박을 栽培하려면 늘 四倍體 수박이 있어야 한다。(이와는 反對로 二倍體 卽 普通 수박을 어머니로 하고 四倍體 수박을 아버지로 할 때에는 여기서 생기는 튀기는 제대로 싹이 트지 않으므로 四倍體를 어머니로써 交雜을 해야 한다)

三倍體 수박은 씨껍질이 매우 두꺼우므로 그대로 심으면 잘 싹이 트지 않으므로 씨없는 수박을 栽培할 때에는 于先 播種前에 씨 양쪽귀를 벤찌같은 것으로 切斷해서 發芽가 잘 되도록 助長해 줄 必要가 있다。씨없는 수박은 싹튼 뒤 처음에는 生育이 늦어져서 시원치 않은 氣分이 들지만 生育中 半期以後로 접어 들면서부터는 次次 生育이 旺盛해져서 回復됨으로 生育初期만을 보고서 미리 怯을 낼 必要는 없다。한편 꽃이 피게 되면 암꽃에다 普通 수박의 꽃가루를 가져다가 人工授粉을 해주면 씨없는 수박이 잘 열리게 되는 것이다。이와 같이 씨없는 수박을 栽培하는데 있어서는 播種할 때와 授粉할 때에 人爲的으로 適當한 措處를 取해 주어야 제대로 수박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要컨대 씨없는 수박이란 四倍體 수박과 普通 수박과의 一代雜種으로서 이른바 三倍體 수박이며 非正常的인 生殖細胞가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 結實하지 못하는 點을 利用한 것에 不過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씨없는 수박이 實際널리 普及되려면은 于先 그의 母親이 될 四倍體를 어떻게 하면 값싸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가 案出되어야 하겠고 이어서 四倍體 수박과 普通 수박과의 튀기를 어떻게 해서 손쉽게 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 中에서 亦是 問題로 되는 것은 四倍體를 作成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씨없는 수박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一九四七년 木原、西山兩氏에 依해서였다。)

〈筆者・高大 農大敎授〉



달밤의 산책

공군대령 박 재 형

달밤의 산책、달밤의 배회、달밤하면 어딘지 「로맨틱」하고 단발머리 문학소녀를 연상케 한다。

그런데 도대체 나하고 달밤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달밤의 산책이라는 제목을 주면서 쓰라고 청하는지 도시 맛당치 않은 일이다。

기왕이면 오히려 빈대떡이나 찹쌀 막걸리에다 곁보시켜서 청탁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나 보다。 그렇다고 해서 빈대떡에다 막걸리가 달밤하고 전연 인연이 멀다는 말은 아니다。

구질 구질한 날씨에 곰팡내 나는 방구석에서 빈대떡에다 매운탕이나 한 냄비 올려놓고 막걸리로 한순배 하는 것도 제격일 것이나 술상을 달빛아래 앞마당으로 옮기고 멍석이나 깔면 그야 흥취가 더할 수도 있겠고 더욱 더러채나 느러뜨린 성숙한 촌색씨라도 옆에 앉아 준다면 안성맞춤이라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아직 달빛 아래선 빈대떡을 먹으면서 기른 내본 일이 없는 것이 유감이다。

·달밤의 산책、 달밤을 구지 회상해 본다면 어렸을 적에 고향에서 올여름 같이 몹씨 무더운 날 냇가에 내려가서 고추자지 내 훈들고 밤새 물장난 치든 밤이 유난히도 맑은 달빛이었고 좀 커서 일본 군대 병영에서 그래도 고향 부모슬하가 그리워서 달을 쳐다보고 제법 눈물을 흘리곤 했던 일 뿐이다。

요즘의 젊은 층들은 달밤을 흠미하고 향락할줄 알아서 달이 밝은 날에는 여기 저기 거닐고 소군거리는 모습이 퍽 엽게 보이는데 맑은 달빛이 젊은 남녀를 제법 대담하게 만들어 주는 모양이다。

달빛 아래 미풍이 한들거리는 언덕을 아름다운 연인과 함께 산책、한폭의 그림과 같은 아달한 정경、생각만 해도 가슴이 부풀어 오를만 하다。

군대생활 십여년에 몸에 맞는 것이란 군복 뿐이라 군복에다 군모 쓰고 달빛아래 산책이란 아무리 보아도 감점이다。 달빛과 비교적 인연이 멀었든 탓을 군대생활에 돌리는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여름밤 남산의 산책길을 구부려져 올라가면 제법 깊숙한 숲이 사람 그림자를 삼키곤 한다。

약수터가 있고 몇 아름이나 되는 고목 밑에선 돗자리 위 네모상에다 몇가지 안주접시를 놉게 올려 놓고 술상이 마련되면 가냘픈 손목시로 술까지 부어 주기도 한다。

고고한 달빛아래 마음이 한층 도취되고 여인의 몸맵시는 요염하기만 하다。 나이 하고 고향 하고 어찌 이곳을 택했느냐고 무르면 입에다 손갖다대며 소리없이 눈웃음만 친다고···이것은 내가 복중에 어느 친구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한번 실제로 그것도 달밤에 찾올려고 한 것이 그만 금일까지 뜻을 못 이루었다。

이번 이 글을 씀을 계기로 금년 가을 계절에는 좀 달밤과 친해 볼가 하는 충동이 일어난다。

〈필자···공문。행정차감〉

〈時調三首〉

萬里浦의 落照

石

희멀건 해일러니
불그레 발그스름
짓밸건 불이 되어
구름을 태우면서
바다엔 피를 뿌리고
기를 쓰네 마지막
이
둥근데 이즈러져

半圓되고 눈섭되어

하늘과 물이 닿은
한 가닥 線 속으로
도루루 말려들어서
사라지네 點으로

타든 구름장이
연분홍 보라빛을
솟아 오를듯이
西天을 밝히다가
마침내 검은 幕으로
白沙場도 덮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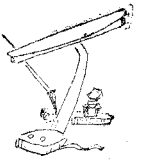
——四二九三·八·一三——

萬里浦 海水浴場에서

南北統一論

——統一에 앞서 우리가 지녀야 할 態度——

金 昌 順



基本思考의 一節

四月革命의 必然的 産物인 民主黨政權은 그가 遂行해야 할 重要政策 가운데 南北統一의 難題를 包含시키고 있다。

獨裁的 李政權은 北進統一、武力統一을 唯一手段으로 하고 「유엔」監視下 北韓만의 自由選擧를 不動의 政治的 主張으로 삼아 왔다。

李政權의 그와 같은 手段問題와 政治的 主張이 『南北韓의 反共民主統一』을 基本思想으로 한 것만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獨裁的 李政權下에서 野黨이었던 民主黨도 統韓의 基本思想에 있어서는 自由黨과 다를 것이 없지만、그 手段問題에 있어서는 自由黨의 「北進·武力統一」에 對해서 「武力과 政治의 兩略」을、그리고 「유엔」監視下 北韓만의 自由選擧에 對해서는 「유엔」監視下 南北韓의 自由選擧를 主張하여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旣往의 南北統一論이란 것은 그 基本思想에 있어서 「南北韓의 反共民主統一」이라는 唯一點에 있어선 自由黨이나 民主黨이 모두 同一한 態度를 堅持하였고 다만 手段問題에 있어서 兩者는 前記한 바와 같은 差異點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본다。

統韓의 手段問題로서의 北進·武力統一은 極限的이며 最後的인 形態인바 六·二五의 事態가 그대로 오늘의 情勢라면 이것은 今日에도 正當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情勢의 流動은 固定論理를 排擊하는 바 「北進·武力統一」이 非現實的이라는 非難을 받게 된 理由는 그 動機가 全的으로 休戰後의 情勢流動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現今의 情勢는 反共民主統韓의 極限的 最後的 手段인 北進·武力統一을 行使할 수 없다는데서 現實的인 方案일 수가 없다는 缺陷을 自招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유엔」總會의 決議인 「유엔」監視下의 南北韓 自由選擧의 統韓方案을 받아 들이는 것이 此際에 現實的인 態度가 아니겠는가 해서 實인즉 政治的 統韓의 思考가 現實的으로 登場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렇지만 한가지 疑問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共産側은 武力南侵의 統韓方案을 永久的으로 抛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統韓方案은 또 어떠한 것이여야 하는가?

우리가 自衛를 爲해서도 武力手段을 버릴 수 없는 理由와 또 軍縮에 對해서 그 누구보다도 愼重을 期해야 하는 理由는 至今도 尙存하는 것이다。

統韓의 政治的 方案이란 것도 우리가 共産側보다 弱體한 條件下에서 「自由意思에 依한 正當한 解決」을 成就시킬수 없는 것이 사실 아니겠는가。

「弱體」를 意味하는 것은 다만 軍事力만을 가지고 評價하는 것은 아니지만 共産側과의 對決에 있어서 軍事的으로 弱體하다는 것은 被征服의 運命을 待機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統韓의 政治的 方案을 解決하는데 있어서도 우리는 우선 被征服의 運命을 벗어날 수 있는 軍事的 自衛手段만은 一定한 時期까지 堅持해 가면서 아울러 南北韓의 自由選擧實施가 共産主義를 버리고 民主主義를 選擇케 하는 結果를 낳도록 우리의 長點과 富强을 伸張시켜 놓아야 할 것이다。

이것 없이는 南北韓의 反共民主統一이란 可望이 없는 일이다。

하물며 우리가 共産側보다 弱體化되고 短點이 더 많고 無玆悲한 貧窮속에 헤매인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希望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反共民主統一은 벌써 觀念이 問題가 아니고 實際的 條件을 가지고 解決해야 하는 課題로 되어 있다。

共産側方案의 檢證

金日成이가 今年 八月 十四日밤 八·一五 十五周年紀

念報告演說을 하는 가운데 「南北韓聯邦制」와 「最高民族委員會」의 組織 및 南北韓의 兵力을 各各 十萬以下로 削減하자고 提案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南北韓의 平和的 統一을 云謂함에 있어서 金日成徒黨이 「南北韓聯邦制」라는 名稱을 使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들 持論의 基調는 過去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形式論理에 있어서 그들의 態度가 過去보다도 더 傲慢하고 더욱 誇大해진 것이 前보다 달라진 것이라고나 해둘까。

平和的 統一을 云謂하는 共產側의 統韓方案은 「유엔」軍撤收를 統韓의 先行條件으로 設定하고 있다。

이것은 『世界的 規模에 있어서의 反美騷動의 惹起』를 兇策하고 있는 크레므린 政策의 一環으로 되어 있다。

왜 그런고 하니 『平和的 統一을 實現하기 위해서는 우선 美軍의 南韓撤收를 先決的으로 實現시켜야 한다』는 共產側의 主張이 證明하여 주듯이 『南韓地域에서 反美騷動이 惹起되어 美國이 韓國問題로부터 손을 떼고 난 뒤가 아니면 統韓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보니 이것은 정녕 韓半島를 赤化시키자는 隱蔽戰術일 수 밖에 없는 일이다。

다시 말하여 韓半島全域을 反美 親蘇地帶로 轉變시키자는 것이다。그와 같은 主客觀的 條件과 環境을 造成해 놓고서 統韓을 하자는 것이고 보니 이는 『韓國의 赤化를 韓國의 統一』로 看做함이다。

그러기에 共產側의 戰術文件에 나타나 있는 統韓方案을 보면 南北統一을 『朝鮮革命』으로 規定하고 있으며 『朝鮮革命』은 南韓地域까지도 北韓과 마찬가지의 政治的 運命으로 轉落시키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共產側의 이와 같은 基本思考는 北韓地域을 極東의 共產圈哨所로서 永久的으로 領有하려고 할 뿐 아니라 언젠가는 南韓地域까지도 共產圈에 編入시키고야 말겠다는 것으로 不動하다。

그 目的을 如何한 方法으로 達成시키느냐가 共產側의 戰略戰法問題로 되어 있을 뿐 當場에 自由選擧를 實施하여 統韓을 成就시키자는 것은 아니다。

하기는 共產側에서도 「南北韓의 自由選擧實施」라는 主張을 내걸고 있다。그러면 共產側이 말하는 南北韓 自由選擧란 도대체 무엇을 意味하는 것이냐?

이에 對해서는 「유엔」總會서의 蘇聯代表 發言 및 一九五四年 「제네바」會議에서의 共產側主張에 表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은 「유엔」監視下의 南北韓自由選擧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態度를 確執하고 있을 뿐 아니라 要컨대 共產黨의 官製選擧를 任意로 할 수 있는 『中立國監視下의 自由選擧』를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共産側의 主張은 「유엔」參戰國을 모두 除去하고 實質的으로는 共産國家들이 더 많이 包含되는 「中立國監視」를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共産側의 이와 같은 要求는 美國을 包含한 「유엔」參戰國들을 韓國에 對한 干涉者라고 規定하면서 干涉者는 中立일 수가 없다는 主張을 合理化시키려고 한다.

그러한 共産側 態度는 甚至於 蘇聯을 韓國問題에 對한 充分한 中立國家라고 主張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말하는 所謂 中立國監視下의 南北韓 自由選擧가 무엇을 意味하는가는 不問可知의 사실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共産側은 韓國統一을 如何히 實現하자는 것인가? 이에 對한 共産側의 基本思考는 以上에서 指摘된바 그대로임을 認定하고 다음에 그들의 手段問題를 檢證해 보기로 하자.

最高綱領·最低綱領

共産側의 韓國統一方案은 그들로서의 最高綱領과 最低綱領을 가지고 있다.

最高綱領이란 것은 所謂 『朝鮮革命』을 實現하자는 것이고 最低綱領이란 것은 『朝鮮革命』을 實現하기까지의 階梯에 있어서 準備事業을 完遂하자는 것을 意味함이다.

앞에서도 論及한 바와 같이 共産側이 말하는 『朝鮮革命』이란 것은 韓半島全域의 赤化를 意味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하기 爲한 手段問題로서는 最高形態와 最低形態를 堅持하는바,

△手段問題의 最高形態란 것은 六·二五南侵과 같은 武力攻擊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最低形態란 것은 武力手段의 適用이 不可能한 경우에 平和的、政治的 手段을 내세우는 것을 말함이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 時期냐 하면 北韓地域만이라도 占有하고 있으면서 『朝鮮革命』을 可能케 하는 諸條件을 成熟시키기 위한 「蓄力時期」라는 것이다.

共産側의 蓄力期戰術이란 것은 어느 때나 밖으로 平和標榜을 힘차게 내세우면서 안으로 「革命基地」를 鞏固히 다진다는 것으로 傳統的이다.

그러기에 지금 共産側은 韓國문제에 대하여 밖으로는 平和的 統一을 성가시게 내세우면서 안으로는 北韓의 共産基地를 百方으로 强化시키고 있는 中이다.

이것은 相對的으로 南韓을 弱體化시키자는 것이며 北韓의 影響力을 南進시켜서 『朝鮮革命』에 呼應할 수 있는 情勢와 條件을 성숙시키자는 것이기도 하다.

그 모든 것은 人爲的으로 促求해야 한다고 하면서 더 많은 間諜을 南侵시키고 있는 것이며 南韓地域의 社會的 不安과 無政府狀態의 造成을 위해서는 그 무엇이든지 手

段問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南韓을 弱體化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利用할 수 있는 모든 可能性은 물론 些少한 條件일찌라도 이것을 버리지 않고 利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平和的 統一」이라는 屛風 그늘에 숨어서 政行되는 共產側의 對南破壞戰法인 것이다。

特殊的 課題만도 아니다

第二共和國의 出現으로 國內의 政治的 民主化가 確立되리라는 것은 南北統一을 論함에 있어서는 第一義的으로 考慮되어야 할 點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좋은 것을 北上시켜서 北韓동포들로 하여금 우리와 마찬가지의 政治的 立場에 서게 하자는 것이 反共民主統一의 基礎的 課業이고 보니 우리의 民主政治 確立이 相對的으로는 北韓傀儡의 共產獨裁를 弱體化시키는 政治的、心理的 影響力으로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 다음 國家의 經濟的 形便과 國民生活의 水準을 비참한 것으로부터 富强한 것으로 改善해야 하는 것이 南北統一을 論함에 있어서도 亦是 第一級의 課題로 삼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共產側보다 經濟的으로 後進하고 弱體하고서야 무엇을 자랑하여 우리와 같이 살자고 北韓동포에게 勸告할 수 있는 것이겠으며 더우기 國民生活이 무자비한 빈궁속에 헤메이고서야 무엇을 가지고 우리와 더불어 共生共樂하자고 北韓동포들에게 勸告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우리가 休戰線에 軍隊를 펴고 平和아닌 技術的인 戰爭狀態로 共產側과 대치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에 나라를 富强하게 가꾸고 產業을 일러세우고 工業과 產業의 經濟씨스템을 近代化하여서 國民大衆의 運命을 改造함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南北統一을 推進하자는 것일 지언정 決코 부패하고 落後하여 共產側에게 韓半島全域을 넘겨주자는 것은 아니고 보니 우리가 遂行해야 할 當爲的 課業은 人口 一人當 產業生產에 있어서 北韓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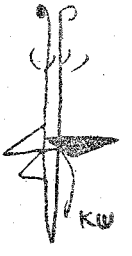
그 다음 우리는 헛되이 鎖國을 하거나 排他政策을 함으로서 不必要한 孤立과 不利益을 招來하는 愚를 犯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問題는 南北統一을 論함에 있어서는 亦是 第一義的으로 考慮해야 하는 것이다。 國際社會에서 오직 大韓民國만이 韓半島의 眞正한 合法的 民族主權이라는 認定을 받을 때 우리의 反共民主統一은 그만치 前進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觀點에서 南北統一은 國家의 個別的 政策論과 獨立하여 特殊的으로 取扱되어야 할 性質의 것이 아니라 國家施策의 그 모두가 南北統一과 結符되어 있다는 方針下에 措置되어야 할 性質의 것인줄 안다。

近代民族主義의 이데오로기

崔 文 煥



一

지금 世界史에서 가장 强力히 움직이고 있는 힘은 民族主義이라고 할 수 있다。 特히 民族主義는 東洋 아프리카에서 激動하고 있으며 이 動向의 如何가 世界史의 運命을 左右하고 있다는 것은 過言이라고 할 수 없다。 現在 進行하고 있는 라오스、콩고의 動向은 豫斷할 수 없으나 이러한 動向은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民族主義가 民族의 自由 獨立을 主張하니만치 어떠한 世界秩序를 將來에 있어서 생각할지라도 이를 無視할 수 없다。 우리도 第二次大戰後 獨立한 新生國家로서 이 問題를 소홀히 할 수 없다。

民族主義는 近世以後로 發展한 것이다。 共通의 祖先、言語、領土、習慣、傳統을 가진 한 社會集團이 한 民族이란 共同意志를 가질 때 비로소 民族主義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例擧한 여러 要素를 具備할 수도 있고 具備하지 않는 境遇도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거의 純粹하게 모든 要素를 具備한 民族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民族도 많다。 美國은 여러民族의 集合體라고 일컫는 程度로 많은 異民族이 모여 있고 瑞西에는 네가지의 言語를 갖고 있으며 덴말크와 놀웨——는 같은 祖先의 子孫이며 거의 같은 言語를 使用하고 있으나 다른나라를 形成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民族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같은 政治體를 가질 때 이를 國民이라고 區別하는 學者도 있다。 그러나 民族 國民이라는 槪念을 全혀 다르게 使用하는 學者가 있는 것을 無視해서는 아니된다。 大槪의 경우 民族은 위에서 본 諸要素의 全部 또는 一部分을 갖고 있으며 同一民族과는 共同意志를 가지면 그들을 中心으로한 政治體 즉、民族國家를 樹立코자 한다。 그리하여 한 民族이 民族國家를 세우면 이를 國民이라고 일컫

는 것이 通說로 되어 있다。

二

그러면 이러한 民族主義는 어떻게 近世以後로 成立하였을까? 近世以後로 資本主義가 발달함에 따라 國民經濟가 成立된다。 國民經濟가 成立되면 國民共通의 生活이 成立하게 된다。 生活의 共同이 形成되면 自然히 共同意識 즉、같은 民族 國民이라는 생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共同意識 共同意志를 갖게 하는 契機가 되는 것이 같은 祖先의 子孫이라는 血緣의 共同、같은 領土위에서 살아 왔다는 共同意識、같은 慣習、宗教等의 文化의 共同意識等이다。 이러한 共同意識을 갖도록 한 것이 中産階級、市民階級이며 市民階級을 通하여 民族主義가 展開되었다。 이러한 經過를 通하여 民族主義가 展開되는 것이 通常的이다。 그러나 後進國家는 先進國家의 侵略 또는 影響에 依하여 비로소 民族主義를 自負하게 된다。 歷史的으로 보면 民族主義는 十七·十八世紀를 通하여 進行되었는데 이것이 世界史的으로 開花進展된 것은 佛蘭西大革命時였다。 佛蘭西大革命을 契機로 하여 十九世紀에 있어서 自由主義와 民族主義로 向하여 進軍한 것이 西歐 및 東歐의 諸國이었다。 이러한 思潮가 다른 後進國에 들어와서 民族主義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 十九世紀末부터였다。 後進國은 植民地 半植民地로서 帝國主義에 隷屬되었는데 外民族의 政治、經濟、文化의 支配에 對하여 反抗한 것은 西歐의 知識을 吸收한 知性人이었으며 이들의 主張에 一般民衆도 覺醒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後進主義는 帝國主義에 對抗하여 民族의 自由獨立과 主權을 要求하는 民族解放運動이라 할수있다。 民族의 自由 獨立은 「民族의 自決權」(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ism)에 立脚하여 民族國家를 樹立코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自主獨立된 國家가 國際社會에 平等한 一成員으로서 參加코자 하는 것이 「平等의 權利」이다。 이 「民族自決權」은 美國의 윌슨大統領이 「十四個條」(President Wilson's Fourteen Points)로서 明白히 宣言한 것이다。 이 民族自決의 原則이 後進民族의 民族主義의 進展에 많은 影響을 주었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나라의 三·一運動이 이 影響을 받았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윌슨의 主張은 第一次大戰後에는 東歐에만 部分的으로 適用되었고 이어 第二次大戰後에는 東洋 아프리카에도 實現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달리 共産主義에 있어서도 맑스主義에 立脚하여 勞動者階級의 解放問題를 弱少民族의 解放問題와 連結시켜 弱少民族의 解放運動에 많은 影響을 주었다。 이 二大思想의 影響에 依하여 現在 弱少民族의 民族主義는 활발히 展

開하고 있는 것이다。

三

위에서 간단히 民族主義의 運動史에 대하여 言及하였으나 近代民族主義의 이데오로기는 무엇인가를 보기로 하자。 民族主義는 民族至上、國家至上主義라고 생각되어 個人의 自由를 無視하는 것 같이 誤認되어 왔다。 事實 獨逸、伊太利、日本같은 곳에 이러한 民族主義가 主張되어 온 例도 있다。 그러나 眞正한 民族主義는 個人의 自由를 確保하려는데 있다。 民族主義는 個人의 自由를 確保하는 아름다운 民族共同體를 樹立코자 하는 主張이기 때문에 個人의 自由와 民族國家의 存續은 相互依存關係에 있다。 事實 歷史的으로도 個人의 自由의 意識이 있은 後에 비로소 民族主義가 成立되었다。 個人이 아무런 直覺도 없이 團體的 全體에 埋沒되어 있었던 近世以前에는 個人의 自覺도 없었고 民族主義도 發生하지 않았다。 近代的 個人主義를 前提로 하여 近代的 民族主義가 發生한 것은 近世以後였다。 民族主義는 한 民族이 자기의 獨自性、特殊性을 意識하고 이를 擁護發展시키고자 하는 意志를 表現하는 데서 나타났다。 따라서 一集團的 個人主義인 民族主義가 成立되지 않는다。 이러한 集團的 個人主義는 個人의 自覺과 外國人과 接觸하여 그의 支配를 받을 때 意識的으로 强化되는 것이다。 民族主義는 家族 血緣 鄕土에 대한 愛着과 같이 本能的 植物的 感情의 連帶가 아니고 意識的 合理的인 知覺이 媒介되어야 한다。 따라서 單純한 血緣과 傳統에 依한 것이 아니고 文化의 共同 國家目的을 共同으로 하는 知的 共同感에 依하여 비로소 民族主義는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各個人이 自覺的으로 民族國家의 運命에 積極的으로 參加하는 主體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民族主義는 近世以來로 오랜 歷史的 傳統을 經過하여 비로소 形成된 것이다。 그리하여 西歐社會에 있어서는 個人의 自由와 民族國家의 存立이 긴밀히 連結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民族主義는 民族共同體를 樹立코자 하는 主張이기 때문에 民族成員의 生存福祉를 確保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萬若 어떤 民族國家가 少數의 特權만을 擁護한다든지 그들만이 獨點한다든지 한다면 그곳에 民族共同體가 成立되지 않는다。 비코(Vico)는 일찌기 祖國 파트리가 res Patrum(父祖의 것 즉 '名門大家의 私有物)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으며 토마스 모어(Thomas More)는 國家가 Conjuratis divitium(富豪의 結盟)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事實 民族國家는 이와 같이 少數의 名門 富豪者에 의하여 弄絡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곳에 民族共同體의 共同意識이 나올 수 없다。 그

러기 때문에 近世以後로 民族國家를 세운 나라는 꾸준히 大衆의 經濟的 向上、經濟的 不平等의 除去를 爲하여 努力하여 왔다。福祉國家의 理念이 바로 그것이다。따라서 近代 民族主義는 個人이 自由로운 主體로 되는 民族共同體를 樹立코자 하며 民族共同體의 存立 獨立을 確保하는 同時에 이를 構成하는 個人의 生存 人間다운 生存을 保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主張하고 있다。그러기 때문에 近代民族主義는 必然的으로 經濟生活을 計劃化 組織化하여 經濟生活을 保障하는 福祉國家에로 나아가는 것이다。

近代民族主義는 個人의 自由 經濟生活에 있어서 不平等의 除去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國際主義 世界平和를 志向하는 것이다。民族主義는 民族至上主義에 立脚하여 다른 民族을 壓迫 侵略한다고 보는 見解가 있다。事實 이와 같은 侵略的 軍國的 民族主義도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民族主義는 그릇된 民族主義이며 眞正한 民族主義는 國際平和에 寄與하는 것이다。홉슨(Hobson)이 말한 바와 같이「民族主義는 國際主義의 公道이다」。世界는 다만 個人의 集合에 依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民族國家를 토대로 하여 形成된 것이다。個人은 그대로 世界市民이 되는 것이 아니라 民族國家의 一成員으로서 世界에 連結되는 것이다。民族國家를 떠나서 한 個人이 民族社會에 寄與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世界에도 寄與할 수 없다。그러기 때문에 眞正한 意味에서의 民族主義者는 그의 民族國家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進一步하여 그의 民族國家를 通하여 世界平和에 寄與하게 되는 것이다。일찌기 피히테(Fichte)는 다음과 같이 이 關係를 說明하였다。즉「……그리하여 제각기의 世界主義者는 그의 民族에의 한 制限을 通하여 必然的으로 愛國者인 同時에 또 그의 民族에 있어서 가장 熱烈한 愛國者는 가장 熱烈한 世界市民이다。」民族國家를 超越하여 世界文化에 寄與한다고 自負하는 人間은 뿌리없는 잎과 같이 浮萍草로서 自己의 民族國家에서 無用할 뿐만 아니라 世界社會에도 들어갈 座席이 없는 無用한 人間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近代民族主義는 個人의 自由 經濟的 不平等의 除去、國際主義를 基幹으로 하여 成立된 것이다。이러한 內容을 가진 民族國家의 聯合에 依하여 國際主義로 志向하는 것이 유엔의 目標로 되어 있다。

끝으로 우리가 본 近代的 民族主義의 性格이 共產主義 및 獨逸의 나치스의 理論과 어떻게 다른 가를 보기로 하자。맑쓰主義는 唯物史觀에 立脚하여 모든 歷史는 階級의 투쟁이라고 본다。歷史는 支配階級과 被支配階級 즉 奴隸所有者와 奴隸封建領主와 農奴資本家階級과 勞動者階級의 투쟁사로 본다。國家는 支配階級이 被支配階級을 착취하는 機關에 不過하다。이와 같이 보고 近代社會에

있어서는 無産者의 勞動者階級이 團結하여 투쟁함으로써 國家權力을 탈취코자 한다。 이러한 勞動者階級의 투쟁은 다만 한 國家內에 限定할 것이 아니라 國際的으로 連結하여 勞動者階級이 團結할 것을 主張한다。 그러기 때문에 맑쓰主義는 階級이 爲主로 되어 있으며 勞動者階級을 主軸으로 하는 國際主義를 主張하는 것이다。 맑쓰主義가 現代資本主義의 弊害、貧富의 懸隔한 差異、强者의 弱者에 대한 착취를 批判하고 이에 社會主義를 主張하게 된 歷史的 意義는 認定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추오한 現實을 너무나 一面的으로 强調하고 個人보다도 階級을 爲主로 하고、民族國家의 存立보다 世界의 共産化에 主力을 넣고 있는 點은 批判받아야 한다。 맑쓰主義는勞動者階級을 爲主로한 獨裁政治를 하기때문에 個人의 自由는 抑壓되고 民族主義는 共産主義에 의하여 否定된다。 그곳에는 個人의 自由、民族國家의 獨立을 無視하기때문에 前番 東歐포올랜드 항가리에서 치열한 民族抗爭이 일어난 것은 當然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第二次世界大戰前까지 獨逸 伊太利 日本等에 일어난 나치스는 一見하면 强力한 民族主義의 主張과 같이 보인다。 事實 나치스가 民族 民族共同體의 理念을 높이 强調한 것은 理論的으로는 重要한 意義가 있다고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 하면 맑쓰主義가 諸國家民族을 原理的으로 否定한데 대하여 나치스가 民族共同體를 높게 評價한데 깊은 意義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치스는 精神、民族魂을 主張하여도 그것은 다만 自己民族의 優秀性을 盲目的으로 强調함으로써 自己民族을 爲主로한 世界制覇를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生物學主義에 立脚하여 自己民族이 世界를 支配하는 使命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軍國主義에 依한 世界侵略을 主張하는 것이다。 그러기 爲하여 나치스黨을 따르는 少數人이 鐵의 規律로서 國民의 모든 生活을 統制 干涉한다。 그러기 때문에 個人의 自由는 抑壓되고 世界平和는 恒常 威脅을 느끼게 된다。 兩者는 다 같이 그의 根底에 있어서 自己의 所屬하는 「階級」 또는 「黨派」를 全體의 立場이라고 僭稱하는 獨斷을 가진다。 이러한 곳에서 人間의 精神生活 또 政治生活에 있어서 自由가 없고 現代의 「獨裁政治」가 러시아 獨逸에 나타나게 된 것도 必然의 論理的 歸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第二共和國의 첫出發에 있어서 眞正한 近代的 民族主義의 理念을 體得하고 제각기 精神的으로 歪曲된 民族主義를 克服하는 心的 體制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筆者·서울大 文理大 敎授〉

「法앞에 平等」의 現實的 意義

李 建 鎬

「法앞에 平等」이라는 思想은 社會의 階層組織에 反對하는 自然權思想의 表現이라고 할 수 있다。個人에 對한 法律的 處遇가 그가 屬하는 社會的 階層如何에 依하여 平等치 않았던 前近代的 制度下에서는 「法앞에 平等」은 或種의 革命을 意味하는 危險思想이기조차 하였다。그러나 이것은 이미 오늘날 法治國家의 國民生活을 支配하는 大前提로서 아무도 이에 疑義를 介在시키는 者가 없다。그러나 이와같이 自明의 理라고 생각되는 思想이 額面 그대로 實踐되고 있는가는 또하나의 別個問題가 되어 있는 것이다。

「平等」이라고 하는 用語는 그 自體 消極的인 性質을 가지고 있다。이와같이 消極的인 權利에다 다시 具體的이며 積極的인 權利가 「플라스」되기 전에는 別로 利益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大韓民國 憲法 第八條는 『모든 國民은 法律앞에 平等이며 性別、信仰 또는 社會的 身分에 依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있다。그러나 이와같은 權利가 保障되어 있다고 하여 國民 各自의 生活이 文字그대로 平等을 實現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事實은 無數한 差等만을 우리는 經驗하고 있는 것이다。

美國의 獨立宣言은 萬民平等을 規定하고 있으나 南北戰爭時까지 奴隸制度는 그대로 存續되었으며、其後 平等한 法律的 保護를 規定한 第十四次 憲法修正이 있은 後 오늘날에 있어서 조차 黑人의 公民權은 가진 口實을 가지고 蹂躪되고 있는 것이 美國의 現實이다。「法앞에 平等」은 其他의 여러가지 憲法上의 諸原則과 마찬가지로 多分히 理念的인 修飾性을 가지고 있다。이것이 어느 程度의 實効性을 보이느냐는 其後의 下位諸立法과 그 適用의 實態如何에 依繫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萬若 「法앞에 平等」을 原則으로서 滿足하고 그대로 放置한다면 「不平等」을 齎來할 可能性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原則의 動搖를 防止하기 爲한 數多한 細部的인 立法을 必要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또 아무리 細部的인 立法이 理想的 狀態에 있다 할지라도 그 適用이 實質的인 正義觀念에 立脚하지 않는 限 또다시 「不平等」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細部的인 立法을 하고 正義에 立脚한 適用을 해도 「不平等」의 出現을 防止할 수 없는 事態가 있다。 卽、刑事法도 包含하여 公法分野에서는 平等의 具現이 比較的 容易하나 私法分野에서는 그것이 大端히 困難하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法앞에 平等」이란 理念은 經濟的 弱者를 無保護狀態로 放置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論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허울좋은 平等이 實質的인 不平等을 激化하는 效果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法앞에 平等」의 原則은 私法上으로는 特히 私法自治의 原則 또는 契約自由의 原則과 關聯하여 重要한 問題가 發生한다。 卽、私法自治의 原則이나 契約自由의 原則은 「法앞에 平等」을 背景으로 하여 비로소 成立되는 것인데、그러나 이들 原則이 無制限히 實踐되면 平等의 理念은 及其也는 完全히 破壞되어 버리고 마는 結果가 되는 것이다。

甲과 乙은 「法앞에 平等」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如何한 內容의 契約이라도 自由스러운 立場에서 이를 締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工場經營主인 甲은 勞務者인 乙을 月給 壹萬圜을 支拂할 條件으로 採用하였다。 그러나 乙은 月給 壹萬圜을 가지고 十餘名의 家族을 扶養할 道理가 없다 그러나 이 悲慘한 雇傭契約을 一蹴해버릴 勇氣도 없다。 왜냐하면 數많은 失業者群이 일자리를 求하여 헤매는 形便임으로 雇傭主 甲은 조금도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하여 甲乙은 「法앞에 平等」한 雇傭契約을 締結하고 그것을 維持한다。 이때 兩者의 關係는 外見上 自由스러우며 滿足스러울런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實質的으로 무서운 不平等을 가져온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하나의 例에 不過하다。 그러나 市民社會에서는 經濟力의 不均等때문에 實來되는 이와같은 不平等이 無數히 累積되어가는 趨勢를 보인다。 이리하여 國家는 干涉의 必要를 느끼게 된다。 國家의 干涉은 實質的인 不平等을 校正하려는 努力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卽、이것은 「法앞에 平等」이라는 形式的인 正義觀念이 반드시는 至上의 原理가 될 수 없음을 意味하게 되는 것이다。 國家의 이와같은 干涉은 主로 社會法 乃至는 勞動法等으로 表現된다。 이와같은 法律들은 經濟的인 弱者를 保護하기 爲하여는 「法앞에 平等」의 觀念이 修正될 수 있음을 端的으로 表示하는 것이다。

市民社會의 生存樣式은 原則的으로 無制限한 自由競爭

을 內容으로 하기 때문에 富의 偏在가 顯著한 特徵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自由競爭의 法律的인 背景이 바로 「法앞의 平等」이기 때문에 이것을 修正한다는 것은 바로 自由競爭에 制限을 加하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그것은 市民社會의 存在樣式에 變容을 加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社會法 乃至 勞動法의 出現은 市民社會의 存在樣式에 變容을 加하게 되었으니 卽, 그 主要한 內容은 個人的 正義를 主軸으로 하는 諸關係의 모습이 社會的 正義를 主軸으로 하는 諸關係의 모습으로도 把握되어야함에 이른 것이다。

養蜂들이 大會를 열었다。 한마리 벌이 重大한 發言을 하였다。 『우리가 겨울의 糧食을 爲하여 아무리 꿀을 만들어놓아도 結局은 이집 主人이 그것을 强取하여 市場에 갖다 팔아버리니 우리는 헛手苦를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꿀만들기를 中止하고 解散하자』는 것이였다。 이것을 들은 女王蜂은 忿怒하면서 號令하였다。 『너희들은 어리석다。 우리가 萬若 꿀을 强取當하는 것만을 두려워하여 여기서 解散을 斷行한다면 勿論 이집 主人은 餓死之境에 이를른지도 모른다。 그러나 同時에 그것은 우리의 죽음도 意味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하나 하나의 벌이 아니라 한덩어리의 벌이라는 것을 알라』。 이것은 하나의 童話이다。 女王蜂은 個人的 感情이나 輕率한 利己主義에 眩惑되어 있지 않고 數學的인 冷徹을 가지고 그 一團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法앞에 平等」의 觀念은 根本的으로는 利己主義의 要求에 應하는 것이고 利己主義 自體는 人間의 屬性으로 이것을 全的으로 排斥할 수는 없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이것만을 徹底히 追求하는 境遇에는 오히려 正反對的인 結果가 나타난다는 事實도 看過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래서 「알리스토텔레스」는 法과 衡平과의 關係를 論한다。 法은 人間行爲의 一般的 準則으로서의 意義를 갖기 때문에 그것은 一旦 平等을 主張하지만 具體的인 生活關係에서는 頻繁히 그 不完全性이 暴露된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主張은 境遇에 따라 修正되며 補充되지 않으면 正義를 實現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알리스토텔레스」가 「法앞에 平等」의 觀念이 適用될 수 있는 倫理的 限界를 提示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社會的 階層制度가 現存하는 國家에서는 「法앞에 平等」의 觀念이 重大한 意義를 가짐은 勿論이다。 그것은 階層制度의 打破를 意味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法앞에 平等」의 觀念이 歷史的으로 그와같은 使命을 完遂하였으며 또 現在도 階層制度誕生의 可能性을 沮止하고 있다는 意味에서 아직도 原理的인 權威를 維持하고 있다는 것은 疑心의 餘地가 없다。 그 例로서 日本의 境遇를 들

수 있다。 日本新憲法 第十四條는 前示한 바 있는 우리憲法 第八條에 類似한 規定을 두고 있다。 卽、『모든 國民은 法앞에 平等하며 人種、信條、性別、社會的身分 또는 門地에 依하여 政治的、經濟的 또는 社會的 關係에서 差別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周知되어 있는 바와 같이 日本은 적어도 舊憲法下에서는 社會的 階層制度가 隱然中 確立되어 있었다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므로 戰後의 憲法이 民主主義의 根本理念에 依하여 平等을 主張하게 된 것은 너무나 當然한 일이다。 이리하여 日本憲法 第十四條의 「法앞에 平等」은 充分히 그 歷史的 使命을 遂行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將來에 있어서도 日本의 民主制度를 保障하는데 있어 重要한 意義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와 같이 突然 革命的 事實로 말미암아 國家를 樹立하는 境遇에는 「法앞에 平等」 같은 것은 이미 旣定의 事實로서 別로 새삼스러운 意義를 가질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以上에서 論한 바와 같이 「法앞에 平等」의 觀念이 原理的인 權威를 維持하면서도 그 現實的인 適用에 있어 적지 않은 破綻을 보이게 되었다는 事實은 結局 「法앞에 平等」의 現代的 意義가 이 觀念의 再確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觀念의 修正的 解釋의 必要性에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公法과 私法의 中間領域이라고 하는 社會法 乃至 勞動法의 登場은 具體的으로 「法앞에 平等」觀念의 修正原理 또는 修正方向을 指示하는 것이라고 理解되는 것이다。

〈筆者・高大敎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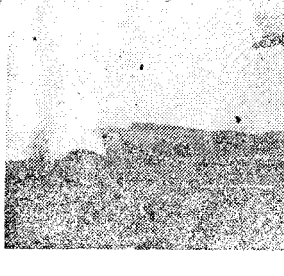
第一回 空中射擊大會

麗州上空서 盛擧

경기도 여주 사격장에서는 지난 九월 二十五、六 양일간 각비행단에서 선발된 五개조의 사격편대가 참가한 가운데 대지 및 공중사격 대회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학국공군이 「젯트」기로 그 규모가 전환된 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 공군을 통합한 이번의 사격대회는 戰技向上과 전투조종사의 사기를 높이고 유기적인 공중작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각 전투조종사들의 우수한 戰技를 과시하는 가운데 무사히 종료되었다。

이날 제一회 사격대회에서 제十전투비행단의 김인기 대위가 九〇%의 명중률로 단연 수위를 차지했으며 단체에도 역시 제十비단 一〇二대대가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사진은 「다갯트」를 향해 급강하하는 「제이버젯트」의 용자〉

韓國의 儒敎主義 政治思想

洪 以 燮

序——儒敎主義 政治思想이 中國에서 受容되는 것을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것은 韓國思想史에 있어 核心的인 課題이다。 허나、지금까지 韓國思想體의 個別的이든 또는 歷史的인 理解가 이룩되지 못한 오늘에 있어서는 너무 早急한 일 같으나、우리들이 韓國史에 있어 儒敎主義的인 것을 理解하는데 있어서는 더 말할 것 없이 그 政治思想을 알아 보는 것이야말로 그 核心體에 接近하는 일이된다。

一、儒敎思想의 理解——韓國人의 儒敎思想의 제대로된 理解를 어느 때에 잡겠느냐? 함에도 適確한 말을 하기는 어려우나、諸記錄의 指示하는데서 보면、三國—新羅統一期에 있어서는 그것의 理解에서 그 倫理的인 것의 實踐을 보았음을 보겠고、興味있는 資料로는 高麗史列傳 崔承老傳에서 보면、儒敎主義 理念이 當時의 政治理念이였고、그것을 얼마나 實用化하고 있었던 것은 그 崔承老傳에 보이듯、崔承老가 佛敎信仰의 墮落—形式(固陋)化한 것을 攻迫하는 基準이 儒敎的인 王道에 있었던 것에서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더욱 中葉 以後 儒敎主義者(特히 中國中心主義者—一例를 들면 金富軾같은이들)들이 表面에 나와서 活動을 하며、그들의 精神이 支配的인 일을 하는데 作用함을 가지고 잘 알수 있거니와、麗末 排佛論者들의 根據가 거의 韓愈의 「原道」論에 據하며、「政治理念으로는 周禮的인 自然에서 儒敎主義 政治理念의 基盤이 되는 王道的인데 두고 있었음에서 政治的으로는 곧 儒敎主義的인데 根據를 두었던 것이다。

二、儒敎主義 政治理念의 確立過程——아무래도 儒敎主義 政治理念이 굳게 뿌리를 박는 것은 李氏朝

의 創建에서 부터다。 이것도 李氏王室의 創始者인 李成桂는 아니고、李成桂를 한 武人에서 부터 君主를 만들고 그에게 執權하게 하는데 知略을 다 한 鄭道傳이었던 것이니、鄭道傳이 그러 하였다 함은 그의 三峯集속에 있는 朝鮮經國典과 經濟文鑑속에 내비치는 바이다。 鄭道傳은 李成桂로 하여 얼마나 儒敎主義君主의 道를 體得—實踐하게 하였는지를 보게 한다。 鄭道傳은 自己와 더불어 高麗王室의 臣下이었던 李成桂로 하여 王權을 掌握케 하였을 뿐아니라、自己는 그의 臣下로써 儒敎主義 理念을 實際國家政治의 基本 理念으로써 깔고 들어갈려고 努力하였으니 그가 學校敎育을 主唱하여 政治의 得失은 學校敎育에 달렸다고 하게까지 되었다。 이 學校敎育은 儒敎主義 官僚群(候補者)을 養成하는 것으로 여기서 그대로 儒敎主義 理念을 注入시키는 것이어서、鄭道傳의 叙上의 생각과 實踐的 活動은 朝鮮王朝의 基盤이라는 儒敎主義 理念을 깔아 놓는 일이 되었다。

三、儒家思想의 展開

政治的인 轉變을 겪는 麗末鮮初의 儒家들에게 새로운 哲學的인 하나의 要請은 朱子學을 爲主한 宋學의 理解이었다。 儒學에 있어 哲學的인 宋學의 理解는 韓國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 儒學史가 整理되지 않은데서 여러가지로 區區한 얘기를 하나、大體로 麗末의 몇 사람이나、朝鮮初의 儒家들이 도통 宋學理解에 힘썼던 것이다。

禹倬이 月餘를 門밖에 나서지 않고 생각하고 공부한 끝에 理解하게 되었다는 傳言은 다름아닌 哲學的인 宋學理解에 思索함이 必要했다는 것이요、朝鮮時代로 들어 오면서도 權近의 入學圖說이나、이어 徐敬德의 「理氣」의 理解等이다 訓詁(고)的인 學習에서 一躍 窮理—思索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데서 그들이 宋學을 理解하기 爲하여 苦心했던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宋學理解는 大體로는 政治 一線에서는 멀어지는 것이다。 權近은 入學圖說같은 基礎的인 理解에 集中하였으나、徐敬德같은 이는 政治에서 벗어나 思索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것은 그가 意識的이었다느니보다 窮理하는 공부에서 必然的으로 밝게 된 結論이었다。 이와 달리 趙光祖 같은 復古的인 至治主義者는 現實과 中間的인 古代의 理想과를 直結시키는데 汲汲한데서 失敗를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이러한 分離된 길은 退溪 李滉과 栗谷 李珥에와서 宋學 自體도 보다 全般的으로 體系的인 理解를 하며 다시 李珥같은 이에게서는 朱子學의 實踐인 面이 보다 强調되었다。 이에서 儒敎主義 政治理念은 一般의 展開를 보이었다。

四、儒教的 政治理念의 現實的 理解——우리

韓國의 官僚들이 官에 오르기 爲하여 準備한 것이 儒學 공부이었으며, 官에 올라 君主에게 自己 見解로써 政治的인 現實을 批判하는 一、二의 上疏文을 아니내는 이가 없을 程度이었으며, 그 上疏文에서 依據한 政治的 基本理念이 儒教的인데서 벗어난 사람이 없을 程度로 지내왔고, 許多한 儒家들과 儒教主義 學者들이 胚胎되었으나, 一家의 思想的인 것으로 體系的으로 構築한 學者는 적드물다。

이러한데서보다 體系的인 것은 星湖 李瀷에서 찾아보게 된다。그의 星湖僿說과 藫(곽)憂錄에서 檢索할 수 있다。

僿說과 藫憂錄의 關係는 後者는 前者의 抽象 要約이며 前者에서는 分散的으로 論議한 것을 後者에서는 理論的으로 集約化하고 있다。

이제 그 大略의 內容을 보면：

經筵——나라의 政治가 제대로 되고 안되는 君主의 마음에 달렸고, 그 마음이 智愚(제대로 政治를 하게 되던지, 못하게 되는 것)는 講學(經筵)에 달렸다고 한데서, 곧 君主에게 儒教主義 政治理念을 理解시키는 것이 國家의 急務라고 하였다。

李瀷은 이러한데서 出發하여 如何히 自己時代의 韓國社會의 政治的인 改革整備를 이룩할 수 있느냐는데서 藫憂錄의 理論을 體系化하였던 것이다。그럼으로 그 생각한 政治理論은 그대로 儒家의 思想이었으나, 보다 現實的인데 焦點을 둔데서, 우리들이 留意하며 興味를 갖는 것이다。

그의 儒教主義 政治理念의 構造는 君主의 經筵에서 出發함을 最頂上에 두는 權力構造論으로 보겠으니,

①經筵— ②育才— ③立法— ④治民— ⑤生財— ⑥國用— ⑦捍(한)邊〈國防〉— ⑧兵制— ⑨學校— ⑩崇禮— ⑪式年試— ⑫治郡— ⑬入仕— ⑭貢擧私議— ⑮選擧私議— ⑯錢論— ⑰均田論— ⑱論科擧之弊— ⑲朋黨論等으로,

筵經을 通한 君主의 學에 對하여 官僚人群의 形成에 있어「夫治莫急於賢才、才莫切於治民」이라고 하여 如何히 人才가 必要한 것을 指示하면서 (人才卽現在에 있어서는 行政專門家를 말하는……)의 育成에 置重하였다。

이에 一國家의 支配는 法에 依하여야 할 것임에서「立法」을 論함에서

「君子愛民雖切、而立法不可不嚴也」라 하여, 國家權力機構를 維持하기 爲한 統制—團束을 嚴重히 하고자 하였다。卽 ①—③은 上層權力構造의 持續을 論한 것으로 直

接 一線 百姓의 支配는 달리 分離하여 論하고 있다。

治民——卽 ④項目 以下에서는 上層權力構造의 基盤이 되는 諸問題를 論함에서 「得民爲君」이란 民本主義 立場에서 一般行政(特히 地方行政)이 直接 君主가 行하는 것이 아니라 守令의 職責이었으나 守令이 오히려 餘事로 여기며 民에 끼치는 弊가 많아 진데서 이것을 團束하며、民의 指導保護를 이르고 있다。

그럼 이 民本的인 생각은 이 自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⑤生財、⑥國用의 論議에서 民本的인 생각의 企圖함이 어데 있었던 가를 明示하게 된다。 그럼 生財 國用이 社會 經濟、國家財政을 論함으로 生産을 敢當하는 「民」의 指導、保護의 根源的인 意圖를 捕捉케 한다。 다시 生産論의 基底가 民에 있으며、이 整備에서 ⑦捍邊—國防、⑧兵制를 論한다。 國防의 敢當은 亦是 農民大衆이었으니 여기서 民本的인 農兵一致制가 展開되는 것이다。 李瀷은 여기 까지 이끌고 오는 一聯의 論議에서 民本的인 것을 빼지 않고 붙잡아 오기에 애를 썼다。 여기서는 君—民의 構造에서 兩餘의 後代的인 特權的인 것을 一切 排擊하고 있다。

以外의 諸論은 다시 다음과 같이 圖式的으로 再整理하게 되는 것이다。

一、經筵
二、育才——學校
　式年試
　貢擧私議
　選擧私議——論科擧之弊
　崇禮
三、立法〈入仕〉
四、治民—治郡
五、國用—生財—捍邊
　　錢論
　　兵制
　　均田論
結論——朋黨論

叙上의 體系는 勿論 儒家的인 것이었으나、이것을 通한 韓國 現實의 批判的인 認識은 當時의 歷史的인 推移를 그대로 明確하게 잡고 있었음으로 우리들은 中間的인 데두리보다 그속에담긴 韓國의 歷史的인 現實을、그것은 곧 封建的인 政治體制의 像이었으나、어떻게 批判 改革될 것이 主張되었는 가를 볼것이다。 다시 나아가 李瀷은

그에 멈추지 않고、當時의 한 重要한 課題이였던 黨爭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民本主義에 섰던 그의 基盤은 生財(社會經濟)에 두고 一切을 여기서 보는데서 黨爭의 發端을 禮니 制度니 하는 一層 上層的인데서 보던 것을 다시 下層的인데서 찾고 있어、利害關係에서 잡아 보았으며、이런 政爭이야 말로 封建的 政治機構의 瓦解를 自招하는 것이라고 警告하게 이르렀었다。이러한데서 그의 朋黨論은 그의 政治 理論 結論的인 것이였다。卽 儒敎主義的인 官僚體制를 再整備하여 維持하게 하는데 있어、韓國 現實에서 반드시 생각할 것이였던 것에 到達한 그의 政治理念은 儒敎的인 것이였으나、그의 생각이 當時 韓國에 있어 支配的 이였던 朱子學의 批判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였더냐? 하는 問題는 再檢討되어야 할것이다。

五、餘論——李瀷의 僿說과 藿憂錄

渐然히 간려있는 생각은 이제까지 韓國에서 흔히 말하는 「空現空論的인 朱子學」에 실증을 낸것도 아니오、그러한데서 現實의 批判的 認識이 이끌어져 나올 것이나는데도 생각한 바가 있고、그에서 곧 「西學」—캐토릭的인 西歐思想에 依해 그대로 思想의 角度가 달라지도록 되는것도 아니였다。勿論 西學的인 色臭가 없는 것은 아니나、거기서 傳統的인 儒家思想이 그대로 내밀어진 것도 아니였으리라고 본다。여기에는 儒敎思想 自體內의 어떠한 分離的인 展開에서 求할 바가 아닌가 한다。

卽 空理的인 것에서 그대로 그 空理的 世界觀을 批判한 것이 아니라 그와 다른 어떤 생각(자리)에서 그것을 批判하게 되는데서 그의 생각이 익어졌던 것이다。또 보다 現實的인 經濟的 利害關係를 基盤으로 政治關係 一切을 보도록 一段의 積極性을 지니게 되는 것이 그의 現實的인 認識에서만 온것이 아니다。勿論 磻溪 柳馨遠이나、晩湖 愼懋라든지 하는 先輩學者의 知識體系나 批判精神을 受容 理解하나 여기에 理念的으로 强하게 作用하는 것은 中國의 明末 淸初의 陽明學派의 한 거름 進步的이었으며 그때의 그 社會로서는 過激한 一部의 思想을 受容하는데 있었다고 보겠다。

× × × ×

이러한 것을 實語的으로 「原文」을 對照提示하지 못함은、이自體가 좀더 複雜한 研究 過程을 밟아야 할 것임에서 여기서는 흔히 皮相的으로 批判하는 儒敎主義 政治理念이 韓國에 있어 어떠하였었다는 一例를 紹介하는데 멈추고자 한다。

(一七六〇年 八月 七日)

操縱士의 하루

中尉 朴 容 稷

잠을 깨고 寢床에서 일어서니 窓을 通해 보이는 푸른 하늘은 오늘도 하루의 즐거운 生活을 가져다 줄것만 같았다。어제의 시달렸던 心身도 간밤의 달콤한 잠으로 刷新되고 힘찬 하루의 日課는 바야흐로 始作되려 한다。짜여진 操縱學生의 日課에는 別變함이 없으련만 오늘아침 맑은 空氣를 담뿍 드려마신 나의 가슴에는 유달리 希望에 벅찬 즐거움에 가득 차 있었다。

어려운 飛行術을 뒷받침하는 學術敎育뿐만 아니라 將校로서의 素地를 닦는 日常內務生活이 또한 並立하여 三者 共히 發展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 어제였고 또 오늘 그리고 來日이리라。

空中操作에서 未熟하였던 諸元을 再想起하면서 어제밤 잠자리에서 뇌까리던 이것 저것을 聯想하는 사이에 淸掃도 朝食도 마치고 訓練은 始作되었다。

編隊長의 全體 「부리-핑」後 氣象 「부리-핑」 그리고 正常、非常處置法에 關한 質疑應答、順序的으로 「후라잍·룸」(Flight Room)에서의 日課는 進行되었다。

간밤의 硏究와 오늘아침의 再整理로 第一番乘에 對備했던 나의 期待와는 어긋나서 第二番乘에 飛行케 되었으나 敎官과의 個人 「부리-핑」을 마침으로써 오늘의 課目을 再想起 整理할 餘裕가 많아졌다。勤務學生에게 報告하는 씩씩한 同僚의 모습들이 살아진 後 房안을 整理하고 飛行敎本을 손 든 나는 오늘 實施될 操作에 關해 다시 그 節次들을 暗誦해 보고 또 實際 飛行機를 타고서 敎官의 指示를 받으며 飛行하는 狀態를 마음속에 그려 보았다。

나의 敎官이 體驗談이라 하여 들려준 몇가지의 主要事項中의 하나가 곧 이 마음속에서의 飛行인 것이다。나는 最少의 努力으로서 最大의 效果를 얻으려는 賢人은 못되지만 最大의 效果를 얻기 爲해서는 最大限의 努力도 아끼지 않는 勤勉性만은 가지려고 한다。

땀으로 함빡 젖은 Table-mate 가 敎官과의 De-Briefing을 마쳤으니 이제는 나의 차례다。飛行認可書를 提出하는 瞬間부터 나의 飛行은 始作되었다。每日 反復되는 節次이지만 빠짐없는 點檢을 爲해서 반드시 Check-List를 使用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規定이다。敎官의 立會下에 徹底한 外部點檢을 마치고 座席內에 들어가서는 左側에서 右側으로 차근차근히 始動前 點檢을 實施했다。오늘의 飛行에서 조금이라도 더 成果를 걷워야 하겠다는 熱意는 더 한층 綿密한 注意를 기우리게 했으며 敎官의 信號에 뒤이어 「엔진」은 돌기 始作했다。이제 무거운 怪物은 나의 軟弱한 손과 발에 依하여 움직였고 課目을 좀더 잘 배워 보겠노라던 나의 決心은 實踐에 옮겨갔다。

心血을 기울인 한 時間의 課目은 大體로 良好하였고 땀으로 함빡 젖은 몸을 地上에 내려놓을 때 滿足의 微笑를 스스로 지어 보았다。操縱을 爲해서는 무엇보다도 速히 飛行感(Flying Feel)을 體得해

〈將兵手記〉

야만 한다는 金言을 오늘의 De-Briefing에서도 들었다。 또한 飛行中에는 恒常 注意分配力을 가지고 앞으로 닥쳐올 狀態에 對備키 爲해서 Think Ahead 함이 切實이 要求된다는 말도 들었다。

어제의 弱點을 是正하고 조금이라도 向上된 오늘의 飛行에서 Above Average의 Grade Slip을 받은 기쁨을 지닌채 晝食을 마치고 暫間의 休息이 있자 또 學課場으로 나가야 하는 바쁜 日課이련만 어쩐지 오늘의 나는 몸이 가볍고 輕快한 氣分으로 三時間의 受講을 마칠 수 있었다。

日益發展해 가는 航空分野에서 優秀한 操縱術만이 훌륭한 操縱士를 만든다는 것은 過去의 槪念으로 變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諸規定 制約等에 關한 廣範圍한 知識이 隨伴함으로써만 오늘날의 要求에 應할 수 있는 空中勤務者가 될 수 있음을 自覺할 때 주어진 時間內에 보다 더 많이 배워 보겠다는 慾求를 안가질 수 없다。

下午의 體練은 夕食의 往盛한 食慾을 돋우어 주었고 조용한 雰圍氣에 둘러싸인 自習室에서의 오늘저녁도 自身의 修養을 한결음 한결음 發展시켜주는 좋은 時間이었다。 『오늘을 反省하고 來日의 發展을 期約하는 가운데 해는 저물고 새날은 밝으리라!。』

操縱學生時節의 한 手記를 들치고 나니 過去의 追憶이 새로워진다。 操縱士 되기를 待望하며 하루 하루의 고된 訓練을 이겨나온 보라매들 이제는 國土防衛의 重且大한 神聖한 義務를 지니고 戰鬪部隊에서 或은 敎育部隊에서 各者의 맡은바 任務를 다 하고 있다。 各者의 맡은 바 任務와 職責은 같지 않더라도 操縱士로서의 共通的인 使命과 生活이 있는 것이니 이들의 하루를 적어 보기로 하자。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하늘을 쳐다 본다。 하늘에 티를 둔 이들이 하늘의 造化를 重要視함은 너무나도 當然한 일이며 漁夫들이 多年間의 經驗을 通해서 天氣의 變化를 점 치듯이 操縱士가 氣象의 變化를 豫測하는 것은 常識으로 되어 있다。 淸明한 날씨가 가져다 주는 飛行의 好條件에 滿足하기도 하고 검은 구름이 뭉게뭉게 머리위를 덮을 때면 惡天候와 싸울 決心도 하게 된다。

Flight Room에서는 그날 그날의 課目에 對한 「부리-핑」이 있으며 그에 따른 飛行安全計劃이 세워지고 氣象이나 其他 飛行條件의 突變이 있을 때의 處置에 對해서도 「부리-핑」을 받고 또 自身이 硏究하게 된다。 各 任務에 따른 正常 및 非常節次를 머리에 그려 보아야 하기도 한다。

한쪽에서 空中射擊 「부리-핑」이 編隊長으로부터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는 地圖를 펼쳐든 編隊長을 中心으로 對地掩護射擊任務에 對한 詳細한 航法說明과 任務의 重要性을 强調받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一部 操縱士는 防空의 任務를 賦與받고 Alert Room으로 부겨운 個人 航空裝備를 걸머지고 向한다。

이렇게 해서 아침의 奔走한 時間은 흘러가고 一旦 有事時 우리가 獲得하여야 할 空中優勢는 勿論 防空에 있어서나 地上軍支援에 있어서 成功的인 作戰을 遂行해 나갈 수 있는 實力培養에 一路邁進한다。 經驗을 土台로 한 硏究와 實踐만이

空軍力을 强化하고 우리의 軍事力을 뒷받침하는 原動力이 되는 것이다。 뜨거운 太陽熱을 받아 文字 그대로 炎熱下에 놓인 여름철의 Ramp, 그렇지 않으면 北風이 事情없이 휘몰아치는 滑走路의 끝머리에서 蒼空을 制覇하는 男兒의 슬기로움을 가슴깊이 지닌채 오직 祖國의 하늘을 守護하겠노라는 굳센 意志로서 뭉친 보라매들의 衝天의 士氣는 爆音과 함께 空中을 나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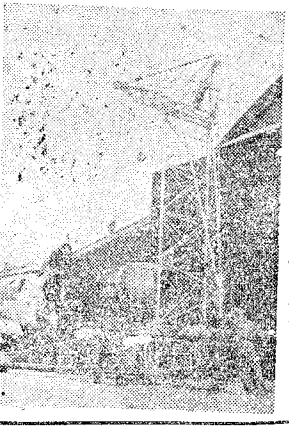
非常의 「벨」이 울리기가 바쁘게 完全武裝의 愛機에 몸을 싣고 防空隊列에 나서는 젊은 이들에게 神의 加護가 있으리라。 暫時의 休息이라도 疲勞한 心身을 回復함에는 좋은 것이다。 待期室에서 戰友와 함께 바둑이나 장기판을 사이에 놓고 흥겨운 時間을 가지거나 安樂椅子에 몸을 기대인채 홀로 瞑想에 잠김도 飛行後에 緊張을 풀어주는 좋은 길인 것이다。

先輩操縱士들의 武勇談、經驗談을 듣기도 하고 戰友들의 失敗談도 들어 피로써 얻어진 高貴한 經驗을 自己것으로 하는 機會가 또한 얻어지기도 한다。 各操縱士는 飛行하는 外에 다른 職責을 가진다。 飛行을 끝내고서 또는 飛行前이라도 自己에게 賦與된 일 卽、飛行安全事業、飛行時間統計、備品管理、Schedule의 調整 또는 飛行의 標準化를 爲한 일 等을 맡아 몸으로써 能力있는 將校의 素地를 涵養하는 것이다。 自發的인 呼應을 促求하여 마지않는 安全思想의 鼓吹를 爲하여 때로는 會議를 가져 過去를 批判하고 앞으로의 對策을 討論해 보며 統一된 操作의 實踐도 論해 보곤 한다。

이와같이 發展을 爲한 끊임없는 課題들이 操縱士 各個人에게 賦課됨으로써 質的 向上을 圖謀한다。

하루면 二十四時間、一年이면 三百六十五日을 間斷없이 지켜야 할 우리의 蒼空은 Alert의 任務를 지닌 操縱士들에 依해서 守護되고 있으며 滅共思想에 透徹한 全操縱士에 依해 永遠히 保全되리라。 未熟했던 技術을 鍊磨하고 또 鍊磨하여 어제까지 이룩하지 못한 課業을 오늘에 이룩하고 幸福의 來日、大望의 來日을 바라며 祖國統一의 聖業에 邁進하는 操縱士의 하루 하루는 계속된다。

(第十一戰飛團第一〇一大隊)



整備士의 生活

中尉 金 相 好

소매를 걷어 올린 作業服에 기름때 묻은 作業帽……五尺短身에 볼품없게 분주한 것이 여기서 볼 수 있는 整備士들의 모습이다。 하기야 體格이 늠늠하고 好男인 ○中尉나 ○上士같은 사람도 너멧 있기는 하지만 大部分이 주름없는 몽당 바지에 까당게 타 있으니 「작은 까마귀에 큰 까마귀」格이다。

整備士란 이름이 나에게도 붙게 되고

나도 이젠 그렇게 생각하게 됨에 따라 「몽당바지 기름때 들듯」에 나도 한몫 끼게 되었다。 이젠 어떤 시시한 觀相家일지라도 첫눈에 『당신 整備士 아니오』할것 같은 느낌이다。

「手記」란 題目을 對하고 보니 어떤 것을 썼으면 좋을지 若干 주저하였다。

쓸 것이 없어 그런게 아니라 實은 쓸 것이 너무 많아서이다。 手記란 「손수 쓰는것」이라고 辭典에 나와 있는 대로 整備士가 손수 쓰는 것이니 그 內容은 나의 定하는 바이기에, 나에게는 너무나도 쓸 것이 많았던 것이다。 「整備士의 결어온 길」이것도 좋은 題目이다。 I—19時節부터 F—86에 이르는 동안 우리 整備士들이 얼마나 努力하여 왔으며 얼마나 驚異的인 發展을 하여 왔는가 하는것! 여기에 對한 材料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제트」機를 整備하고 있다는 이 事實만으로도 證明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空軍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事實이다。 或 모르시는 분은 알고 있어야 할 事實——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空軍의 沿革이니까——이다。

그러면 「整備士의 苦難」이라 題할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自尊心이 許容치 않는다。 苦難에서 시작하여 苦難으로 一貫하는 우리 整備士이기에 오히려 이러한 呼訴는 어린애의 울음같이 되어 버릴 것이다。 飛行機를 띄우기 爲한 準備! 그것은 恒常 時間의 切迫함에서 免할 수가 없다。 故障난 飛行機의 修理! 그것은 언제나 部屬品의 缺乏에서 벗어 날 수 없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들에게는 明日의 任務遂行을 爲한 夜間作業과 徹夜의 故障探究 그리고 非常待機——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한층 괴롭힌다。 世上에 쉬운 일이란 없는 줄은 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各自의 修養과 達觀에 依해서 克服되고 光明化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克服하고 明朗化해 나갈 수 있기에 이 이상 말하려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가지 생각한 끝에 「整備士가 보고 느끼는 가지가지」——이러한 Title로 몇가지 적어 보기로 했다。

RUN-WAY를 달리는 難座하는 「젯트」機의 모습은 정말 멋있고 믿음직 하다。 그러나 우리 整備士들에게는 一種의 感慨가 있다。 『三〇八號로군! 저놈 든어 놓구 고칠 때는 다시 뚤까 싶지 않더니 그래도 뜨기만 잘 뜨내요』, 『아직 한번두 나쁜레가 없데』 이런 말들을 주고 받으면서 잠시 幸福感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特權일께다。 三四五、八三一……꼬리를 몰고 날으는 飛行機마다 우리에게는 그것과 더불어 지내던 지난 일들이 번갯불처럼 스쳐가고 하나하나의 履歷을 마치고 家族醫師처럼 죄다 알고 있다。 그러나 飛行機가 故障없이 나르고 있을 때라도 우리에게는 근심이 있다。 或 途中에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만일 세번 감아 주어야 할 곳을 두번밖에 감아 주지 못했다면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언제가는 제대로 해 놓지 않을 수 없다。

飛行機를 修理하는 일만큼 손발이 맞아야 하는 일은 또 없을 것이다。 「엔진」, 「기체」, 「유압」, 「전기」, 「통신」, 「계기」,

어느 한가지라도 결함이 있으면 그 飛行機는 뜰 수 없는 것이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PLANE(飛行機) 點檢修理가 完了된 飛行機가 세臺나 밀려 있게 되었다。 作業班에서는 最善의 方法을 다 했으나 問題는 申請된 部屬(PARTS)이 나오지 않아 不得已 待機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部屬이 없다는 理由로 다 된 飛行機를 떠우지 못하고 두어둔다는 것만큼 整備士들의 氣分을 잡치게 하는건 또 없을 것이다。 일은 일대로 해 놓고도 아무런 効果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루는 補給을 맡아 보는 金一兵이 滿面에 喜色을 띠워 가지고는 헐떡이며 뛰어 왔다。

『班長任! 나왔읍니다 나왔어요!』

『뭣이 나왔어 作業服이라도 나왔나?』

나는 金一兵이 늘 作業服 때문에 투덜대던 것을 記憶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물었다。

『아니에요 BRAKE PARTS가 나왔어요 班長任!』

『뭣이 BRAKE PARTS가?』

『네 나왔어요!』

『정말루』

『야아! 나왔구나 나왔어!』 나는 金一兵의 손을 잡고 기쁨의 함성을 올렸다。

그것도 一瞬이고 나는 直時 作業隊長에게로 뛰어갔다。

『隊長任 나왔읍니다 나왔어요!』

『뭣이?』

『BRAKE PARTS가 나왔읍니다』

『그래! 야 그거 잘 됐구나, 그런데 얼마나 나왔어?』

『얼마나 나왔는지는 몰라두 하여튼 나왔읍니다』

『좋아! 좋아! 어디있어 그게』

體面도 잊고 우리는 補給係로 달려갔다。 그리고 나 보다도 隊長任이 조금 앞서 있었다。

飛行機用 PARTS를 苦待하다가 그것이 나올 때, 그때의 기쁨이란건 整備士가 아니고는 그 누가 알 수 있으랴! 整備士만이 느끼는 共通된 喜悅! 그때는 一等兵이나 班長이나 隊長 할 것 없이 百萬長者나 된 것 같은 호뭇한 感情이다。

整備士가 아니고 보면 웃지 못할 「넌센스」도 없지 않다。 한번은 故障探究를 할 때의 일이다。 大概 어느 系統에 故障이 났다 하면 그 SYSTEM으로 보아서 어디가 나쁠 것이라는 것을 豫見하고 그곳을 檢査해 보면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도 나타나지 않을 때는 全系統을 全部 檢査해 보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번은 全系統을 調査해 보아도 TROUBLE을 發見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이쯤 되면 地獄 三番地다。

위에서는 빨리 고쳐내라고 재촉하고 神經質은 나고 몇일동안 골몰해서 일맛조차 없다。 요즘은 技術程度가 높아져서 그런 일이 없지만 조금전만 해도 이런 苦難이 가끔 있었다。 그래 某中士가 그날 夜間作業까지 하다가 그만 지쳐서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얼마나 精神을 썼던지 꿈에도 故障探究作業을 계속하다가 꿈에 解決이 되었는데 어떻게나 기뻤던지 그 歡聲에 잠이 깨었다 한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꿈의 方法에 依해 故

障을 發見해 냈다는 아주 有名한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期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熱誠이 오늘날의 發展을 가져 왔다는 것을 疑心하지 않는다。

그러나 整備士의 悲劇도 없지 않다。 한번은 班員 가운데 姜兵長이 自己 손을 보이면서 한숨을 쉬였다。『班長任、 제 손 좀 보세요 손이 이래서야 어디 戀愛라두 하겠에요』 정말 姜兵長의 손은 거칠었다。 손톱 사이에는 기름이 스며 들었고 손 마디는 마디마다 두두러져 보였다。 그리고 그것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고 한다。

『아 글쎄 집엘 갔더니 애 몸에서 기름 냄새가 난대잖아요』

『목욕을 안한게지요』

『왜 목욕을 안해요。 일주일에 두번씩이나 하는데』

그러나 姜兵長은 其後 結婚을 하였다。 그러고 보면 손이 戀愛에 防害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實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른다。 그 Hydraulic oil이나 Paint Remover 같은 것은 워낙 [illegible]가 甚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아직 未婚이다。 그리고 우리 作業隊長任도 理由없는 老總角이다。

候補生 日記

金 烈 會

나의 大學時節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였다。 생각만 하여도 지긋지긋한 苦生은 職場生活을 하면서부터 좀 풀리기 시작하였지만 社會란 學窓에서는 想像도 못할 만큼 冷酷하였다。 卒業後 二年동안 말할 수 없는 賤待와 屈辱을 참아가면서 오직 살아야겠다는 意志만은 버리지 않았다。

내가 空軍將校를 志望하게 된 動機는 國民의 一員으로서 賦與된 神聖한 義務를 다하지 못한데 對한 甚한 自責과 나의 內面生活부터 改善해서 좀더 價値있게 살아가자는 切實한 慾望에서였다。 募集廣告를 본 뒤로 試驗을 準備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職場에서 하는 일이 원체 바쁘기 때문에 책한번 변변히 읽을수 없는 처지이고 더구나 應試하는 사람들의 大部分이 今年度 大學卒業生들이어서 기가 푹 죽어 一斷 斷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親舊들의 간곡한 권고로 마음을 가다듬고 마감前날 書類未備때문에 옥신각신 다투어가며 가까스로 願書를 接受시켰다。 多幸히 試驗問題는 豫期했던 것보다는 容易하여 十二對一이라는 激甚한 競爭을 물리치고 合格의 榮光을 차지하였다。 드디어 入校通知書를 所重히 간직한 채 運命의 四月十一日을 맞이하게 되어 벅찬 기쁨과 부풀어 오르는 希望을 가슴에 안고 지금 우리들의 安息處인 技術敎育團의 正門을 들어 서게 되었다。 衛兵所正面에 커다란 글씨로 새긴 「Welcome」이라는 먹글자가 우리들의 將來를 祝福해 주는듯 하였다。 그때만 하여도 아직 싸늘한 寒氣가 온몸에 스며들어 집을 떠나온 나그네의 가슴에 서글픔을 더해주었다。 그렇게도 아끼고 매만지던 머리가 사정없이 잘려 땅에 뚝 뚝 떨어질 때의 心情은 決코 平穩한 것이 못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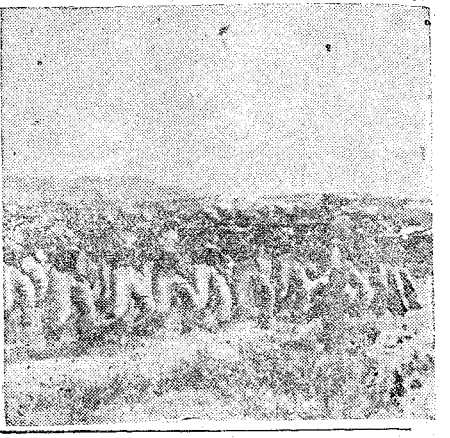
[illegible] 되어버린 머리를 아쉬운듯 손으로 어루만지며 서로들 바라보고 말없이 빙긋이 웃는 모습들이 더욱 우습다。 그날부터 區隊長들이 정해지고、案內를 받아 우리들이 數個月동안 生活할 內務班에 들어 갔더니 벌써 침구를 비롯해서 訓練服、禮服、帽子、甚至於 연필、노—트、바늘、실에 이르기까지 一切의 物件이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된 위치에 잘 정돈되어 있었고 우리들의 內務班은 一流 호텔에 못지 않는 設備를 갖추고 있는데 놀랐다。 스팀、水洗式 便所、溫冷水를 [illegible] 쓸 수 있는 水道施設과 깨끗한 寢床등은 우리들이 社會에 있을 때에도 흔히 볼 수 없던 것이었다。 들어온 날로부터 約 二週日동안 中隊長을 비롯하여 全區隊長들이 우리들과 起居를 같이 하면서 內務敎育을 비롯하여 軍生活의 基礎的 知識을 가르쳐 주었다。 率直 말이지 이 期間동안이 가장 苦痛스러운 時期였다。 아직 軍隊生活에 未熟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틈이 생기고 이에 對한 處置는 連續的인 氣合이 加해지는 것이다。 우리들이 몸소 體驗한 氣合의 種類는 數十가지가 되지만 그것은 主로 이 期間을 通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에는 社會에서 자라난 精神을 뿌리채 뽑아 버리고 完全한 軍人精神을 注入시키기 위하여 所謂 「人間改造、精神手術」을 目標로 하였다。 이러한 數많은 氣合中에 가장 苦痛스럽고도 재미있는 것은 「매트레스・맘보」라는 것이다。「맘보」하면 무슨 엉덩이를 몹씨 흔드는 것쯤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매트레스」를 어깨에 메고 구보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作業服 한벌을 몽땅 적실만치 땀이 흐르고 밤중에 연병장을 둥그렇게 도는 모습은 마치 인디안들이 춤을 추는 것과 비슷하다。 內務生活에 있어서 가장 强調하는 것은 「統一」이다。 관물의 위치나 정돈、신발의 위치와 甚至於는 수건을 접는 法에 이르기까지 軍隊生活에 있어서 統一의 重要性은 말할 것도 없다。

이 統一 때문에 가장 골치를 앓는 것은 寢具整頓이다。 잘못하면 爆擊을 當하기 일수이기 때문에 자고 깨면 담요를 잇빨로 물어뜯고 이불에 줄을 세우느라고 법석거린다。 이제 寢具를 개어놓으면 四方에 角이 져서 꼭 두부를 짤라 세워놓은 것과 꼭 같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寢具의 줄이 一直線이 되어 있어 누구나 한번 보면 歎聲을 發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寢具整頓을 하는데 있어서 不過 五分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것으로 보면 軍隊敎育이 얼마나 무서운 成果를 나타내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軍隊敎育의 成果는 日夕点呼를 通해서 檢討되고 是正해 나간다。 지금도 記憶에 生生하게 남아있어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것은 맨 첫날 받은 日夕点呼行事이다。 그날이 아마 四月 十四日이라고 記憶되는데、事前에 点呼에 關한 詳細한 敎育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와같은 불호령이 떨어지리라고는 아무도 豫測하지 못하였다。 우리 新入生으로서는 그야말로 있는 힘을 다하여 点呼에 對備하였지마는 미쳐 생각이 미치지 못한데도 많았으리라고 생각된다。

드디어 運命의 時間이 닥아와서 点呼가 實施되었다。 책상、청소함을 뒤집어 엎고、젯덜이가 공중에 날을 뿐만 아니라 벽력같은 區隊長들의 고함소리는 新築兵舍를 쨍쨍 울린다。『어이、貴官』하고 지적을 當하면 목소리가 목구멍에 꼭 얼어붙어 혀가 굴려지지를 않는다。너나 할것없이 겁에 질려 얼굴이 새파랗게 되고、두 다리가 와들와들 떨릴 뿐만 아니라 턱끝이 딱딱 마주치는 소리가 들릴 程度다。낮에 일껀 외운 諸目的이 까맣게 잊어져서 머리속에서 빙글빙글 맴돌다가 사라지곤 한다。一刻이 三秋같다는 말은 아마 이 境遇를 두고 하는 말일게다。솔직히 말해서、그 當時는 내가 무엇때문에 이곳에를 왔나 하는 후회가 切實하였고 당장에라도 보따리를 싸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날이 밝으면서부터 그 지긋지긋한 日夕点呼를 어떻게 넘기나 하는 근심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다。허지만 이러한 지독한 試練을 通해서 精神力이 차츰 强해지고、萬難을 克服할 수 있는 鬪志가 생겨난다。우리가 이러한 訓練을 받고 있을 때에 四月革命이 한참 成熟되어 갔기 때문에 候補生들에게 조그마한 틈도 주지 않으려는 努力이 엿보인다。사실 그 때에는 世上일에는 아주 깜깜이어서 조그만한 風聞에도 수근거려 敎育에 크나큰 障碍를 줄 염려가 있어서 이러한 敎育方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나 하는 것을 지금에야 理解할 수 있다。

보리밭의 보리싹이 제법 예쁘게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食堂周邊의 잔디밭위에 철쭉꽃이 아름답게 피어오를 때에 鐵條網 밖 世上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

철이 바뀜에 따라 산과 들에는 새싹이 싱싱하게 피어나고 湖南線을 달리는 列車의 汽笛소리가 Vo——하고 긴 餘韻을 남길 때에는 집에 對한 鄕愁에 미칠것만 같다。그러나 이러한 고통스러움도 四週末이 고비였다。여지껏 禁止되었던 모든 것이 解除되어 酒保出入과 外出이 許可되었을 뿐만 아니라 候補生들에게 自治能力을 認定하여 自治會가 發足하였다。敎育課程以外의 모든 일은 候補生 스스로가 自律的으로 運營해 나가도록 一任되었다。이 自治會가 생긴 뒤로 우리들의 生活은 모든 面으로 놀랄만큼 向上되었다。候補生 個個人이 우리 十四期 各種의 名譽를 위해서 잘해 보겠다는 새로운 意慾이 솟구쳐서 事業의 計劃과 實行에 큰 効果를 거두었다。그리하여 技術敎育團안에서 우리 將校候補生들에 대한 稱讚이 대단하였다。우리들에게 이와같이 모든 自由를 준 것은 學校當局에서 여지껏 받은 敎育成果를 높이 評價하였기 때문이다。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즐거웠던 일은 첫 外出때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한달동안 장안의 새처럼 制限된 生活을 해 오다가 모든 自由와 外出이 同時에 賦與되었으니 말이다。季節의 變化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느끼던 寒氣도 눈녹듯이 사라지고 綠地캠퍼스에 차츰 초록색의 綠陰이 짙어지는 五월 八日 몇臺의 츄럭에 分乘하여 깨끗한 아스팔트위를 세차게 달릴 때에 길가에 핀 크로바 꽃잎에서 그윽한 香氣를 풍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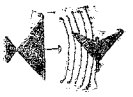
어 한층 마음을 흥겹게 한다。 시원스러운 「원피스」로 곱게 단장을 한 女人들이 人魚처럼 싱싱해 보이고 劇場이나 茶방에서 흘러나오는 Melody가 퍽 이상스럽게 느껴져서 마치 別有天地에 온듯 하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첫 外出에서 받은 깊은 印象은 내가슴속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自由스러운 分圍氣 속에서도 우리들은 모든 責任을 다할 줄 아는 氣質을 기른다。 一週日마다 나오는 尨大한 量의 宿題를 한사람도 않는 法이 없이 指定된 시간안에 모두 마친다。 아침저녁으로 娛樂室에 들어가서 듣고싶은 名曲을 鑑賞할 수 있고 보고싶은 書籍은 無制限으로 圖書室에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社會에 있을 때에 뭇지 않게 情緒面을 涵養한다。 그리고 自治會는 學校當局과 緊密한 連絡을 取하여 우리들의 좋은 意見이 퍽 많이 反映되고 있다。 그야말로 民主的 敎育의 標本이라고 敢히 斷言할 수 있다。 모든 計劃은 候補生 第一로 樹立되고 候補生들이 要求하는 것은 거의 百% 들어 주고 있다。 入校한지 四個月밖에 안되는 우리들이 벌써 두번씩이나 慰勞休暇를 갔다오고 찌는듯한 暴炎속에서 訓練받는 우리들의 健康을 위하여 거대한 設備의 「샤워」場을 만들어 놓았다。 처음 入校할 때만 하여도 핼쑥한 모습들을 한 學士님들이 이제는 햇볕에 검게 거슬려져서 筋肉이 무쇠덩이처럼 단단해 보이며 體重이 平均 2kg이 늘었다고 기뻐 날뛴다。 허기야 나만 해도 歡喜에 있을 때에 워낙 節制없는 生活을 해왔기 때문에 몸이 퍽 虛弱한 便이었지만, 지금은 그 고된 訓練도 無難히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가끔 흥나는 국에 먹는 보리밥이 어쩌 그렇게 맛이 좋은지 어느때에는 냄비을 재빨리 먹어 치우고 제의 밴뒤에 슬쩍 끼어 시침이를 떼고 한그릇씩 더 먹지만 그래도 시원치 않을 때가 있다。 基地內에 울창한 綠陰은 마치 나의 母校의 「캠퍼스」와 恰似하여 어디를 가든지 公園과 같은 느낌이 난다。 이러한 自然속에서 呼吸하고 같이 生活하는 一校校候補生들은 正直과 勇氣와 知識 이 세가지를 생명으로 알고 있다。 各種將校라는 意味가 일러주듯이 各己專攻分野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어떤 問題를 討論하고, 또 解決해 나간다。

이제 앞으로 있을 約 十日間의 海洋訓練을 除해 놓고 보면 敎育期間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동안 좀더 마음의 修養을 계을리 하지 않고 꾸준히 努力하여 任官하는 날에는 아주 새로운 사람이 되어 보리라고 굳게 決心하면서 이글을 맺는다。

○ ○

電波妨害란 어떤것

〈E·C·M 해설〉



梁 宸 錫

ECM은 Electronic Counter-Measure의 약자로서 전파방해(電波妨害)를 뜻한다。보이지 않는 전파(電波)가 적의 레이다 및 통신장비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바로 ECM인 것이다。

ECM은 현대전에서 중요한 무기의 하나이다。적으로부터 고의적으로 받는 전파방해나 우군의 레이다 또는 통신장비로 부터 받는 전파의 혼신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레이다는 전연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모든 학문이 완전하지 못하듯이 효과적인 ECM도 완전한 것은 못된다。이제 ECM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ECM의 역사

ECM의 역사는 아주 짧다。ECM의 첫 시도(試圖)는 一九三九년에 독일이 영국의 레이다 위치를 탐지하여 레이다의 주파수、PRF、유효범위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Zeppline 비행선에 ECM장비를 장치하여 사용한데서부터 시작되었다。그때 불행히도 독일군의 Zeppline 비행선에 장치된 탐지장비가 고장을 일으켰던 것이다。Operator는 상부에 장비의 고장보고를 한다면 그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두려워적(영국)으로 부터 아무런 신호도 받지 못하였다고 허위보고(虛僞報告)를 하였다。이 허위보고로 인하여 독일의 군사 고위층에서는 영국의 레이다를 과소평가 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전쟁 후기에 이르러 치명상(致命傷)을 입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一九四〇년에 영국의 「윈스톤·처칠」경은 「비임의 전쟁」——Battle of the Beam이란 말을 사용한 일이 있다。이 비임의 전쟁이 바로 ECM——다시 말하면 전파전(電波戰)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후 독일군은 불란서로부터 영국의 런던으로 향하는 독일군의 폭격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좁은 비임을 한 방향으로만 발사(發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영국군은 이를 막기 위하여 독일군의 전파를 잡아 방향성이 없는 안테나로 다시 발사함으로써 독일군의 계획을 깨트렸다。

이처럼 시작된 ECM은 二차대전중에 끊임 없는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처럼 놀라운 효과를 가져 왔으며 적의 레이다를

바보처럼 만들고 놀려주는데 가장 좋은 성과를 얻도록 된것이다。

電波妨害 (JAMMING)

Jamming이라 함은 강한 방해 전파를 발사하여 적의 레이더오 또는 레이다에 대항하여 수신을 방해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전파방해에는 전자적 전파방해(Electronical Jamming)와 기계적 전파방해(Mechanical Jamming)의 두가지가 있다。

전자적 전파방해(電子的 電波妨害)

전자적 전파방해는 적이 필요로 하는 신호를 받아 들이지 못하도록 강한 전자신호(電磁信號 Electromagnetic Signal)를 발사함으로써 적의 레이다 또는 레이디오를 혼란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이 Electronic Jamming은 Barrage Jamming과 Spot Jamming의 두가지로 나눈다。

1、 Barrage Jamming……이는 二차대전때에 많이 쓰인 것으로서 적진에 들어가는 대폭격편대(大爆擊編隊)가 사용한 방법중의 하나였다。 이것은 항공기에 수많은 전파방해 송신기를 탑재시켜 그 송신기로 하여금 전체의 주파수대(周波數帶)에 동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적의 Radar Coverage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전체의 송신기를 일시에 동작시켜 적의 레이다로 하여금 목표를 탐지를 불가능하게 하면 방법이다。 이 방법은 Operator에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는 것이 장점이지만 많은 장비를 필요로 하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 결점이다。

2、 Spot Jamming……이는 어떠한 한 지점에 대하여 행하는 전파방해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어느 특수한 적의 레이다 주파수에 전파방해 송신기를 동조시켜 그 지점으로 계속하여 전파를 발사하여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서 현대 전술작전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이 Spot Jamming은 ECM Operator가 적의 레이다 주파수대 및 정확한 지점을 알아야 하기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기계적 전파방해(機械的 電波妨害)

기계적 전파방해라 함은 전파에 대한 반사물(反射物)을 사용하여 적의 레이다에 전파방해를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반사물(Reflector)은 Radar Echo를 만들기 때문에 보통의 목표물과 마찬가지로 레이다에 Target로서 나타나고 적은 이로 인하여 목표물을 식별하는데 곤란을 먹게 된다。 반사물중에서 Chaff와 Rope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된다。

Chaff는 Jamming을 할 레이다 주파수의 ½파장 길이로 짜른 얇은 금속쪼각으로서 하나 하나의 쪼각은 다이폴 안테나(Dipole Antenna)의 역할을 한다。 이 반사물은 레이다의 신호를 받으면 즉시 각 방향으로 그 신호를 반사하게 되며 이 반사신호중에 다시 레이다로 돌아가는 것은 항공기와 똑 같은 목표물을 스크푸에 나타나게 한다。

Chaff는 아주 높은 주파수(三〇〇~一〇〇MC)에서 사용된다。 이보다 낮은 주파수는 ½파장의 길이가 꽤 길어짐으로 Chaff를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때의는 Chaff 대신 Rope를 쓴다。 Rope는

알미늄으로 만든 얇고 길다란 것으로 리본(Ribbon)과 같이 되어 있다. Rope 한 쪽을 약간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에 흔들리며 나려 오면서 Chaff와 같은 방법으로 Jamming을 하게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Chaff나 Rope는 효과적으로 목표물을 가려줌으로써 하공기는 적진 깊이까지 들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反電波 妨害 手法

어느 레이다가 전파방해를 받게 되면 싸이트에서는 장비의 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Operator는 전파방해의 영향을 최대한도로 제거하기 위하여 반전파방해(Anti-jamming)를 하여야 한다.

전파방해를 받은 여러 레이다 싸이트에서는 각기 얻은 Data를 종합하여 전파방해를 가한 항공기 또는 지점의 위치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 한 레이다에서만 전파방해를 받았을 때에도 Jamming을 하는 대략적인 위치를 알 수 있다.

어떠한 레이다는 주파수를 변경함으로써 Jamming의 영향을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다. 그때 적이 변경된 새 주파수를 탐지하려고 시도할 때에 한두 Sweep 동안은 레이다 스코푸에서 Jamming을 가하는 Target을 찾아 낼 수 있다.

또 주파수를 변경할 수 없는 레이다는 전파방해를 받았을 때 안테나를 계속하여 돌리되 송신(Radiation)만을 잠시 중단 시켰다가 다시 송신을 시키면 전파방해를 가하던 항공기를 탐지해 낼 수 있을 때도 있다. 적기는 이때 레이다가 주파수를 변경하지 않았는가 하고 다시 딴 레이다 주파수로 전파방해 송신기를 동조(同調)시킬려 할때를 틈타 레이다가 적기의 위치를 알게 되는 것이다.

전파방해를 하는 근본목적은 심리적인 효과를 걷우는데 있다.

전파방해를 하여 관제사(Controller)를 당황하도록 만들어 작전을 효과적으로 방해하면 Jamming은 一〇〇퍼센트의 성과를 걷우는 것이다. 따라서 전파방해를 받았을 때 첫째로 필요한 것은 침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에 전파방해를 받게 된다는 정보를 싸이트에 줌으로써 Jamming이 나타났을 때의 대책으로서 반전파방해 회로(Anti-jamming Circuit)를 사용한다든가 장비를 계속 동작시켜 전파방해를 받는 상태하에서도 최적한 가운데 가능한 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우리게 하는 것이다.

처음 전파방해를 받게 되면 Operation 근무자는 maintenance 근무자에게 통보하며 그들은 상부에 전파방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전파방해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가 적으로 부터 오게 되는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이 개념은 미상(未詳)의 목표물을 식별(識別)하고자 하는 난문제를 제거해 줄 것이다.

전파방해로 인하여 레이다로부터 갑자기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하게 되더라도 장비는 그대로 동작시켜야 한다. 또한 전파방해로부터 따져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파방해는 완전무결하게 할 수 없는 것임으로 전파방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가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다. 적이 노리는 중요한 점은 전파방해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이상 목표물을 탐지하지 못하며 Control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의 모든 일과 책임을 포기해 버릴 수 밖에 없다는 생각속으로 휘몰아 넣는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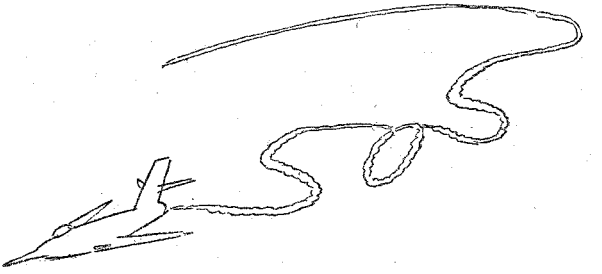
漫画에어쇼

CARTOON AIR S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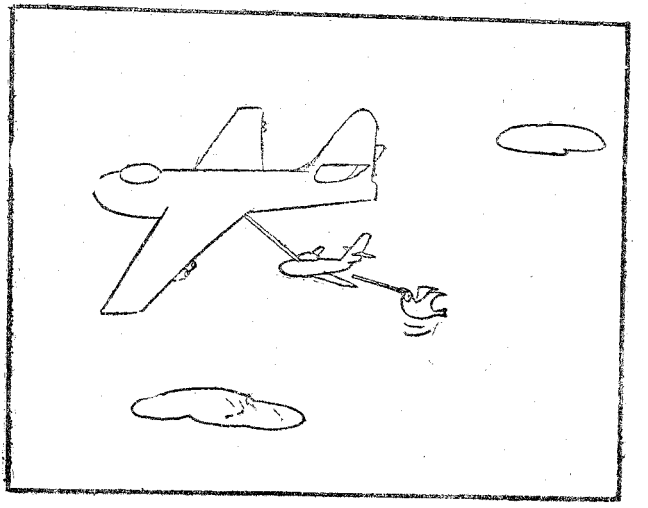
성 을 철

비행운

"무전이 고장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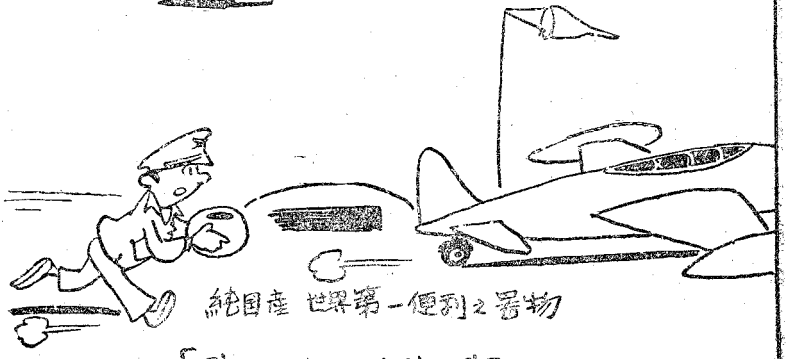
공중보급 "나도 한몫 얻읍시다"



하늘의 日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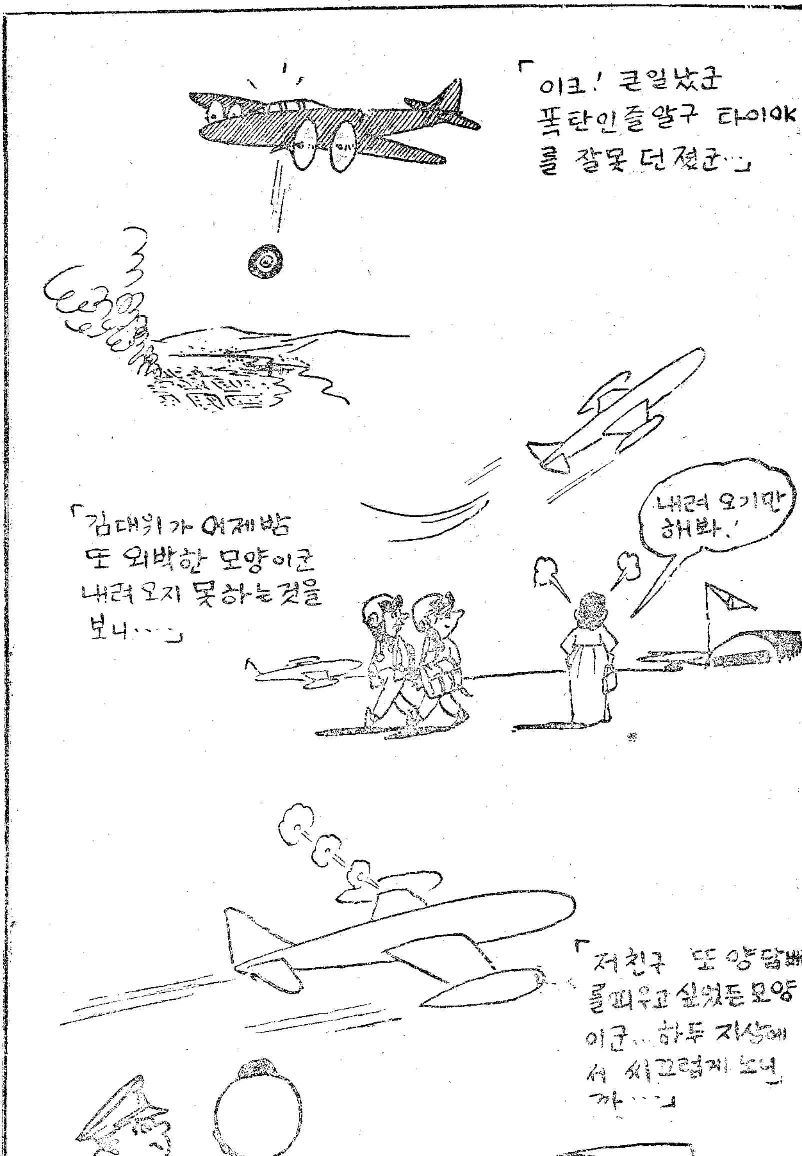
李相昊

- 조종사의 아내 -
「오늘 또 틀렸군…
일찍들아 와 극장에
가자 하드니 …… 또 올
랐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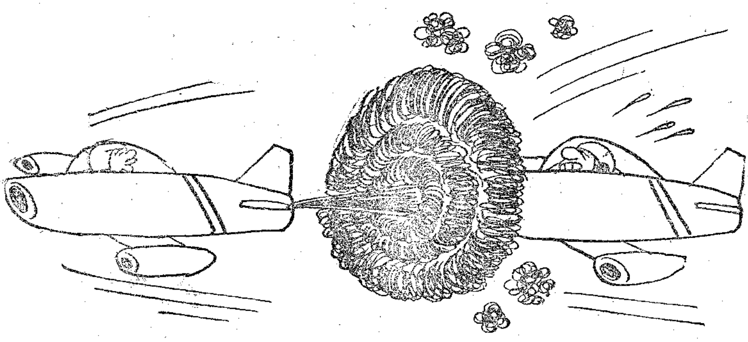
純国産 世界第一便利之器物

「김대위님! 이것 갖구
가셔야 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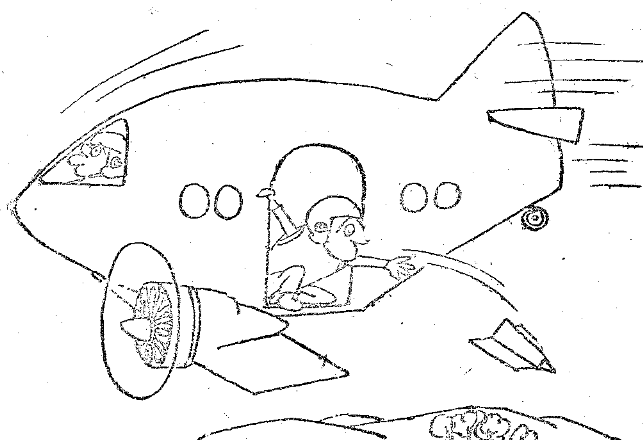

「이크! 큰일났군 폭탄인줄알구 타이야를 잘못 던졌군…」
「김대위가 어제밤 또 외박한 모양이군 내려오지 못하는것을 보니…」
내려 오기만 해봐.
「저친구 또 양담배를피우고 싶었든모양 이군… 하루 지상에서 시고렵게 노넌가…」

急行避暑飛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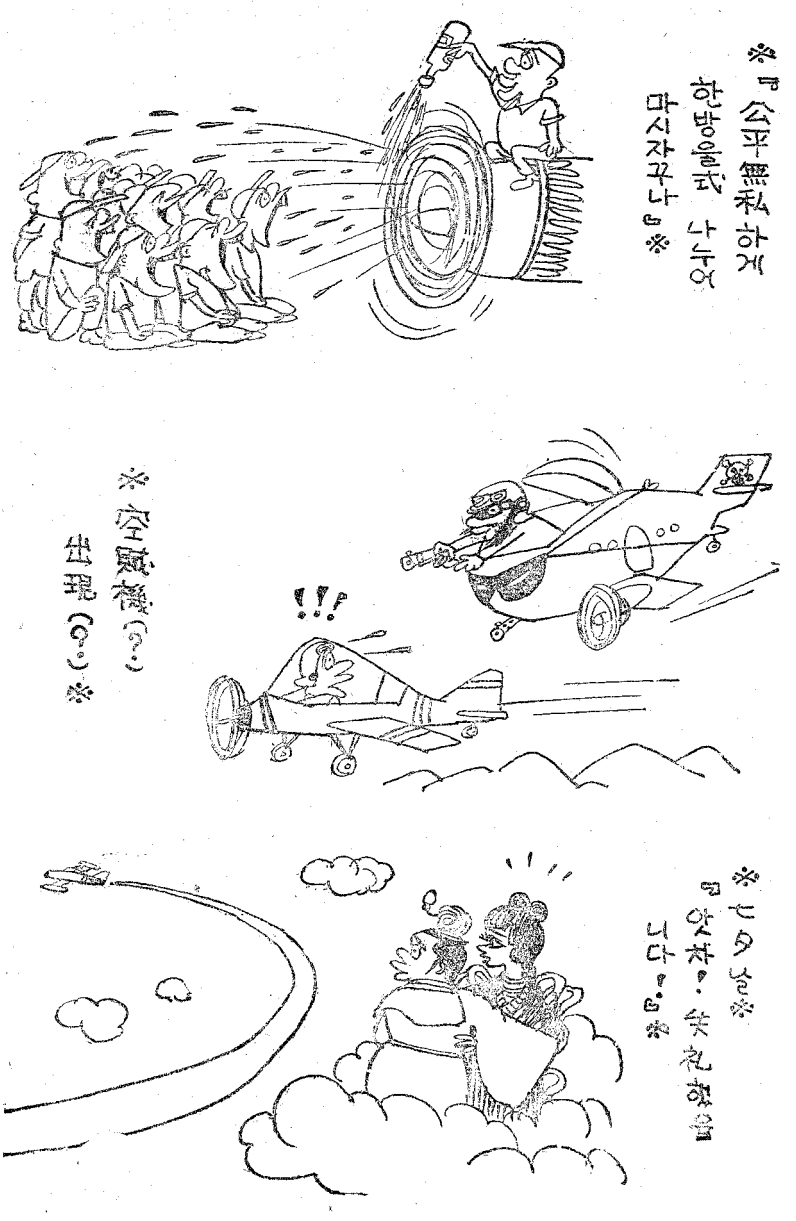
郭漢基



※무지무지한 방구 ※『자식! 感情있나베! 또 뀌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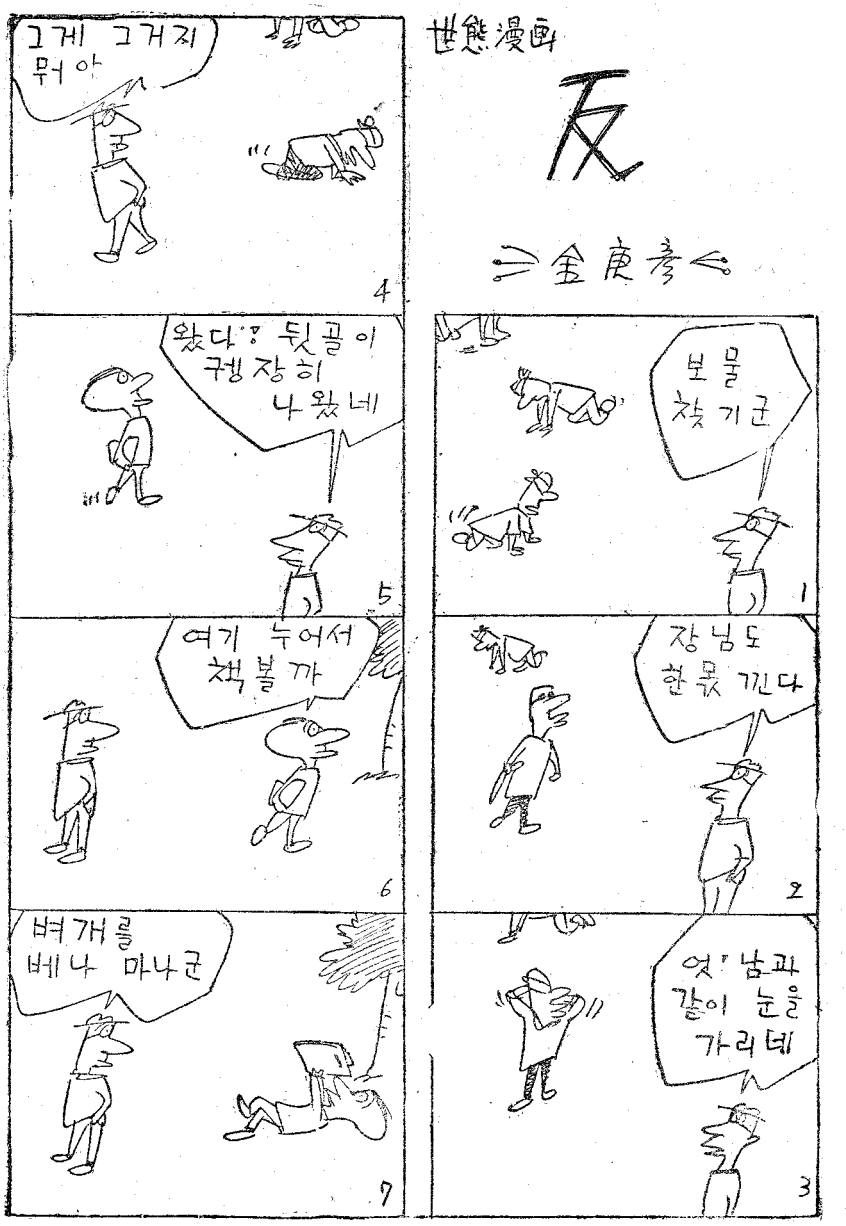
※『내 故鄕에 便紙 한장 보내오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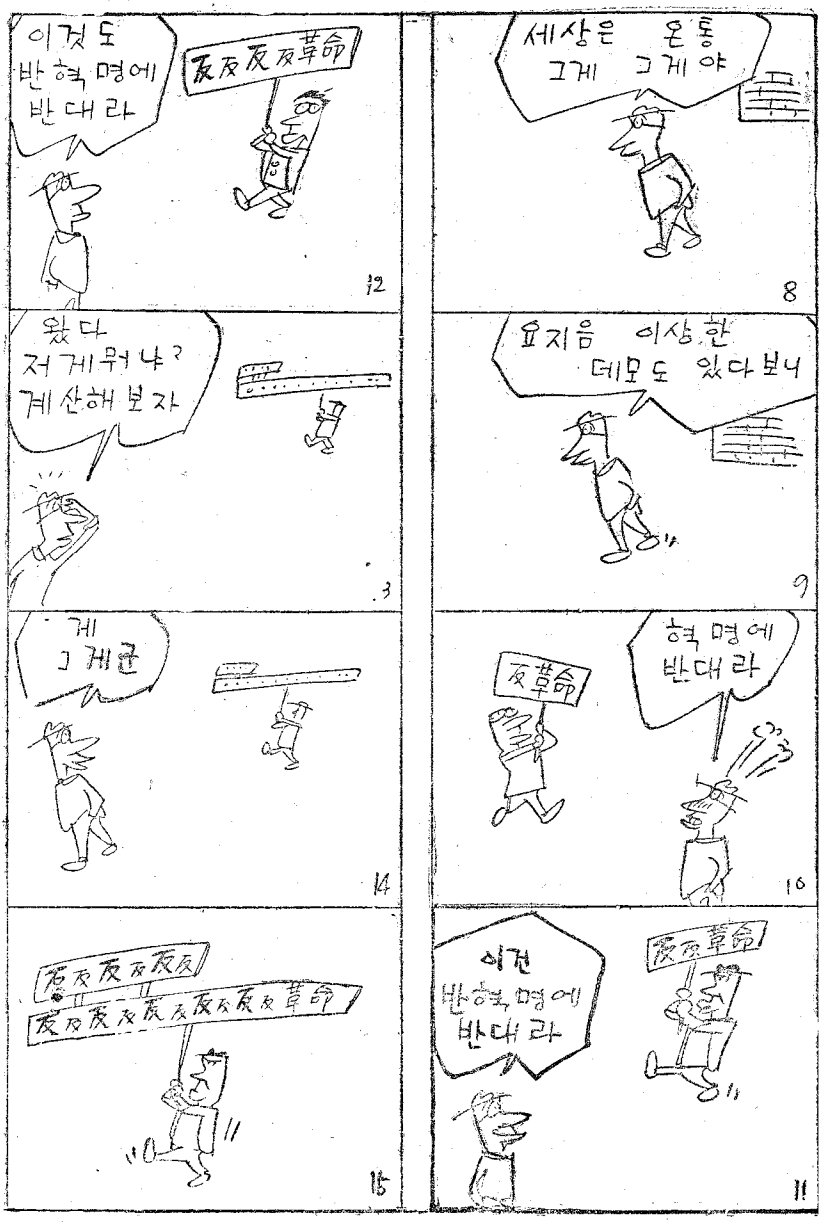

※『公平無私하게 한방울式 나누어 마시자꾸나』※
※空賊機(?) 出現(?)※
!!!
※七夕날※
『앗차! 失礼했읍니다!』※

世態漫画

反

金庚彦


보물
찾았군
1
장님도
한몫 끼다
2
엇! 남과
같이 눈을
가리네
3
그게 그거지
뭐야
4
왔다! 뒷골이
구렝장히
나왔네
5
여기 누어서
책볼까
6
벼개를
베나 마나군
7


세상은 온통 그게 그게 야
8
요지음 이상한 데모도 있다보니
9
이것도 반혁명에 반대라
反反反反革命
12
왔다 저게뭐냐? 계산해보자
13
게 그게군
14
反革命
혁명에 반대라
16
反反反反反反反反反革命
15
이건 반혁명에 반대라
反革命
11

世界의 航空機發達史

—二次의 大戰에서 韓國戰爭까지—

1. 人類의 꿈
2. 完全한 飛行으로
3. 一次大戰과 航空機의 功勞
4. 美國의 第一次大戰 參加
5. 渡洋航空時代는 오다
6. 太平洋戰爭과 航空機의 活躍
7. 젯트時代의 到來
8. 韓國戰爭과 「젯트」航空의 活躍

李 仁 燮 역

人類의 꿈

하늘을 날으려는 情熱은 人類의 歷史를 더듬어 볼때 別로 신기한 것은 아니다。 날은 木版畵나 石版畵 或은 傳說속에서 새와 같이 날아보려던 憧憬은 오랜 동안 繼續되었음을 알 수 있다。 地上으로부터 벗어나서 決코 살 수 없는 人間이 無限한 空中으로 上昇하여 훨훨 날아보려던 理想의 實現은 實로 오랜 歷史를 通하여 끈기있게 繼續되었고 마침내 우리는 이것을 成就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科學의 時代가 시작되기 數千年前 文明의 進化가 遲遲하였던 時期에 人間은 自己들의 몸을 훨씬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몇가지의 機械的 手段을 發達시켰다。 많은 苦難을 무릅쓰고 簡單히 멧목이나 小舟를 利用하여 바다로 저어나갈 수 있었으며 車輪의 發見을 契機로 하여 地上의 旅行이나 輸送이 迅速 容易하게 實現되었던 것이다。

人間이 熱心히 神秘的인 偉大한 大空을 날으는 꿈은 이미 二千餘年前의 希臘神話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神話에 依하면 「크레타」島의 「크레타」王朝 最强의 王이 統治하고 있던 時代에 「미노스」王의 寵愛를 받아오던 無類의 天才的 建築家 「라이다로스」가 뜻하지 않던 미움을 받아 獄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그와 같이 投獄된 아들 「이까로스」가 날개를 만들어 몸에 달고 父子가 함께 脫出하였다는 줄거리이다。

이와 같은 神話時代가 끝나고 가장 實用的이며 科學的인 생각을 가진 者는 一四五二年 「토스카니아」에서 誕生하여 生前 뛰어난 才能을 數없이 發揮한 「레오날드。다빈치」이다。 解剖醫學까지 배운 이 偉大한 藝術家는 人間이나 다른 動物 或은 鳥類의 骨骼이나 筋肉의 構造、關節接合等을 研究하여 後日 複葉의 風車式 날개를 研究한 바 있었던 것이다。

中國에서도 奇妙한 空中旅行을 示唆하는 古代版畵가 있었다。 十七·十八兩世紀에 그려진듯한 二枚의 版畵의 一枚에는 배와 같은 形體의 箱子、他의 一枚는 牛車의 形體를 한 箱子가 各己 風車形의 外車로 進行用으로 使用되고 있음을 아르켜 주었다。

一六七八年、當時 佛蘭西의 一科學雜誌는 「베스니르」라는 發明家의 着想이라고 하여 至極히 空想的인 足動飛行機具의 說計圖를 실었다。 一七八三年 佛蘭西人 「부랑카르」는 野心的인 飛行 「곤도라」를 考案한 바 있었다。

完全한 飛行으로

初期의 先驅者들이 겪은 許多한 困難을 克服하고 오랫동안의 꿈을 實現시킨 者는 美國人 「라이트」兄弟였다。 高等學校마저 다니지 못한 이 두 兄弟는 氣質에 있어서는 研究心이 旺盛하며 生來不屈의 忍耐心을 가지고 있었다。 自轉車修理店을 經營하면서 研究에 研究를 거듭하여 一九〇三年 十二月 十七日 마침내 人類의 所望을 이루어 八百五十二「피트」의 距離를 高度 十四「피트」로 五十九秒나 날았던 것이었다。

「라이트」兄弟는 飛行實驗의 初期에 美國 陸軍省에 그들의 飛行機를 보였지만 아무런 興味도 받지 못하였다。 그 反面에 英國은 「데이톤」까지 視察員을 보내어 同飛行機를 視察케 하는等 相當한 關心을 보여 주었다。 佛蘭西도 「휀벨르」大尉를 現場까지 보내서 視察케 하였다。

一九〇五年 「라이트」兄弟는 그동안 「엔진」을 改良하여 새로운 飛行機를 만들고 마침내 三十八分間에 걸쳐 二十四哩를 飛翔하였다。 두 兄弟는 이때 다시 美國政府에 書翰을 보내어 그들의 發明品을 提供하겠다고 提案하였으나 亦是 却下되었다。

이때 「부라질」人 「산도스。듀몽드」가 歐羅巴에서 最初의 飛行公認記錄을 樹立하였으나 飛行時間은 不過 八秒였다고 發表되었다。

「라이트」兄弟는 宣傳目的으로 마침내 이 飛行機를 佛蘭西로 가지고 갈 것을 決心하고 배에 실어 佛蘭西로 向하였으며 陸軍觀兵式에서 一時間 以上을 飛行하여 佛蘭西人들의 熱狂的인 歡迎을 받았다。 一九〇九年 「라이트」는 歐羅巴에서의 宣傳飛行을 끝마치고 美國으로 歸國하여 陸軍에 納品하기 위한 飛行機의 製作에 着手하였고 同年 七月 三十日 「벤쟈민·파로아」中尉와 同乘 「태프트」大統領이 親臨한 가운데 開催된 飛行示威에서 時速四十二哩로 十四分을 날랐으며 이로써 陸軍에 認定되고 報償으

로 五千弗을 받았으며 數많은 功勞勳章까지 가슴에 가득히 달게 되었다。 이것을 契機로 世界의 航空界는 急速度로 發展을 시작 不過 五十餘年後인 오늘날은 이미 宇宙를 指向하여 날으려는 航空時代를 招來한 것이다。

一次大戰과 航空機의 功勞

一九一二年까지 獨逸人들의 飛行機에 對한 認識은 活潑한 것이 못되었으나 佛蘭西軍이 戰爭에서 彈着觀測이나 航空寫眞用으로 飛行機를 利用하는데 着想하여 一九一四年까지 六百臺以上의 飛行機를 製作하였다。

一九一一年에 佛蘭西는 二百臺以上의 飛行機와 各飛行機마다 豫備操縱士까지 養成하였다。

保守的인 英國은 그때까지 王立海軍의 傳統的인 信賴에 依存하여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으나 一九一二年까지 陸海軍 將校들의 頑迷한 偏見을 물리치고 王立飛行兵團을 編成하였다。

大戰이 發生한 最初의 數週間에 英國正規軍의 一隊는 佛蘭西의 一隊와 巴里로 進擊하여 오는 獨逸軍을 沮止하고 있을 때 當時 英國空軍은 거이 全勢力을 動員하여 實戰에 參加하여 獨逸軍 移動狀況을 偵察하는데 不滅의 功을 세웠다。 이때로부터 飛行機의 威力에 疑問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

大戰의 初期에 있어서 空中에서의 飛行速度에는 크다란 關心이 없었고 다만 兵力移動狀況이나 彈着距離의 觀測等 主로 偵察任務의 遂行에 利用하였을 뿐이었지만 때마침 彼我의 飛行機間에 相互間의 航空活動을 妨害 乃至 攻擊하기 위하여 小銃이나 自動拳銃 或은 手榴彈을 서로 投擲하기 시작하자 여러모로 再檢討를 加하기 시작하였다。 等速射擊裝置가 速度的으로 優勢한 牽引式 飛行機에 設置되고 機關銃을 「푸로펠라」의 回轉速度에 맞추어 一定速度로 發射하게 되었으며 一九一五年 捕獲한 獨逸戰鬪機에서 等速 發射裝置를 發見하여 聯合軍側도 卽時 이를 模倣하여 만들게 되었다。 兩軍의 戰鬪部隊의 飛行隊가 機關銃을 裝備하게 되고 空中戰의 新戰略이 確定되자 操縱士들은 마침 獨逸軍이 考案한 防禦用 「V」字型 編隊飛行이 安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空中戰이 日益 增加되기 始作하자 自然的으로 敵機를 多數 擊墜시킨 操縱士들이 英雄視되기 시작하였고 「하늘의 勇士」라는 稱號가 이때부터 流行되기 시작한 것도 偶然한 일은 아니다。

佛蘭西空軍의 「MS-二三型機를 操縱한 「로랑·가로」는 聯合軍에서 最初의 「에이스」가 되었다。 一九一九年 五月 獨逸 操縱士 「리히토휀」男爵에게 擊墜當한 英國의 「알버트·볼」大尉는 飛行機 操縱에 있어서는 오히려 機械라고 일컫는 것이 正確한 表現일 程度이며 如何한 天候에도 不拘하고 出擊하여 視界에 들어오는 敵機에 對하여는 勝算有無에도 不拘하고 突進하는 猛將으로써 戰死前까지 四十三臺를 擊墜시켰다。 그後 「카나다」人의 「윌리암·비숍」氏는 大戰末期까지 擊墜確認 七十二臺라는 英國의 最優秀 하늘의 勇士가 되었었다。 그의 空中訓練狀況의 一端을 紹介하면 兵營의 調理室에서 「깡통」을 싣고 空中으로 올라가서 空中旋回를 하면서 이것을 落下시키고 떨어지는 「깡통」을 딸아가면서 射擊訓練을 하는 鬼神같은 操縱士였다。 「리히토휀」男

爵은 戰死前까지 八十臺를 擊墜하였다。

美國의 第一次大戰參加

美國이 一次大戰에 參加하였을 때는 空中戰鬪는 重大段階에 들어가 있을 때였다。一九一七年까지 美國政府는 自國의 立場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本國과 英國、伊太利、佛蘭西等 各地에서 數千名의 操縱士 養成에 拍車를 加하고 있었다。비록 美國飛行隊가 參戰한 것은 뒷일이라고 하더라도 大戰의 重要時機에 그들이 貢獻한 바는 戰局의 決定的인 要素로 되어 聯合軍을 勝利로 引導한 契機가 된 것이었다。

美國空軍將校中에서도 가장 勇名을 떨친 「빌리·밋첼」將軍은 先見之明이 있는 精力的인 將校로써 美國軍服을 입고 敵陣上空을 橫斷한 最初의 將校였다。그는 參戰後 一年이 지난 一九一八年 여름까지 美國空軍을 編成하여 善戰하였다。

美國에 最優秀 勇士였던 「에디·릭켄베카」大尉는 二十六臺 擊墜記錄을 갖었으며 最初는 競走用 自動車 運轉手로써 出發하였다。

一九一四年의 大戰時 各國 空軍의 指導層은 누구든지 廣範한 訓練이 必要함을 認識하고 있었으나 緊急事態로 單獨飛行時間 不過 三十時間 程度로 戰鬪에 參加하였던 것이다。

渡洋航空時代는 오다

一九一八年 大戰終結과 더부러 過去 操縱士였던 많은 青年들은 그들의 飛行技術을 살리기 위하여 求職運動에 나섰다。美國政府는 當時 保有機 一萬臺로써 過剩狀態에 있었으므로 나머지는 民間人에게 拂下하였으며 이것을 拂下받은 많은 操縱士들이 飛行曲藝事業까지 한 일이 있었다。「런던·데일리·메일」紙는 美·英間 最初의 無着陸 飛行에 對하여 賞金制度를 設立하였다。美國 海軍의 「NC-4」號機는 惡天候에도 不拘하고 三千 九百 三十六哩의 飛行을 成就하고 一萬磅의 賞金을 받았다。

休戰後 美國으로 歸還한 「빌리·밋첼」大將은 戰爭의 쓰라린 經驗을 敎訓으로 可恐할만한 航空武器와 防衛對策의 重要性을 一般에게 說得하는데 腐心하였다。그러나 그의 反對派들의 熾烈한 反對를 받아 많은 難關을 突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空中力을 近代化하여 國防軍을 陸·海·空 三軍制度로 할 것을 强調하여 議會에서 要求하였으며 이어 眞珠灣內에 碇泊한 艦隊가 空中攻擊의 絕好의 目標로 된다고 豫言한때 그의 反對派들의 미움을 最高로 받았으며 마침내 그는 軍紀不服從으로 軍法會議에 回附되어 有罪判決을 받았다。一九三六年 二月 그가 죽을 때까지 航空武器의 重要性을 力說한 바 있었다。

一九二七年 여름 「찰스·린더버그」는 美國에서 巴里로 無着陸 飛行에 成功하여 世界航空史上 偉大한 轉機를 이루었다。

一九二三年에 「알·윌리암」이 製作한 時速 二百 六十六哩의 飛行機가 世界 速度記錄을 樹立하였고 一九二四年 佛蘭西의 「보네」兵曹長이 時速 二百 七十八哩、三二年에는 「겜스·두릿틀」이 時速 二百九十四哩、三三年에는 「겜스·웰멀」이 時速 三百 四哩 三四年에는 佛蘭西의 「레이몽·데르못드」가 時速 三百 二十四哩 三五年에는 「하와드·휴즈」가 時速 三百 五十二哩、三七年에 獨

逸의 「헤르만・뷘스타」가 時速三百 七十九哩、一九三九年에는 「후릿쯔・뷘델」이 時速四百 六十九哩의 記錄을 세웠다。

世界一週飛行은 非常한 人氣를 集中시켰다。一九三一年 「윌러・포스트」는 「록키드」單發機、「위니・메」號로써 八日만에 世界一週 飛行을 成就하고 翌年에는 七日만에 世界一週를 하였다。

一九三八年、「하워드・휴즈」는 四名의 乘務員과 같이 「록키드」雙發機로써 全航程 一萬 四千 七百 九十一哩을 四日만에 一週飛行하여 記錄을 세웠다。

太平洋戰爭과 航空機의 活躍

日本空軍의 眞珠灣攻擊에 衝擊을 받은 美國은 急速度로 國家軍事態勢의 再檢討에 들어갔다。美國이 樞軸國側에 宣傳布告한 數日後 「처칠」首相은 英國 空軍 參謀總長「찰스・폴탈」中將과 爆擊機部隊司令官 「아더・하리스」中將을 包含하는 軍事顧問團과 같이 新銳戰艦 「뉴크・오브・요크」號로 向美하였다。

美國은 眞珠灣에서 받은 經驗은 이것이 처음이지만 英國은 이미 「당케르크」에서 自國軍隊가 壞滅된 經驗을 가졌던 것이다。眞珠灣에서의 美國艦隊가 大損害를 받아 不過 二隻의 戰艦밖에 없었는데 反하여 日本은 同地域에 十隻의 戰艦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大打擊을 받기前 美國은 總計 九千臺를 保有하고 그中 練習機 百臺를 包含하여 一千百臺를 海外의 基地에 分散하여 두었었다。

宿命的인 그날 아침 當時 「하늘의 要塞」로써 이름을 떨친 「B-17」 十七臺의 編隊가 마침 「하와이」로 向하고 있었는데 「힉캄」飛行場의 管制塔에서 雙眼鏡을 들고 있던 一空軍大領은 水平線 저쪽에서 飛行機의 大編隊가 眞珠灣으로 飛行하여 오는 것을 安心하여 보고 있었을 뿐이었고、大編隊群이 灣上을 通過하고난 다음에야 비로소 胴體에 日章旗가 그려있음을 알았다。그러나 이미 그때는 늦어 灣內에 있던 八十六隻의 艦船을 向하여 猛烈한 爆擊을 加하고 있었으며 一時間半에 걸친 日本軍 攻擊뒤에 以上의 「B-17」編隊도 大損害를 받았으며 飛行場도 修羅場化되었다。

이 時機는 聯合軍側에서 實로 暗膽한 時機였다。「처칠」首相이 美國으로 向發하기前 英國戰艦 「푸린스・오브・웰즈」와 「레팔스」等 二隻이 「마라이」海上에서 擊沈 當하여 聯合軍의 海軍力은 極度로 衰退하였다。「루즈벨트」와 「처칠」 兩巨頭會談時 「폴탈」英國空軍中將은 英國軍의 情報에 依하면 日本의 實戰機는 不過 三千 六百臺이며 月產能力은 三百臺라고 「부리핑」하였다。眞珠灣에서 攻擊을 받지 않은 美國航空母艦을 使用하여 日本本土 奇襲을 敢行하자고 「아놀드」大將에게 말한 바도 있었다。

當時 聯合軍은 樞軸軍側보다도 優勢하여 英國이 月產 二千五百臺、美國이 當初 月產 三千臺、蘇聯의 月產 一千五百臺를 包含하면 月產 總 七千臺로 되었으나 反對로 日、獨、伊 三個國을 合하여도 總 三千五百臺밖에는 되지 못하였다。이때부터 美國의 全產業은 戰時體制로 바뀌어지고 航空機工場은 大擴張을 거듭하여 例컨데 「보잉」航空會社는 月產 七十五臺로 增產하게 되었다。

英國은 將兵의 士氣 振作을 目的으로 佛蘭西의 被占領地帶에

있는 敵目標를 試驗的으로 夜間爆擊하기로 決心하고 暗夜를 利用하여 英佛海峽을 떠났다。高度 二萬 五千「피—트」上空에서 地上에 있는 「드람」筒을 命中시킬 수 있다고 壯談한 塔乘員들은 猛烈한 爆擊을 加하고 勝利의 歸還을 하였다。

歐羅巴에서 英國軍이 善戰하고 있는 동안 太平洋地域에서 美國도 許多한 難關을 무릅쓰고 善戰에 善戰을 繼續하고 있었다。「고레히돌島」에서 包圍된 「맥아더」將軍은 數많은 部下를 뒤에두고 美國海軍의 「죤·바크레이」中尉가 指揮하는 魚雷艇으로 夜陰을 利用하여 家族과 더불어 脫出하고 「민다나오」島로 向하였으며 거기서 낡은 「B-17」爆擊機 一臺를 修理하여 「오스트레리아」로 날아갔다。

이렇게 하여 다시 比律賓 再奪還과 日本本土 侵攻을 計劃하고 있었다。

獨逸軍은 當時 蘇聯進擊을 沮止 當하고 있었으나 緩漫하지만 着實한 速度로 大西洋沿岸에서 勝利를 獲得하고 있었으며 聯合軍은 人命이나 物資에 多大한 損害를 받고 있었다。日本軍은 한便에서 「싱가폴」、「쟈바」、「뉴기니아」를 奪取하고 「오스트레리아」나 「뉴지랜드」까지 威脅하고 있었던 것이다。

一九四二年 四月 十八日 日本 東京에 對한 最初의 美國空軍의 白晝爆擊 報道에 聯合軍의 士氣는 冲天하였다。完璧한 計劃과 空母離艦 訓練을 받은 「지미·두릿들」이 指揮하는 爆擊機 編隊는 日本本土 六百五十哩까지 接近한 航空母艦「호넷트」로부터 「B-25·밋첼」爆擊機 十五臺로 出擊하였다。 이들은 目標의 東京에 到着、工場施設、物資集積所、阜頭等을 猛爆하고 때마침 碇泊中이던 航空母艦 一隻을 沈沒시켰다。 이것을 契機로 하여 日本人의 士氣는 相當히 저하되었던 것이다。

「B-25」機는 攻擊終了後 暴雨와 두터운 구름、暗黑과 싸우면서 着陸豫定地인 中國本土로 向하였으나 約束된 無線誘導를 받지 못하여 中國本土에서 十五臺 全部가 各己 不時着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中에는 日本軍의 捕虜로 된 者도 있었다。「두릿들」은 暴風雨속에서도 丘陵위에 不時着하였으나 長距離 飛行의 疲勞로 因하여 同乘員들까지 잃고 비틀거리면서 廢屋을 찾아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熟睡하였다。날이 밝아서 보니 그곳은 보릿짚이 깔린 조고마한 돼지우리어서 한마리의 커다란 도야지와 같이 잠을 잤던 것을 알았다。十四名의 塔乘員도 全部 無事하였다。無事히 「워싱톤」으로 歸還中 그의 不滅의 功勳으로 因하여 「루즈벨트」大統領으로부터 名譽勳章을 받았다。 그는 뒷날 「軍事史上 가장 勇敢한 行動의 하나」라고 感歎을 받았다。

當時 美國海軍은 太平洋에 空母 四隻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을 基地로 하여 「길바드」諸島와 「마샬」群島의 日本軍基地空襲을 敢行하였다。

日·美航母와 艦載機의 決定的인 戰鬪의 하나는 日本陸上部隊가 「뉴기니아」南海岸에 있는 「포트·모레스비」占領을 決意한 一九四三年 五月初였으며 珊瑚海 近方에서 行하여졌다。美國의 航母 「요크타운」과 「렉싱톤」 二隻도 掩護艦艇과 같이 航母를 包含한 日本海軍部隊와 交戰하여 敵을 沮止하라는 命을 받았다。 이 兩軍艦隊는 相互間의 交戰은 한번도 하지 않고 海戰에 새로운 樣式을 보여주었다。이 戰鬪는 航空機 對 航空機의 戰鬪로 끝

났기 때문이다。一九四二年 五月 七日 暴雨와 濃霧를 利用하여 奇襲하여온 日本航母 鳳翔은 擊沈되고 太平洋戰에서 最初로 잃은 日本航空母艦이 되었다。航空機間의 戰鬪는 翌日까지 繼續되어 日本航母 二隻이 擊沈되었으며 美國의 「렉싱톤」航母도 日本軍이 發射한 魚雷二發과 五發의 直擊彈으로 火災를 이르켜 沈沒되고 말았다。그러나 「포트·모레스비」侵攻의 威脅은 除去되고 「맥아더」將軍과 空軍司令官 「조지·케니」大將은 비로소 「오스트레리아」로부터 이곳으로 多數의 兵員을 空輸하게 되었다。

珊瑚海 海戰에서 直擊彈을 받은 「요크타운」은 損害를 應急修理하여 航母 「엔타푸라이즈」및 「호넷트」와 眞珠灣에서 合流하여 거기서 「밋도웨」로 進擊中인 日本艦隊를 迎擊할 것을 命받았다。

日本軍은 一九四二年 六月 三日 「밋도웨」島攻擊을 開始하였다。「밋도웨」島基地의 「카다리나」海軍 哨戒機隊는 戰艦、巡洋艦、驅逐艦、攻擊部隊를 실은 輸送船等 八十隻에 達하는 日本艦船이 「밋도웨」에 進攻中임을 探知하였으나 主力艦隊와 떨어져서 進攻中이면 日本航母는 探知되지 않았다。翌日 早朝、美國基地의 索敵機들은 四隻의 航空母艦에서 出擊한 日本軍 航空機의 大編隊를 捕促하였다。「밋도웨」의 美軍機들은 劣勢에도 不拘하고 果敢히 迎擊하여 早朝中에 日本機의 三分之 一을 擊墜하였다。

그間 「호넷트」와 「엔타푸라이즈」및 「요크타운」에서 出發한 美海軍 雷擊機隊들은 蝟集하는 日本艦船에 英雄的인 必死의 攻擊을 敢行하여 日本航母 三隻을 行動不能케 한 다음 그中 二隻을 擊沈시키고 나머지 一隻은 美國潛水艦에서 發射한 魚雷로 擊沈시켰다。

美國航母를 離艦한 雷擊機 四十一臺中 歸還한 것은 不過 六臺였으며 操縱士들은 저의 失神狀態에서 戰果報告도 不能하였었다。

이때 日本聯合艦隊司令長官 山本提督은 航空母艦 一隻을 남기고 多數의 飛行士를 잃었음에도 不拘하고 攻擊續行을 決意하였다。日本의 巡洋艦、驅逐艦 其他 掩護航空機群으로부터 된 戰列은 거의 無損害여서 다시 「요크타운」攻擊을 決意、마침내 成功하였다。그러나 美國의 航空機도 日本軍 最後의 航母를 決局擊沈시켰다。이렇게 하여 山本提督은 「밋도웨」島 占領을 抛棄하게 된 것이었다。小數의 美國人飛行士들은 分明히 太平洋戰爭의 戰局을 逆轉시켰다。日本軍은 四隻의 航母와 多數의 航空機、最精銳의 飛行士를 모다 잃었다。이때의 大損害를 補充하기 위하여 日本은 戰時體制下에 最大의 生産을 서둘렀으나 決코 成功하지 못하였다。

이때부터 史上最大의 生産補給을 主로한 必死的인 戰鬪를 十數個月 하였으나 亦是 이 海戰이 太平洋戰爭의 分岐點이 되었던 것이다。

日本 東京으로 이르는 第一의 길인 「카달카난」島에 對한 長期間의 爭鬪끝에 一九四三年 二月 九日 日本軍은 마침내 이 島嶼에서 驅逐되었다。이때 美海兵隊의 「콜세아」戰鬪機와 陸軍의 「B-17」이 勇戰하였다。

때를 이어 벌어진 東「솔로몬」海戰에서 美國航母 「와스프」가 魚雷攻擊으로 다음 「산타크루즈」海戰에서 美航母 「호넷트」가 各各 擊沈되었다。그러나 日本軍 亦是 六百 五十名의 操縱士와 多數의 輸送艦團을 잃었다。

一九四三年이 되어 戰局은 外面的으로는 不吉하였었지만 이미 計劃의 時代를 지나 美國은 生産에 活氣를 띠우고 「맥아더」將軍은 「오스트레리아」를 根據로 하여 새로운 戰鬪態勢를 整備하고 새로운 攻擊用 軍艦과 飛行機를 生産하고 새로운 搭乘員을 確保하게 되었다。

「루즈벨트」大統領과 「처칠」首相은 北阿弗利加作戰에서 成功한 後 「카사부랑카」에서 會談하고 英佛海峽을 橫斷하는 歐羅巴 反攻計劃을 完成하였다。

「아놀드」大將은 英國에 對하여 歐羅巴統合軍司令官 「칼·스파쯔」大將을 通하여 晝間爆擊의 實行可能함을 說得하고 英國의 航空機製造工場이 長距離戰鬪機를 生産하여 爆擊機의 作戰을 完全히 掩護할 수 있도록 할 것을 要請하여 왔다。北阿弗利加 作戰을 支援하기 위하여 英國本國基地의 重爆擊機隊와 戰鬪機隊를 分割하지 않을 수 없어 「루딸들」准將이 指揮하는 第十二空軍이 地中海에 派遣되었다。作戰計劃은 「스에즈」의 威脅에 對抗하기 위하여 一部 變更되었다。太平洋地域에 溫存되어 있던 「부렌톤」將軍 指揮의 第九空軍은 英國軍이 砂漠에서 「론델」將軍이 引率하는 獨逸 裝甲部隊와 對峙하고 있는 것을 援護하여 獨逸軍의 補給線을 切斷하여 功을 세웠다。

一九四三年에 이르러 聯合軍에게 차차 새로운 希望이 솟아나기 시작하였다。 B—29의 「하늘의 超要塞」機도 完成段階에 이르렀고 太平洋에서는 「비스말크」島 海戰에서 日本軍이 軍艦十隻과 滿載의 輸送船 十二隻을 擊沈시키므로써 「맥아더」將軍의 北進作戰의 最大의 障害가 除去되었기 때문이다。

美國의 힘이 奏效하게 되자 聯合軍은 各地에서 優位를 찾이하게 되었다。 陸軍과 操縱士의 訓練、 以外에도 一九四三年에는 八萬 五千 八百 九十八臺의 軍用機와 二十七萬 七千臺의 航空機用 發動機를 生産하였다。

一九四四年은 人類史上 일찍이 볼 수 없던 一年이 되었다。 全世界의 하늘은 美國의 軍用機로 完全히 뒤덮였다。 七個의 大洋에는 美國의 艦船이 遊弋하고 全世界의 聯合軍속에는 반듯이 美國軍이 混入해 있었다。

五千臺 以上의 美國製 航空機가 蘇聯으로 引渡되었다。 「F—39·에어로코브라」機、 B—25、 C—47 等의 飛行機等이 美軍 整備士들의 最終點檢을 받고 「알라스카」를 經由하여 「모스크바」로 出戰하였다。 一九四四年 봄에 이르러 「B—17」 「B—24」等은 獨逸本土攻擊을 開始하고 「F—51 무스탕」戰鬪機等은 獨逸攻擊을 위하여 八百二十五哩를 날라서 爆擊機隊의 掩護作戰에 參加하였다。

精密히 計劃된 바와 같이 六月 六日 强力한 聯合軍의 反攻이 開始되었다。 反軍機識別을 위하여 胴體에 白色의 「무늬」를 塗裝한 爆擊機、 戰鬪機、 落下傘部隊 輸送機가 曉雲을 뚫고 英佛海峽을 건너갔다。 「죠지·팟톤」將軍 指揮의 戰車部隊는 戰鬪爆擊機隊와 重爆擊機들과 「無電으로」 緊密한 連絡을 取하면서 怒濤와 같이 獨逸로 侵攻해 나갔다。

한편 太平洋戰線에서도 「맥아더」將軍은 「케니」將軍이 指揮하는 第五空軍과 協同하여 눈부신 活動을 繼續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島嶼가 占領되면 瞬息間에 「케니」將軍麾下部隊가 進擊해와

서 滑走路工事에 着手하여 다음 그곳에서 次期 攻擊目標를 위하여 索敵飛行에 나아갔다。

「마리아나」群島의 「사이팡・레니안・팡」諸島의 奪取로 因하여 日本軍은 重要한 據點을 잃고 말았으며 美國軍은 이곳에서 「B—29」에 依한 日本本土 爆擊의 準備를 하기에 이르렀다。

以上 三島嶼를 占領하기 위하여 美國軍은 巡洋艦、驅逐艦、補給船의 大艦隊와 大型航空母艦 八隻、小型航母 八隻으로 編成된 第五十八機動部隊를 投入하여 最大의 强引作戰을 行하였다。 一九四四年 六月 十九日 벌어진 最大의 作戰에서 日本軍機 三百六十六臺가 擊墜되고 美軍側의 損害는 四十臺였다。 美國 潛水艦은 退却中인 日本航母 二隻을 擊沈하고 이날 밤부터 追跡하여 翌日 午後까지 日本航母 一隻과 油槽船 二隻을 擊沈시켰다。

貴重한 「마리아나」基地를 出發한 「B—29」「하늘의 超要塞」은 이곳을 據點으로 日本本土 爆擊에 들어갔다。

三千哩의 往復飛行能力과 莫大한 爆彈搭載力을 가진 B—29爆擊機는 高度 二萬五千「피트」乃至 三萬「피트」上空에서 爆擊하였으나 當時 第二十空軍司令官 「카티스・리메이」將軍은 이 爆擊結果에 不滿하여、八千「피트」以下의 高度에서 夜間爆擊 할 것을 主張하였다。 때때로 暴風雨나 두꺼운 구름에 妨害를 받아서 골치를 앓은 塔乘員들은 高高度爆擊에만 訓練을 받아왔으므로 『敵戰鬪機의 活動은 날로 萎縮되고 있으며 低空飛行時 失手하면 友軍機를 射擊하는 念慮가 있으므로 尾部銃座 以外의 機銃는 全部除去하라』는 「리메이」將軍의 言明에 操縱士를 비롯한 塔乘員들은 적지 아니 唐慌하였다。 이와 같은 命令은 너무나 奇拔한 常規에 어긋나는 命令이라고 모다들 생각하였으나 結果的으로 効果있음이 發見되었다。 一九四五年 三月 九日以來 「하늘의 要塞」은 超低空爆擊을 敢行하였으나 여름에 이르러서는 敵의 反擊을 거의 받지 않았다。 이때부터 美軍機들은 次期의 攻擊目標를 알리는 傳單을 撤布하고 非戰鬪員의 待避를 警告하였다。

美國 海兵隊는 日本本土와 「아리아나」中間에 있는 硫黃島를 占領하고 損害를 받은 「B—29」나 操縱士들의 不時着陸地로 만들게 되었다。

沖繩上陸作戰時는 陸海空軍을 援助하기 위하여 「B—29」는 機雷를 投下하여 日本에 殘存하는 艦隊를 本土의 港灣에 封鎖하는 作戰을 行하고 爆擊을 中斷하였다。

日本軍의 航空機 性格을 美空軍은 當初 過小評價하였으나 막상 交戰해 본 結果 性能이 優秀함을 알았으며 高速度로 相當한 機動性이 있었다。 日本軍의 型式名과 無關係로 美空軍은 「벳티・케이트・토니・질・쟉크・푸랭크」等의 男子名을 부쳐 불렀다。

一九四五年 四月부터 日本軍의 「가미가제」(神風)特別攻擊隊의 自殺爆擊에는 聯合軍의 司令官 以下가 모다 唐慌 戰慄하였다。 命令一下 이들 日本機들은 처음으로 發見한 聯合國 艦隊로 向하여 自暴해오는 것이었다。 大型爆擊機에서는 美軍들間에서 「뚱딴지」라고 불리우는 魚雷型의 胴體에 尾翼을 달고 數秒間을 날을 수 있는 「로켓트」推進裝置를 한 特攻機를 發射하였다。 정말 氣分나쁜 人間爆彈이었다。 美軍機의 「와일드・캇드」「콜세아」「벤쟌스」「TBM」等은 日本의 「가미가제」特攻隊의 出發基地를 徹底的으로 攻擊하여 마침내 이 人間爆彈의 出發을 完全히 封鎖

하였다。 日本의 「가미가제」特攻隊로 因하여 三十六隻의 美國艦船이 擊沈되고 百六十四隻이 大損害를 받았다。

一九四五年 여름도 끝날무렵 「테니안」島를 基地로 하는 「B—29」의 一部隊는 精密한 爆擊練習을 위하여 每日 어디로인지 날라가곤 하였다。 그들은 그때 하루 十六時間의 苦鬪를 끝내고 歸還하는 「하늘의 要塞」操縱士들로부터 『無情한 사람들』이라고 빈축을 싸기도 하고 「道樂者」라고 빈정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八月 五日 이와 같이 神秘로운 訓練의 裏面은 마침내 밝혀지고 美國空軍의 「폴·테이빗드」大領은 工業都市 廣島에 史上最初의 原子爆彈을 投下하였다。 이어 九日에는 長崎에 二次의 原子爆彈이 投下되었다。

日本은 十日 마침내 終戰을 提議하였다。 이보다 三個月前 伯林도 陷落되고 「힛틀라」는 自殺하였다。 이때만하여도 獨逸航空機의 性能은 매우 優秀하였으나 結局 獨逸의 敗戰의 原因은 戰爭技術의 貧困과 政府高官의 失策에 起因한 것으로 보고 있다。

一九四五年 九月 二日 日本 無條件 降伏을 契機로 航空機의 눈부신 戰鬪活躍은 다시 休息을 찾아 中斷하였으나 航空機의 發達은 날이 갈수록 發展에 發展을 거듭하여 오늘날 無類의 「젯트」航空時代를 마침내 招來하고 만 것이다。

「젯트」時代의 到來

一九四三年은 大戰中이었으나 航空機 誕生 四十周年 記念日에 그때까지 生存해 있던 「라이트」兄弟中의 「오빌」은 그가 航空機를 發明한데 對하여 길이 後悔한다고 말하였다。 그것은 兩次의 大戰을 通하여 航空機는 무서운 戰爭手段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퍼스둥」式 航空機가 時速 四十二哩에서 四百哩까지 前進하는데는 숨쉴 餘暇를 주지 않았으나 그때부터 더 빠른 速度를 내는데는 첫째 새로운 燃料를 만들던가 둘째 새로운 推進裝置를 만들던가의 兩者擇一의 岐路에서 躊躇하였다。

一九四一年 「아놀드」大將은 戰時中 軍用航空勢力을 視察하기 위하여 英國을 訪問하였는데 英國은 이미 이때 「젯트」機의 研究에 相當한 進捗를 거두고 있었다。 精報에 依하면 獨逸에서도 相當히 進捗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놀드」大將은 英國軍 首腦者와 科學者들로부터 「젯트」機關의 靑寫眞을 받아서 歸國하여 卽時 「벨」航空會社에 對하여 發注하였다。

英國은 이보다도 앞서 一九四一年 五月 十四日 「그로스터」製單葉機에 「젯트」엔진을 裝置하고 最初로 飛行에 成功하였다。 「아놀드」大將이 처음으로 「젯트」機의 飛行을 본 一年後에 英國은 不過 三臺의 實驗機가 生產되었으나 一九四四年 이미 月產 四十臺를 生產하고 있었으며 歐羅巴戰爭이 끝나는 五個月前인 一九四五年 三月에 「아놀드」大將은 獨逸空軍中尉 한사람이 獨逸의 「ME—262」型 双發「젯트」機로 聯合軍側에 逃亡해 왔었는데 이때 伯林防衛에 獨逸은 「젯트」機를 出擊시키고 있음이 確認되었고 獨逸은 이미 一九三九年 八月 二十七日에 「포란드」侵入을 앞두고 「하잉켈」「HE 178」型에 「젯트」機關을 달고 있었음을 알았다。

初期의 生產「젯트」機中 「F—80·슈팅스타」戰鬪機는 速度記錄을 樹立하여 戰時中의 時速 四百哩에서 一躍 時速 六百二十四哩

까지 飛躍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四個年의 大戰中 一億八百一萬九千九百九時間을 飛行한 美陸軍의 各種航空機는 마침내 「젯트」機의 出現앞에 屈服하고 말았던 것이다。

韓國戰爭과 「젯트」航空機의 活躍

一九五〇年 六月 二十五日 共產軍이 南侵하였을 때 美國은 小數의 「슈팅스타 젯트」機와 「F—51・무스탕」戰鬪機 그리고 「B—29」爆擊機를 沖繩基地에 駐屯시키고 있었다。 韓國半島에 새로운 「MIG 15・젯트」機가 나올 때 까지는 이것으로 充分할줄 알았다。 그런데 蘇聯製의 이 「MIG 15」는 「슈팅스타」나 「F—51・무스탕」戰鬪機와는 到底히 敵手가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美國은 急速히 本國으로부터 「F—84・산더・젯트」와 「F—86・세이버・젯트」戰鬪機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때 史上最初의 「젯트」機 對 「젯트」機의 空中戰이 北韓上空에서 벌어졌다。 滿州國境附近의 高度 四萬「피트」上空에서 벌어진 이 空中戰에는 「유엔」軍側의 「F 86・세이버 젯트」機와 蘇聯製의 「MIG 15」戰鬪機가 猛烈한 戰鬪를 하였다。 美空軍 操縱士의 優秀한 技術과, 自動照準裝置 및 機關砲 發射速度의 優秀한 「F 86・세이버 젯트」機는 敵 「MIG 15」를 十二對 一로 擊墜하여 大勝利를 獲得하였던 것이다。

世界最初의 「젯트에이스」稱號는 「쩜스・쟈바라」小領에게로 돌아갔다。 그는 第二次大戰의 勇者였던 것이다。

一九五三年 韓國休戰이 成立될 때까지 「젯트」機의 歷史는 十五年이 되었었다。 實戰을 通하여 獲得한 「젯트」機의 弱點과 經驗은 그後 많이 改良되었으며 그로부터 不過 數年이 經過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젯트」旅客機와 「젯트」輸送機等이 앞을 다투어 速度記錄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젯트」機의 進步는 一步一步 許多한 難關을 뚫고 進展하고 있다。 머지않아 人間은 地上을 벗어나서 宇宙로 向하여 航空機의 威力을 誇示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 近 刊

政訓教育地圖 (93~4)

空軍政訓監室發行

〈短篇〉

土曜日의 挿話

鄭 麟 永

늦가을이 되어 일찍 어두어진 토요일 밤, 거리에는 채 아홉시도 되기 전에 약주가 거나해진 사내들이 눈에 띈다。

『그래 싫단 말이요?』

몸이 뚱뚱한 강태식은 진욱의 손을 잡으며 재쳐 다짐이다。

우연히 진욱은 다방에서 강태식과 마주쳐 간단히 약주를 나누자는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리를 같이 한 것이 진욱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상대방에선 먼저 취해서 강짜를 부리는 것이다。 진욱은 대심 심히 못마땅하고 불쾌하지만 묘한 자존심도 있고 하여 이런 때 발칵 화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예폔네도 김선생을 보고싶을련지도 모르죠。 오늘 참 우연히 잘됐소。 옛날에 열열히 사랑하던 애인

들 끼리가 아니였소? 내가 이렇게 개방적이구 이해성 있는 사내니까 괜찮아요。 우리 집에 가서 한잔 더 하구 그리구 옛정도 풀어보구려。 아직두 나보다 김선생을 더 사랑하고 있을런지 모르는 우리 처두 같이서……』

지나치게 달라붙는 강태식을 바라보며 진욱은 묘한 친구라고 생각하며 난색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김선생、산다는 것은 도박과 같을 수 있지요?』

강태식은 진욱의 팔을 잡은 채 무엇을 생각하는듯 하더니 갑작이 이런 질문을 했다。

『그렇죠?』

진욱의 대답을 재촉한다。

『산다는 본질을 캐보면 모두가 도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말이 떨어지자 강태식은 득의양양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김선생。』

강태식의 큰 얼굴이 진욱의 얼굴을 덮을듯 가까이 온다。

『제가 우리 집에 가자는 것을 거절했죠? 김선생이 어떤 심경이던 좋지요。 오늘 밤의 결과를 한번 걸어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수가 김선생에게 가면 자유로 나를 처분하고 그것이 내게 올 경우는 내 명령에 김선생이 복종하구……』

진욱은 잠서 머뭇거렸다。

『거리에서?』

어떻게 그런 도박이 거리에서 가능하냐는 질문이다。

『그렇지 거리에서 하죠。 화투나 카-드가 필요치 않고 자동차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제는 강태식도 갑자기 묘안이 나오지 않는지 망서렸다。

『자동차로 어떻게?』

진욱은 짐짓 망서린다。 갑자기 마음속에 자리하는 이상한 흥분까지 느낄 수 있었다。

『글세요 어떻게 할가?』

강태식은 아직도 선듯 생각이 미치지 않은듯 이마로 손이 갔다。

진욱은 스스로를 덤쳐오는 야릇한 흥분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자동차로 도박을 한다。 그것이 해인을 볼 수 있게도 할 수 있고 영영 보지 못하게도 할 수 있는 투기(投機)가 아닌가? 그실 달가운 작난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묘한 방법을 들고나서는 강태식의 웟트에 호기심이 갔다。 진욱은 생각해 보았다。 자기의 한 순간의 운명을 스스로의 이성과 자존심으로 억제하느니 보다 어떤

계기로 해서 난처한 경지로 옮겨들어 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illegible] 재미있는 것이 아니겠는가고。

강태식은 그제사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진욱의 어깨를 탁 칠였다。

『됐어! 됐어! 이렇게 합시다。』

진욱은 흥분을 가라앉히기에 무진 애를 썼다。 그가 일직이 경험해 보지 못한 흥분이 온 몸을 휩싸고 있었다。 그것은 바람처럼 그리고 파도처럼 밀려온 흥분이였다。

이 사나이가 어떤 도박으로 자기를 옭아 놓을련지는 모르지만 어쨌던 그 결과에 의해서 자기의 자존심이 살아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난처한 경지에 빠져버릴 수도 있지 않은가?

〈혜인!〉

진욱의 자존심과 지성이 자기의 존재이유가 될 수 있는 이 여자를 향해서 달려가는 절실한 본능을 억제했고 재단해온 것이 아니였던가。

이런 억제와 재단력이 이제 와서 강태식이란 사나이가 제의한 도박에 움힐 줄이야……。

〈결과를 따라가 보자。〉

진욱으로선 일종의 자포자기에 가까운 결심이 생겼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도박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새로운 정신적인 벽(壁)을 직면하게 될련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진욱이 아니다。

『어떻게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지……。』

차를 세우기 편리한 곳까지 걸어온 진욱은 강태식의 얼굴을 뚜려지게 쏘아보며 물었다。

〈이제부터는 싸움이군!〉

강태식의 대답을 기다리며 진욱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두 사람의 의사를 결기로 합시다。 바로 이자리에서。』

강태식은 이 놀음에 무척 흥미와 기대를 갖는듯 술주정군과는 달리 딴 사람처럼 되어 있다。

『의사를 거는 것이 아니라 건다면 서로의 자유를 거는 것이겠지요。』

진욱도 상대방의 대답을 기다리며 이렇게 말했다。

『의사든 자유든 다 좋지않소? 서로 약속을 합시다。 첫 자동차가 손을 들였을 때 우리앞에 와서 서면 김선생이 우리 집에 가고 서지 않고 지나쳐 가면 자유이고 ……。』

진욱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역시 바보는 아닌 녀석이구나 하고。

『그렇지만 너무 간단하군、첫 자동차로는……。 그러지 말고 다섯번째의 자동차로 정합시다。 기다리고 초

조해 하는 맛도 있으니까。』

『하하하…… 김선생은 나보다 좀 복잡하군…… 그래도 좋지。 아무려나 그럼 저기 오는 차부터 다섯번째의 자동차……』

그들은 서로 웃었다。 조금전까지 싱강이를 하던 표정과는 전혀 다른 표정을。 그들은 서로의 의사를 아니 자유를 다섯번째의 자동차에 결고 차도 옆에 서 있다。

『하나! 둘。…… 셋。 넷。……』

그들은 같이 세기 시작했다。

다섯번째의 차가 오자 그들은 일시에 손을 들었다。

그러나 차는 휙 지나쳐 버렸다。

진욱은 자기도 알 수 없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했다。 그러나 그 다섯번째의 차는 십여미터를 지나쳐 급정거를 했다。

진욱은 등골이 서늘했다。 십여 미터를 지나쳐 선 시발택시에서는 손님이 내리고 있었다。 강태식은 진욱을 쳐다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 웃음은 이미 자기가 진욱의 자유를 소유해 버렸다는 만족의 그것이다。

손님을 내려놓은 시발택시는 뒷거름질로 진욱과 강태식의 앞까지 닥아왔다。

『타십시요!』

강태식의 말이 아니라 문을 열고 얼굴을 내미는 운전수의 말이다。 이말이 진욱의 귓속에 화살처럼 와서 박혔다。

〈옮혀버렸구나!〉

다음 순간 혜인의 얼굴이 그의 머리속에 가득히 잠겨 있는 것 같았다。

『김선생 내가 이겼읍니다。 싫겠지만 김선생의 자유는 내것입니다。 아니 내것이 아니래도 좋지요? 김선생의 자존심과 지성이 이제와서 번복을 하지는 못하겠지요。』

강태식은 의기양양하였다。

진욱은 할 수 없이 차에 올랐다。 서로의 신용을 건 결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진욱은 이미 체념하였다。 그러나 가지 않겠다는 그의 자존심이 이제는 새로운 현실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해야만 했다。

강태식이 지시하는 대로 차는 달리기 시작했다。 진욱은 입을 열지 않았다。 뒤룻손에 깊이 파묻힌채 시선을 움직이지 않았다。

『김선생!』

운전수 옆에 앉은 강태식이 싱글벙글 웃으며 진욱을 돌아봤다。

『왜 그렇게 심각하시요? 옛날 애인을 만나러 가는

데!』

제법 농조로 진욱을 괴롭히고 싶은 모양이었다。

『장난이 아닙니다。』

진욱은 강태식의 이러한 농이 불쾌했다。

『김선생은 값싼 장난에 옮혀들였죠?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강하고 고지식한 인테리를 좋아하거든。 어쨌든 다들 정직하고 순진하니까、하하……。』

진욱은 속에서 칵 치미는 분노를 참았다。 차라리 대답을 안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했다。 그 하찮은 도박에 걸려 아무말도 못하고 끌려오는 진욱을 가련하다고 생각할 강태식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불쾌하기 짝이 없다。 당장이라도 차를 세우고 내리고 싶었다。 그러나 강태식의 말과는 달리 진욱은 그의 자존심까지 건 도박이 아닌가? 박빤의 확률을 가졌든 이 도박에서 우연히 진 자기가 무엇을 내세울수 있단 말인가。

차는 어두운 밤거리를 쏜살같이 달린다。 차가 혜화동을 돌아 으슥한 골목길로 접어들자 강태식은

『자! 이제 다 왔읍니다。 저 집안에 술도 있고 김선생의 옛날 애인도 있읍니다 하하……。』

그는 차를 세웠다。

진욱은 강의 뒤를 따라 층층대를 올랐다。 이층 양옥대문에서 강태식은 초인종을 울렸다。 안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진욱은 자기도 모르게 뒷거름질 쳐 한 계단 내려서고 있었다。

식모인듯한 계집애가 대문을 열었다。 대문을 들어서며 강태식은 안을 향하여 큰소리로 외쳤다。

『여보! 손님이 오셨어。 아주 반가운 손님이 오셨단 말야!』

접은 이층 양옥。 페커 보였다。 정원에 선 상록수들이 푸른 현관등빛을 받아 환히 보였다。

『김선생! 우리 집입니다。 어서 들어 오시요。』

대문을 들어서서 엉겨추춥한 진욱에게 강태식은 의미있는 눈짓을 해가며 들어 오기를 재촉한다。

현관까지 나온 혜인은 문을 열고 어서 들어 오라고 했다。 자기 남편의 친구려니 생각하고 그저 이렇게 응접하는 것이다。 그러나 얼굴에 붉은 홍조를 뛰운 강태식이 혜인과 뒤에서 머뭇거리는 진욱을 번가라 바라보자 이상한 예감이 든 혜인은 현관문 밖으로 걸어나오며 강태식에게

『또 취하셨군요! 손님을 모시고 왔으면 좀 정신을 가다듬어 봐요……。』

하며 자기가 응대하려는듯 몸을 앞으로 굽혔다。

『어서 들어 오세요!』

인사를 하고 돌처럼 서 있는 진욱의 얼굴과 마주친 혜

인의 얼굴은 금시 굳어졌다。

아까부터 강태식은 이제 그의 눈앞에 닥쳐올 혜인과 진욱의 당황해 하는(?) 아니면 놀라운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진욱은 진욱대로 앞으로 닥쳐올 평범한 사실에 몸을 내 맡기듯 빳빳하게 서 있었다。

그러나 강태식은 저윽이 실망하였다。 약간 당황해 하는 것은 그의 처 혜인일뿐 진욱은 돌처럼 무표정하지 않은가。

『어서 들어 오세요!』

혜인은 강태식을 현관안으로 밀어드리며 진욱에게 재삼 들어오기를 권했다。

『안녕하셨읍니까?』

그제사 진욱은 혜인에게 묵례를 하고 들어섰다。

진욱은 넓은 응접실에 안내 되였다。 응접실은 이집 주인의 사람 됨됨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장식되어 있였다。 쏘ㅣ파의 카ㅣ바나 창폭에 드리운 커ㅣ틴의 빛갈이 점잖을 뿐 아니라 벽에 붙은 한폭의 그림까지도 상당히 교양이 있는 것이였다。 야하지 않고 어딘지 모르게 둔중한 품위가 풍기게 꾸며져 있었다。 진욱은 여기에서 혜인의 옛날 웃음과 목소리를 느꼈다。

코ㅣ트를 벗어던진 강태식은 쏘ㅣ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마침 밖으로 나가려는 혜인을 불러 들였다。

『나가지 말고 좀 앉아요。 반가운 손님을 모셔왔는데……』

그는 짓궂은 웃음을 띠우며 두사람을 번갈아 쳐다본다。 혜인은 좋지 않은 눈초리였다。 이런 눈초리가 자기에게 던져지는 것이라고 알았는지 강은 벌떡 일어서며

『술이 있지? 이 김선생도 약주를 아주 좋아하는군 그래。 술 같은건 안마시는 분 같은데 아주 대단해。 술상부터 보아 오도록 해봐!』

혜인은 말없이 앉아있는 진욱에게 종잡을 수 없는 복잡한 시선을 보냈다。

진욱은 시종 난처한 자기 존재를 생각하고 있다。 혜인은 돌연히 밤중에 찾아온 이 옛 애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진욱과의 사랑의 그림자까지도 그녀의 가슴 어느 구석을 훑어 본들 조금이나마 남아 있겠는가?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난지 사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그동안 혜인이 남편 강태식과의 결혼생활에 말끔히 빨려들어가 있다면 진욱의 존재는 그에게서 재가 되어버렸을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러나 강태식의 오늘밤의 행동은 무엇을 뜻하는가? 혜인이 아직 진욱을 잊지 못해 함을 눈치채고 있다면 강태식이란 위인이 진욱을 집까지 억지로 데리고 올으로써

혜인을 괴롭히려는 것인가? 아니면 옛날 혜인과 결혼할 때 뺀 진땀의 보복으로

〈이제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산 현실을 진욱에게 보여줌으로써 승리자로서의 쾌감을 맛보려는 것인가.

진욱은 아직 어느쪽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 하찮은 도박 그 시발택시만 지나쳐 갔던들 이런 어색한 자리로 끌려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진욱은 이미 결정지워진 이 결과를 탓하거나 불쾌해 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의 인격과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한 도박. 그 도박에 져서 이렇게 혜인의 앞까지 와야만 했을 뿐이다. 스스로의 위치가 난처해지자 진욱은 아까 명동 입구 거리에서 다섯번째의 차를 세우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았다.

그 아슬아슬한 초조로움, 그러나 이 초조로움속에는 혜인과 만나야 한다는 감정은 없었다. 자기 의사가 강태식에게 옮히느냐 아니냐! 하는 실로 단조로운 초조함이었다.

강태식과 혜인은 나란히 앉아있고 그 마주편 의자에 진욱이 앉았다. 그들의 앞에 있는 작은 탁자위에는 양주 한병과 마른 안주가 있다. 진욱은 앞으로 전개될 일이 궁금했다. 혜인은 시종 시선을 내리깔고 있다.

『원 처녀 갈이 얌전한걸 다 보겠네. 다 김선생님 덕분입니다.』

술을 따르라는 강태식의 말이었다. 이미 강태식은 혜인에게 진욱을 집에까지 데리고 온 경로, 애로를 죽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 혜인에게 그의 잔을 돌린다.

『이렇게 허물없이 찾아주어서 고맙습니다.』

그제사 혜인이 처음으로 진욱에게 한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혜인의 얼굴에 쓸쓸한 물결이 일었다.

『강선생이 들으시면 좋아하지 않겠지만 그실 오고싶지 않았읍니다. 올 이유나 필요보다도 그럴 매력이 없었지요. 그런데 약주가 높으신 강선생께서 웬 일인지 꼭 나를 데리고 와야 시원해서 야단이였으니까…… 결국은 내가 도박에 진거죠, 도박에서……』

진욱은 도박이란 말을 두번씩이나 하며 말끝을 흐렸다. 진욱은 그들 내외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강태식은 자기를 쳐다보는 혜인의 날카로운 시선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진욱에게 담배를 권했다. 진욱은 그의 담배를 거절하고 자기 담배를 꺼냈다. 이들의 수작을 바라보는 혜인은 금시 표정이 변하였다. 무슨 기다란 과도같은 것이 그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기나 한것처럼 크게 숨을 쉬고는 술컵을 단숨에 비웠다. 진욱은 눈이 휘둥그래졌다. 혜인에게서 받아 쥔 술잔. 그 술잔에 술을 따르는

혜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다。 진욱은 이런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런지 쉽게 생각되지 않았다。 조금전의 강태식의 말、

〈술같은건 마실 것 같지 않은데 아주 대단하셔〉

진욱은 속으로 픽 웃음이 나왔다。 진욱이 술군이란 것은 혜인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막연하나마 암시한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김선생 이렇게 와 주셔서、 아니 오게 돼서 참 좋습니다。 오늘 저녁엔 이렇게 우리 셋이서 마음껏 마셔 봅시다。』

『마음껏?』

진욱의 대답을 가로 막는 혜인。 강태식을 향한 그녀의 야유 비슷한 말의 액센트를 진욱은 금시 캣취할 수 있었다。

『그렇지、 마음껏 마셔보잔 말이야! 이 김선생두 오셨고 나도 오늘밤은 각별히 기분이 좋은데?』

혜인은 술잔을 또 비웠다。 이번에는 강태식에게 술잔을 돌렸다。 그들은 양주 한병을 다 비웠다。 강태식은 쏘—파에 몸을 깊이 묻고 주는대로 받아 마셨다。

혜인도 독한 양주를 너덧잔이나 마셨다。 그녀도 술기운이 오르는지 자기 몸을 억제하는 노력이 역역히 진욱의 눈에 띄였다。 진욱은 이들 주인에게 무슨말을 해야 할것 같았다。 지금껏 별 말도 없이 주는 술만 받아 마시고 앉아 있는 자기 자신이 한없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혜인을 보았던 순간부터 아직까지 조금도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은 자기 자신이 알밉도록 이상하기도 했다。 아무리 그동안 사리에 따라서 그녀를 체념하고는 있었지만 옛날의 아기자기한 그리고 비둘기처럼 따뜻하게 안기던 혜인이란 여자。 그 실체가 눈앞에 있는데도 조금도 마음의 동요가 없다니……

진욱은 비로소 자기가 혜인과 사랑하던 때의 자신과는 상당히 변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진욱과는 전혀 상관 없는 여자。 마치 백화점 여점원 처럼 진욱에게는 거래가 끌난 여자라고 생각되였다。 물건을 살 때 서로 얘기하고 웃던 여자。 그 웃음이 아무리 유별나게 아름답고 지나치게 친절했다고 하드래도 거래가 끝나면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

이미 그 실체와의 과거로 해서 애매해질 수 없다고 그리고 그 과거의 기억들이 이제 딴 남이 된 마당에 와서 진욱을 어쩌지도 못한다고……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진욱은 자기의 존재가 좀 떳떳해진 것 같았다。

『두분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진욱은 강태식과 혜인을 바라보며 더없는 미소를 던졌다。

『행복하게 보이죠。』

혜인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애매한 대답을 했다。

강태식은 갑자기 쏘—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물론 행복해 보이죠。』

그의 결음 결이는 비틀거렸다。 상당히 취해 있을거다。 그러나 진욱의 앞이래서 인지 조심하는 기색이다。 그는 젠축을 틀었다。 조용한 음악이 일시에 취한 방안에 하나 가득찼다。

『자! 혜인씨!』

강태식이 비틀고 서서 손을 벌렸다。 천한 제스추어까지 흘리며。 진욱을 힐끔 훑어본 혜인은 빨갛게 물든 얼굴에 미소를 띠우고 일어섰다。 그들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춤을 추고 있는 것인지 혜인을 잡고 몸을 비틀거리고 있는 것인지 분간키 어려운 춤이다。 그래도 제법 스탭을 정확히 떼놓는다는 혜인의 발에 강태식의 발이 걸려 곤했다。 이와는 반대로 강태식의 발이 헛나갈 때는 그들은 서로 끼어안은채 쓸어질듯 쓸어질듯 했다。

『이렇게 곤드래 취해가지고 춤은 무슨 춤을 춘다고…』

혜인이 강태식의 팔을 뿌리치려 했으나 강태식은 들지 않았다。

『저 김선생도 와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정하게 산다는 것도 보여드려야 할게 아냐。』

진욱은 꺼리낌없이 픽 웃었다。 이 웃음을 본 혜인은 발끈 화가 난 모양이다。

『글쎄 취했다니깐, 그만 두어요。』

혜인은 강태식을 억지로 끌고 쏘—파에 앉혔다。

『내가 뭘 취했다구 그래。』

강태식의 말투가 제법 노기에 찬 것이었다。 그리곤 혼자 술을 따라 마시기 시작했다。

순간에 지나지 않으나 진욱의 침묵과 조소가 혜인의 얼굴을 덮치는 것 같았다。 남편 강태식의 언동을 진욱은 능히 경멸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니 혜인은 그런 진욱과 강태식 사이에서 정말로 난처했다。 혜인은 혼자 술을 따라 마시고 있는 강태식을 물끄럼히 쳐다본 다음 순간 진욱쪽으로 눈을 말끔히 뜨고 시선을 걷우지 않았다。 어쩌면 혜인의 이 시선은 자기 남편의 몰지각하고 무교양한 언행을 너그럽게 봐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결에서 시달려야하는 자기 존재를 불쌍하게 생각해 달라는 뜻인 듯도 했다。

『여보 김선생』

혼자 술을 따라 마시고 있던 강태식이 진욱을 불렀다。 진욱은 그를 주목하였다。

『오랫만에 만난 김선생을 당신이 좀 잘 대접해 드리구려』

혜인이나 진욱은 다같이 강태식의 이런 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고 어리둥절했다.

강태식은 몽롱한 눈가에 웃음을 띠우고 두사람을 바라보았다.

『여보 나는 술이 취해서 비틀거리니 틀려먹었어, 안그래? 그러니 김선생과 비틀거리지 않는 김선생과 한 스탭 해보란 말이야. 이 김선생은 아무리 술이 취해도 결음결이가 빳빳하지 하하하……』

그제사 진욱은 강태식이 한 말의 뜻을 알았다.

혜인은 말없이 진욱을 건너다 본다. 진욱은 낙처했다.

혜인과 어떻게 춤을 춘단 말인가?

강태식은 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몸을 앞으로 일으켜 혜인의 손을 진욱에게 대밀게 했다.

『김선생 실례는 아니겠죠? 외국같으면 예사라는데 김선생같은 인테리는 다 이해할 테니까!』

혜인이 먼저 자리를 일어섰다. 진욱에게 엷은 미소를 보내며 일어섰다. 진욱은 잠시 망서렸다.

〈혜인이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 김선생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실험을 해 볼시다.〉

강태식이 술을 마시며 집에 가자고 한 이말이 진욱의 등을 누르는것 같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진욱은 주저없이, 그러나 몸짓만은 점잖게 일어섰다. 그들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내부에 있는 의지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혜인이 백화점의 여점원의 존재로써 그와 관련되어 있는 까닭이었다.

진욱은 혜인을 가볍게 잡고 스탭을 밟기 시작하였다.

『언제 춤까지 배우셨어요?』

혜인이 진욱에게 닥아서며 한 말이었다.

『혜인씨가 배웠듯이 나도 배웠을 뿐이죠.』

몇결음 스탭을 옮기며 진욱은 싸늘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돌아갔다. 강태식은 이들의 모양을 바라보며 쉴사이 없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흡사 발악하듯 마셨다. 진욱과 혜인이 춤을 추기 시작하자 그는 쉴새 없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푸른 전등 불빛에 혜인의 얼굴은 윤이 흐른다. 술기운이 오른 붉은 얼굴에 푸르스름한 빛갈이 혜인을 한층 곱게 비추고 있다.

『왜 그렇게 조용하세요?』

『할 얘기가 없소.』

『저 때문에요?』

『아니.』

『그럼 왜 오셨어요?』

『아까 강선생이 얘기했잖았소?』

『그런 이유라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을텐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지요……』

혜인은 말을 끊었다。 진욱의 얼굴을 쳐다본다。 혜인의 시선이 진욱에게 엉뚱한 의미를 주는 것 같다。

『혜인씨와는 상관없고 오직 그 순간의 내 자존심과 판단력만을 고집하지 못하게 하는 강태식이란 남과의 타협이었지。 아마 그 다섯번째의 차가 쉬지 않았드라도 혜인씨의 낭군은 나를 귀찮게 했을거야……』

『……』

『그 다섯번째의 차가 쉬고 난 다음에사 나는 혜인씨를 만날 것이라는 생각이 났어。』

『그렇게 잊으셨어요? 미워하세요?』

『아니 잊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체념한 것이지……』

진욱의 입은 말이 끝날 때마다 꽉 닫혔다。 혜인은 차츰 긴장과 함께 이상하게 속박되는 것 같았던 감정이 풀리는 것만 같았다。

진욱과 혜인이 춤을 그치고 돌아섰을때 강태식은 빈 양주 병을 둘 씩이나 앞에 놓고 잠이 들어 있었다。

『골아 떨어졌군』

『많이 마신데다 좀 떠들곤 한 다음이면 저렇게 아무데서나 골아 떨어져군 해요。 온통 정신이 없어요。』

혜인의 설명을 들으며 진욱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김선생님은 술이 세신가 봐……』

『……』

『저이가 저렇게 되도록 마셨으면 보통 같이 취하는 모양인데 김선생은 취한 기색이 전혀 없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눈이 좀 무섭다구나 할까 호호……』

혜인은 상기된 얼굴에 수집은 웃음을 흘리며 다시 술병을 하나 더 내놓았다。 진욱은 묵묵히 흡사 노한 사람처럼 혜인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혜인은 술병을 들고 무슨 말을 하려는듯 눈을 깜박거렸다。 그러나 진욱의 시선과 마주치자 생긋 웃었다。 그 웃음은 부끄럽고 난처하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술을 더 드세요 좀 취해보세요。 저도 취해보고 싶어。』

이야기인지 책을 읽는 것인지 분간키 어려운 악센트가 없는 혜인의 말。 그러면서 혜인은 술을 따라 진욱 앞에 놓고 자기 잔에도 따루었다。

진욱이 술잔을 들고 강태식의 골아 떨어진 쪽을 웃으며 바라본다。 그 순간 저 사나이가 얼마나 무관심하고 자신의 궁지와 소유와 정신력을 육체적인 피곤으로 해서 내던져버리고 있는가?

진욱의 웃음을 따라 혜인도 동감이란듯이 눈웃음을 쳤

다。

진욱은 반사적(反射的)으로 혜인의 이 눈웃음을 불쾌하다는듯 묵살해 버렸다。

얼마동안이 별말 없이 지났다。

혜인은 이렇듯 끔짝 않고 앉아서 냉수를 마시듯 독한 술을 더러키고 있는 진욱의 핼쑥한 얼굴을 지켜보고 있다。 그 날카로운 용모。 꽉 다문 입。 그 입 속으로 빨간 액체가 들어가고 나면 다시 움직이지 않는 입술。 이런 진욱의 입술에 꽃피고 있는 알 수 없는 대화를 읽고자 무진 애를 썼다。 하긴 옛날부터 진욱은 말이 적은 편이긴 했다。 서로 사랑하고 겨이 날마다 만나면서도 사랑한다던가 좋아한다던가 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던 진욱이 아니였던가。

『좀 약한 술이 없소?』

『왜요、취하실것 같아요?』

『아니 정반대의 뜻이야。 좀 취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약한 술은 맥주 뿐이야요。』

『그거 됐소。 적격이지。 이렇게 독한 술 위에 맥주를 마시면 취하게 되는거요。 좀 취하고 싶어!』

혜인은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맥주 병이 몇개 날려왔다。

어느듯 진욱 앞에도 빈 맥주 병이 몇개 느려섰다。 진욱은 땅 속으로 가물 가물하게 가라앉아가는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있다。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저만치 마즌 편에 골아 떨어진 강태식이 가물 가물하게 보이는 것 같다。 그의 시야에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것 같았다。 착잡되는 거리감(距離感)。 진욱은 이제부터 자기도 취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막연한 본능(本能)의 열기(悅氣)에 빠져 들어가고 있지는 않았다。 이런 취기에서도 자기의 긍지와 판단력을 정확하게 잡고 느려지려는 집념(執念)에 사로잡히고 있었다。

혜인도 술기운이 얼얼한 양 쏘—파에 몸을 깊이 파묻고 있다。 빨갛게 상기가 된 그의 얼굴을 진욱은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진욱의 시선을 느낀 혜인은、열적게 웃었다。 그리고 골아 떨어진 강태식 쪽으로 시선이 옮아간다。

『일종의 열등의식일거야요。 중학교 밖에 못나왔다고 해서 꼭 그러란 법은 없지만。 돈은 많지만 사고방식이 유치한 편이야요。 돈을 버는 이외의 상식이나 지식은 없어들은 풍월 정도지요。 그래서 아마 그럴거야요。 김선생을 만났을 때도 그런 인격적인 열등감 때문에 상식 이하의 강요를 태연하게 할 수 있었을 거야요。』

진욱은 목석처럼 앉아서 듣고 있다。 혜인의 이야기 소리 속에는 하소연 같은 아니면 얇은 탄식과도 같은 체념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나한테 미안한 생각을 가질건 없어요。』

진욱의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듯 혜인은 망서렸다。

『강태식씨가 나를 강제해서 이곳까지 데리고 왔다는거 말입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였어요。』

『그럼?』

진욱은 당장 후회했다。 그럼 어떤 뜻에서 혜인은 이렇게 자기 남편의 사람 됨됨을 체념같은 목소리로 얘기했단 말인가?

혜인의 젖은 듯한 눈과 마주치자 진욱은 정신이 확 났다。 몽롱한 꿈에서 깨어난 사람같았다。 반사적으로 시계를 봤다。

『늦었는걸…… 이제 이만 실례해야 겠어요。』

진욱은 벌떡 일어섰다。 몸이 공중에 뜨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가까스로 가누었다。

『취했군!』

진욱은 중얼거리며 빙그레 웃었다。

『주무시고 가세요。 늦었는데!』

혜인이 딸아 일어서며 아쉬운듯 정색을 하고 진욱을 쳐다본다。

진욱은 다시 혜인을 바라보고 빙그레 웃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진욱은 스프링을 걸치고 조심스럽게 그 방을 나왔다。 혜인도 따라 현관까지 나왔다。

『주인한테 미안하군。 인사두 없이 돌아가서……』

진욱은 댓문을 나서며 뒤따르는 혜인의 눈치를 살폈다。

『밖에 나오니까 공기가 참 좋네요。』

혜인은 심호흡을 하며 딴 전을 폈다。

『자! 들어가세요。 주인이 깨서 찾을런지도 모르니까。』

『김선생님!』

진욱이 돌아서려는 순간 혜인이 새삼스레 진욱을 불러 세웠다。

현관등 빛에 혜인의 눈이 유난히 초롱초롱하다。 진욱은 혜인 앞에 닥아 섰다。 한동안 말없이 얼굴을 서로 디려다 봤다。

『오늘 재수없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 기뻤어요。』

잠자기 혜인은 이런 말을 했다。 진욱은 혜인의 얼굴을 디려다 볼 뿐 말이 없다。

『뭘 생각하세요?』

혜인이 한결음 더 다아서며 다시 말을 걸었다。 진욱은 묵묵히 혜인의 얼굴을 쥐고 가볍게 그녀의 입술을 스쳤다。 그리고 독백하듯 중얼거렸다。

『여자는 다 창부와 같은 일면을 그 본질 속에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지!』

이 말이 끝나자 진욱은 술 먹은 사람답지 않게 확 돌아서서 골목길을 걸어 나갔다。 진욱의 말을 당초에는 어리벙벙하게 듣고 있던 혜인도 제 정신이 들자 무엇에 덜미를 잡힌 사람처럼 현관 문을 열고 집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냉수를 찾는 남편 강태식의 벼락같은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체 그렇게 도도하고 잘난체 하면 누가 알아주나?〉

이런 생각이 혜인의 머리 속에……。 그리고 진욱은 골목길을 빠져나가면서 제법 취한 사람답게 일부러 걸음걸이를 헐으리고 있었다。

〈이게 도박에 걸어서 얻은 오늘 밤의 내 생활이란 말인가?〉

진욱은 쓴 웃음을 웃었다。 통행금지가 가까운 거리를 그는 터벅 터벅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집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는 하루 밤을。 그리고 여자가 있어야 했다。 지폐와 바꾼 여자의 웃음이라도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내일은 일요일이라는 것을 새삼스레 생각하며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끝〉

꽃들의 속삭임

개나리(Golden bell)＝잃어버린 사랑。

고사리(Bracken)＝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팔꽃(Pharbitis)＝기쁨。 그대 그리워。

담쟁이(Ivy)＝결혼합시다。

따리아(Dahlia)＝변하기 쉬운 마음。

藤(Cane)＝나그네여 내게로 오라。

라이락(Lilac)＝젊은 그날의 추억。
赤色—내마음은 그대의것。
白色—서로 사랑합시다。

梅花(Plum-blossoms)＝潔白、貞節、高潔。

勿忘草(Forget-me-Not)＝진실한 사랑 참된 그대 나를 잊지마세요。

민들레(Dandelino)＝내사랑

그대에게。

배꽃(Pear)＝보고파

칸나(Canna)＝**忘憂**、疑惑
黃色—영원히

☆ ☆ ☆

〈歷史小說〉

雉岳山夜話

洪 銀 杓

잡초 우거진 궁터

고려 오백년의 사직도 가지가지의 비극을 연출한뒤 드디어 망하고 신흥 이조가 욱일 승천의 기세로 일어남에 여조의 충신들은 나라 망한 뒤 절의를 지키어 이조의 벼슬을 결사 거부하고 혹은 두문 불출하고 혹은 배소에서 통원의 글을 보냈던 것이다。

이태조 사년 가을의 일이였다。

송악산 기슭 만월대(滿月臺)에는 가을이 짙어 욱어진 잡초 사이에서는 벌레우는 소리만 처량하였다。

세 사람의 선비가 만월대 섬돌에 걸터 앉아 저 마다의 통분애절한 심사를 어찌할 바 몰라서 말없이 긴 한숨만 쉬는 것이였다。

한 사람이 일어 서서 목동의 피리 소리 들려오는 서쪽 기슭을 바라보았다。그는 이윽고 한 수의 시조를 소리 높여 읊조렸다。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도 추초로다。
오백년 왕업이 목적에 붙였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또 한 사람이 일어나며、

「고려 망한지 이미 사년! 잡초 욱어진 옛 궁터에서 그대 원천석(元天錫)이 한 사람 슬퍼한들 무엇 하겠는가?」

하며 시조 읊은 사람의 등에 손을 얹었다。

「그러나 목은(牧隱)! 여조 오백년의 사직이 그렇게 쉽사리 무너져야 옳단 말이오?」

하는 시조 읊은 사람의 말에 또 한 사람이、

「간악한 벼슬아치가 뒤끓는 판국에 나라도 백성도 저 바리고 저 하나만의 부귀와 공명을 낚기 위하여 나라 안을 어지럽게 하고 있을 때 여기에 새 나라를 탐내는 사람이 있으니 어찌 망하지 않겠소。야은(冶隱) 그렇지 않은가?」

며 다른 한 사람을 바라 보았다。

「그러하옵니다。목은 스승님! 계집에게는 두 지아비 없으며 신하에게는 두 임금 없다 하였아온데 고산 이존오、포은 정몽주 스승님의 훌내는 못낼망정 정도전(鄭道傳)이와 같이 두 임금을 섬겨서 부귀 공명을 도말아 누리는 패도 있으니 가엾기 한량 없는 것은 백성 뿐인가 하옵니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말하며 두 눈을 꾹 감았다。

시조를 읊은 사람은 운곡(耘谷) 원천석、또 한 사람은 목은 이색(李穡)、다른 한 사람은 야은 길재(吉再)였으니 오래간만에 망한 나라 옛 궁터에서 만났던 것이었다。

최형(崔瑩) 정몽주(鄭夢周) 같은 기둥이 쓰러진뒤 여말의 충신을 잃은 두 사람은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굳게 문을 닫은 뒤에 이색은 긍천(矜川)에서 여흥으로 여흥에서 다시 장흥(長興)으로 기나긴 세월을 귀양살이에서 지치고 말았으며 원천석은 고려가 서산 낙일처럼 기울어져가매 강원도 원주 치악산(雉岳山)속에 파묻혀 내 손으로 밭갈아 늙은 양친을 봉양하고 후진들을 훈도함에 겨를이 없었던 것이었다。

길재는 스승되는 이색을 향하여、

「목은 스승님! 스승님께서 귀양살이 하시는 동안에 이

성계(李成桂)는 운곡 스승님에게 사람을 몇 차례나 보냈으나 끝끝내 지절을 꺾지 않으시고 두문 불출하셨답니다。」

하는 말에 이색은

「이성계가 운곡과는 죽마의 벗이라 원천석의 사람됨됨이를 잘 알고 있으니까 꼭 등용하려고 했던 것이 틀림없소。 그렇지 않소 운곡!」

하며 원천석을 바라보았다。

원천석은 침울한 얼굴로、

「목은! 이번에도 이성계가 내게 벼슬을 주겠노라고 사람을 보내지 않았겠소?」

하는 말에 이색은 놀랜 얼굴로、

「그러면 운곡 원천석이가 벼절을 하여 이성계를 섬기게 되었단 말이오?」

하고 원천석을 원망스러운 듯이 바라보았다。

「하하하하 목은! 목을 매어 끌어온들 이성계의 벼슬을 받을 나이겠소? 이번에 나온 것은 단순히 목은 공의 소식이 궁금하여 나왔던 것이요。」

하는 원천석의 말에 이색은 말하였다。

「그러면 그렇지 운곡의 마음이 변할리가 있겠소。 나도 이성계와는 두터운 교분으로 그 사람이 태조가 된 뒤에 내게 벼슬을 주겠다고 사람을 여러번 보냈으나 주는 감투를 마다한 죄로 귀양살이도 살만큼 살았소이다。」

「귀양살이에 얼마나 고난을 겪으셨소이까?」

「귀양살이 쯤이야 고생이랄게 있겠소。 이제 머지 않아 주검이 닥쳐 올 것이요。 목을 매어 죽이든지 칼로 베어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일께요。 포은처럼 철퇴로 쳐 죽이지는 않을상 싶소이다。」

「그러나 목은공! 이번에 들자하니 공의 자제분이…」

「오오 애비덕분에 귀양살이 하는 자식 종학이、종선이 말이오?」

「곧 풀려 온다지오?」

「풀려오는 날이 아마 숨지는 날일께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길재는、

「목은 스승님! 설마 그런일까지야 당하겠읍니까?」

하며 침통한 얼굴로 스승을 바라보았다。

「설마가 무언가? 최형 장군을 죽이고 포은을 죽인 이성계 줄을 야은은 모르는가?」

하는 이색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서리었다。

이성계는 정창군(定昌君)을 왕위에 들여 앉히고 당당한 전 임금의 아들을 신돈의 자식이라고 거짓 꾸미어 서인으로 삼고 그도 못마땅하여 죽이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깊은 한숨을 쉬며,

「이성계는 이제 앞으로 그의 왕조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없애버릴 터이니 한심한 노릇이지。」

하며 서쪽하늘을 바라보았다。 감빛 저녁노을이 어두움 속에 사라져가는 저 하늘아래에는 여조(麗朝)의 왕능(王陵)이 있는 곳이였다。

길재는 격분한 어조로

「모두가 정도전(鄭道傳)이 같은 간신 때문입니다。」

하며 주먹을 불끈 쥐다

「야은의 말이 옳소。 황초령(黃草嶺)기슭 사냥군의 아들이 성계를 역적으로 만들어 왕좌에 앉힌것도 간악 간사한 벼슬아치들이였오。」

이렇게 원천석은 말하며 잔디위에 들어 누였다。

멀리 단소 소리가 서글프게 들려왔다。

길재는 시조를 읊였다。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련가 하노라。

이 때 섬돌 아래에서 몇 사람이 오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누가 오는데。」

하는 천석의 말에 길재는

「이성계의 염탐군인지도 모릅니다。」

하며 층계 아래쪽을 내려다 보았다。

「운곡스승님! 따르는 패가 많은걸 보니 평장한 벼슬아치가 봅니다。 이리로 올라옵니다。」

하는 길재의 말에 원천석은,

「쉿! 내가 수작을 걸어보지。」

하며 시조를 읊였다。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도 추초로다。
오백년 왕업이 목적에 붙였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원천석의 시조를 받아서 화답하는 사람이 있였다。

선인교 내린물이 자하동에 흐르니、
반천년 왕업이 물소리 뿐이로다。
아희야 고국흥망을 물어무삼하리요。

원천석은 썩 나서며 큰 소리로

「내 노래에 화답하는 사람은 삼봉(三峰)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정도전(鄭道傳)이를 삼봉이라고 부르는 이는——」

「듣던 소리도 같고 안듣던 소리도 같지 않은가? 아하! 그때는 하루도 못 만나면 서로 찾고、한 때만 눈에 안 띄어도 안타까이 찾아다녔거니——」

「그대는 누구인가?」

저편의 음성은 약간 높았다。

「따르는 무리를 물리치라。이씨왕조에 크게 감투를 쓴 정도전이의 목을 벨 사람은 여기엔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 편의 강경한 태도에 저편 사람은、

「여봐라 너희들 아래로 내려가 기다리고 있거라。」

하고 따르는 무리를 물리쳤다。

원천석은 침착한 태도로

「정도전! 자네는 목은 스승님 문하에서 사서를 외우고 삼경을 읽던 정몽주、이숭인、이존오、김구용이를 알 상 싶은데……」

하는 말에 떨리는 음성으로、

「아! 그러면 자네는……」

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원천석은、

「이존오는 일찍이 요승 신돈이의 오만무례함을 상소한 죄로 송주 석탄에 내려가 분통이 터져 죽었거니——정몽주는 이성계를 도웁지 않았으므로 축교에서 처참한 죽엄을 하였거니——김구용이도 의롭게 죽였고 이숭인도 머지 않아 죽을 것 일세。오늘까지 세상에 지탱하고 있는 누추한 몸둥이는 나 하날세나 그려!」

하며 저편 사람을 바라보았다。

「오! 자네는 운곡! 원천석이가 아닌가?」

「하하하하 몽롱한 달빛아래서도 개국일등공신(開國一等功臣) 삼도도통사(三道都統使)께서 치악산 처사를 알아보는걸 보니 이건 경천동지할 일인걸!」

「하하하하——원공! 그믐밤중인들 정도전이가 원천석이를 못알아 보겠는가? 참 오래간만일세나 그려!」

「괴이한지고! 부귀공명에 환장을 한 정도전에 대감의 눈동자만은 흐리지 않은 양 싶으니 기괴망측한 일이로다。」

정도전은 원천석의 쏘아 보는 눈을 피하여 옆에 서있는 이색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아!! 목은…… 스승님!」

「정도전! 스승이라 부르질 말고 귀양이나 보내지 마라。우리집 자식 종선이 종학이도 다 너의 공로로 유배되였다니 그 마음씨 갸륵하도다。」

「천 천만에 말씀을…… 그건、그건 곡해이십니다。」

정도전은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하였다。

「이제 앞으로 너는 내 자식을 죽이는 일에 선봉이됨을 사양치 않을 것이요 나를 처치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을 줄로 안다。」

「스스 승님! 그 그런 배은 망덕하고 흉악 무도한 일을 제가 하다니……」

매우 당황한 정도전을 옆에서 보던 원천석은 큰 소리로 호통하였다。

「닥쳐라! 네가 녹을 먹고 충성을 바치던 고려를 헌신짝같이 걷어차버리고 이성계에게 아첨하여 부귀 복락을 한껏 누리고 있는 너는 이제 앞으로 이조를 배반하고 반기를 들고 날칠날도 머지 않았느니라。」

「원천석! 너무 [illegible] 호통이 아닐까?」

「치악산 처사의 인동이 개국공신에게 지나쳤다면 너의 도도한 권세로 나를 능지처참하면 되지 않겠느냐?」

「원천석 자네는 태조대왕과의 교분을 믿고 나에게 이렇게 해도 좋을줄로 알고 있는가?」

정도전이는 발끈하고 성을 냈다。

「하하하하하 삼봉! 너의 학문이 아깝다。 너의 능한 문필과 시문으로 이조의 만세무궁과 이성계의 성덕을 찬양하는데 겨를이 없으며 그 학문, 그 지혜로서 삼척동자의 짓을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로다。」

「운곡! 원공!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서울로 오게。 태조대왕께서는 아직까지 원천석이를 잊지않고 기다리고 계시네。」

「감투를 좋아하는 놈! 내 감투까지 네가 쓰고 다니려므나!」

원천석은 주초를 치고 통곡하였다。 이색도 길재도 주초를 치며 울었다。

송악산 숲에서는 부엉이도 부엉부엉 울어댔다。

二、두문불출(杜門不出)

태백산맥이 남으로 뻗어나가다가 오대산에서 갈라져나가 원주벌을 내려다보며 우뚝 솟은 산이 치악산이다。

치악산 각림사(覺林寺)라는 절에서 좀 떠러진 곳에 원천석의 집이 있었다。

날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 책을 보던 원천석은 조반을 일찍암치 먹고、

「옥련아! 나 오늘 뒷골 좀 다녀 오겠는데 소 내다매고 시전 어제 다음을 읽게해라。」

하며 일어났다。

「네、읽겠읍니다。」

오양간에서 소가 울었다。

「소도 서방한 모양이구나。」

「네、어서 빨리 숲속으로 가자고 재촉하는 것이랍니

다。」

「하하하하 응、그럴상도 싶다。」

「아버님! 오늘은 소를 각림사 절밑에다 매려고 그럽니다。」

「응、종지、풀이 한창 먹음직 스럽게 우거졌더라。」

원천석은 책을 덮으며 딸을 내다 보았다。

「아버님! 어제는 각림사 뒤 비탈에서 아주 큰 더덕을 꽤 많이 캐왔어요。」

「응、그래? 참 잘되었구나! 할아버님 생신에 잡숫도록 물에 푹 물려서 연하게해서 올리게 해라。」

「네、그리하겠읍니다。」

옥련(玉蓮)이가 부엌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천석은 딸을 불러 세워놓고、

「그리고 할머님 약은 시간 어기지 말고 올리게하라。」

하는 말에 옥련은

「네、분부대로 하겠사오니 방심하시고 다녀오십시요。」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안심시켰다。

「저 참、옥련아! 네 오라비 밭에서 들어오거든 잊지 말고 뒷골 좀 다녀오도록 하여라。」

「오늘 서울 가신다는 도령댁 말씀이 옵니까?」

「그렇지、그렇지! 우리 딸 옥련이도 그만하면 아버지 속에 들어 앉았구나!」

「호호호호 아버님두 참。」

「하하하하」

원천석은 웃잣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대문에서 아버지를 배웅하고 들어오는 옥련이의 귀가 따겁도록 까치가 지저귀였다。

마당을 쓸던 노비가 옥련이를 바라보며

「아가씨! 오늘은 귀한 손님이 오시려나 봅니다。까치가 아주 자지러지게 우는 걸입쇼。」

하는 말에 옥련이는

「할멈두! 이 강원도 치악산 두메 산골속엘 누가 찾아 올라구?」

하며 울안 밤나무에 앉아서 지저귀는 까치를 쳐다 보았다。

「두메 산골이라두 영감마님 같으신 어른이 계신데 왜 귀한 손이 없겠읍니까?」

「아버님이 송도에 가셔서 그 쯤 하시구 오셨다니까 온다면 정도전이라도 올까?」

「작년 가을에 정도전이가 영감마님에게 똥줄이 끊어진 일 말이지요?」

「그래 그 일이야。」

「정서방이 온다해도 어디 귀한 손님입니까。원수 우환덩어리죠。」

「대궐에서는 또다시는 사람을 안 보낼께구。할멈! 사촌오빠라도 오시려나。」

까치는 아까보다도 더 자지러지게 지저귀였다。

「쇤네가 패를 보니까 남정네는 틀림없는데…… 그렇지 그렇지、아가씨! 밤나무골 도령님이 글을 지러 올찌도 모릅니다요。」

「호호호호 할멈두! 왜 하필 밤나무골 도령을 끌어다 댈까?」

「끌어다 대는게 아니라 점괘가 그렇게 나온거죠。」

「할멈이 언제부터 점쟁이가 됐지?」

「호호호호 아가씨 점은 그만두고라도 밤나무골 도령이야 그만하면 급제입죠。인물 좋겠다。글 잘하겠다。게다가 가문이 좋겠다。영감마님께서도 글이 제일 용하고 기특한 도령이라고 전번 시회에서도 칭찬이 자자하시던 걸입쇼。」

노비(老婢)는 마당끝에 비를 세우고 옥련이가 있는 마루끝에 걸터 앉았다。

「할멈! 글을 잘해서 이성계의 새나라 벼슬이나 꿈꾸고 있는 사람은 난 진정이지 싫어。」

「밤나무골댁도 두분동댁의 하나인가 본데 충신의 집에 어찌 역적 간신이 나올라구요。」

「정도전이 같은 사람도 있지 않아。」

「그런 사람이야 어디 흔합니까? 쌀에 뉘 섞이듯 혹간 가다가 드문드문 있는겁죠。」

한참 조용하더니 까치가 다시 지저귀였다。

「꼭 옵니다。꼭와요。아가씨도 오늘은 곱게 단장을 좀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젊은 상전과 늙은 계집종은 배를 움켜 쥐고 한바탕 웃어 댔다。

오양간에서 소가 「음매ㅣ」하고 울였다。정녕 먹음직스럽게 우거진 수풀이 그리운 모양이다。

옥련이는 생그레 웃으며 오양간에서 소를 끌어내어 고삐를 잡고 「이려! 쯔쯔쯔 이려! 이려!」하며 대문간으로 나갔다。서내에서 결레를 빨아가지고 들어오던 노비가

「각림사 수풀로 가시는 갑죠?」

하는 말에 옥련이는

「응、곧 매고 올께 약탕관 좀 들여다 보고 있어。」

하며 방그레 웃였다。

「조심해 다녀오세요。」

노비는 숲속으로 들어가는 옥련이의 뒷모양을 배웅하고 안으로 들어왔다。

여러 산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에 섞이여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만이 들리는 산속은 고요하였다。

옥련이가 시내를 건느다가 소에게 물을 먹이고 있으려니까 원천석이 언덕 아래서 올라왔다.

「어쩌면! 아버지! 왜 도루오셔요。」

「응、저 옥련아! 사랑방 좀 치워 놨니?」

「그러믄요。식전에 깨끗이 치워 논걸요뭐!」

「잠간만 집에 다녀가거라。」

「누가 오시나요?」

「응、귀한 손님이 오신다。」

「귀한 손님이 누구얘요 아버지!」 대문 앞에 나왔던 노비가 입을 연다。

「영감마님! 귀한 손님이 오셨지요?」

「응、귀한 손님이고 말구!」

「밤나무골에서 오셨는갑쇼?」

「아냐、좀 먼데서 왔어。왜 할멈두 잘 알지 않어? 그때두 한번 다녀간 야운이라구!」

「아버님! 길재 선생님께서 행차하셨군요。」

「응、 그래 길재가 뜻밖에 날 찾아 왔구나。」

말방울 소리가 절렁거리며 언덕아래서 길재가 나귀를 타고 올라 왔다。

「아버님! 원로에 나귀를 타시고……」

「경마도 없이 왔더라。어서 사랑방으로 모셔라。」

「네。」

「아가씨! 소는 천네가 갔다 매구 옵죠。」

「그럼 그렇게해。할멈! 각립사 밑에 마당바위 밑 윗쪽으로 매게해。알겠지?」

「네、네、압니다。알아요。이려! 이려! 쯔쯔쯔…。」

노비는 소를 몰고 숲속으로 들어가고 옥련이는 길재를 맞으려 언덕으로 내려갔다。

옥련이는 나귀에서 내리는 길재에게

「야은 선생님! 원로에 얼마나 피곤하시겠읍니까?」

하고 인사를 하였다。

「음、괜찮다。네가 옥련이라고 했지?」

「그려하옵니다。」

「퍽 컸구나。아주 몰라보게 컸다。그때 논어를 읽고 있더니 지금은 어디까지 읽었느냐?」

「네、무얼 아옵니까만은 삼경을 외운 뒤 사서를 읽고 있읍니다。」

「흠! 기특하다。」

「어서 사랑으로 들어가시지요。」

「오냐 걱정마라。시냇물에서 세수를 좀 하고 올라가지。」

「그려하옵니까。저 큰 바위 모퉁이가 험하옵니다。옥련이는 길재의 잡은 고삐를 옮겨 잡았다。」

「저 바위 쯤이야 걱어봤으니까 걱정없다。」

「그러하옵니까。조심해 다녀 오십시요。」

길재는 시냇가로 내려가고 옥련이는 나귀를 끌고 집으로 들어갔다。

원천석과 길재는 거의 일년만에 자리를 같이하여 앉았다。원천석、이색、길재가 송도에서 만나 만월대 주초돌을 치고 통곡한 것도 벌써 지난해 가을의 일이였다。

「야은! 위급한 일이라도 생겼는가? 원천석은 길재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운곡 스승님! 슬픈 소식을 전해 드리겠읍니다。」

하고 말하는 길재의 얼굴에는 자못 비장한 물결이 구비쳤다。

「슬픈 소식이라니? 그럼 급기야 일을 당하고 말았는가?」

「네、눈으로 볼 수없는 처참한 일을 당하였읍니다。」

하며 길재는 처참한 일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였다。

목은 이색은 태조 이성계와 친분이 있던 관계로 여러차례 이성계가 귀하게 쓰려고 이색의 입조를 간청하였으나 굳이 거절하였다。

그 죄로 여러 해 귀양살이에서 풀려 나긴했으나 그의 아들 종학과 종선을 귀양살이에서 놓이지 못하기는 고사하고 효수한다는 소문이 자자하였였다。

얼마전에 이색의 장자 종학이가 배소에서 나오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정도전이는 흥종(興宗)이를 시켜 종학을 무참히도 때렸으나 죽지 아니하므로 목을 매여 죽인 뒤、체복사(體覆使) 황거정(黃居正)을 시켜서 이숭인(李崇仁)의 허리를 칼로 쳤으나 죽지 않으매 말위에 가로 매달아 말을 달리게하여 무참히 죽였다는 것이였다。

원천석은 긴 한숨을 쉬며

「음! 원통한 일이로다!」

하고 눈을 꾹 감았다。두 줄기의 눈물이 소리없이 주룸잡힌 얼굴을 흘러 내렸다。

「운곡 스승님! 그리고 이번에 조민수、이림、변안렬、권중화、권근、장하、이귀생 같은 사람들도 종학공과 더불어 원통한 주검을 하였읍니다。」

「위화도 회군에 공이 큰 조민수까지 죽이는 판국이니 우리들의 목숨이 아직 길군그래! 그러면 이색공의 소식은 아나?」

「네、아옵니다。목은 스승님께서는 그만……」

길재는 말끝도 아물이지 못하고 북바쳐 오르는 울음을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목은도 급기야 가고 말았네 그려!」

원천석은 아랫이로 윗입술을 지긋이 깨물었다。

길재가 말하는 목은 이색의 처참한 주검은 이러하였다。

조정에서는 목은의 주검에 대하여 여주(驪州) 청심루(淸心樓)하류 연자탄이란 여울 배위에서 실족하여 사망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은 물속에 밀어쳐 넣어 죽인 것이었다。

「그것도 정도전이란 놈의 짓일터이지。」

하는 원천석의 말에 길재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옵니다。」

하며 눈물을 씻었다。

「저의 스승도 죽이고 그 스승의 아들도 죽이고 친절한 친구도 죽이는 놈이니 앞으로 우리도 죽일 것일세。」

「그러하옵니다。 동서 두문동 일백 열 여덟 사람 알알이 살살이 뒤져내어 북망산 귀신을 만들 것입니다。」

「야운! 백번 죽을지라도 내 나라는 하나일세。」

「옳습니다。 천 번 죽어도 우리에게 두 임금은 있을 수 없읍니다。」

비장한 가운데서 두 사람사이에는 잠간동안 침묵이 흘러갔다。 이 때 방문이 열리며 노비가 들어왔다。

「영감마님! 왔읍니다。 왔어요。」

「오다니 누가 왔기에 이리 당황한고?」

「한양에서 정안군(靖安君)이 보낸 사람이랍니다요。」

「정안군! 그럼 이방원(李芳遠)이가 보낸 사람이로군。 할멈 없다고 그리게。」

「네, 깊은 산 속으로 야초를 캐러 가셨다고 하겠읍니다요。」

「의견것 말해 보내도록 해。」

천석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서리였다。

「네, 이젠 몇 번 겪어 봤더니 한성 사람 다 돌려보내는데는 능통했읍니다요。」

노비는 밖으로 나갔다。 한양서 왔다는 사람은 들안으로 들어온양 밖에서는 떠들석하는 소리가 들렸다。

「할멈 꼭 좀 만나 뵈어야 하겠소。」

「글쎄 깊은 산속으로 야초를 캐러 가셨다는데 왜 이리 여러 말씀이십니까?」

「지금 방안에서 들려나오는 음성을 내가 울밖에서 확실히 듣고 들어왔소。」

원천석은 방문을 열고 나서며

「원천석은 확실히 여기 있소이다。」

하며 한양서 온 사람을 내려다 보았다。

「운곡, 운곡공! 염치불고 하고 공을 뵈려고 불원천리 하고 치악산까지 들어왔읍니다。」

하며 한양서 온 사람은 허리를 굽히었다。

원천석은 비웃는 듯한 태도로、

「좌명공신(佐命功臣) 부원군(府院君) 박석명(朴錫命) 대감이 치악산 처사(處士) 원천석이를 만나러 오다니 괴이한 일이로다。」

하며 마루끝에 걸터 앉았다。

「정안군께서 곡 좀 뵈옵자는 분부이십니다。」

「귀하신 몸 정안군께서 땅파고 풀뜯는 원천석이를 어이 만나려는고?」

「정안군께서는 운곡 원공에게 훈도를 받은 옛 정을 잊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공의 인품과 학문을 흠앙하셔서 이번엔 곡 뵈옵고 지극한 중대지사를 의논하신다고 하시옵니다。」

박석명의 말은 간절하였다。

「안될 말이외다。박공 나보고 박공을 닮아서 이성계가 주는 벼슬을 받으란 말이요?」

「원공! 지금은 고려 왕조가 아닙니다。이태조의 은공으로 우리가 살거늘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박석명! 너는 고려 왕조의 녹을 먹다가 이성계가 나라를 빼앗은 뒤 태조의 세상이 됨에 또 다시 이조의 녹을 먹고 있지만 나는 이성계가 주는 감투를 숨이 넘어가도 쓰지 않을 것이요。능지처참을 하여도 이조의 녹은 먹지 않으련다。」

원천석은 큰 소리로 호통을 하였다。

「원공! 일의 처사는 원형이정대로 하셔야 할 줄 압니다。통촉하시옵소서。」

하고 박석명은 또 한번 허리를 굽히었다。

원천석은 벌떡 일어서며 큰 소리로、

「가거라! 나도 너같이 이조에 허리를 굽히고 비굴하게 살란 말이냐?」

하며 주먹을 부르쥐었다。

박석명은 원천석 등용의 공로를 세우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눈물을 먹음고 한양으로 돌아갔다。

이조 오백년의 역사의 아침은 골육 상쟁으로 시작 되었으니 이성계의 왕위 계승부당성이 원인으로 하여 태조 칠년에 정도전의 난에서 방원은 이복 동생되는 방석(芳碩) 방번(芳蕃)을 죽이게 됨에 태조는 둘째 왕자 방과(芳果)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함흥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

정종 이년에는 왕자의 난、소위 방간의 난이 일어나 방원은 이것을 평정하고 왕위를 물려받아 왕위에 오르니 이가 곧 태종(太宗)인 것이다。

三、태종대(太宗臺)유래

산골의 해는 날래 저물었다。 앞산에 해가 떴는가 하면 어느 사이에 뒷산 봉우리로 넘어갔다。

각림사(覺林寺)의 저녁 재를 울리는 종소리가 울려왔다。

「아버님이 왜 이리 늦으시는지 모르겠어。」

하는 옥련의 말에 노비는 벙글벙글 웃으며、

「오늘은 아마 밤나무골 도령님하고의 혼담을 끝장을 내시고 오시려나 봅니다。」

한다。 옥련은 미소를 띠우고、

「할멈두! 무얼 그럴라구……。」

하며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 때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며 바둑이가 쿼어 들어왔다。

「어머나! 우리 바둑이가 왔네。」

하며 옥련은 바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노비는 일어나며

「바둑이가 혼자 올린 없고 아마 영감마님께서 오시는가 보군요。」

하고 대문간을 내다 보았다。

밖에서 소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

「할멈! 저게 웬 소 울음소릴까?」

「웬 소라니요。 이 골에 우리 소밖에 또 있읍니까요。」

노비가 대문간으로 나가자 원천석이 소를 몰고 들어왔다。

「할멈! 소 좀 들여 매게하지。」

「예、예、안녕히 다녀 오셨읍니까?」

「아버님! 안녕히 다녀 오셨읍니까?」

「오냐。 네 오라비는 아직 밭에서 안 들어왔구나。」

「해가 기울였으니까 곧 들어올겝니다。」

원천석은 얼마간 긴장한 표정으로、

「아가! 방원이가 원주에 왔다는구나。」

하며 장죽에 담배를 담는다。

「이 드메 산골엔 무엇하러 왔을까요?」

「방원이가 지혜있는 사람이라 왕의 자리를 차지한 뒤에 민심을 다잡으려고 나라안을 다 순찰하는 모양이다。」

원천석이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바둑이 짖는 소리가 나며 노비가 문밖에서 들어왔다。

「영감마님! 왔읍니다。 왔어요。」

「오다니 누가 왔단 말인고?」

「그 때 왔던 이방원이 심부름군이 또 왔아와요。」

「응、 작년경이가 왔군그래。」

「그사람이 대문간에 들어옵니다요。」

「그녀석이 무엇하러 또 왔어。」

천석이 뜰아래로 내려서려고 할 때 박석명이가 뜰안으로 들어왔다。

「상감마마의 거동이십니다。」

「원주에 왔다는 말 들었소이다。」

「여기까지 거동하셨읍니다。」

「여기까지? 자네가 드디어 공로를 세웠네 그려!」

「대문밖 시냇가 큰 바위위에서 쉬시고 계십니다。 어서 나가시지요。」

박석명은 천석은 나가서 상감마마를 뵈올것을 지극히 권하였다。

「나는 만날 수 없소。」

「오직 원공 한분을 만나 보시려고 황공하옵게도 이 험로에 친히 거동하신게 아닙니까?」

「연전에 당신이 왔을때도 내가 딱 잘라 말하지 않았소? 이방원이가 정안군이되고 정안군이 다시 금상의 자리에 올랐다해도 나의 절의는 한결같소。」

원천석의 음성은 열마간 컸다。

「백성되고 신하된자의 도리가 있지 않을까요。」

박석명의 소리는 높았다。

「나는 고려의 백성이요 여조의 신하다。 너는 두 임금을 섬겨서 부귀 공명을 누리는 것이 도리일는지 몰라도 나는 초근 목피를 씹으면서라도 이조의 임금은 섬기지 않을테이다。」

하고 원천석은 크게 외쳤다。

「깊이 통찰하심을 재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는 박석명의 말에 원천석은 대꾸도 안하고 옥련을 향하여 말하였다。

「아가 네 오라비가 몹시 늦는구나。 아버지와 함께 뒷골까지 가 보련?」

「네、 모시고 가겠읍니다。」

「박공! 공의 정성은 지극하오마는 치악산 초막에서 늙으신 양친을 모시고 풀을 뜯고 있는 원천석이의 심중도 한번 깊이 헤아려보기를 바라오。」

원천석은 박석명을 뜰안에 남겨 둔채 뒷문으로 나갔다。

이윽고 박석명 혼자만이 태종이 앉아 있는 큰 바위로 갔다。

「어인 일로 경 혼자만 왔는고?」

태종은 눈이 휘둥그래져서 말하였다。 깊은 산속으로 야초를 캐러 갔다 하옵는데 금명간 돌아오기 어렵다고 집을 지키는 늙은 계집종이 말하옵나이다。」

「내가 친히 찾아와도 안만나 주다니 섭섭한 마음 그지 없도다。」

「오만 무례하기 짝이 없사옵나이다。」

「운곡 원천석은 짐의 나이 어릴때 스승이로다。 고러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끝까지 절의를 지켜서 이조의 녹을 아니 먹으려고 하는 그 심사가 갸륵하도다。」

「황공하옵기 그지 없나이다。」

「노비를 불러오게 해라。」

「바로 대문밖에 서있사온데 곧 대령하도록 하겠나이다。」

박석명은 곧 노비를 데리고 큰 바위로 돌아왔다。

「대령하였나이다。」

「네가 원천석의 집 종이냐?」

「늙도록 모시고 있사옵나이다。」

「천석 모의 병은 어떤고?」

「하도 오랜 병이오라 별별 약을 다 써보았으나 백약이 무효인가 하나이다。」

「네 주인은 약을 캐러 갔다구?」

「야 약이오니까? 네、네、깊고 깊은 산중으로 아가씨까지 가셨사온데 아마 며칠 걸릴상 싶사옵나이다。」

노비는 땅에 엎드리어 이마를 조아리며 당황히 말하였다。

노비를 내려다보던 태종은 지긋이 눈을 감고 길게 한숨을 지었다。

「그렇다! 운곡은 나의 스승일뿐 이지 신하는 아니다。 여봐라! 이 늙은이에게 금품을 후하게 내려라。」

태종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이 바위에서 내려왔다。

태종은 황감색 저녁노을에 고웁게 물들은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각림사 골짝이를 내려와 치악산을 하직하고 원주로 향하였다。

원주 치악산 각림사 옆에 있는 태종이 앉아서 원천석을 기다렸다는 큰 바위를 그 뒤의 사람들은 태종대(太宗臺)라고 불렀다고 한다。

(끝)

(언)

◇ 사람마다 오래살기를 원하나 늙기는 바라지 않는다。

◇ 훌륭한 법률가는 괴로운 이웃이다。

◇ 현명한 사람도 바보에게 배울 것이 있다。

◇ 논쟁이 지나치면 진리를 잃는다。

(금)

◇ 우정은 혈족보다 강하다。

〈번역단편〉

밝혀진 등불

오·헨리 原作

물론 세상사(世上事)에는 양면이 있는 것이다。그 이면을 들여다 보자는 것이다。우리들은「숍·껄」(Shop-girls=여점원)이란 말을 가끔 듣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지를 않는다。백화점에서 일하면서 거기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째서 그들의 직장이 형용사로 나붙어야 하느냐 말이다。공평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五번가의 주택지에 사는 여자들을「결혼녀」(Marriage-grils)라고 부르지는 않는게 아니냐。

「루」와「낸시」는 학교동창이었다。고향에서는 돈벌이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도회지로 나와 직장을 구하는 판이었다。「낸시」는 열아홉,「루」는 스무살로서 둘 모두 예쁘고 활발한 시골 처녀였으나 그렇다고 배우가 되고 싶은 욕심은 조금도 없었다。

하느님이 도우셨든지 값싸고 그럴듯한 하숙집을 그녀

들은 얻어 들었다。 그리고 직장을 얻어서 월급쟁이가 되었다。 그로부터 여섯달이 지난 오늘、나는 독자여러분을 그들에게 소개코자 하는 것이다。 자—— 독자 여러분 여기 제 여자친구、「낸시」양과 「루」양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악수를 하는 동안 조심스레 그녀들의 옷깝시를 살펴보시기를。 그녀들은 곡마단의 특별지정석에 앉은 숙녀만큼이나 자기네를 살펴보는 것에 화를 낼 것이다。

「루」는 세탁소의 대림질꾼이다。 어울리지 않는 자주빛 양복에다 모자 깃은 또 넥푼이나 길죽하다。 허지만 「아ㅣ민」가죽 토시와 목도리만은 이십오불 짜리다。 그녀의 빰은 불그스레 하고 푸른 눈은 빛난다。 만족감 비슷한 어떤 것이 그녀로부터 풍겨나오는 것이다。

「낸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습관이 붙어있으므로 그녀를 「여점원」이라고 부를 것이다。 거기에는 틀(型)이란 것이 없는 것이다。 허나 괴팍한 현세대는 자구 틀(型)을 추구하려고 들므로 어차피 그것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녀는 뒷머리를 바짝 올려부치고 앞머리는 지나치게 일직선으로 다듬었다。 치마는 값싼 모직물이지만 멋있게 퍼져있다。 아직 쌀쌀한 봄날씨인데도 털목도리하나 둘르지 않았지만 짧막하고 품넓은 『잠켓트』를 마치 「페르샤」산 양가죽이나 되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걸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나 눈동자에는 전형적인 여점원의 냉혹한 「타잎」추구적 기질이 어려 있다。 그것은 잔잔한 것 같지만 실은 무위(無爲)의 여자기질에 대한 오만한 항거인 것이며 또한 닥쳐올 복수의 서글픈 예언이기도한 것이다。 그녀가 깔깔거리고 웃을 때에도 그 기질은 살아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그것은 남성을 뇌살시켜야만 되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남성은 그 앞에서 능글맞게 웃고 또 거기에다 꽃다발까지 받치는 법을 알아 왔다。

이제 독자 여러분께서 「또 뵙겠어요」라는 쾌활한 「루」의 인사를 받고 또 좀 섭섭한 눈치를 보이면서 훤나뱅이 모양 필적필적 날뛰는 「낸시」의 냉소적이면서 달콤한 미소를 보셨거들랑 모자를 드시고 자리를 뜨십시요。

그 두녀는 길모퉁이에 서서 「댄」을 기다리었다。 「댄」은 「루」의 착실한 남자친구인 것이다。

『춥지 않니、「낸시」?』 「루」는 말했다。

『이봐、일주일에 겨우 팔불 벌려고 그 남아빠진 상점에서 일하고 있으니 그거 얼마나 바보짓이냐? 물론 대리미질이란 것이 계산대뒤에 서서 「레이스」를 파는 일만큼 멋진 것은 아니겠지。 허지만 그만한 대가가 있겨든。 우리들 중에 십불도 못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단 팀이야。 그리고 그 일이란게 그렇게 천한 것두 아니구 말야。』

『너는 그럴테지、난 한주일에 팔불짜리를 버틸테야。값진 물건들과 대단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는게 난 더 좋아。그리고 생각해봐、얼마나 좋은 기회를 내가 얻었는가를。장갑파는 애의 하나는 「펫츠버크」의 철광업자와 결혼해서 백만장자가 되었단 말이야。나도 언제든 한번 명을 잡을꺼야。난 지금 내 결치레를 허풍떠는게 아니야。행운이 깃들은 기회를 붙잡으려는 것이야。너희들은 세탁소에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다니?』

『왜 없니?「댄」을 만난곳도 거긴데。』

「루」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는 일요일 샤쓰와 칼라를 대리러고 들어와서 내가 일번대(臺)에서 대리미질하고 있는 것을 보았단 말야。우리들은 일번대에서 일하려고 모두 애쓰고 있어。「엘라」가 그날은 아팠거든。그래서 내가 대신 그애 자리에 갔던거지。그이가 말하는데 자기는 얼마나 통통하고 흰 팔이냐 하고 첫눈에 내팔에 눈독을 들였다는 거야。난 소매를 걷어 부치고 있었지。멋진 양반들도 가끔 세탁소에 들어오지。옷을 옷상자에 넣으라는둥 문을 쾅 잡아다니라는둥 그들과 얘기할수도 있어。』

『넌 어쩌면 이런 쪼끄를 입고 있니、「루」야? 이건 아주 보기 사나운데。』「넨시」는 두꺼운 눈까풀에 경멸의 빛을 띄우고 조끼를 내려다 보면서 말하였다。

『이 조끼말이냐!』「루」는 화가 치밀어 눈을 활짝 뜨면서 지껴렸다。

『이거 십육불 주고 산거다。원은 이십오불 짜리지。어느 부인이 세탁해 달라고 이걸 가져 왔어。한데 찾아 가지를 않았어。그래 주인이 내께 팔았지。이것은 온통 손으로 수(繡)놓은 것이야。네가 입고 있는 그 볼품없고 천한 거나 얘기하는게 더 나을거야。』

『이 볼품없고 천한 옷은 말이야、』 이번에는 「넨시」가 침착하게 대꾸하였다。

『그래뵈두 「반 알스타인 펫셔」부인이 입고 있는 옷중에서 본뜬 거라누。작년 그녀의 백화점 계산서는 일만이천불이라고 하드군。이 옷은 내가 손수 만들었지。일불오십선 들였어。암만 바짝 닥아서 봐도 넌 그녀의 것과 이것을 분간할수야 없지。』

『야 그래……』 이번에는 「루」가 상냥하게 말하였다。

『만일 굶어죽으면서도 허풍을 입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허지만 난 내일터와 삯돈을 취하겠어。너는 이제 얼마 뒤에 내가 살수 있는 멋진 물건이나 내 놓아라。』

바로 그때 「댄」이 왔다。 그는 기성(旣成) 「넥타이」를 맨 좀 신중한 청년으로 도회지의 경박한 분위기를 초탈한 사나이였다。전기기술자로서 주(週)당 삼십불을 벌었다。그는 「로미오」와 같은 서글픈 눈으로 「루」를 물끄럼

이 바라보고는 수가 놓인 그녀의 조끼를 파리들이 기꺼히 뛰어드는 거미줄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였다.

『「오웬스」씨 「랜포드」양과 악수하세요.』「루」가 말하였다.

『당신을 알게돼서 무척 기쁩니다. 「랜포드」양。「루」에게서 당신얘기 자주 들었읍니다。』「랜」이 말하였다.

『감사합니다。「루」가 당신 얘기하는 거 저도 많이 들었어요。』「넨시」는 차거운 손가락 끝으로 그의 손가락을 쥐면서 이렇게 말하였다。「루」는 껄껄거렸다.

『너 「반 알스타인 펫셔」부인에게서 그런 악수 배웠니, 「넨시」야?』 그녀는 물었다.

『내가 만일 그랬다면 넌 그걸 모방하려고 할테지。』

『오ㅣ 난 그런거 해보지 않았어。그건 내께는 너무 멋진 것이야。그런 고급악수에는 보석반지가 필요하지。몇 개 살때 까지 기다려。그때에 한번 그런 악수 해보지。』

『먼저 배워둬。그러면 반지도 더 쉽게 생길테지。』「넨시」가 빈틈없이 말하였다.

『자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의를 하나 하겠읍니다。』라고 「랜」은 협쾌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두분을 「티파니」의 연극에 모실수는 없고…… 찰막한 희극에 가는것 어떻습니까? 표도 있는데요。진짜보석반지를 낀 손과 악수할수 없는 처지이고 보니 무대위에 번쩍이는 보석들을 바라보는 건 어떠하신지?』

이 충실한 신사는 맨가장자리에 자리를 잡았다。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루」는 공작새 마냥 뽐내면서 그곁에 앉고, 참새마냥 검소하고 수수하게 차린 「넨시」는 그 안쪽에 자리를 차지했다。허지만 그녀는 「반 알스타인 펫셔」부인의 결음결이를 잊지 않았다。이리하여 그들은 검소한 오후의 유흥에 잠기는 것이였다.

태백화점을 교육기관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그렇지만 「넨시」가 일하고 있는 백화점은 그녀에게 하나의 교육기관인 것이다。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에서는 아치(雅致)와 정련(精鍊)이 풍겨나오고 있다。당신이 만일 사치품(奢侈品)속에서 살아간다면 당신이 돈을 내고 사던 다른이가 사던 그것은 당신의 것인 것이다.

그녀가 접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가 부녀자로서 그들의 의상(衣裳)이나 태도나 사회적 신분은 표준형으로 알려져 있다。「넨시」는 자기 의견에 따라 가장 좋은 점을 그들 하나하나로 부터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느 여인으로부터는 행동이나 「제스츄어」를, 또 다른 여인으로부터는 눈섭을 치키면서 하는 웅변술을 배우며 또 어느 여인으로부터는 결음결이랑 지갑을 지니는 방법, 미소짓는 법, 친구와 인사하는 법 또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과 이야기하는 법 등을 모방하는 것이다。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모델」인 「반 알스타인 핏셔」부인에게서는 부드러웁고 낮으면서도 은(銀)처럼 명확한 음성과 완전한 발음을 배우는 것이다。이러한 상류사회의 세련과 예의범절에 젖어들므로 그녀가 그 영향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좋은 습성은 이론보다 더 낫다는 말과 같이 아마 좋은 태도나 행동양식은 습성보다도 더욱 좋을 것이다。부모가 가르친다 하더라도 순교도의 양심은 당신 속에 살아 있지 않을 것이지만 만일 당신이 곧곧한 나무의자에 앉아서 「프리즘과 필그림」이라는 말을 마흔번만 외운다면 악마는 당신에게서 살아져 버릴 것이다。그와같이 「넨시」가 「반 알스타인 핏셔」의 음성으로 이야기 할 때면 그녀는 「귀족신분적 의무감」을 뼈속 깊이 느끼는 것이었다。

이 거대한 백화점학교에게는 또 다른 배움의 원천이 있었다。셋 혹은 넷씩 떼를 지어 모여서 여점원들이 시시한 얘기에 맞추어 최팔찌를 짤랑거리는 것을 보더라도 당신은 그들이 무슨 뒷머리 틀어올리는 법을 숙덕거리려고 모였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기를。비록 그회합이 남성에 대한 토론의 권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담」으로하여금 가정에 있어서의 그의 적당한 위치를 알아 차리도록 하기 위해 「이브」와 그만딸이 머리를 맞대고 소근소근하였던 그러한 중대한 사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그것은 『무대와 남성과 관중들로 이루어진 세상에 대한 공격과 반격에 대해 공동방위와 전략이론을 교환하는 부인회』인 것이다。허지만 사슴의 우아(優雅)함을 지녔으면서 그 신속함을 갖지 못했으며 새와 같은 아름다움을 지녔으되 그 날르는 힘을 갖지 못했고 또 꿀벌처럼 달콤한 것을 지녔으되…… 아、이러한 적유(直喩)는 집어 치웁시다。우리들 중에 누가 쏘였을지도 모르니까。여하튼 이를듯 동물가운데 제일 무력한 것이 여인。

이 전략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그녀들은 무기를 서로 주고 받으며 또 각기생활 전술에서 창안 형성한 책략(策略)을 교환하는 것이다。

갈색 흑색 황갈색 붉은색 황색등의 머리들이 모이고 그려면 문제는 해결된다。공통의 적(敵)인 남성과의 전투에서 각자가 앞으로 이용할 기습에 대한 회피책이 마련되어 지는 것이다。

이렇듯 「넨시」는 방위술(防衛術)을 배운다。물론 여인에게는 성공적인 방위가 승리를 뜻하는 것이다。

백화점의 강의과목은 다방면에 걸쳐 있다。어떠한 대학이라도 행운의 결혼을 꿈꾸는 그녀의 야망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백화점에서의 그녀의 자리 또한 마음에 드는 곳이다。

음악 감상실이 가까히 있어서 유명한 작곡가의 작품을 늘 들으며 거기에 정통할수가 있는 것이였다。 이것은 그녀가 몹시도 발 부치려고 애쓰고 있는 사교계에서도 그 진가(眞價)가 인정되는 것이다。

다른 소녀들은 「넨시」의 야망(野望)을 곧 알아 차렸다。 그렇듯한 남자가 그녀의 「카운터」에 닥아 올때마다 그들은 그녀를 부르는 것이 였다。 『얘、「넨시」야 네 백만장자가 오신다。』 부인들이 물건을 사는 동안 그들의 남자들은 보통 손수건부 근방을 어슬렁 거리는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있다。 교양이 높은체 꾸미는 데다가 우아(優雅)한 미를 지녔으니 「넨시」가 인기를 끌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므로 뭇 남자들이 그녀의 앞에 와서 호의를 보여 주는 것이였다。 어떤 이는 정말 백만장자일테지만 백만장자인체 기가막히게 꾸미는 사람도 많았다。 「넨시」는 이것을 구별할줄 알게 되였다。 손수건부 「카운터」끝으로 창이 하나 있어서 길에 줄지어 있는 물건사려온 사람들의 차(車)를 내려다 볼수 있는 것이다。 주인에 따라서 그 자동차도 다르다는 것을 그녀는 알아차리게 되였던 것이다。

한번은 멋쟁이 신사 한분이 네 「타스」나 되는 손수건을 사겨니 「카운터」 사이로 그녀에게 치근거려왔다。 그남자가 가버리자 한 소녀가 말하였다。

『아니、그양반 한테 그렇게 살살하다니、「넨시」야 너 웬일이야? 내가 보기엔 멋있던데。』

『그이가?』 「넨시」는 냉소적이면서도 달콤한 「반 알스타인 핏셔」부인의 미소를 지으면서 대꾸했다。

『내것은 못되。 그가 운전하는걸 밖에서 본적이 있지。 자동차도 억망인데다가 「아이랜드」태생의 운전수야! 더군다나 어떤 손수건을 사갔는지 너도 봤잖아? 명주손수건! 권할려면 좀 똑똑한 걸 권하구 그렇잖음 그만둬、제발。』

백화점안에서 가장 「세련된」여인으로서 문전안내인(門前案內人)과 출납계 여인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멋진 신사친구」가 몇몇 있어서 가끔 함께 식사를 나누곤 하였다。 한번은 「넨시」를 자기들 초대에 데리고 갔었다。 그것은 일류의 카페였는데 식탁은 벌써 「신년축하파ー티」를 위해 계약되어 있었다。 두 「신사친구」중의 하나는 고등생활 덕택에 머리에는 머리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친구였고 또 하나는 자기 재산과 됨됨이를 두가지 그렇듯한 방법으로 돌어내려는 젊은친구였다。 즉 그는 술이란 술은 모두、「콜크」마개를 하였다고 욕지거리를 하였으며 또 보석 「카프스」단추를 달고 있었다。 이 젊은 친구가 「넨시」에게 홀딱 반해 버렸다。 그는 원래 여점원에게 취미를 갖고 있었는데 여점원이라는 신분에서 나오는 매력

에다가 자기와 같은 상류사회의 음성과 태도를 깃들인 「넨시」가 나타난 것이였다。 그리하여 그 다음날 이 신사는 백화점에 나타나서 「아이랜드」산 「린넨」손수건 상자 넬여로 그녀에게 신중한 청혼(請婚)을 하였다。 「넨시」는 거절하였다。 갈색 트레머리 처녀하나가 멀찍이서 이 광경을 보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신사가 거절당해서 가버리자 그처녀는 「넨시」에게 일장의 훈시를 퍼부었다。

『이 매친 꼬마 바보야! 그양반은 백만장자야——「반스키틀스」노인의 친 족하거든。 그리고 아까는 정색으로 애기하던데。 더 미쳤니、「넨시」야?』

『내가?』「넨시」가 말하였다。『난 응낙하지를 않았던거지——그는 절대로 백만장자가 못돼。 집에서 그에게 쓰라고 주는 돈은 일년에 이만불밖에 안되거든。 그 대머리 양반이 그걸 가지고 며칠 전날밤에 그에게 놀렸는 거야。』

갈색 트레머리 처녀는 한발작 더 닥아 오면서 눈쌀을 찌프렸다。

『넌 도대체 뭘 바라는 거야? 그게 너에게 넉넉치 못하다는 거야? 일부다처주의자가 되여서 「럭펠러」와 「그랫든스톤 두위」—」 그리고 서반아의 왕과 결혼할 셈이냐? 일년에 이만불이 네게는 부족한거야?』

「넨시」는 천박한 눈동자들의 주시를 보고 다소 얼굴을 붉혔다。

『돈이 전부가 아니야、「캐리」야。』 그녀는 설명했다。『언젠가 저녁식사를 나누면서 그는 지독한 거짓말을 한 탓으로 그 이의 친구에게 다까세웠었지。 난 거짓말 쟁이는 못참어。 모든면에서 난 그이를 좋와 안해。 그거지。 난 한몫보려고 노리고 있지만 그건 작난감 전반처럼 소리내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일수 있을 거야。』

이 콧대 높은 생각을 「넨시」는 주당(週當) 팔불로서 키워나가는 것이였다。 말라빠진 빵을 먹으며 매일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그녀는 「한몫」이라는 알수없는 행운을 그리면서 지내는 것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숙명적인 「남자탐색가」다운 핏기 없으면서 놈늠하고 또 달콤하고도 냉엄한 미소가 어리는 것이였다。 백화점은 그녀의 사냥터이어서 여러번 그녀는 뿔이 크고 큼직한 듯한 사냥감에 총을 거누는 것이였으나 여사냥꾼의、아니 여자로서의 실수 안하려는 본능때문에 늘 그녀는 총을 못쏘고 다시 수색을 계속하는 것이였다。

세탁소에서 일하는 「루」는 꽃이 피였다。 일주일에 십팔불 오십전 받는 것에서 하숙방값으로 육불을 낸다。 그나머지는 주로 옷사는데 나간다。 취미나 몸가짐을 향상시키는 기회는 「넨시」에 비해 적었다。 김이 서린 세탁소에는 일밖에 없었다。 일과 저녁때 돌길 생각뿐이였다。 값

나가고 그럴듯한 많은 청년이 그녀의 다리미밑을 거쳤다。 옷에 대해 그녀가 취미를 더해가는 것은 아마 이러한 덕택에서 일 것이다。

할루종일의 일이 끝나면 「덴」은 밖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는 그녀가 어떠한 불빛에 서던지 충실한 그녀의 그림자가 되였다。

그는 가끔 정직하고도 날처한 눈으로 요란한 「룬」의 옷을 바라보는 것이였으나 이것이 불신(不信)은 아닌 것이였다。 그는 길거리의 사람들이 그녀에게 던지는 눈총을 피했으면 했을 뿐이였다。

그리고 「루」도 그에게 그만큼 성실하지 않은것이 아니였다。 초풍을 갈때에는 언제나 「넨시」도 그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법칙을 세웠다。 「덴」은 그 커다란 경비를 기꺼히 부담하였다。 날씬하지만 기성복 기성「넥타이」에 실수를 모르는 온화한 기지(機智)를 가진 이 호위병은 흥분하거나 충돌할 줄을 몰랐다。 그는 뻐대가 없는 온화한 사람이였기 때문에 그들이 눈앞에 있는 동안은 있는지 없는지 잊어버릴 정도고 그들이 살아지고 난 후에야 분명하게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였다。

고답적인 「넨시」의 기질로서는 이 꾸어온듯한 쾌락이 가끔 괴로운 것이였다。 허지만 그녀는 젊었다。 젊은이는 미식가가 될수 없는바에는 차라리 대식가가 되는 것이다。

『「덴」은 내가 자기와 곧 결혼해주기를 늘 바라고 있어。 허지만 내가 왜 그래야만 되느냐 말야。 난 지금 독립해서 살아나갈 수 있지。 내가 벌에서 돈을 쓸수있다면 결혼할 수도 있어。 허지만 그는 결혼후에 일하라고 내버려두지는 않을거야。 그런데 「넨시」야、넌 어쩌자구 그 낡아빠진 백화점에 딱 붙어있는 거야? 반은 굶고 웃도 제대로 못입으면서。 네가 오기만 한다면 난 세탁소에 네 일터 하나를 곧 얻을수 있어。 돈좀 벌어보면 네 콧대도 좀 낮아지리라고 난 보는데。』

『내 콧대가 세다고 난 생각지 않아。』 「넨시」가 말하였다。 『허지만 반 굶더라도 난 백화점에 그대로 있을테야。 언제나 「카운터」뒤에만 서있으란 법은 없지。 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 늘 세련되고 돈많은 사람과 상대하고 있는 거야。 내가 비록 그들 시중을 들고 있는것 뿐이긴 하지만。 난 내곁을 지나가는 어떠한 것도 놓치지 않고 있어。』

『아직도 백만장자를 낚으려는 거야?』 하고 「루」는 웃으면서 물었다。

『아직 하나도 고르지는 못했지만 대개 물색하고 있는 중이야。』 「넨시」의 대답이였다。

『맙소사! 그들을 물색한다는 생각을 하다니! 물론 넌 농담하는 거겠지。 백만장자는 우리와 같은 직업여성

은 생각지도 않아。』

『그들이 생각지도 않는다면 정말 그들을 위해 좋은 일일꺼야。』「낸시」가 말하였다。『우리들은 그들에게 돈 간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거야。』

『만일 백만장자가 내게다 그런 얘기를 건다면 난 까므러칠거야。』하며「루」는 웃었다。

『그건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탓이지。멋쟁이와 보통사람과의 차이는 단지 네가 멋쟁이를 좀더 가까히서 보아야 한다는것 뿐이지。그 붉은 속옷은 그 양복에는 너무 밝은 색이라고 생각안돼、「루」야?』

그러자「루」는 친구의 천하고 어두운「오리브」색「작켓트」를 바라 보았다。

『아——아니。그렇게 생각안해。허지만 너야말로 이렇게 물낡은 옷을 걸치고 있구나!』

『이「작켓트」는 지난번에「반 알스타인 펫셔」부인이 입고 있던 것과 똑같이 본뜬 거라우。감사는데 삼불 구십팔전 먹혔어。그 여자의 감은 백딸라도 넘을거야。』라고「낸시」는 흐뭇해서 이야기했다。

『아 그래? 그런데 그건 아까 말한 백만장자 건(件)만큼 놀라운 일은 아닌데。너보다 내가 먼저 어떻게 하든하나 잡아챘다면 놀라운 일일테지。』

이 두친구가 내세우고 있는 이론의 가치를 판정하는데는 정말 철학자가 있어야 될 판이였다。적나나한 생을 위해 일하는 처녀들로 돌끓는 백화점에 담겨 있는 오만이나 괴팍스러운 것은 없다 하더라도「루」는 떠들석하고 숨답답한 세탁소 안에서 그녀의 다리미와 더불어 즐거웁게 살아나가는 것이였다。그녀의 수입은 안락의 지경에까지 그녀를 뒷받침해 주었다。그녀는 가끔「맨」의 미끈하지만 풍채없는 옷을 못 마땅하게 곁눈질로 보는 것이었다。「맨」은 언제나 한결같고 변함없이 탈선을 몰랐다。

「낸시」로 말하면 이것은 생판 달랐다。비단、보석「레이스」、장식품、향수、음악등 교양과 취미의 물건들은 여자를 위해서 있는 것으로 그녀의 몸에 골고루 배어 있는 것이다。만일 그러한 것들이 그녀 생활의 일부라면 그리고 그녀가 또 원한다면 그녀를 그것들과 가까히 있게 내버려두자。

이러한 분위기에「낸시」는 파묻혀 있었다。그녀는 그 가운데서 성장하였다。마음을 굳게 먹고 만족스럽게、보잘것 없는 식사를 하고 값싼 옷을 마련하는 것이였다。그녀는 이미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그리고 동물과 다름없는 남성에 대해 연구하였다。앞으로 언젠가 그녀는 자기가 원하는 사냥감을 쏘아 떨어 뜨릴 것이다。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가장 크고 좋은것 조금도 적지 않은 것이기를 그녀는 다짐하는 것이였다。

그리하여 그녀는 신랑이 오는 것을 맞아드리기 위해 그녀의 동작을 심계를 자로고 거기에 불을 켜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교훈을 그것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녀는 배웠다。 그녀의 가치기준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가끔 「딸란」표지가 그녀의 마음의 눈을 흐리게 하고 「진리」니 「명예」니 또 가끔 「친절」과 같은 글자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비슷한 예를 들어보자。 울창한 숲속에서 큰 사슴을 사냥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는 이꺼끼고 나무잎이 울창한 골짜기를 발견한다。 거기에는 작은 냇물이 졸졸 흐르면서 그에게 취어서 놀것을 조잘거린다。 그러면 이런에는 이 위대한 사냥군의 창날이 저절로 무디어져 버린다。

그래서 「넬시」는 가끔 「페르샤」의 양털이란 것도 그것을 입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지세가 맥여지는게 아닌가 의심하는 것이었다。

어느 목요일 저녁 「넬시」는 백화점을 나와 육번가를 돌아서 세탁소로 향하였다。 「루」와 「덴」과 함께 음악소극에 가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세탁소에 이르자 마침 「덴」이 거기서 나오고 있는 참이었다。 의아하고 긴장된 모습이 그의 얼굴에 어려 있었다。

『그녀에게서 무슨 말을 들었나 하고 이웃을 돌려 보려고 하는데요。』라고 그는 말하였다。

『누구의 말을요? 「루」가 거기 없어요?』 「넬시」가 물었다。

『당신은 알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여기도 안나오고 살든 집에도 없었대요。 그집에서 짐을 몽땅 옮겼어요。 아마 구라파에 갈지 모르겠다고 세탁소의 한 처녀에게 말했다는데。』

『아무도 그를 못보았대요?』 「넬시」가 물었다。

「덴」은 그의 턱을 무섭게 댕기고 검은 눈에 광채를 내면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탁소에서 말들을 하는데——』 그는 무뚝뚝하게 이야기 했다。

『그녀가 어제 자동차를 타고 지나는 것을 보았다는 거요。 백만장자와 함께。 당신과 「루」는 머리를 언제나 바쁘게 썩먹는단 말이요。』

생전 처음으로 「넬시」는 남자앞에서 겁에 떨었다。 파르르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덴」의 소매에 얹었다。

『당신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없어요, 「덴」。』 마치 내가 거기에 관련이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 그런 뜻에서 말한게 아니죠。』 「덴」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조끼주머니를 더듬었다。

『오늘밤의 「쇼」표가 여기 있는데。』 그는 아… 랑지도 않은듯 가볍게스리 이야기 했다。 『만일 당신이 원하신다면——』

「낸시」는 언제나 용감한 대담성 앞에서는 꼼짝없이 찬탄을 발하는 것이었다。

『함께 가겠어요、「댄」。』 하고 그녀는 말하였다。

「낸시」가 「루」를 다시 만난것은 그후 석달이 지나서였다。

어느날 저녁 황혼이 질 무렵 이 여점원은 조용한 작은 공원담을 끼고 급히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누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돌아서자 「루」가 그녀의 팔에 안겨들었다。 힘껏 서로 부둥켜 안은 다음 그들은 마치 뱁처럼、 달려들거나 훌려려는 듯이 그들의 머리를 뒤로 제쳤다。 그들의 날름거리는 혀바닥에는 천만가지 질문이 튕겨나오려 하고 있었다。 그러자 「루」에게 횡재가 떨어진 것을 「낸시」는 알아차렸다。 값비싼 털목도리、 번쩍이는 보석、 멋진 양복등이 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꼬마 바보야!』 「루」가 크고 다정스럽게 소리쳤다。 『네가 아직도 그 백화점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구나。 전과 똑같이 초라하게 스리——。 아니、 한몫보려던것 어찌되었누? 아직 안 걸려 들은게로구나、 그렇지?』

그러자 「루」는 횡재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이 「낸시」에게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보석보다 더욱 빛나는 것이 그녀의 눈속에 깃들고 그리고 장미꽃 보다 더 붉은색이 그녀의 뺨에 어려있으며 또 그녀의 혀끝에서 곧 튕겨나올 것 같은 어떤 것을 「루」는 알아 차렸던 것이다。

『그래、 난 아직 그 백화점에 있어。』 「낸시」의 말이다。 『허지만 내주일에는 그만 둘꺼야。 난 한 몫 본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몫을。 「루」야 너는 이젠 상관않겠지? 「댄」과 결혼하게 되였어、 「댄」과! 이젠 나의 「댄」이야— 어때 「루」야?』

새로나온 젊은 순경하나가 공원 모퉁이를 돌아 거닐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털외투를 입고 손에는 보석반지를 낀 한 부인이 죄로된 공원담에 웅크려 서서 서글피 흐느끼는데 수수하게 차린 직업여성이 그 옆에 가까히 서서 그녀를 달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못본체하고 그대로 지나쳤다。 왜냐하면 그가 갖고있는 권한으로는 어쩔수 없는 일일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아차렸기 때문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멀에 까지 소리가 들려라 하고 그의 밤단장으로 쾅쾅 보도를 두들기며 지나가는 수 밖에 없었다。

傀의 共產治下를 脫出하여 自由大韓으로 越南 歸順한
鄭落賢 上중사가 當時 着陸으로 내린 大浦里 飛行場의
MIG-15機上에서 포-즈를 取하고 있다。

코 메 트

發 行 處・空軍本部政訓監室
發行兼編輯人・空軍大領 蘇尙永
印 刷 處・空軍敎材廠
印 刷 人・空軍大領 金石桓

國軍의 날

國防部
陸軍本部
海軍本部
海兵隊司令部